

旌門으로 알아본 예산의 효행 정신

김창배 지음



정려각, 혹은 정문은 그 자체로 예산의 정신이다.

정신은 순수하고 정결함을 뜻하는 정精과 그를 움직이는 신神의 결성이다.
정신은 생명의 속성이자 본원적인 생명, 곧 본생本生의 또 다른 모습이다.

旌門으로 알아본

예산의 효행 정신

김창배
지음

旌門으로 알아본

예산의 효행 정신

김창배
지음



정려각, 혹은 정문은 그 자체로 예산의 정신이다.

정신은 순수하고 정결함을 뜻하는 정精과 그를 움직이는 신神의 결성이다.
정신은 생명의 속성이자 본원적인 생명, 곧 본생本生의 또 다른 모습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진적인 발달은 인류사회에 획일화와 보편성을 앞당겨 지역의 특수성을 약화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지역만의 정체성을 가꾸기 위해 예산문화원에서는 매년 1,100년 예산의 역사 속에 묻혀 있는 기록을 찾아 발굴하고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의 정체성과 예산의 정신을 정립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화합의 정신 매체를 만들어가는 인문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2025년에는 지방문화원 활성화 사업과 향토문화발굴 육성 지원사업으로 김창배 작가님을 통하여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했던 예산군의 효행·열녀들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자료화하게 되었습니다. 정려는 충신·효자·열녀에게 내리는 포장입니다. 현재로 말하면 정부 포상으로, 사회의 모범으로 하여 일본 정신을 함양하자는 취지로 내려졌으며, 조선 시대의 규범 법전인 경국대전에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예산군에 산재되어 있는 이러한 정려를 한데 모아 김창배 작가님의 도움으로 「정문으로 알아본 예산의 효행정신」을 발간하여 예산의 역사에서 미진했던 중요 부분을 정리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이 중의 일부는 2010년 예산문화원에서 발간되어 131명을 기록한 「예산의 인물」에도 등재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旌閭(정려)와 旌閭門(정려문)을 중심으로 45여 개의 정려를 세분해서 정리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군은 매현 윤봉길의 충, 자암 김구의 효, 추사 김정희의 예로 귀결되는 인문 정신이 곳곳에 어려 있는 인문 정신의 고장입니다. 이를 산증하듯 정려를 통해 예산의 정신을 보여주신 김창배 작가님께 진심의 감사를 전하며, 이러한 예산 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해주신 김태홍 충청남도지사님, 최재구 예산 군수님과 충남도와 예산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창배 작가님의 「정문으로 알아본 예산의 효행정신」이 인류애를 구현한 충청의 정신문화로 자리매김 하는 교과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5년 6월

예산문화원장 김태영

서문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다. 『삼국사기』에는 효를 실천한 사람에 대한 포장 기록이 있다. 755년(경덕왕14) 응천주(熊川州, 공주) 판적향板積鄉에 살았던 '향덕'은 병든 아버지를 위해 자기 허벅지를 베어냈다. 왕은 손수 의복과 물건, 음식 등을 상으로 내렸다. 조선 시대에는 국가 차원에서 삼강오륜의 윤리를 권장했다. 현존하는 문헌에는 효행을 실천한 예산의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

나는 예산군에 산재한 40여 곳의 정려각을 탐방했다. 정문을 받은 이들은 정문을 받을 만한 정절과 효를 실천했다. 정려에 기록된 사연들은 모두 애절하다. 문헌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힘들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이제 이들이 실천한 충·효·열을 되새기고 문헌 자료를 정비하고 정려각을 보존하는 일은 시급하고 중요하다. 후손이 없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정려각의 관리가 소홀하며 일부는 흉물이 되어 있었다. 이를 살펴 예산 선조들의 효행 실천의 지표인 정려각을 정비하는 일은 예산 지역의 문화재를 되살리는 일인 한편 지역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일이다.

정려각, 혹은 정문은 그 자체로 예산의 정신精神이다. 정신은 순수하고 정결함을 뜻하는 정精과 그를 움직이는 신神의 결성이다. 정신은 생명의 속성이자 본원

적인 생명, 곧 본생本生의 또 다른 모습이다. 정신의 근원은 그리하여 인체의 심장이며 심장은 육체의 일부로서 물질이다. 사람에게 심장이 멎춘다면 그는 시신이다. 그처럼 정문은 그 자체로 정신이 만들어낸 문화다. 문화의 자양분은 정신이다. 문화는 정신을 호흡하면서 산다. 정문의 문화는 그래서 살아 움직이고 변화하며 진화하는 생명체다. 정문이야말로 예산 문화재의 유품이요, 주요한 유기적 생명체의 현현顯現인 것이다. 사람은 오직 문화 속에서만 살아있는 정신을 가진 참된 사람이 된다. 이것이 이 책을 쓰고 발간하는 연유이다.

책 발간에 힘을 보태주신 최재구 예산군수, 김태영 예산문화원장, 정문 연구의 발판을 제공해 주신 신익선 문학박사, 조언을 아끼지 않은 이명재 시인께 감사드린다. 지금 발간하는 이 책이 충남교육청과 예산교육지원청, 그리고 충남도립 도서관, 예산군립도서관에 널리 보급되어 초·중·고·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

2025년 6월

평정 김창배

1. 정려문의 포장 절차와 과정 _ 014

2. 예산인의 충절과 효의 정신

① 사노비에게 정려문 내리다 _ 020

백춘복, 재개, 윤이·풍이, 유덕

② 호장·양인에게 정려문 내리다 _ 024

방맹, 최망희, 박신흥

③ 정려각 안에 효자비·열녀비 세우다 _ 035

이성만·이순 형제, 신창표씨, 현풍곽씨

④ 효자비·열녀비 도로변에 세우다 _ 044

양주조씨·진주강씨, 전근금, 이홍갑

⑤ 청주 한씨가문(효부·효자·열녀)의 삼 정려각 _ 051

공신옹주, 한신목, 경주김씨

⑥ 임금이 옹주에게 정려문(열녀문)내리다 _ 054

공신옹주, 화순옹주

화순옹주 제청전 祭廳殿의 재건립을 바란다

⑦ 임금과 암행어사에게 효의 행적을 호소하다 _ 068

추사 김정희, 박진창, 김상준·김현하 부자

- 8 효행이 남다른 현감과 선비 _ 076
정세익, 안민학, 조익, 김연근, 민희현
조극선, 최사홍, 김구, 이진은, 김수민
- 9 삽교 월산리 갑부 장윤식에게 정려문 내리다 _ 093
- 10 이각의 처가 남긴 한시 「송부출새 送夫出塞」 _ 098
- 11 여성 시인 남정일헌 南貞一軒 _ 101

3. 정문으로 알아본 효행 사례

- 1 충신 _ 108
이억, 한순, 이의배
- 2 효부 _ 117
평산신씨, 신암면 효부 유순자
- 3 부자 _ 122
김방언·김치화, 장진급·장형식
- 4 부부 _ 127
인영원·성주배씨, 신효·밀양박씨, 김의재·창원황씨
- 5 형제 _ 136
강민채·강만구, 차명징·차경징

6 후손 140

최필현·최순홍, 박희적·박기택, 조극선·조정교, 정치방·정해열

7 열녀 150

철원임씨, 한양조씨, 단양우씨, 우봉이씨, 박윤호

8 효자 174

이승유, 정학수, 박도한, 최승립, 박승휴, 이후직

이규, 이우영, 김창조, 김갑(김합), 현진묵

4. 『조선왕조실록』 등에 수록된 효행인

1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수록된 효자 204

이문경, 박충, 박원충

2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수록된 열녀 209

곽씨, 춘덕, 매읍덕

3 『조선왕조실록』에 등재된 효행자 213

김가외 형제, 김용산, 이개우, 열녀 우씨, 이사검, 보덕, 김영수 부인
신씨, 박효일 형제, 열녀 우씨, 이명준, 오명흡, 오명희, 박진태, 이병주,
장향식 부인 양씨

4 불효자로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광해군 처족 219

홍년이 심한 덕산에서 장모 잔치를 연 감사 경최
유희분의 비리를 기록한 『명조실록』

5 불효하고 부제한 자 엄히 다스린다고 보낸 전령 223

- 예산 현감이 작성한 《오산문첩》
불효 부제不孝不悌한 자를 엄히 다스리라는 전령

맺음말 230

서평

정문 旌門, 새로운 예산의 인문학 이야기 238

신익선(문학평론가·문학박사)

부록

현존하는 예산군 정려각 252

문헌에 수록된 예산군 효행 정려 255

참고문헌 259

예산의 효행 정신

— 김창배 지음

旌門으로 알아본



1

정려문의 포장 절차와 과정

1.

정려문의 포장 절차와 과정



조선 사회에서는 충·효·열의 활동이 뛰어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충신, 충노忠奴, 효녀, 효부, 열녀, 절부 따위로 일컬었다. 수시로 충·효·열을 강조하며 권장했고, 이를 실천한 사람은 포장하였다.

『경국대전』에는 예법인 유교적 윤리 가치 실천 행위 대상 조항과 규정이 있다. ‘효도·우애·절의 등 착하고 어진 행실을 실천한 자는 연말마다 예조에서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왕에게 아뢰어 당사자가 살아 있을 때는 관직을 주고, 죽은 뒤에는 생전보다 높은 관직과 관계를 내린다. 충·효·열의 행적이 뛰어난 사람을 기리기 위해 그 동네에 정문을 세워 표창 주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부역과 거두어들이는 금전을 면제한다’라는 등의 내용이다.

효행 인물의 행적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국가로부터 충효 실천에 공헌한 사람이 칭찬의 표시와 본보기로 인정받으려면 충효 열의 실적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했다. 살아 있는 인물이나 죽어서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지나서도 효행의 사례는 세상에 알려 본보기로 삼고자 했다.

지방별로 문별이 좋은 선비 집안과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 사이 칭찬이 자자하고 장

려와 권장할 당위성이 있거나, 효행 사안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 하나로 모아 토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때 후손이나 지역주민이 힘을 모아 효행 행적을 말이나 글로 올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지방관들은 정기적으로 표창자를 찾아냈다. 또한 특정 시기에 필요에 따라서 조선시대 유교에서 지켜야 할 임금은 신하 사이에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를 다하며, 아버지는 자식과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를 다하며, 지아비는 제 어머니를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를 실천한 인물이 한평생의 실천과 업적을 찾아 그 공적과 효행을 널리 세상에 알리고 칭찬했다.

충·효·열을 실천한 인물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당대의 인물이거나 살아 있을 때는 소문이나 칭송을 근거로 했다. 하지만 인물이 죽은 후 수세대가 지났으면 묘에 묻혀 있거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충효열 행적이나 고을에서 잘 다스린 공적이 대개 후손에 의해 해서 되살려지기도 했다. 이런 경우 후손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고을 사람이 따르는 덕망, 지도력, 사회경제적 지위가 크게 작용했다.

정려의 포장 절차

고을에서 인물의 평생 한 일이나 업적이 뛰어나다는 공론이 형성되면, 고을의 유림 단체나 발론자가 중심이 되어 정려 포장을 올렸다. 이 문서는 요즈음의 포상 추천서에 해당한다.

이 추천서는 대개 군내 유생들의 연명으로 군수나 현감에게 올렸다. 고을을 맡은 현감이나 군수는 이를 토대로 추천서를 작성하여 상급 기관인 관찰사에게 올렸다. 관찰사는 업무 담당 기관인 예조에 직접 말로 전하거나 문서로 전하였고 예조는 임금과 여쭈어 의논했다.

1차에 포장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보통은 두세 차례 상신을 했다. 이것이 안되면 도내 유생들에 의해서 2단계의 추천서를 관찰사에 올렸다. 관찰사의 추천서를 받은 예조는 추천서의 사실을 살피고, 왕이 예조의 청을 허락하면 포장 절차는 끝났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는 예도 있었다. 지방관이 암행어사에게 글을 올려 떠주었거나, 신하가 임금에게 직접 문서를 올려 여쭙는 경우다. 긴급하게 올리는 예도 있는데, 암행어사가 지방에 파견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민원 사항과 포장 신청 사항을 조사하여 조정에 올리는 경우, 직접 왕이 행차할 때 ‘복이나 팽과리를 두드려 사연을 호소하며 아뢰는 일도 있었다.

예조의 실사로 포장이 결정됨

효행 사례 추천서와 청원 절차가 이루어지면 해당 주무 부서인 예조는 유교의 기본 덕목인 삼강과 오륜 덕목 중 뛰어난 행적이 있다는 사실 여부를 현지 지방관에게 조사하도록 했다. 이후 행적이 합당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임금에게 아뢰었다. 예조에서는 관찰사로부터 삼강인물의 행적을 상신받아 결정하여 잘 처리하는 과정에 정려를 세워 주도록 명하는 입안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에 따라 최종 포장이 결정되었다.

조선시대 가장 영광스러운 포장은 고을이나 개인에게 정려각과 정려문을 내려 건립하는 것이었다. 지방 고을에서는 예조에서 발급한 문서의 내용에 맞춰 정려각과 정려문을 세웠다.

충·효·열 포장의 종류

포장의 종류는 정문, 상직, 복호, 상물 등이다.

조선시대 정려는 예조와 의정부의 심의를 거쳐 국왕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가장 높은 표창이다. 명정이 내려지면 정려(정문)의 건립 외에 내려지는 수준과 성격에 맞춰 정려각을 짓거나 집 대문에 명정 현판을 걸었다.

정려 포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임금이 관직이나 관계官階를 하사했다. 당사자가 살아 있을 때면 관직을 받고, 죽은 후라면 살아 있을 때보다 높은 관직이나 관계를 하사했다.

각종 효행 사례 문헌

조선은 각종 고증 문헌을 통해 효행 사례를 기록했다. 효행 사례 자료에는 역사서, 윤리서, 지리지, 읍지의 인물 조, 예조에서 작성한 효행 관련 등록류 문서이다. 이 가운데 예조에서 작성한 효행 관련 기록이 가장 구체적이고 자세하다.

예조의 효행 관련 문헌은 『충효등록』, 『효행등제등록』, 『충·효·열 등제등록』이다. 역사서로는 『조선왕조실록』이 있고, 윤리서에는 『효행록』, 『삼강행실도』, 『속삼강행도』, 『동국신속삼강행실도』가 있으며, 지리지·읍지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등이 있다.

정려문의 건립 위치

정려문은 문중의 중심인물을 배향하는 서원·사우가 거주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졌으며 대개는 마을 입구의 길목에 세워졌다. 이런 곳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으로 효도를 못한 사람이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이 뉘우치거나 선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정려문은 주로 마을과 종중에서 세웠다.

예산의 효행 정신

— 김창배 지음

旌門으로 알아본



2

예산인의 충절과 효의 정신

2.

예산인의 충절과 효의 정신



1 사노비에게 정려문 내리다

예산에서 정려를 하사받은 인물을 살펴보면 고려 시대 호장으로 우애 좋은 이성만 형제처럼 신분상으로 문벌이 좋은 사람도 있었고, 향리였던 방맹, 서인 백춘복, 양인 최망희, 사노 윤희·풍이, 사비 재개, 사노 이석남 등으로 여러 계층이 있었다.

천민인 노비는 관에 딸린 공노비와 개인이 소유한 사노비로 나뉜다. 공노비는 입역 노비이며, 사노비는 온전한 재산 소유가 불가능한 솔거노비와 그렇지 않은 외거노비로 나뉜다.

사노비는 그 상전의 토지, 가옥과 함께 중요한 재산으로 간주되었다. 상속, 매매,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상전의 호적에 종파, 나이, 부모의 신분 등이 등재되었다. 원칙적으로 성은 없고 이름만 있었다.

하층민인 노비의 경우 명정 사실은 문헌에 많지만, 정려문이 내려진 과정에 대한 문헌 기록은 자세히 보존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보니 당시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 사람의 정려각은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조선시대 정려문이 내려지면 관료들에게는 임기를 연장하거나 승진이 되는 등의 혜택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도 정려문은 내려졌지만, 정려문에 따른 다른 혜택은 없어

졌다. 정려문 관리에 따른 부담을 후손들은 가졌다. 양반, 양인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큰 하층민의 경우엔 정려문이나 정려각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서인 백춘복의 효행, 재개의 효행, 사노 윤희와 풍이 형제에게 정려가 내려진 사실은 『여지도서』와 『동국 삼강행실도』, 『호서읍지』, 『충청도읍지』 등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관련 사적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라져 현재 존재하는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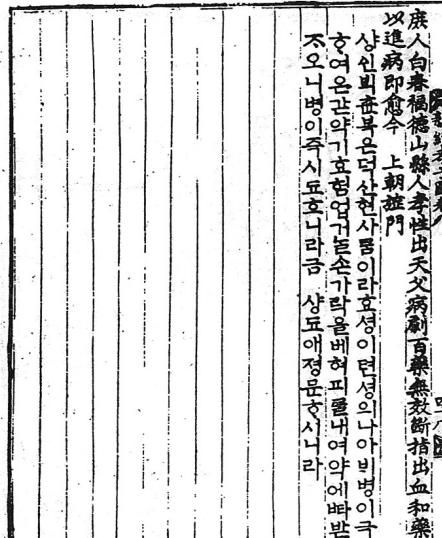
□ 서인 백춘복 白春福 이 손가락을 끊다

서인 백춘복의 효행에 대하여『동국신속삼강행실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서인 백춘복은 덕산현 사람이다. 효성이 천성으로 드러나 아비 병이 위독하므로 온갖 약이 효험이 없거늘 손가락을 베어 피를 내어 약에 타 드리니 병이 즉시 좋아졌다.
라. 이에 지금의 일금 대에 정문을 내렸다.”



〈신속효자도〉



〈신속효자도〉

□ 사비 재개再介는 덕산현의 효녀

사비 재개의 효행에 대하여 『여지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사비 재개는 지극한 효성으로 편모偏母를 봉양하고, 그 집의 흘어머니를 모시느라 제 시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병을 고치기 위하여 허벅지 살을 베어 먹이고, 대소변을 맛보며 병세를 살피는 등 지극히 병간호하였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는 노비 신분임에도 삼년상을 치렀다. 이 일이 알려져 현 남쪽 대덕산면에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

“私婢再介。性至孝。爲養偏母，不歸其家。母嘗遘疾，割股嘗糞。及遭母喪，三年不與其夫同處。事聞旌閭于縣南大德山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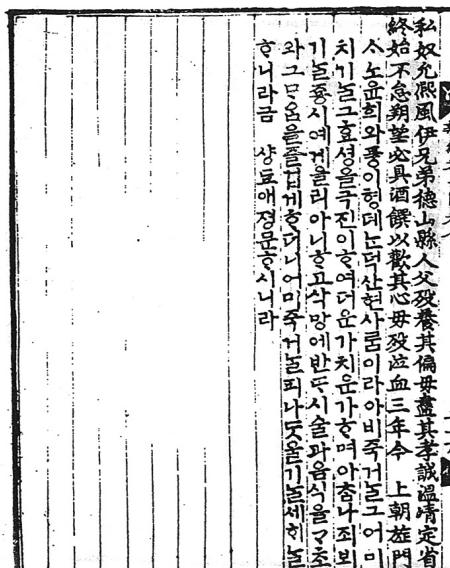
□ 사노 윤희·풍이 형제가 지성으로 효도하다(二子誠孝)

사노 윤희와 풍이 형제의 효행에 대하여 『신속삼강행실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사노 윤희와 풍이 형제는 덕산현 사람이다. 아비가 돌아가고 그 어미 모시기에 효성을 극진히 하였다. 덥고 추운지 아침과 저녁으로 뵙거늘 언제나 계을리하지 아니하였다. 초하루 보름에 반드시 술과 고기를 갖추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렸다. 그 어미가 돌아가매 피가 나올 듯이 울기를 세 해 동안 하였다. 지금 임금 대에 정문을 내렸다.”



〈신속효자도〉



〈신속효자도〉

□ 시비 유덕有德은 왜적을 도리어 꾸짖다

시비 유덕은 이복룡의 아내이다. 절에서 일하던 계집종 사비 유덕은 예산 사람으로 당당한 조선인의 기개를 보였다. 침입한 왜적에게 사로잡힌 몸으로 왜적을 꾸짖다가 순절하였다. 나라에서는 정문을 세우고 문헌에 기록하였다.

“국가에서 절에 내리던 계집종 사비는 병자호란 때 사로잡혔으나 치욕을 당하지 않고 왜적을 꾸짖다가 죽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현 서쪽 마을에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

2 호장·양인에게 정려문 내리다

호장戸長은 고려·조선시대 향리직의 우두머리다. 고려 시대에는 부호장과 더불어 해당 고을의 실무 행정을 직접 수행했다. 지방에서 힘 있는 유력자로 세력을 유지했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에서 직접 모든 행정 공무를 집행하였다.

호장은 복두를 쓰고 녹포에 흑각대, 목흘, 흑피혜를 착용하고 홀을 잡게 하였다. 임명할 때는 해당 지방관이 호장을 추천, 상서성에 보고해 승인하여 임명장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향리의 승진 규정에 호장은 9단계의 서열 중에서 최고위직이었다. 지방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관인을 대신 맡았다.

이들은 관청에서 신분을 증명하거나 노비의 소유, 고을 백성의 재산을 증명하는 일을 관장했다. 전조·공부의 징수와 상납, 주로 성곽이나 관아를 축조하거나, 도로를 고치는 따위의 토목 공사에 노동력을 동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궁과로 시험해 주현 일품군의 별장에 임명되는 등 지방 군사 조직의 장교가 되어 주현군을 통솔하기도 하였다. 호장은 대체로 직이 세습되었고, 같은 신분 간에 혼인이 이루어졌다. 또한 자손에게는 지방 교육의 기회와 더불어 과거의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이를 통한 중앙 관료 진출에 제약은 없었고, 조선이 개국하자 양반 계층이 되어 관직에 나아갔다.

조선시대의 호장은 고려 시대의 호장과는 계급이 달라졌다. 『경국대전』의 법전 체제에 따라 호장은 양반이 아닌 중인 계급으로 신분이 고정되었다.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단지 향리직의 수장으로 조문 기관·장교 등과 같이 삼반 체제를 유지해 아전으로서 지방관의 제반 업무를 보좌했다.

조선 초기 국역부담자인 양인에게는 토지세, 정남으로 부과하는 노역 의무, 호별 토산물을 부과 세금을 부담시키는 대신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그러나 천인에게는 국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권리도 인정해 주지 않았다. 양인은 고대부터 존재하였으며, 고려 시대에 법제적으로 규범화했다. 이후 조선시대 양인은 정치적으로 국가 권력의 지배를 받았으며, 신분적인 면에서 양반층의 지배를 받았다. 이들은

평민 혹은 상민으로 불렸다. 상업과 수공업에 종사하는 상인과 공장을 포함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많았다.

신량역천^{身良役賤}은 양인 신분이면서도 비천한 일에 종사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소금을 굽는 염간,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해척, 도자기를 굽는 사기간, 철을 제련하는 철간, 조운에 종사하는 조졸, 봉수대 위에서 기거하며 봉수업을 하는 봉수간, 역에 소속되어 세습으로 하는 역졸, 중앙의 사정 및 형사 업무를 맡은 나장, 광대 등이 신량역천에 해당이 된다. 이들의 수는 많지 않았고, 일정 기간 국역을 지면 양인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이에 15세기 말에는 대부분 양인으로 승격되었다. 현재 예산에는 조선시대의 이들의 정려문은 남아 있지 않다. 이들은 신분이 낮거나 경제력이 미흡하여 초가집에 정려각이나 비석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후손이 끊기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정려각이나 정려문, 비석의 관리가 소홀해졌고, 이에 문헌 기록만 남아 있다.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삽티공원’ 안에 있는 정려각은 방맹을 기리는 정려다. 이 방맹의 신분은 향리였고, 오가면 신장리에 있는 정려각의 주인공 최망회는 양인 출신이다. 그러나 용맹한 장수로 이름을 날린 장중연의 딸 매덕읍에게 내려진 열녀문은 남아 있지 않다. 후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효자·열녀 정려문을 세우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정려문을 세웠다 하더라도 관리 소홀로 사라진 것일 수도 있다.

□ 효자 방맹^{方萌} 정려

예산읍 향천리 ‘삽티공원’ 안에 있는 정려각은 방맹의 효성을 기리는 효자각이다. 방맹은 조선 전기 사람으로 그의 정려각은 예산초등학교에서 쌍송 삼거리로 지나 대술방면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보이는 삽티공원 안에 있다.

1970년대의 삽티 공원은 자연이 흐드러진 고즈넉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인접한 곳에 큰 건물이 많이 들어섰다. 더센트럴웨딩홀, 윤봉길 체육관이 신축되어 사람의 왕래가 빈번해졌다. 사랑채요양원을 지나면 애련지라는 연못이 반기고, 위로 조금 올라가면 정려각이 있다. 원래 방맹의 정려각은 예산초등학교 후문 쪽에 있었던 것인데 그곳이 개발되면서 이곳으로 이전한 것이다.

방맹(方萌, 1518~1590)의 본관은 온양이며, 고려 충렬왕 때 판도판서를 지낸 방서의 21세손이다. 1563년(명종 18) 효자각과 정려문을 받았다.

조선 후기의 지리서인 『여지도서』 예산현 [인물조]에는 ‘호장 방맹의 정려각이 읍내 향천동에 있는데 일의 자취가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1617년 (광해군 9)에 편찬된 『동국신속삼강행실효자도』에는 방맹의 효행 기록과 그림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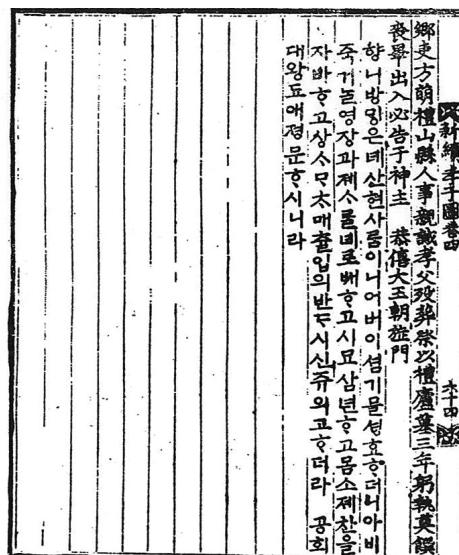
‘방맹이 여묘를 지키다(方盟廬墓). 향리 방맹은 예산현 사람이다. 어버이 섬김을 정성과 효도로 하더니, 아비가 돌아가거늘 장례와 제를 예로써 올리고, 시묘 삼 년을 하고, 몸소 제사 음식을 마련하여 상을 마쳤다. 집에서 매일 출입 시에는 반드시 신주에 알리더라. 공희대왕 중종 때 정려를 내렸다.’

『중종실록』에는 1535년(중종 30) 3월 24일 충청도 관찰사 이수동이 예산의 향리 방맹의 효행이 특이하니 포상할 것을 중앙에 건의하였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문헌 기록은 대략 이 정도인데, 예산읍 향천리에는 방맹의 효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어느 겨울 방맹의 아버지가 수박과 잉어가 먹고 싶다고 하자



〈신속효자도〉



〈신속효자도〉



〈호장 방맹의 정려각〉

방맹은 창호지로 온상을 만들어 수박을 재배해 아버지에게 드렸다. 또한 무한천 상류 인 배다리 앞에서 한겨울 얼음 위에 끓어앉아 밤낮으로 3일간 정성을 다해 기도하니, 끓어앉은 자리에 구멍이 뚫리고 잉어가 튀어나왔다고 한다. 그 잉어를 아버지에게 먹이니 병세가 조금 호전되었다가 돌아갔다고 한다. 이러한 방맹의 효행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명정을 받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다.

정려의 내부 명정 현판에는 ‘효자호장방맹지문 숭정후삼계사구월일 십일세손호장문 탁여제족개건 孝子戶長方萌之門 崇禎後三癸巳九月 日十一世孫戶長文鐸與諸族改建’이라 쓰여 있다.

□ 효자 최망회(崔望回)의 정려각

최망회(崔望回, 1652~1720)의 본관은 전주이다. 조선 중기 대홍현 망죽골(오가면 신장리)에서 양인의 신분으로 산 인물이다.

2024년 3월 24일, 오가면 신장리에 있는 정려각을 찾았다. 정려각 안에는 ‘효자 전주 최씨 밀양박씨 지묘’라고 쓴 비가 세워져 있었다. 내부 상단부에는 ‘효자학생최망회지

문승정기원후 일백십삼년 오모시 월일인'이라 적힌 명정 현판이 걸려 있었다.

비에 새겨진 내용을 읽어보니 정려각은 5차례 중수되었다. 양인의 신분임을 생각하면 정려문을 받을 당시에는 초가집으로 정려각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아마도 세월이 흐른 뒤 기와집 형태로 정려각이 중수된 듯싶다.

6년 전 1년여에 걸쳐 예산군에 흩어져 있는 정려각 조사를 했다. 그런데 모두 마치지 못했다. 그때에도 오가면 신장리 최망회 정려각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찾지 못하고 헛되이 헤매는 수고만 했다.

얼마 전 광시면 쌍지암에서 '예산시인협회' 모임이 있었다. 아내를 쌍지암에 데려다주려고 오가면 신장리로 향했다. 오가면 분천리 최재화 이장과 통화를 했더니 위치를 알려줘 이번에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마을 사람과 주변 사람에게 전화를 해 알아보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동안 고집불통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주민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40여 정려각을 찾아 나섰다. 한 번에 찾은 곳도 있었다. 그러나 서너 곳은 2~3차례를 헤매고 나서야 찾을 수 있었다.



〈효자 최망회의 정려각〉

예산군 12개 읍·면 중 유일하게 효자 ‘전주최씨공망회’, ‘밀양박씨’ 비석과 유골함을 정려각 안에 안장하고 철망 울타리를 세웠다. 이런 정려각은 처음 본다. 200여 년간 정려각을 중수하면서 관리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최씨 종친과 유족은 초가로 신축한 정려각이 무너지자 정려각 안에 비석을 다시 세우고 효자 최망회 부부 유골을 내부에 안장하고 시멘트로 바른 것이다.

비문에 새겨진 내용을 오가면에서 발간한 『오가면지』를 토대로 글을 쓰려고 하니 비문 국역이 현대감각에 맞지 않아 어려웠다. 정려각 중수 기록 연도도 틀려 애를 먹었다. 읍·면지를 만들려면 기간을 충분히 두고 정밀하게 정리해야 하는데 짧은 기간 서둘러 내다보니 오류가 종종 발견된다.

후손들이 중수한 연도 표시를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오류를 남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비석을 새기는 사람은 최씨 문중에서 넘겨준 원고대로 새겼지 임의로 다르게 새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오류 덕분에 중국연호 사용을 알게 되었다. 비문의 숭정 기원 원년은 1628년, 건륭 원년은 1736년, 가경제 원년은 1796년, 광서 원년은 1875년이다.

최망회 현판 앞의 기록은 ‘숭정후 113년’이 맞다. 그러나 비의 뒷면에 기록된 ‘숭정후 505년’은 맞지 않는다. 이는 2,133년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조선 시대 임금을 기준으로 숙종, 영조, 고종 등으로 사용했더라면 최씨 유족이나 지나가



〈최망회 정려각 전경〉

다 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했을 것이다.

최망희 정려각 안에 새겨진 한자 비문의 해석은 이명재 시인에게 자문받고 돌아와 정리했다. 비문의 내용은 이렇다.

정려기

슬프다. 충·효·절의를 지키는 것을 고대로부터 내려왔다. 서울 사는 사람은 많이 나왔어도 시골 평민은 드물게 나왔다. 어찌 여러 사람이 이런 일을 혼자라고 말할 것이며 한가하면서 사람은 이런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니 슬프다. 이 사람(최망희 부부)은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시골에 살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했다. 이런 사실은 슬픈 일이다. 그들의 사람됨이 성품이 좋고 나쁜 것은 벼릴 줄 알았고, 일찍이 늙은 아버지를 지극정성 모셨다. 일편단심 어머니를 받들고 삼종지도를 지키는 집안의 어른 노릇을 하였다. 어머님에게 좋은 옷을 깨끗하게 입혀드렸다. 평생 부모님 모시는 일을 지극 정성으로 대했다. 이러한 정성이 대단하다.



<최망희의 정려각 안에 비문>

어머니가 병든 지 2개월 안에 죽음의 운명에 이르렀을 때 손가락을 베어 피를 마시게 하여 목숨을 10여 일 연장했다. 또다시 병이 심하여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상을 당하자 제구와 장례 예절을 한결같이 가례 예문을 따랐다. 죽어서 보내는 예절의 도리가 이에 지극하였다. 슬프다. 사람마다 모두 자기 부모를 사랑한다. 헤아려 생각해 보면 예로부터 당연히 자식으로 도리를 다해야 한다. 이 사람의 깨끗하고 지극한 정성을 다한 효도는 참으로 하늘까지 감동을 주었다. 이것은 당연한 본인의 성품을 다한 것이다. 상을 당하여 서로의 힘을 하나로 합치고 협력하여 상복을 입었다. 그러한 효행은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관찰사에 글을 올려 조정에서 조사를 마치고 정려문을 내렸다. 정려문 비각은 나라에서 힘을 써 세운 것이다.

1741년(영조 17) 겨울에 비로소 정려각을 만들기 시작했다. 1774년(영조 50)에 다시 정려각을 중수하였다. 그 후 어느 때에 읍내 이공 도선이가 국명을 받들어 정려각을 이곳에 다시 세웠다. 세월이 지나자 초가 정려 주변에 흙덩이가 무너지자 이 사람의 아들 경상이란 사람이 친히 나서 정려각을 중수하고 세웠다. 이것도 또한 효자의 아름다운 표시의 흔적이다. 정려문이 다시 빛나고 효도의 자취가 다시 빛난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예를 갖추고, 효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다가 효를 실천한 이들 부부의 모습을 떠올리고서는 공경하고 탄식함에 이르렀다.

1690년(숙종 17) 정문이 내려짐

1741년(영조 17) 3월 중수

1774년(영조 50) 중수

1798년(정조 22) 3월 중수

1876년(고종 13) 3월 중수

서기 1976년 3월 중수

예전에 오가면사무소에서 근무한 적이 2번 있었다. 그때 오가면 최기원 이장 협의회장을 자주 보았다. 키도 크고 정직하면서 여러 직함을 지니고 오가면 발전을 위해 지역 봉사에 솔선수범하였다. 그는 최망회 부부의 후손이었다. 조상님의 지극한 정성과

효의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효자문을 돌아보지 못하다가 후손으로서 부끄러웠나 보다. 그가 앞장서고 후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비용으로 땅을 매입하고 새롭게 정려각을 세우고 올타리를 둘렀다. 큰 땅을 중수하는 데 쓴 노고가 선명하게 그곳에 남았다. 오가면에 사시는 전주최씨 집안 분들에게 존경을 뜻을 표한다. 정려각을 돌아보며 최씨 후손들의 가업이 잘 보존되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기를 생각했다.

□ 효자·충신 박신흥朴信興의 정려각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다닐 적에 큰누나는 오가면 원천리로 시집을 갔다. 그곳에서 시부모가 다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했다. 누나 집을 오가며 큰길 옆에 정려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렸던 그 당시에는 정려문에 관심이 없었다.

오가면에는 신장2리 최망희 정려각 외에 원천3리에는 충신·효자 박신흥의 정려각이 있다. 그리고 오가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선정비가 10개나 된다. 물론 선정비는 관리들이 주인공이니 정려와는 다르다.

충신이며 효자인 박신흥은 조선시대 후기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에 살았던 인물이다. 옛 기록에 따르면 박신흥의 정려각은 예산현 오원리면 천동리에 세워졌다. 천동리는 관문으로부터 서쪽 15리에 위치하고, 가호는 52호로 남자 101명과 여자 108명이 살았다고 한다.

오가면 사거리에서 신암면 방향으로 가다 보면 조선 효자 박신흥의 정려각이 있는 원천3리 마을이 나온다. 큰누나가 조카와 함께 운영하는 ‘예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지나 우측에 정려각이 있다.

2022년 3월, 오가면 원천3리 성청일 이장이 내 근무처로 찾아와 박신흥 정려각에 관해

“원래는 원천2리 권태환 집 옆에 있었다. 1959년 예당수리조합 건설공사 손실 보상금을 받고는 원천3리 마을 입구로 옮겨졌다. 신장리 박운영의 자녀 박종석 (前 이장)이 관리하고 사당은 우측에 있다.”

라고 자세히 알려 주었다.

박신흥은 본관이 밀양이다. 조선 후기에 예산군에 살며 부모에 대한 효도와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하였다. 어려서부터 효성스러웠다. 병석에 누운 어머니가 물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자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냇가를 찾아다니며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울부짖었다. 그 후 물고기 몇 마리가 얼음을 깨고 뛰어올랐다. 집으로 돌아와 물고기를 어머니께 봉양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갔지만 나이가 어려 상복을 입지 못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자 그는 뒤늦게 상복을 입었다. 벽 위에 임금과 왕비의 제삿날을 적어 놓고 이날에는 나물 반찬만을 먹었다. 숙종과 경종 임금이 세상을 떠나던 날에는 관문 밖에 거적을 깔고 흙더미를 베고 자며 주야로 통곡하였다.

1728년(영조 4년) 무신의 변란 때 그는 늙어 싸움에 나가지 못했다. 그는 목욕재계하고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난이 평정되기를 하늘에 기도하였다. 난이 평정되자 그는 기도를 멈추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예산군 효행 사례 학술 세미나 자료『예산군의 효행과 우애』 219쪽에는 유생, 유학이 연달아 상소를 올린 기록이 있다.

1745년 3월 유생들 17명이 연서, 1744년 5월 유생들이 35명 연서, 1747년 1월에 유생 정석화 등 38명, 3회 90명이 연서하여 조정에 박홍신의 효행에 대하여 상소했다. 이에 박신흥의 행적이 조정에 알려졌다.

1723년(경종 3) 물건, 음식 등이 하사되어 포상받았고, 1747년에는 효자의 영정을 받았다. 그리고 1757년에는 중추부의 종2품 문무관으로 품계를 올려 받았다.

박신흥 정려는 정려각 내부의 중앙 위쪽에 있다. 1747년에 내려진 현판에는 ‘충신 효자 박신흥지문 상지 이십삼 년 정묘 십일월 일’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정려각 내부에 세워진 정려비 정면에는 ‘충신 효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박신흥지려’라고 쓰여 있다. 비 뒷면의 비문은 훼손이 심하여 알아보기 어려웠다. 박신흥의 충효 행적과 정려 청원에서 명정까지의 과정을 보여 주는 고문서들은 보존되어 있다. 정려를 청하는 상서(수령, 관찰사 올린 것)와 교지, 완문 등의 문서는 후손 박종석이 위폐와 함께 보관 중이다.



〈박신흥의 정려각〉

그런데 후손이 문화재나 정려문에 관한 고문서를 보존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이러한 문화적 자산이 훼손되는 것은 예산군의 손실이다. 예산군이나 종친회가 나서서 관련 고증문서와 정려각 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자료)

- 1.『오가면지』, 2009
- 2.『디지털예산문화대전』
- 3.『문화유적 분포지도(예산군)』,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 4.『여지도서』
- 5.『효행등제등록』
- 6.『충청도읍지』
- 7.『예산군지』, 예산군, 2001

3 정려각 안에 효자비·열녀비 세우다

정려각 안에 있는 비문에 새겨진 내용을 읽고 나서야 정려문에 얹힌 효행에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전에는 정려각 안에 현판이 있는지 비석이 있는지 관심이 없었다.

광시면 미곡리 도로변의 버스 정류장 옆에는 전근금 효자비보다는 안전하게 기와를 올리고 벽면에 나무 기둥을 세워서 만든 정려각이 많다.

예산군에서 매년 1~2개의 정려각을 보수한다. 적은 비용은 아니다. 매년 이런 사업이 지속되길 바란다. 종종과 마을에서 정려각을 잘 관리하는 곳도 있다. 일부는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선동하여 비를 세운 것인데 이런 것은 관리가 부실하다. 1대가 일궈낸 재산이 2대를 넘어 3대까지 고스란히 지켜지는 건 쉽지 않고, 3대를 넘어서기는 더욱 어렵다는 ‘부불삼대’란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런 정려각은 후손들이 잘 관리하지 않아 흉물로 전락하여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려각은 대부분 잘 보존되고 있다. 정려각 안에 효자비나 열녀비가 세워진 경우는 이성만 형제의 우애비, 응봉면 계정리 신창표씨 열녀비, 광시면 신흥리 혼풍곽씨 정려각이다.

정려는 각 고을에서는 모범적으로 효행을 실천한 인물을 조사하고, 군현에서 올린 추천서를 토대로 주무 부서인 예조가 작성하여 임금에게 보고 결정한 사례가 많다. 1431년(세종 13) 10월 28일 『세종실록』에는 28명에 대한 효행 실적을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광시면 신흥리의 혼풍곽씨가 포함되어 있다. 그를 포함한 ‘장미·황염·유분·신안선’ 등의 효자와 절부에 대한 포상이 주청된 8명의 기록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경기도의 금천에 사는 호장 장미는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어머니가

또 죽었는데 연달아 무덤을 지켰으며, 하루 동안에 한 번 죽을 먹고 초하루와 보름에 제사를 올려 지금까지 폐하지 않았으며,

교하현에 사는 황염은 부모가 죽으매 6년을 연달아 무덤을 지키면서 채식과 죽만 먹으며, 거적자리에서 자고 흙덩이를 베고 울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유분은 아버지가 죽으매, 무덤을 지켜 3년 동안 몹시 슬피 울면서 한 번도 웃지 않았으며,

김균은 어머니가 죽으매, 신을 삼고 자리를 짜서 그것을 팔아 밥을 먹으면서 3년 동안 여막에 살고, 또 3년 동안 초하루 · 보름의 제사를 폐하지 않았으며,

양주부에 사는 전 훈도 신안선은 나이 5세일 때 아버지가 죽으매 어머니를 받들어 효도했으며, 그 후에 어머니가 죽으매 아버지의 무덤에 합장하고 3년 동안 동리 어귀를 나가지 않고, 조석과 초하루와 보름에 두 무덤에 제전하기를 한결 같이 하고, 불가에서 행하는 일은 하지 않으니 향당에서 그를 공경하고 신임하였으며,

용안현에 사는 고천계는 기해년에 대마도를 정벌할 때 아버지를 대신해 가서 사로잡혀 구류되었다가 경자년에 이르러서야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미 죽었으므로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그 어머니를 봉양하여 효성을 다했으며,

경북 경산현에 사는 손일선은 집안에 천연두가 발생하여 아버지가 죽은 지 한 돌이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또 죽으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피했는데, 일선은 몸소 시체를 등에 짊어지고 거적으로 짜서 장사지내고는 조석으로 슬피 울었으며, 마침내 같은 묘혈에 장사지내고는 죽을 먹고 얼굴을 씻지 않으며, 마음을 다하여 제사를 지내 3년의 상기를 마쳤으며,

대홍현에 사는 박근의 아내 꽈씨는 나이 26세에 남편이 죽으매 참죄 3년을 지내고, 대상과 담제를 지낸 후에도 그 친정에 돌아가지 않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곁에 모시고 길쌈하여 의복을 공급하고 몸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봉양했으며,

위의 항목의 효자와 절부 가운데서 포상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예에 따라 복호하고, 효자로 재주가 벼슬할 만한 사람은 재주를 해아려 사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부모가 사망하면 시묘살이, 남편이 죽으면 절개를 지키며 힘들게 살아온 옛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를 돋고자 위 내용을 인용하였다. 돌아보면 가슴 아픈 사연이 많는데, 지금의 상황과는 크게 다르다. 그러나 과거나 현재나 부모는 부모이고 자식은 자식이다. 조선 유교 덕목인 충효열이 폐쇄적이고 고리타분한 것이라 여기기보다는 조상이나 부모, 가족 간의 사랑과 공경을 실천하는 것은 현대인이 본받아야 할 덕목이다.

□ 李成萬·李順 형제의 우애

예산은 충절의 고장으로 이름나 있다. 그 근거로 대홍면 이성만·이순 형제의 효행과 우애 이야기가 많이 인용된다. 1960~7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널리 알려진 예산의 실존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산은 심청전의 배경이 되는 고장임이 드러났다. 심청전 근원 설화는 예산을 배경으로 한 원홍장 설화다. 아직 학계에서 검증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심청전 설화의 배경이 예산군 대홍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옛날 충청도 대홍 땅에 장님 원량元良이 살았다. 그에게 ‘홍장洪莊’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용모가 수려하고 효성이 지극하였다.’로 시작되는 『원홍장설화』는 『관음사 사적기』에 기록되어 있다.

관음사는 전남 곡성의 사찰인데 20년 전쯤 사찰을 중수하다가 ‘원홍장 설화’가 기록된 문서를 발견하였다. 이때부터 전남 곡성을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청전과의 관련성을 내세우며 지역 문화 발전의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예산군은 진전이 없다. 뒷전이다.

‘원홍장 설화’는 ‘심청전 연기설화’라고도 하는데, 2017년 대홍면에서 발간한 『대홍면지』에도 소개되었다. ‘원홍장 청이의 전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711~730쪽에 실어 심청전 관련 예산지역 지명과 사찰 등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풀었다.

이성만·이순 형제의 효와 우애를 기리기 위한 효제비는 1497년(연산군 3) 예산군 대홍면 동서리에 세워졌다. 이성만과 그의 동생 이순에 대한 효행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되어 있다.

“대홍 효자, 고려 이성만 : 성만이 그 아우 순과 더불어 모두 지극한 효성이어서 부모가 죽으매, 성만은 아버지의 묘를 지키고 순은 어머니의 묘를 지키면서 서로 애통과 정성을 다하였다. 3년의 복제를 마치고는 아침에는 아우가 형의 집으로 가고 저녁에는 형이 아우의 집을 찾았으며, 한 가지의 음식이 생겨도 서로 모여 만나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 이 사실이 임금에게 보고되어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효제비의 주인공 형제는 고려 말의 인물이다. 조선 건국 초기인 1418년(태종 18) 지신사 하연이 왕에게 예산군 대홍현의 호장 이성만·이순 형제의 효행과 우애를 알렸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연산군 때 효제비가 세워진 것이다. 이에 두 형제의 효제비 비문에 자세하게 효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예산의 이성만 형제 효제비는 예산군 대홍면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북쪽을 바라보고 서 있다.



〈이성만·이순의 형제 효제비〉

두 형제의 효제비는 본래 가방역에서 광시면 장전리로 가는 내천 건너에 있었다. 1968년 예당저수지 건설로 수몰될 위기에 직면하자 대홍면사무소 앞으로 옮겼다.

1983년 9월 29일, 두 형제의 효제비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02호로 지정되었다. 지금도 대홍에는 전국에 널리 알려진 이성만·이순 형제의 우애와 관련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대홍 위들 거리에 사는 형과 오리골에 사는 동생이 서로에게 더 많은 벼가 필요할 것이란 생각에 밤마다 몰래 가져다주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밤 개방이 다리(가방교)에서 마주쳐 밤마다 자기 집 가마니가 늘어나 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조선 시대 세워진 정려각 중 대홍의 이성만·이순 형제, 예산읍 향천리의 방맹 정려각의 주인공은 호장(향리) 신분이다. 고려 시대의 호장은 조선의 양반에 해당하는 계급이고, 조선시대의 호장은 중인 계층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지닌다. 그래서 정려각이 관리되어 지금까지 남아 있지만, 하층민에게 내려진 정려는 거의 사라지고 현재는 양인인 전근금 효자비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

예산군의 자랑인 이성만 이순 형제는 의좋은 형제로 교과서에 실려 널리 알려졌다. 나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오랜 기간 실렸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진다.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예산군의 상징물과 예당호 등과 연계되어 전국에 자랑할 만한 문화콘텐츠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예당호에는 출렁다리가 있고 우애의 벗단을 나르는 형제의 모습은 예산군의 충효 정서와 맞아떨어진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성이 있는 콘텐츠다. 시대를 초월한 효와 우애를 실천한 교훈적이고 인간미가 넘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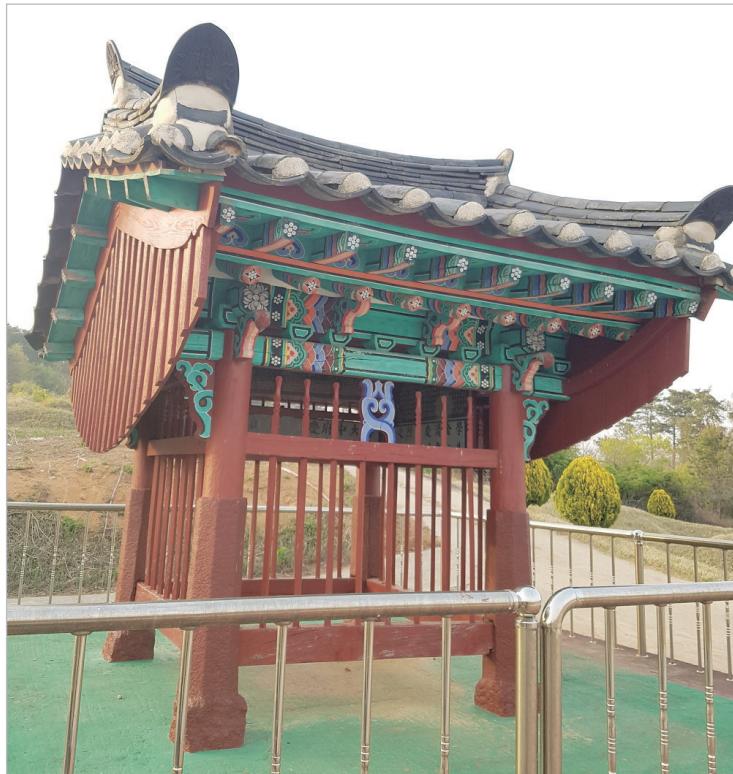
□ 열녀 신창표씨_{新昌表氏} 정려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전 예산군 응봉면에서 619번 도로변을 따라 삽교읍 방향으로 진입하니 청암금속 공장이 보였다. 응봉면 계정리는 홍북면 신정리와 경계한 마을이다. 삽교읍 신가리 마을과도 인접해 있다. 축산농가가 많아 보이고, 이정표가 선명하여 초행길이지만 찾아가기 쉬웠다. 이정표만 바라보며 도로를 운행하다 보니 다소

긴장이 풀렸다. 한참 가다가 좌회전하여 가다보니 ‘신창표씨의 정려각’이 오른쪽에 보였다.

열녀 신창표씨는 천성이 정숙하고 단정하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경주김씨 김찬희의 아내이다. 결혼 후 남편의 병세가 위중하여 자리에 눕자 수년 동안 의복과 식음의 즐거움을 버린 채 지성으로 간호하고 하늘에 빙었다.

그녀의 남편은 죽기 전 늙은 부모를 정성으로 봉양해 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그녀는 지성과 공경으로 시부모를 섬겼다. 시아버지가 어지러우면서 의식을 잊고 넘어지며 경련을 일으키는 병에 걸려 4년 동안을 병석에 있는 동안 백방으로 약을 구하려다 썼다. 이런 정성이 통하였는지 시아버지는 병이 완쾌되어 천수를 누리고 돌아갔다. 이



〈신창표씨 정려각〉

후 시아버지의 삼년상을 치른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박명한 신세를 한탄했다. 이제 효도를 다 하였으니 시아버지와 남편을 따라가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창표씨의 정절과 시부모를 봉양한 효행을 기리기 위해 예산의 유림과 마을 사람들이 정려를 세웠다.

정려각 앞면 현판과 명정에는 ‘가선대부 중추부사 경주 김공 휘 찬희 처 신창표씨 효행·열행 지려’라 쓰여 있고, 정려각 안쪽의 오른편에는 표씨의 종손부인 경주최씨의 현판 1기와 행적을 기록한 현판 1기가 걸려 있다. 경주최씨의 정려기에는 ‘학생 김인제 처 경주최씨 열행지려’라 쓰여 있다.

신창표씨 정려각 안에 남아 있는 현판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마을 사람들이 신창표씨의 효행과 열행을 알리고자 인근의 유림과 뜻을 모아 천거하는 글을 군에 올렸다고 한다. 그녀가 정확히 언제 정려문과 명정을 받은 것인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기문 현판에 ‘공부자탄강 2470년(1919)에 그녀의 행적을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연대와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1919년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려각은 일제 강점기 동안 온전히 관리되지 못해 허물어져 가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2009년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기념비와 해설문을 더한 듯하다.

신창표씨 정려각은 조선시대부터 전승된 효·열 사상이 일제 강점기와 현대까지 계속 이어져 왔음을 보여 준다. 지금은 후손들이 정려각을 잘 보존하며 관리하고 있다.

참고문헌(자료)

- 『응봉면지』, 2010
- 『디지털 예산문화 대전』

□ 열녀 현풍곽씨_{玄風郭氏}의 정려각

정려문은 조선 시대에 내려진 산물이다. 예산군에는 고려 시대 인물인 이성만 형제의 효제비와 현풍곽씨 등이 현존한다. 조선은 삼강오륜의 유교 덕목을 기리기 위해 정려를 내렸는데, 조선시대 초기에는 당대 인물을 찾기 어려웠으므로 전대인 고려말의 인물이 추천되어 정려가 내려진 것이다. 그리고 정려는 대부분 조선 후기에 집중되어 있다.

열녀 현풍곽씨 정려각은 예산군 광시면 은사리에 있다. 이곳은 울산박씨의 세거지다. 현풍곽씨는 고려 시대 열녀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비의 전면에는 <열녀현풍곽씨지비>라 새겨져 있다.

고려 말기인 공민왕 때 현풍곽씨는 19살에 울산의 박근에게 시집을 갔다. 시부모를 정성껏 모셨고, 이웃들은 곽씨의 집안을 부러워했다.

고려 개국공신 가문인 박근 가문은 새로 개국한 조선과 이방원을 따르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 박근은 벼슬을 내려놓고 홀로 충청도 대홍 오류골에 내려와 은둔생활을 했다. 부인 곽씨는 여러 날을 걸어 남편이 있는 광시면 오류골(은사리)을 찾아왔다. 남의 눈을 피해 은둔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려웠다. 이에 남편은 고사리를 뜯어 죽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지내고 있었다.

곽씨 부인이 단신으로 갖은 고생을 하며 찾아오니 남편은 깊주림과 병으로 누워있었다. 곽씨 부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병에 좋은 약초를 구하기 위해 깊은 산을 뒤졌다. 약초가 있다면 깊고 험한 산을 마다하지 않았다. 언젠가 천신만고 끝에 약초를 구했는데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을 안고 밤새도록 걸으니 동이 트는 새벽에야 집에 도달했다. 곽씨 부인은 병간호에 힘썼으나 남편의 병세는 더욱 악화하였다. 곽씨 부인은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이며 애를 썼지만, 남편은 끝내 세상을 떠났다.

곽씨 부인은 이후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았다. 고사리로 죽을 쑤어 연명하는 가난한 살림이었다. 경상도 양산에 홀로 계신 시어머니가 연로하여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

해 듣고는 양산까지 달려갔다. 유골이라도 시아버지 곁으로 모시겠다고 결심한 꽈씨 부인은 시어머니의 유골을 보에 싸서 메고 밤낮으로 걸어 광시로 향했다.

수십 일이 걸려 광시면 오류골에 도착하여 시어머니의 시신을 수습했다. 그 광경을 본 많은 이들이 현풍곽씨의 시모에 대한 효성에 감탄하였다. 그 뒤로 시아버지도 돌아갔다. 초상을 치르는데 혼자된 머느리가 시아버지의 관을 잡고 한없이 슬픔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놓아주지 않아 장사를 치르지 못했다. 수십 일이 지나서야 울음이 그쳐 사람들이 가보니 관을 잡고 울다 지친 꽈씨 부인이 죽어 있었다. 이런 안타깝고 슬픈 꽈씨 부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

이러한 소문을 접한 조정은 세상에 드문 열녀라 칭찬하였다. 조정에서는 현풍곽씨의 효행과 열행을 기록하고, 1413년 명정을 내렸다. 1431년(세종 13) 예조는 조정에 보고하기를 아래와 같이 했다.



〈열녀 현풍곽씨의 정려각〉

‘대홍현에 사는 현풍곽씨는 스물여섯 살 때 남편 박근이 죽자 삼년상을 마친 후에도 친정에 돌아가지 않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곁에 모시고 길쌈하여 의복을 마련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봉양하였다.’

참고문헌(자료)

1. 『광시면지』, 2010
2. 다음 인터넷 『경수 이야기 II』. <뿌리 편, 곽씨열녀 정려>
3. 다음 인터넷 ‘현풍곽씨 열녀문(문중 자료실)’
4. 『디지털예산문화대전』

4 효자비·열녀비 도로변에 세우다

업적을 지닌 누군가가 사망하면 행적을 칭송하고 이를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돌에 문장을 새겨 넣는다. 대개 비는 돌로 만들기 때문에 비석이나 석비라 부른다. 나무로 만든 목비나 비목도 있다. 이런 비에 글자를 적는 부분을 비면이라 한다. 비에 새긴 내용은 비문이다. 보통은 비목보다 오래 견디는 돌에 새겨진 비를 많이 볼 수 있다. 비석의 모양은 직사각형인 경우가 많다. 공적비, 묘비, 신도비, 효행비 등이 대개 석비다.

묘비와 신도비 등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어 그 사람의 일대기를 살펴 수 있다. 예산군에서는 선정비와 공적비를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모아둔 곳이 있다. 예산군청 앞, 덕산면 행정복지센터 옆, 대홍면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변, 오가초등학교 앞에는 10개 이상의 비석이 모여 있고, 다른 여러 곳에도 그렇다. 그중 충·효·열의 삼강오륜을 실천한 금석문은 비문 숫자가 많다. 국가적 차원의 포상일 때 인물의 행적이 눈에 띄는 장소에 세웠다. 그러한 행적이 기록된 비문이 있다는 것은 집안과

마을의 자랑이다.

고려말의 효자 ‘이성만 형제 효제비’는 예산군 대홍면 동서리에 세워져 있다.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다. 효제비는 대홍 동현에 가면 안내문 옆에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광시면 미곡리 도로변 버스 정류장 옆에 전근금 효자비가 있다. 진주강씨·양주조씨 열녀비는 신양면 귀곡리에 있고, 신양면 차동리 도로변에 있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곳에는 이홍갑 효제비가 있다. 그 외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곳에 비석이 있다.

□ 양주조씨楊州趙氏·진주강씨晉州姜氏 열녀비

정려문은 잘 지어진 건물 안에 현판이 걸려 있다. 면적도 많이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 지역주민과 후손의 관심을 받는다. 반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효제비와 열녀비는 정려문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다. 이에 사람의 관심에 벗어나 있고 관리에도 소홀하다.

그동안 정려문에 대한 글을 쓰면서 소외된 효제비와 열녀비에 관련된 인물들을 소홀히 한 점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2022년 3월 중순, 충남 예산군 신양면 귀곡리 양주조씨·진주강씨의 열녀비를 찾았



〈양주조씨와 진주강씨의 열녀비〉

다. 성국진의 부인 양주조씨와 성옹기의 부인 진주강씨가 정절을 기리고자 1811년(순조 11) 세운 열녀비다. 이 열녀비는 신양면 귀곡리 길옆에 있으며 시멘트 기단 위에 세워져 있다.

양주조씨(1766~1788)는 성국진의 세 번째 부인이다. 남편에게는 전처소생의 7살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잘 교육하였다. 1788년에는 돌림병이 돌았다. 남편이 돌림병으로 위독하여지자 자신이 대신 죽게 해 달라며 극진히 간호하였다. 끝내 남편이 병으로 죽자 장례를 마친 뒤 남편을 따라 자결하였다.

진주강씨는 양주조씨의 5세 손부로 성옹기의 부인이다. 남편 성옹기가 죽었을 때 강씨가 시름시름하며 자결할 기미가 보이자 집안사람들이 걱정하며 살폈다. 그러나 끝내 약을 먹고 사망하였다.

양주조씨와 진주강씨의 열행은 지방 유림이 공론화하여 관찰사에 고하여 두 개의 열녀비가 나란히 세워졌다. 원편의 비석 앞면에는 ‘정렬 부인 양주조씨 불망비’라 썼고, 뒷면에는 ‘신미(1811) 십일월 십육일 립’이라 건립 일자를 새겨 넣었다. 오른편에 있는 비의 앞면에는 ‘정렬 부인 진주강씨 불망비’라 썼고, 뒷면에는 양주조씨와 같은 건립 일자가 새겨져 있다.

□ 광시 전근금田斤金 효자비

전근금(田斤金, 1691~1769)은 본관이 나주이며, 예산군 광시면 미곡리에서 태어난 인물로 나중에 ‘전태운’으로 개명했다.

정려각이 광시면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두 번이나 미곡리를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의 눈에 띠는 비석이 하나 있었다. 이에 자세히 살펴보니 전근금의 효자비다. 효자비를 효자문으로 알고 정려각을 찾았으니 못 찾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전근금 효자비는 동서로 25(미곡리 210-2) 입구의 마을버스 정류장 오른쪽에 있었다.

전근금은 고려가 멸망하자 불사이군의 신조를 지키며 초야인 대홍현 광시에 묻혀 살

았다. 선비의 후손이라 학식이 높았다. 어려서부터 소를 키우며 농사일을 하였다. 아버지는 병석에 눕고 약을 써도 차도가 없다가 사망했다. 그 후 어머니 역시 같은 병에 걸려 밤마다 정성껏 기도를 드리니 하늘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병은 보통 약으로는 어림없다. 어머니 병을 고치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너의 피가 어머니 몸에 흐르게 되면 효험을 볼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계시라 생각하고는 급히 달려가 손가락을 잘라 피가 나오게 하여 그 피를 어머니 입에 흘려 넣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눈을 뜨고 기운을 차렸다. 또 한 손가락을 잘라 피를 어머니에게 먹이니 병이 완쾌했다. 부모가 돌아간 뒤 삼년 상 동안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삼년상 후에도 채식만 하며 효행을 이었다.

이러한 전근금의 효성이 알려지자 대홍과 청양, 홍주, 보령 등의 유생들이 감영에 소청을 올렸다. 공홍도(충청도) 관찰사가 1738년 왕에게 보고하니, 1741년 효자 정려각이 세워지고 전근금은 절충장군의 품계를 받았다. 세월이 지나며 현판이 썩어가자 후손들은 걱정했고, 전근금이 죽은 해인 1769년 그 자리에 효자비를 세웠다.



〈전근금의 효자비〉

1885년(고종 22) 전근금의 후손 전동수는 단자를 옮겨 전근금의 정려문을 옮겨 세웠다. 정려를 옮길 때 ‘나주전씨 삼세삼효三世三孝’라는 현판을 달았다고 한다. 여기서 삼세는 전근금과 그의 아들 전시복, 손자 전극대를 말한다. 3대 효행에 대한 정려를 건의하는 지방 유림의 상소문도 자세히 담겨 있다.

전근금의 정려문은 과거 비석과 함께 있었다. 다른 정려문과 다르게 초가지붕에 좌우 벽면이 흙으로 되어 있었다. 1962년 봄 화재로 정려문은 소실되었고, 효자비만 남게 되었다.

나주전씨 후손들은 절충장군 전근금을 비롯한 ‘삼세삼효’의 효행 관련 문서 18건을 보관하고 있다. 전근금 효자비는 비의 앞면에 ‘효자증절충장군전근금개명태운지거 금상십칠년신유십이월 일 명정려이현판공년구역후고기축십이월 일’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전근금의 비석을 찾아보고 예산군에 세워진 정려문의 건축 양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다. 전근금 정려문과 인근 삽교의 장윤식 정려문은 서로 달랐다.

삽교 월산리의 장윤식 정려문은 경복궁을 중건한 장인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전근금은 양인 신분이다. 후손들이 잘 보존하려고 노력했으나 불행하게도 정려문은 불에 타 소실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그 자리에 효자비만 남아 도로변에 서 있다.

□ 신양 이홍갑 李興甲 효자비

2019년 충남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마을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였고, 낙후된 농촌지역에 생활, 위생, 주택 정비, 마을환경개선 사업을 골자로 하는 ‘새뜰마을사업’이 선정되었다.

그 후 3년간 충남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는 주택 정비, 노후 담장 개량, 슬레이트 지붕 정비 등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23억 원이 지원되었다. 국도 32호선을 따라 공주 방면으로 가다가 보면 차동교차로가 나온다. 그곳에서 우회전하면 우측에 차동리 경로회

관이 나온다. 경로회관 입구 도로변 옆에 순조 때 대홍군수를 지낸 ‘오철상의 선정비’와 ‘이홍갑의 효자비’가 나란히 서 있다.

효자 이홍갑(李興甲, ?~?)의 본명은 이광이다. 이승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천하 효자로 알려졌다. 그의 효자비는 본래 차동 고개 아래에 있었는데 이후 신양면 차동로 193으로 옮겨진 것 같다. 그에 대한 행적은 효자비 비문 외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사단법인 오성장학회에서 1991년 발행한 『예산의 맥』에 ‘차동리 주민 이춘수 씨에 의하면 그는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먼저 부모님에게 드린 효자로 인정받았다.’라는 구술 기록이 있다.

1729~1736년의 예조 기록인 『효행제등록』에는 복호질復戶秩에 공산公山 사람 이홍갑에 대한 기록이 있다. 신양면 차동리는 조선 시대 공산에 속한 지역이다. 공산은 공주를 말하는 것이고, 공주는 충청도 관찰사가 있는 도의 중심지다. 신양은 1913년까지



〈이홍갑 효자비〉

공주부 신풍군에 속한 면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 사람이지만, 효자비가 세워지던 당시의 이홍갑은 공주 사람이었다. 비석 전면에는 ‘차동효자이홍갑 지 동’이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이홍갑의 효자비 옆에는 1817년(순조 17) 세운 오철상 선정비가 있다. 이 선정비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차동리 마을주민들이 도로 확장공사로 부득이 안쪽 마을회관 앞에 옮겨 놓은 것이라 한다.

오철상吳澈常은 1814년부터 1817년까지 3년간 대홍 군수를 한 인물이다. 아래 인용글은 1817년 대동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파직되었다는 내용의 기록이다.

1817년(순조 17) 10월 5일, 남공철이 대동미 미납으로 추국당한 대홍·덕산 수령 후임으로 양호의 수령을 빨리 차출하기를 청하다. 우의정 남공철이 아뢰기를, “일전에 선혜청의 초기와 복계로 인하여 양호의 여러 수령을 잡아다 신문하고 죄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동미를 배에 실어 상납하는 것은 원래 정해진 기한이 있어 아무리 흉년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감히 어기지 못하는 것인데, 작년과 같이 대풍년인데도 해당초 배를 출발시키지 않은 자가 있었고, 기한이 지나서 실어 보낸 자도 있었으며, 혹은 취재가 많은가 하면 혹은 얼음 속에 정박시키기도 하여, 미납된 수량이 자그마치 수만 석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략) 생각해 보면 환곡을 받아들이고 재결을 나누어 주는 때에 이렇듯 많은 수령을 잡아다 추국하는 일이 있으면 필시 여러 달 직무를 폐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를 범한 바가 이미 중감에 관련되니, 서둘러 후임을 차출하는 것만큼 편한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수령들을 우선 파직한 후에 잡아다 추국하고, 그 후임을 상례에 구애치 말고 특별히 가려서 차출하여 당일로 조사하여 대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에 파직하고 나문하여 출두한 수재는 서산 군수 이지연 … 대홍 군수 오철상 … 덕산 현감… 함열 전 현감 김용 등이다.

1817년은 대홍 군수 오철상이 파직을 당하고 쫓겨난 해다. 그러니까 오철상은 죄를 짓고 쫓겨나는 상황인데, 그가 선정을 베풀었다는 선정비가 세워졌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은 선정비라는 것이 대홍 주민들이 오철상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신양면 차동리 주민들은 왜 이곳에 근본 없는 선정비를 가져다가 이홍갑 효자비 옆에 세웠을까? 선정비와 효자비라는 이름이니 마을회관 앞이 세우면 보기 좋으리라 여겼을 일이다. 다만 오철상 선정비의 내막을 알고 나니 자꾸만 입안이 씁쓸해진다.

5 청주한씨 가문의 삼 정려각

- 효부 경주김씨·효자 한신묵·열녀 공신옹주

2020년 5월 초 토요일이다. 예산군청에서 당직 근무를 마치고는 아침 9시 대술면 마전리로 향했다.

당직 근무를 마치기 3시간 전에는 예산군 오가면 오촌리 전통예산옹기에 화재가 발생했다. 새벽에 황선봉 군수와 화재 현장을 다녀왔다. 다행히 큰불은 아니다. 화재는 문화재 등을 태워버리는 무서운 화마이다. 2000년도에는 소방청 화재 예방 표어 ‘화재 발생 무서워요. 화재 예방 참 좋아요.’를 응모하여상을 받았다. 전국에 내가 만든 화재 표어가 걸려 있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예산군에 산재하여 있는 정려에도 소화기를 배치했으면 싶다.

2020년 4월 『충남문화재단』에서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2차 공모심의 결과 ‘전문예술창작지원금’을 받았다. 그 소식을 접하고는 마음이 급했다. 시간 나는 대로 예산군의 정려 탐방을 마쳐야 한다. 올해 ‘조선시대의 예산 문인과 예산인의 삶’을 수필집으로 완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퇴근길, 집으로 빨길을 향하지 않고 대술면과 신양면의 정려문을 찾아갔다. 가는 동안 봄비가 내렸다. 어제 당직 근무로 몸은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예산군청에서 출발하여 신양면 방향으로 가다 보니 좌측 도로변에 대술면 마전리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있다. 좌회전하여 대술면 마전리 마을에 진입했다. 대술면 마전리 646번지에 있는 마을 보호수 느티나무가 비를 맞아 더 푸르게 보였다. 조금 더 가니 마전리 중삼마을에 이른다. 봄이 이만큼 다가온 기분이고, 정려는 도로변 들판 왼쪽에 접해 있었다.

대술면 마전리 한씨 효자·효부·열녀 삼정려다. 조선 전기 한경침(1482~1504)의 처 공신옹주(1481~1549)와 조선 후기 효자 한신묵(1785~1838), 한재건(1817~1871)의 처 경주김씨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정려각이다.

□ **열녀 공신옹주**(恭慎翁主, 1481~1549)에 대해서는 다음 항인 <6. 임금이 옹주에게 정려문(열녀문)을 내리다> 참조.

□ **효자 한신묵**(韓愼默, 1785~1838)

한신묵은 병환 중인 어머니가 겨울에 수박을 먹고 싶다고 하자 눈 속에서 수박을 찾아 봉양하였다. 또 어머니가 잉어를 찾자 얼어붙은 호수에 무릎을 끓고 천지신명께 빌었다. 신기하게도 잉어가 튀어나왔다. 잉어를 끓여 어머니에게 먹이고, 이머니의 뚱을 맛보아 병세를 진단하였다. 한신묵은 이러한 효행으로 교관에 증직되고 명정을 받았다.

□ **효부, 한재건**(韓在建, 1817~1871)의 부인 경주김씨

경주김씨는 한재건의 부인이다. 그녀는 17세에 결혼하였고, 남편이 병에 걸리자 약을 구하여 병간호하며 낫기를 빌었다. 큰 노력에도 남편은 사망했다. 그녀는 남편을 따라 자결 결심을 했다. 그러나 자식들이 있고 집안을 건사하기 위해 자결을 하지 못하였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이후 자식을 잘 키운 행적이 인정되어 1884년(고종 12) 명정을 받았다.

예산군 대술면 마전하삼길 171에 한씨 삼정려 내부 중앙의 상단부에는 현판 3개가 있다. 현판에는 왼쪽부터 '절부 순의대부 청령위 한경침 배 공신옹주 지려 정덕이년 정묘 십이월 명정', '효자 증동몽교관 조봉대부 한신목지문 성상 즉위 이십일 년 갑이 신 팔월 명정', '열녀 학생 한재건의 처 유인 경주김씨 지려 갑신 팔월 명정'이라 새겨져 있다.

한신목의 아들 한재인(1803~1867)의 주도로 정려를 중건했다. 정려를 중건할 당시 공신옹주 정려에 아버지 한신목을 함께 명정하였다. 공신옹주 정려문은 원래 옹주가 살았던 아산에 있었다고 하는데, 정려와 옹주에 대한 더 자세한 기록은 없다.

한씨 효자·효부·열녀 삼 정려각은 300년 이상의 세월을 두고 한 가문에서 세 명의 정려가 나온 보기 드문 사례다. 특히 공신옹주의 정려는 이건되었지만 500년 넘는 세월 동안 보존된 문화재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



〈공신옹주, 한신목, 경주김씨의 삼 정려각〉

영조의 둘째 딸인 화순옹주(1720~1758)는 13세인 1732년(영조 8) 김한신과 결혼한 후 남편이 죽자 옹주의 신분임에도 남편의 뒤를 따라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 이에 1783년에 열녀 정려문이 내려진 화순옹주와 더불어 조선을 태평성대를 이끈 성종의 넷째딸인 공신옹주는 왕족의 신분이란 공통점이 있다.

참고문헌(자료)

1. 『디지털예산문화대전』
2. 『문화유적분포지도』, 예산군(충청남도, 충남개발연구원), 2001
3. 『대술면지』, 2009

6 임금이 옹주에게 정려문(열녀문)을 내리다

조선 임금이 공주나 옹주에게 내린 정려는 화순옹주에게 내린 오직 하나뿐이라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다. 예산군에는 왕의 딸인 옹주 2명의 정려가 있다. 대술면 마전리에는 공신옹주의 정려각이 있고, 신암면 종경리에는 화순옹주의 정려각과 홍문이 있다.

공신옹주 정려문은 애초 아산에 있다가 예산군 대술면으로 옮겨 세워져 여러 차례 중수했다. 화순옹주의 홍문은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에 세워져 있다. 화순옹주는 추사의 가족과 관련되어 조선의 왕실에서 배출한 유일한 열녀로 인식되고 있지만, 공신옹주의 열행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공신옹주는 연산군 때 남편이 죽은 후 아산에 위리 안치가 되었지만 끝내 절의를 지킨 왕족이다.

임금의 딸에는 공주와 옹주가 있다. 왕비의 소생은 공주이고 후궁 소생은 옹주가 된다. 원래 옹주라는 칭호는 왕의 후궁이나 대군의 부인에게도 주어졌다. 하지만 세종대

에 내명부와 외명부에 대한 칭호 법이 확립된 이후 옹주는 후궁 소생의 딸을 이르는 칭호로 굳혀졌다. 후궁은 왕의 총애를 받는 정도에 따라 품계에 차등이 두어졌고, 왕비가 아닌 왕의 아내와 첩을 이르는 말이다.

화순옹주와 공신옹주는 후궁의 소생이다. 그러나 보니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지 못했다. 공주나 옹주가 귀족이나 신하에게 시집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임금이 자기 딸이나 후대 임금이 왕족의 자녀에게 정려문을 내리기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다.

□ 열녀 공신옹주_{恭慎翁主}

공신옹주(恭慎翁主, 1481~1549)는 성종의 4녀이자 서 3녀다. 귀인 윤씨의 외동딸이다. 그녀는 1494년(성종 25) 한명희의 손자인 청녕위 한경침과 혼인하였다. 한명희는 조선 전기의 권력가이며 외척을 활용한 정치가다. 수양대군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세조 조로부터 성종 조까지 최고의 권력을 누렸다. 1994년 104부작 월·화요일, KBS2 대하 드라마 <한명희>로 방영되어 널리 알려진 인물로 예종의 첫 번째 왕비인 장순왕후와 성종의 첫 번째 왕비 공혜왕후의 아버지이며, 두 왕의 장인이다.

1498년(연산군 4)에 공신옹주의 남편 한경침이 사망했다. 이들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1504년 4월 18일,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 윤씨의 폐위에 가담한 정창손, 한명희, 심희, 정인지 등에게 죄를 물어 부관참시하기로 했다. 4월 20일, 이극균과 윤필상의 시신을 능지처참해서 사방으로 보내고, 정창손과 공신옹주 부친 한명희, 심희의 묘를 파내어 부관참시했다. 이들은 모두 세조 왕위 찬탈에 적극 협조했던 공신들이다. 폐비 윤씨는 조선의 9대 왕인 성종의 계비이며 연산군의 친모다. 공혜왕후 한씨에 이어 왕비가 되어 연산군을 낳았으나 투기했다는 죄목으로 폐출된 뒤 사사되었다.

연산군은 어머니 윤씨와 관련된 이들을 색출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능지처참하거나 부관참시하는 참혹한 살육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신옹주는 어머니를 잃고 서인으로 강등되어 위리안치가 되었으나 죽음은 면하였다.

연산군은 공신옹주를 서인으로 강등하고 충남 아산현에 위리안치하였다. 이때 공신

옹주는 남편의 신주를 가져가 아침저녁으로 제사를 모셨다. 무슨 음식이든 신주에 먼저 천신한 후 입에 대었다. 이에 사람들이 감탄하였다. 공신옹주는 몇 년 뒤 위리안치에서 풀려났다. 동생인 중종이 연산군을 내몰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아산현 유배지에서의 공신옹주의 행적이 조정에 알려지고, 중종은 정문을 세우도록 하고 표창했다. 옹신공주의 외가인 영월 엄씨 가문과 남편 한경침의 제사를 위한 일도 도왔다. 공신옹주는 수를 다하고 69세에 사망했다.

평범한 사람이든 왕족의 사람이든 여자가 정절을 지키고 열행을 실천한다는 일은 당시나 지금이나 대단히 힘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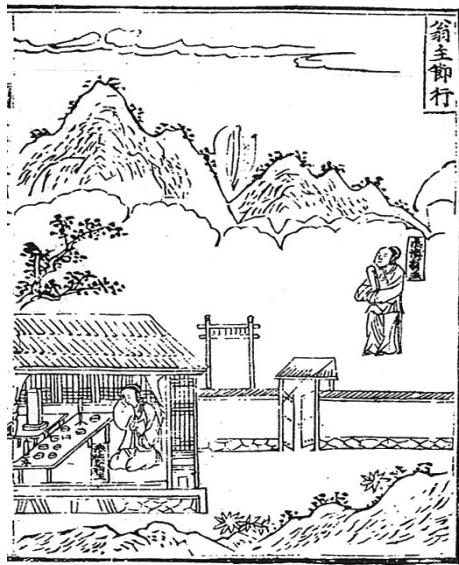
충남 예산군 대술면 마전하삼길 171번지에는 한씨 삼 정려각이 있다. 내부 중앙의 상단부에는 현판 3개가 있고, 현판에는 왼쪽부터 ‘절부 순의대부 청령위한경침배 공신 옹주지려 정덕이년정묘십이월 명정’, ‘효자 증동몽교관 조봉대부 한신묵지문 성상즉위 이십일년갑신 팔월 명정’, ‘열녀 학생 한재건의 처 유인 경주김씨 지려 갑신 팔월 명정’ 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옹신옹주의 절행에 대한 『삼강행 실속록』의 기록은 이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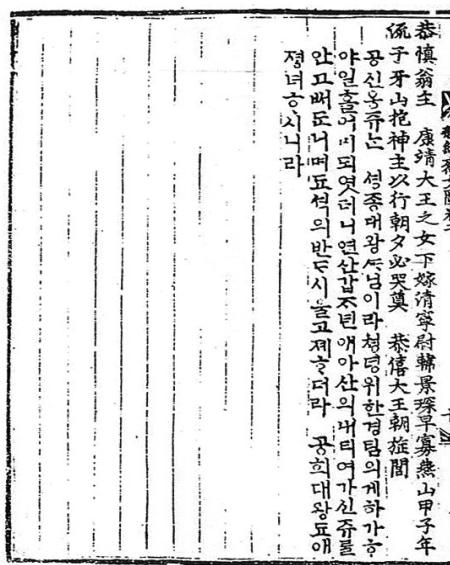
옹주절행 翁主節行 – 옹주가 절의를 행하다

“공신옹주는 성종대왕 따님이다. 청녕위 한경침에게 시집을 갔다가 일찍 흘어 미가 되었더니, 연산 갑자년의 아산에 내쫓겨가 신주를 안고 다니며 아침저녁으로 반드시 곡을 하고 제사하더라. 중종조에 정려를 하사하였다.”

翁主節行，恭慎翁主康靖大王之女 下嫁清寧尉韓景琛 早寡 燕山甲子年流于牙山 抱神主以行 朝夕必哭奠 恭僖大王朝旌閨。”



〈신속열녀도〉



〈신속열녀도〉

□ 열녀 화순옹주 和順翁主

영조는 효장세자와 사도세자, 7명의 옹주를 두었다. 화순옹주는 영조의 서 2녀이며, 이름은 향이 香怡로 후궁 정빈이씨의 소생이다.

화순옹주는 13세 때 동갑인 경주김씨 김한신과 결혼했다. 월성위 김한신은 당시 영의정이었던 김홍경의 아들이다. 그는 글을 잘 쓰고 애책문, 시책문, 전각 등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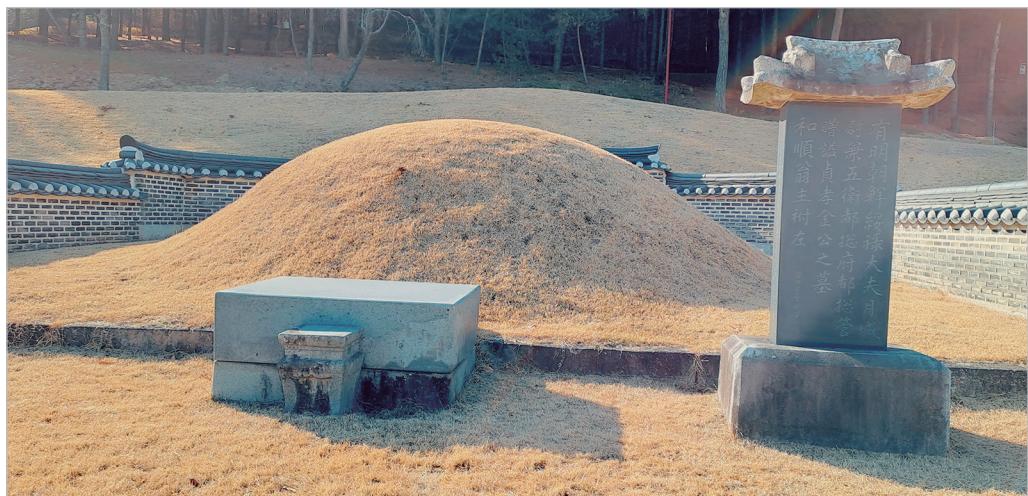
김한신은 몸이 약했지만, 병석에 누운 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였다. 직접 약을 지어 드렸다. 그러나 어머니 황씨 부인은 1748년(영조 24) 8월에 돌아갔다. 1750년(영조 26) 3월 26일, 아버지 김홍경도 사망했다. 김한신은 아픈 몸을 이끌고 슬퍼하며 사당에 나아가 제를 올리는 예를 다했다. 1758년 사직 현관의 벼슬을 지내던 김한신은 평소 앓던 담비증이 악화하여 죽었다. 그의 나이 39세였다.

김한신이 죽자 화순옹주는 곡기를 끊고 슬퍼하다가 14일째 되던 날 남편의 뒤를 따라갔다. 돌아보면 화순옹주의 핏줄들은 다 요절하였다. 영조의 첫째 아들이며 왕세자

였던 친오빠 효장세자는 10살에 죽었다. 영조의 첫째 딸인 언니 화억옹주는 1살에 죽었고, 모친 정빈이씨는 화순옹주를 낳고 27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갔다. 하나 남은 화순옹주가 남편을 따라가니 그녀의 나이 39세였다.

1758년 1월 17일, 예조판서 이익정이 영조를 청대하여 ‘화순옹주의 상은 만고에 없던 일이니 마땅히 정려문을 내리는 은전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보고하였으나 영조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 까닭은 좌의정 김상로에게 이른 영조의 말에 잘 나타난다.

“자식으로서 아비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침내 짚어서 죽었으니 효에는 모 사람이 있다. 앉아서 자식의 죽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비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듭 타일러서 약 먹기를 권하니, 그가 웃으며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에 이르시니 어찌 억지로라도 마시지 않겠습니까?’라고 하고, 조금씩 두 모금 마시고는 곧 토하면서 말하기를, ‘비록 성상의 하교를 받들었을지라도 중심이 이미 정해졌으니, 차마 목에 내려가지 아니합니다.’ 하기로, 내가 그 고집을 알았으나, 본심이 연약하므로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차차 마실 것을 바랐는데, 어버이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침내 운명하였으니, 정절은 있으나 효에



〈김한신과 화순옹주의 합장묘〉

는 모자란 듯하다.

김한신이 죽던 날 바로 죽었으면 내가 무엇을 한스러워하겠는가마는, 열흘을 먹지 아니하니 내 마음이 크게 괴로웠다. 아까 예조판서가 정려을 내리는 은전을 청하였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아비가 되어 자식을 정려하는 것은 자손에게 법을 주는 도리가 아니며, 또한 뒤에 폐단됨이 없지 아니하다.”

김한신과 화순옹주가 연이어 절명하자 영조는 제사 터를 마련하라 지시했다. 이에 예산현에서는 1759년 하순에 대지를 조성하고 낮은 담장을 두르고 재청을 만들었다. 아래 인용 글은 1758년 1월 17일, 『영조실록』에 나오는 화순옹주의 관련 기록이다.

화순옹주가 졸하였다. 옹주는 바로 임금의 첫째 딸인데 효장세자의 동복누이 동생이다. 월성위 김한신에게 시집가서 비로소 궐문을 나갔는데, 여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깊이 가졌고, 정숙하고 유순함을 겸비하였다. 평소에 돈이나 물건이나 자원을 아껴 쓰고 고귀하게 여기고 옷과 몸차림의 꾸밈새에 화려함과 사치함을 쓰지 않았으며, 부마도위와 더불어 서로 경계하고 힘써 늘 깨끗하고 삼감으로써 몸을 가지니, 사람들이 이르기를, ‘어진 도위와 착한 옹주가 아름다움을 짹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도위가 졸하자 옹주가 따라서 죽기를 결심하고 한 모금의 물도 입에 넣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이를 듣고 옹주의 집에 친히 나들이하여 미음을 들라고 권하자, 옹주가 명령을 받들어 한 번 마셨다가 곧 토하니, 임금이 그 뜻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는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돌아왔다. 이에 이르러 음식을 끊은 지 14일이 되어 마침내 굶고 약을 쓰지 않아 목숨이다 하였다.

정렬한다. 그 절개와 지조여! 이러한 절개는 먼 예로부터 왕녀 중에는 있지 않았다. 옹주는 조정을 받들어 위로하고 아랫사람이 웃어른에 대하여 뜰 아래에 나아가서 안부를 물어 살피었다.

사신吏臣은 말한다. ‘부인의 도는 정貞 하나일 뿐이다. 세상에 남편이 죽어 큰 슬픔을 당한 자는 누구나 목숨을 끊어 따라가서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겠지마

는, 죽고 사는 것이 또한 큰지라, 하루아침에 집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목숨을 끊는 이는 크게 적다. 그러나 정부·열녀가 마음의 상처가 크고 슬픔이 심하여, 그 자리에서 자살하는 그것은 가끔 쉽게 할 수 있지만, 어찌 열흘이 지나도록 음식을 끊고 죽음을 맹세하여 마침내 능히 성취하였으니, 그 절조가 옹주 같은 이가 있겠는가? 이때를 당하여 비록 임금의 엄하고 친함으로서도 능히 감동해 돌이킬 수 없었으니, 진실로 순수하고 굳세며, 지극히 바른 기개가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용사라도 그 뜻을 빼앗지 못할 바가 능히 이와 같겠는가? 이는 진실로 백성의 살림집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낫은 여자도 어려운 바인데, 이제 왕실의 귀주(왕의 딸을 높이는 말)에게서 보게 되니 더욱 우뚝하지 않은가? 오! 지극한 행실과 순수한 덕은 진실로 우리 성호께서 전수하신 마음 쓰는 법이므로, 귀주가 평일의 귀에 젖고 눈에 뵈 것을 또한 남편에게 옮겼다. 오! 정렬하다. 오! 아름답다.”

영조는 화순옹주의 정절을 기리면서도 ‘부왕의 뜻을 저버리고 효도를 다 하지 못하였다’ 하여 정려를 내리지 않았다. 이에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가 정려를 내린다. 1783년(정조 7) 음력 2월 6일, 정조는 화순옹주와 화평옹주에게 정문을 내리고 표창하였다.

왕이 전교하기를,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신하에게는 충이 되고 자식에게는 효가 되며 지어미에게는 열이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지어미가 지아비를 따라 죽는 것은 교훈으로 삼기 어렵다’라고 한다. 그러나 자식이 어버이의상을 당해 슬픔이 지나쳐 생명을 해치는 것을 성인이 경계하였어도 비통함을 못 견디는 것이 효가 되는데 해가 되지 않으니, 지아비에 대한 지어미의 마음이라고 해서 이와 다르겠는가. 일심동체인 부부간의 의리를 중시하여 같은 무덤에 묻히려는 뜻을 품고 결연히 목숨을 버려 이 뜻을 추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도 장렬한 일이 아니겠는가. 백성의 집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일반 백성에게도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제왕의 집안에서야.”

〈중략〉

예로부터 제왕의 집안에 없던 일이 유독 우리 집안에서 생겼으니, 동방에 정조와 신의를 지키는 여인이 있다는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어찌 우리 집안의 아름다운 한 집안의 예의범절을 빛낸 일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귀주는 평소에 천성이 유순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상의 의무를 온전하게 갖추어 죽음과 삶과 의리의 경중을 본래부터 잘 알고 있었으니, 순간적인 감정으로 죽음을 결정한 사람에게 비교할 바가 아니다. 아, 또한 홀륭하도다.

귀주처럼 행실이 탁월한 사람이 있다면 정문을 세우는 은전을 어찌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일찍이 마음속에서 잊은 적이 없으면서도 미처 거행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각 도의 효행·열행임을 기리고 장려하는 때를 만나니 슬픔이 더욱 절실히 솟구친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대를 잇는 아들이 화순 귀주의 집에 나아가 그 문에 ‘열녀’라고 어진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어 널리 알리게 하라.”

또 전교하기를,

“화순 귀주의 집에 이미 정문을 세우고 은전을 거행하기로 하였으니 정려하는 날 제물과 제문을 보내어 제사 지내도록 하라. 제문은 내가 친히 짓겠다. 이에 따라서 또 감회가 이는 것이 있다. 화평귀주(영조의 둘째 딸)의 덕성과 품행은 궁중에서 지금도 여인 중의 군자라고 칭송하고, 또 천성적으로 타고난 효성과 우애는 실로 모두 기록할 수조차 없는데, 한스럽게도 내가 뒤늦게 태어나 그녀의 차린 모습을 미처 뵙지 못하였다. 그런데 화순귀주의 집 문에 이렇게 정표하라는 명을 내렸으니 이 귀주의 집에 어찌 성의를 표시하는 일이 없어야 했겠는가. 또 한 날을 가려 치제하게 하라. 제문은 역시 이미 친히 지었다. 모두 10일 이후로 거행하라.” 하였다.

화순옹주와 함께 정려문을 내린 화평옹주는 영조의 서 3녀이다. 어머니는 영빈이씨이며 사도세자의 친누나다. 그녀는 반남박씨 박명원에게 시집갔는데 3년 만인 21세에 사망하였다. 영조는 평소 화평옹주를 유독 귀히 여기고 사랑했다. 딸들 가운데 가장 성

대하게 혼례를 치르게 했으며 화평옹주가 아플 때도 장례식에도 직접 찾아갔다.

정조가 화순옹주에 내린 열녀 정려문은 근거가 명확하다. 반면 화평옹주에게 내린 정려문의 근거는 뚜렷하지 못하다. 이는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화순옹주 홍문은 묘막터 정문 위에 ‘烈女綏祿大夫月城尉兼五衛都摠府都摠管贈謚貞孝公金漢蘊配和順翁主之門 上之七年癸卯二月十二日 特命旌閭(열녀 수록대부 월성위 겸 오위도총부 도총관 증시 정효공 김한신 배 화순옹주 지문 상지 7년(1783년) 계모 2월 12일 특명정려)’가 새겨진 긴 현판이 걸려 있다.

정면 8칸, 측면 1칸인 화순옹주 홍문은 1976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고, 1980년 10월 23일에는 김정희 선생 유적이란 이름으로 충청남도 기념물 제24호로 지정되었다. 이곳에는 홍문 외에 화순옹주와 김한신의 합장묘, 김정희의 묘



〈화순옹주 홍문〉

등이 있다.

화순옹주 제청은 한경이 만든『오산문첩』에 의하면 제막 터는 99칸으로 되어 있다. 담장의 칸수는 66칸이다. 제청의 담장은 천안 군정 1백여 명 이상이 차출되어 담장을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택은 김한신이 건립한 재택으로 전하지만 건립 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묘막터의 면적도 정확히 기록한 것이 없다. 화순옹주 제청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주춧돌만 남아 있는데 예산군에서는 관심이 없는 듯하여 아쉽다. 역사적인 기록이 전해지는 화순옹주 제청을 왜 복원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조선 후기의 학자인 홍직필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66년에 간행한 시문집『매산집』 제52권 ‘잡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예로부터 제왕가의 딸이 그보다 신분이 낮은 귀족과 혼인하여 능히 효성하고



〈화순옹주 흥문 뒷면〉

공경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영릉(효종)의 여러 공주의 경우에는 시부모에게 예를 다하였으며, 또 천하의 사람들이 따르는 바로는 오직 성묘조(성종 때)의 청녕위 한 경침의 처 공신옹주와 영묘조(영조 때)의 월성위 김한신의 처 화순옹주가 있다. 또한 성조에게서 몸소 가르치기를 바르게 실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58년 3월 『승정원일기』에는 화순옹주가 예산군 신암면 자택이 아닌 임금과 가까운 적선방(화순옹주 방 재택)에서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한신이 죽고 상여가 산소를 향해 나갈 때 예산의 공역에 종사하는 장정 12명이 까닭 없이 죽었다. 1758년(영조 34) 3월 27일, 암행어사 이경옥을 접견하여 소식을 접한 영조는 해당 현감을 중죄인으로 하여 의금부로 잡아들이라 하고, 죽은 장정의 가족들에게 이재민을 구제하는 은전을 전하라 했다. 운구가 예산으로 내려오는 도중 평택과 수원에서는 민간에 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예산현감 한경은 1758년 11월 부임하여 화순옹주 제청에 관한 일을 보고했다.

1759년 정월 27일, 화순옹주 제청의 역사를 각 읍에 나누어 정하였다. 1759년에는 많은 장정과 기와, 재목, 모래, 온돌석 2백 80개, 예산과 신창, 온양, 아산, 합산포에서 119개의 받침돌을 묘소로 운반하고, 덕산과 합산포에 있는 재목을 운반하였다. 국가에서 동원령을 내려 군현의 지원으로 화순옹주 제청의 묘막터를 신축하였다.

당시의 문헌에는 1759년 화순옹주 제청의 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한 일, 1759년 4월 3일 화순옹주의 담장을 각읍 면에 분배한 일, 화순옹주 제청 담장 9칸을 천안에서 담당한 일 등 그 기록이 자세하다.

□ 화순옹주 제청전祭廳殿의 재건립을 바란다

필자가 추사고택을 처음 방문한 것은 고등학생 때다. 1학년 420명이 삽교천을 따라

신암면 용궁리를 걸어서 갔다. 봄철인데도 땀이 났다. 도착하여 직원으로부터 추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방문했다.

최근 예산읍에서 발간한『예산읍지』를 읽다가 예산현감 한경이 1758년(영조 39) 작성한『오산문첩』공문서 필사본에 화순옹주 제청 관련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것을 토대로 각종 기록을 찾아보고는 월성위 김한신의 상여가 묘소를 향해 나갈 때 군정 12명이 우연히 죽게 된 일, 화순옹주 제청에 참여한 인력과 제정 역사를 각 읍에 배분한 일, 제청의 담장 9칸을 천안에서 담당한 일 등을 알게 되었다.

2024년 12월 23일,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이순주 소장 퇴임식에서 점심을 먹고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의 추사고택을 방문했다. 그곳에 간 목적은 화재로 소실되지 않은, 화순옹주 제사를 지내는 대청터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었다. 추사고택에 도착하니 문화관광해설사와 직원이 반겨주었다. 추사 김정희 선생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후지츠카 교수가 추사고택을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 화순옹주 흥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 사진은 추사고택 사무실 영상 홍보 동영상 장면에 나온다고 했다. 이러한 사진은 중요한 기록물이다. 화순옹주의 묘막터가 소실되기 전의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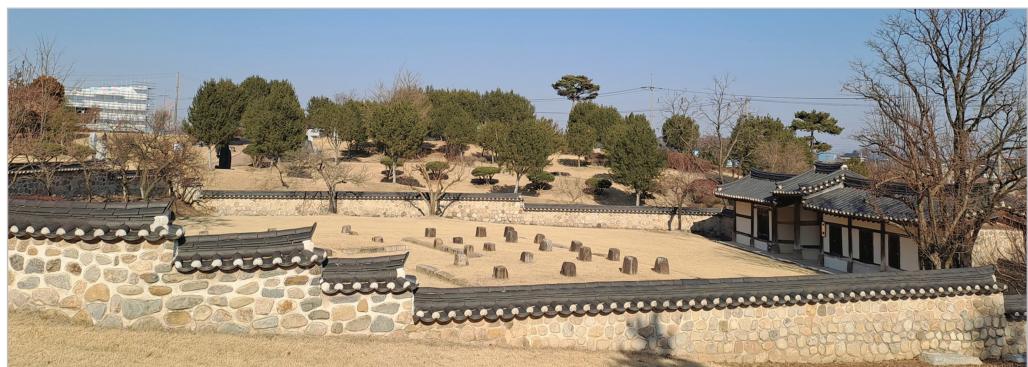
〈예산 추사고택, 추사고택 별가(추정). 1930년대〉

집으로 돌아와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오가와 데루요 문화관광해설사가 보내준 사진 3장이 나온다. 동영상을 틀어보고 서둘러 사진 촬영을 하여 보낸 것 같다.

오가와 데루요는 일본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여성이다. 예산군에 시집와 농사일하면서 1인 5역의 일을 맡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로, 덕산면 부녀회장으로, 월진회 회원으로, 예산의 문인으로, 가정주부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근면 성실한 이로 칭찬받고 있는 사람이다.

후치츠카 치카시 교수는 1930년대 경성대학교 법문학부 중국철학과 교수 재직 시절 추사 김정희 묘역을 방문했다. 이때 ‘석유 김완당선생지묘’라는 풋말을 세웠다. 그는 1948년 12월,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들 후지츠카 아키나오는 2006년 2월과 8월에 걸쳐 아버지가 평생 수집한 추사 김정희 관련 자료를 경기도 과천시에 기증했다.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 예산군이 나서서 추사 관련 자료를 기증받아야 만 했다.

1758년 예산현감 한경은 4년 7개월 재임 기간 열심히 일을 했다. 특히 국가적인 역사를 신축하려고 동분서주 노력하여 화순옹주 묘막을 준공했다. 그런데 지금의 화순옹주 제청전은 화재로 소실되어 주춧돌만 남아 있다. 정려각과 정려문만 남아 넓은 공간이 텅 비어 쓸쓸하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예산현감은 드문데, 한경 현감의 『오산문첩』공적에 대해 예산군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못내 아쉽다.



〈화순옹주 제청전(묘막터)〉

267년여 전 그러한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춧돌 위에 재현하여 다시 제막 터를 다시 지었으면 좋겠다. 한경 현감의 『오산문첩』은 역사적으로 고증 가치가 크다. 아무런 근거 없이 화순옹주 제청 재건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혼존하는 여러 자료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추사고택에서 근무하는 직원(오가와 테루요)이 보내준 사진은 화순옹주 홍문 사랑채 앞에서 일제 강점기 때 후지츠까 경성대학 교수가 촬영한 것이다. 화순옹주 제청이 드러난 이 사진을 볼 때 1930년대 이후 관리 소홀로 제청이 화재로 소실된 것 같다.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서 김한신 행상 때 12명의 군정이 죽었다. 임금의 재가로 국가적인 역사에 충남도민 수천 명을 동원하여 만든 것이 묘막터임을 예산인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 화순옹주 제청이 복원되길 생각한다.

참고 자료(문헌)

1. 『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 『디지털예산문화대전』
3. 『신암면지』, 2008
4. 『각사등록』에 등록된 『오산문첩』
5. 『추사 자료의 귀향』, 최종수, 2008년 과천문화원, 태양 씨엔피
6. 『조선의 왕실과 외척』, 박영구 지음, 2005년 김영사
7.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세계사 2017
8. 『조선왕조사 이야기』, 이근호 지음, 청아출판사. 2010
9. 『조선왕비 오백년사』, 윤정란 지음, 이가출판사, 2011
10. 『디지털 장서각 한국학 자료센터』, 자료분류(왕실)
11. 『월성위 김한신 가문의 공간이 갖는 역사적 의미』, 김인경 선문대 교수 논문집, 2022

7

임금과 암행어사에게 효의 행적을 호소하다

- 김정희, 박진창, 김상준 · 김현하 부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 억울함이 심한 경우 사무친 원한으로 자리잡기도 한다. 이럴 때 현대인들은 소송이나 권익위원회 등의 다양한 법적 행정 제도를 이용한다. 조선 시대에는 신원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신문고, 상언, 격쟁 등이 있었다.

신문고 제도는 조선 태종 때 시행되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궐 밖 문루에 달린 신문고를 울렸다. 이를 통해서 임금은 백성의 억울함을 직·간접으로 듣고자 했다. 백성의 힘든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백성의 편에서 국정을 살피고자 하는 왕의 의지가 담긴 신문고 제도다. 그러나 신문고를 울리는 절차는 까다롭고 힘들었다. 이에 백성들이 신문고를 울리는 경우는 극히 적었고 시대가 흐르면서 신문고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상언上言’은 임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문서다. 이는 벼슬아치 양반으로부터 평민과 천민도 이용할 수 있는 문서였다. 문서로 자신의 억울을 호소하는 제도에는 상소上疏가 있는데, 이는 벼슬아치나 유생·사림이 왕에게 올리는 문서로 한문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상인은 한문이 아니라 일상의 말을 나타내는 이두更讀로 글을 쓸 수 있었다. 이에 평민이나 천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는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격쟁擊鋒’이 있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의 행차 때 길가에 나가 징이나 팽과리를 쳐 직접 하소연하는 방식으로, 16세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글을 아는 선비는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글을 모르는 일반 백성은 상소나 상업보다 격쟁을 더 활용하였다. 격쟁으로 백성들의 민원이 관청에 접수되면 3일쯤 지난 시기에 민원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 추사 김정희

추사 김정희는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으로 귀양살이하는 아버지를 위해 격쟁을 이용한 사람이다. 추사는 아버지의 정계 복귀를 위해 방법은 거칠더라도 억울함을 직접 격쟁 방식으로 호소했다. 1832년 2월 26일 자의 『순조실록』에는 ‘의금부에서 김정희의 격쟁에 대해 원정을 멈추고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청하니 윤허한다’라는 다음 내용이 나온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전 승지 김정희는 그의 아비 김노경에 대한 공원의 일로써 징을 쳤는데, 털어놓고 간곡히 호소하여 본즉 이르기를, ‘저의 아비 김노경은 재작년에 김우명이 터무니없이 꾸민 모함과 추악한 욕설로 참혹하게 당했습니다. … 저의 증조모(화순옹주)의 영령께서도 또한 앞으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가 이른바 감정을 억제하고 경계했다는 말은 일찍이 성상 27년 여름 사이에 저의 아비가 인척 집 연회의 자리에 갔었는데, 남해현에 귀양을 보냈던 죄인 김로가 마침 그 좌석에 있다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저의 아비를 향하여 말하기를, ’대리 청정하게 된 이후로 소조에서 온갖 중요한 정무를 대신하여 다스리고 모든 정사를 몸소 장악하셨으니, 어찌 성대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자, 저의 아비가 대답하기를, ‘예령이 한창이신 이때 여러 가지 정사를 대신 총괄하시어 능히 우리 대조에서 부탁하신 성의를 몸 받으셨으니, 나 같은 보잘것없는 무리도 잠시 죽지 않고서 성대한 일을 볼 수 있게 되어 기쁨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 말한 것이 여기에 그쳤는데, 수십 년 동안 감정을 억제하면서 경계했다는 말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어맥이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저의 종형 김교희는 영변의 임소에서 체직되어 돌아와 갑자기 뜬소문이 유행하는 것을 듣고는 김로를 공좌에서 만나 그때 수작한 것이 어떤했는지를 다그쳐 물었는데, 김로가 대답한 바는 곧 저의 아비의 말과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김로가 지금 살아 있으니 어찌 감히 속이겠습니까? … ‘제가 사람의 자식이 되어 아비가 이러한 악명을

안고 있는 것을 보고 아비를 위해 송원하기에 급하여 이렇게 만 번 죽음을 무릅쓰고 원통함을 호소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가 바야흐로 벌어져 죄 안이 지극히 무거우니, 청컨대 원을 멈추고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이상의 기록을 보면 김정희는 아버지를 위해 격쟁으로 아비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호소하였고 임금은 격쟁을 멈추라 하였다. 하지만 추사는 이를 듣지 않고 그해 9월 6일 다시 꽁과리를 치면서 격쟁으로 소원하였다. 김정희 같은 인물이 꽁과리를 치며 소원하는 일은 그 당시 혼한 일은 아니었으니, 부모를 위한 그의 효심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순조는 김정희의 호소를 들어 주지 않았다.

김정희는 김우명과 악연을 지녔다. 김정희가 충청우도 암행여사 시절 김우명을 봉고 파직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악연의 시작이었다.

1830년 8월, 안동김씨 문중은 파직된 김우명을 종6품 무관직인 부사과副司果의 벼슬에 오르도록 했다. 다시 벼슬아치로 돌아온 김우명은 김정희의 부친 김노경을 모함하는 상소를 올려 김노경을 전라도 강진현 고금도로 유배되게 한다.

김우명과의 악연은 이에 그치지 않고 14년이 지나 또다시 이어진다. 김우명은 승승장구하여 1839년 사간원의 대사간에 오른다. 그런 김우명의 상소로 김정희까지 벌을 받게 된다. 1840년 9월, 김정희는 제주목 대정현으로 귀양을 가게 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 만들어 그 안에 가두는 위리안치형에 처한다.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김씨의 오빠는 경주김씨 가문의 김귀주다. 사도세자를 탄핵해 죽게 한 문신이다. 그들은 시파인 순조 부인의 장인 김조순 중심의 안동 김문과 대립각을 세우다 큰 피해를 본다. 안동김씨 가문은 왕족의 가족보다 힘이 센 척사 가문이다. 그런 세력은 추사가 암행여사 시절 봉고 파직당한, 74세의 김우명이 가진 원한을 재차 이용하는데, 그는 사실 안동김씨가 아닌 원주 김씨다.

세도가인 안동김씨 가문은 혼인을 통해 가문들과 결합하여 국혼을 맺었다. 왕실과 결합하여 경주김씨 가문과 다른 가문에게 화를 입게 했다. 김정희는 수십 년 동안 김우명과의 악연으로 제대로 된 관직 생활을 하지 못했다.

□ 효자 박진창

효자 박진창(朴鎮昶, 1784~1837)의 정려각은 고덕면 사리에 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효자였고,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 극진히 모셨다. 부모가 죽자 그는 5~6년이나 여 막살 이를 했다. 그런 효행이 알려져 그가 죽은 후 23년이 지난 1850년 상서를 올렸고 1893년(고종 30) 효자 명정을 마침내 받게 되는데, 이는 관원과 유생들의 상언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조선 시대에 정려를 받으려면 그 고을의 관청과 유학자나 정려를 받으려는 사람의 후손이 신청해야 했다. 중앙 행정관청인 예조에 신청하여 효자로 인정받으면 임금은



〈효자 박진창의 정려각〉

명인 명정을 내렸다. 정려를 받는 일은 그 사람의 집안뿐 아니라 그 마을의 경사였다.

현재 박씨 후손들은 외지로 이사 가서, 사연 깊은 박진창 효자 정려문을 보살펴 주는 이가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1850년, 덕산 유학 안상렬 등이 박진창의 효행 행적을 암행어사에게 상소했다. 아래 내용은 그 상소문의 한 부분이다. 이 상소문은 이희재와 이제상 선생이 조사 발굴한 것으로, 2004년 12월 26일, 향토 한학자 전용국 선생이 번역한 내용이 『고덕면지』에 실려 있다. 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본 도내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안상렬 등은 삼가 백 번 고개 숙여 절을 하고 암행어사 정사를 보는 곳에 글을 올립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입니다. 천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 계실 때 그 봉양을 극진히 하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상중의 예 등을 다하는 것은 효자로서 대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절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덕산군 도용면 계명리(예산군 고덕면 사리)에 거주하는 박진창은 궁벽한 시골에서 가난하고 문벌 없는 한미한 집안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효도하여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부모님 뜻에 앞서 효도를 다 하였습니다. 배우지 않았어도 능히 저녁에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을 드리는 도리를 알았습니다. 도리어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도 잘 실천하였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시와 글씨를 외우고 유교 경전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기록하여 편찬한 얘기를 알았습니다. 부모님 섬기는 도리에 맞게 돋독히 실천하고 정성을 다하니 모든 친척이 칭찬하고 시골 사람으로부터 칭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 부모님상을 당하여서는 5, 6년간 소리를 내어 슬퍼 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을 당하였던 동안에 아침저녁 제물을 올려서 산 사람처럼 섬겨 예법에 올리는 일을 듣고 눈으로 보는 사람마다 칭송하였습니다.

… 이에 감히 안찰사(암행어사) 각하에게 글을 올려 신청합니다. 엎드려 비옵건 대 헤아려 주시고 이런 점을 참고하여 두루 살펴보신 후 특별히 굽어살피시어 임

금과 신하들이 모여 논하고 집행하는 곳에 장계를 올려 정례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의 각하(어사또) 처분(사리 2구 소재)

경술 십이월 일(1850년, 철종 원년에 신청 발원)

그 후 1870년(고종 7) 『승정원일기』에 박진창의 효행에 관한 기록이 있다. ‘4월 2일 임금 행차 시 상언한 내용에 대해 보고하고 팔도 등에 관문을 보내 실적을 자세히 조사한 뒤에 품 처하겠다.’라는 예조의 계 내용은 이렇다.

“… 공청도 유학 윤선재 등이 덕산 고 학생 박진창의 효행을 위하여, … 삼가 하교에 따라 팔도와 사도에 관문을 보내 실적을 자세히 조사해서 일일이 사유를 갖추어 등 문하에 한 후에 품 처하겠습니다. 감히 아립니다.” 하니, “알았다”라고 전교하였다.

그 후 3개월이 지난 9월 23일 자 임금 행차 시 받은 상언에 대해 하교에 따라 사실 여부를 자세히 수소문하여 임금의 명령을 받아 일을 처리하겠다는 예조의 계이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행행 때 받은 상언에 대하여, 해조가 각각 해당 도신에게 공문을 보내서 상세히 조사하여 계문을 작성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상언을 살펴보니, … 충도 유학 이승일 등은 덕산 사람 고 학생 박진창의 효행에 대해 상언하였고, 공청도 유학 송택 등은 박성대의 효행에 대해 상언하였습니다.

… 상은 모두 포장하는 은전을 요청한 것입니다. 삼가 하교대로 각 해도에 알려서 이 일의 사실 여부를 자세히 수소문한 다음 낱낱이 사유를 갖추어 등 문하에 한 후에 임금에게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아립니다.” 하니, “알았다”라고 전교하였다.

□ 김상준·김현하 부자

충남 예산군 봉산면 당곡리 193-1, 김해김씨 김상준·김현하^{金相俊·金灝廩} 부자의 2대 효자정려 탐방은 3주 전 고덕면 동곡 2리 김창조 효자 정려각 탐방 이후 두 번째이다.

김해김씨^{金海金氏}는 가락국의 김수로왕이 시조이다. 김수로는 신라 유리왕 때 가락의 아도 등 구간이 구지봉에서 맞은 아이로 후에 왕이 되었다. 삼국유사 설화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수로왕은 즉위 6년 인도의 아유타국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 열 명의 아들을 낳았다. 왕위 승계는 장자인 거동이고, 둘째와 셋째는 모후의 성에 따라 혜 씨로 성을 하였다. 나머지는 불사로 입문하였다.

가야는 10대 구형왕 때 신라에 합병되고, 아들 무력이 신라 조정의 각간이 되었다. 구형의 손자이자 무력의 아들이 김유신이다. 그는 삼국통일 대업을 이루고 흥무대왕에게 봉해지고 김해김씨의 중시조가 되었다.

98개 계파로 나누어진 김해김씨는 김유신의 직계종파인 경파와 아우 익경을 증조로 하는 사군파와 셋째 김관을 증조로 하는 삼현파로 크게 나누었다.



〈김상준·김현하의 정려각〉

필자는 김해김씨 금녕군 휘목경 안경공파 71세손이다. 조선 초의 문신으로 제돈녕부사(정2품) 벼슬을 한 안경이라는 시호를 박은 영정永貞의 자손이다.

필자의 아버지는 고덕·봉산면의 종친회장을 수십 년간 맡았다. 지금은 구순이 지나 종친회에 나가지 않는다. 부친은 대홍중학교를 졸업하고 한학을 공부하셔서 많은 식견으로 종친회장을 오래 하신 것 같다.

예산군의 김해김씨 가문에서는 사무관을 배출하지 못했다. 이에 필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부모님과 형제들은 애태게 승진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와 종친회에서 활동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염려를 한다. 그분들은 격려차 필자가 근무하는 예산군청에 더러 오셨다. 그런 종친 어르신들이 있어 행복하다. 김해김씨 후손이란 사실이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매년 3월 27일과 9월 27일 ‘화랑묘보존회’가 주관하는 화랑 묘 춘추 대제에 참여하신다. 예산군 예산읍 무한산성1길 8-1에 있는 ‘화랑묘’는 ‘화랑묘보존회’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

화랑묘는 신라의 김유신(金庾信, 595~673)을 기리기 위해 1965년에 세운 사당이다. 예산지역에 화랑도 정신을 전파한 김시성(金時成, 1908~1993)이 김유신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예산군 가락종친회와 건립한 것이다. 이후 1971년 3월 30일 설립된 ‘화랑묘보존회’는 ‘화랑 묘’를 관리·보존하고 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매년 3월 27일과 9월 27일 개최되는 춘추대제에 참석한다. 현재 화랑묘보존회 회장은 오가면 신석리가 고향인 김영범 님이다.

봉산면 김상준(金相俊, 1790~1851)은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했다. 사망한 친척에게도 장례의 예를 정성으로 했다. 그의 어머니가 병이 들자 의원을 찾아 약을 지어 오다가 날이 저물어 길을 잊었다. 그런데 호랑이가 나타나 길을 인도해 주었다. 호랑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정성껏 약을 달여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6년 동안 묘소를 살피고 밤낮으로 곡을 하다가 기진하여 사경에 이를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고 한다. 그의 아들 김현하(金灝廩, 1811~1873)도 아버지에 이어 효성이 지극하여 인근에 칭송이 자자했다. 부모의 상을 당하자 여막을 짓고 6년간 하루처럼

채소와 물만 먹으며 지냈다.

김현하가 죽은 지 19년 후인 1892년, 이러한 효행 사실이 예조에 올려졌다. 우승지 노인경이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임금에게 글을 올려 임금의 특명으로 명정이 내려졌다. 그 뒤로 김해김씨 후손들이 힘을 모아 정문을 건립하였다. 정려문 내부에는 1892년 8월에 내려진 ‘효자학생김현하지문’이란 현판이 걸렸으며, 위쪽에는 1893년에 작성한 예조 입안이 적힌 현판이 있다.

봉산면 당곡리는 김상준·김현하 부자와 조곡선까지 세 명의 효자가 난 곳이다. 현재 밭으로 개간된 터는 야곡 조곡선의 생가이다. 현재 ‘정문동’이라고 새긴 돌이 세워져 있다. 한 마을에 정려문이 3개인 곳은 매우 드물다.

야곡 조곡선의 효자 정려각은 1664년 명정을 받아 봉산면 시동리와 이웃 마을 당곡리에 세워졌는데, 이후 후손인 조정교가 1875년 명정을 받았고, 1876년 봉산면 시동리 193-1번지로 옮겼다.

참고문현(자료)

1. 『봉산면지』, 2002
2. 『디지털 예산문화 대전』

8 효행이 남다른 현감과 선비

조선 시대의 상피제도는 가까운 친인척끼리는 같은 관청이나 자신들의 고향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이의 운영 목적은 관료의 비리를 차단으로, 인척간의 관계를 이용한 부정부패를 막고자 했다.

상피제도의 적용 범위는 친족, 외족, 처족 등의 4촌 이내로 한정했다. 그 외 비리의 발견과 예상이 되면 법리를 확대 적용하면서 중앙관직과 지방관직 임용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과거시험에 최종적인 합격자가 정해지면 문과 방목이 작성된다. 방목에는 단순히 합격자의 이름만 기재되는 것이 아니다. 합격자의 이름, 생년, 본관, 거주지와 부, 조부, 증조부, 외조부의 이름과 관직을 기록했다. 방목의 글자나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해당 시험관은 징계당했다. 문과 방목은 방목에 적힌 과거 급제자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미리 선정했다. 문과 시험장의 사전 준비가 소홀하고 미흡하면 주무 부서장인 예조판서를 파직하는 엄한 규율을 적용했다.

고향에서는 관직 생활을 못 하게 하니 조선시대에 예산 출신의 현감은 거의 없다. 과거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상피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 다른 지방에 나가 군수나 현감, 관찰사, 영의정, 무관(장수), 청나라나 일본 조선통신사 등의 관직을 수행했다. 파직되거나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예산의 벼슬아치들은 다른 지역에서 현감이나 관찰사 등의 벼슬을 역임했다.

이때 암행어사는 예외인 듯싶다. 추사 김정희는 41세 때 충청우도 암행어사를 지냈다. 홍성과 예산, 서산, 태안, 당진, 보령 등을 조사하며 100여 일간 비인현감 등 59명 가운데 12명의 비리를 적발하여 처벌토록 했다.

전국에 세워진 정려문과 공덕비는 많다. 산재한 정려각과 공적비는 집단으로 모아서 동헌 앞이나 도로변에 세웠다. 특히 고을 수령이나 현감, 군수의 공덕비가 많았다. 수령이 바뀔 때마다 관례처럼 공덕비를 세웠다. 부정부패에 몰입하던 수령이 자신의 청렴을 위장하기 위해서 많이 세웠다. 어떤 고을의 수령은 자신의 약정이나 무능을 은폐하고자 지방 고을 사람을 매수하여 공적비를 세우기도 했다. 공적비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예산과 연고가 없는 타지인이다.

조선 시대 문헌에는 예산지역 현감의 부모 공양 사례나 남다르게 효행을 실천한 선비의 활약상이 드러나 있다. 예산인이 타지로 나가 관직 생활한 선비와 예산현, 덕산현, 대홍현으로 발령받아 관직을 하는 동안 현감직을 훌륭히 수행한 모범적인 효행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예산현감 정세익

‘충청남도문화원 연합회’에서는 2017년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으로 『예산의 고지도와 지리지』를 발간했다.

『여지도서』번역문, 충청도 예산현조에는 현감 정세익鄭世翊을 동생과 함께 효행을 봄 소 실천한 인물로 평했다. 그 외 다른 고증 문헌을 살폈으나 예산현 정세익의 행적에 대한 더 자세한 기록은 없었다.

효행이 뛰어난 선비, 양인이나 노비의 효행 추천서는 대부분 지역 유생과 여러 마을 사람의 연명으로 성주(군수, 감무, 현감)에게 올리는 것이 상례였다. 정세익은 예산현감이라 상급 기관인 감영(관찰사)에 정려문을 내려달라 청원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래는 예산현감 정세익을 추천한 『여지도서』의 내용이다.

“현감 정세익은 어머니가 병에 걸려 제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내어 바치니 효 험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의 효성에 감동하여 연명으로 감영에 글을 올리니 감사가 보고하였고 뒤에 또 고을에서도 천거했다. 정세량은 정세익의 아우로 부모를 섬김에 그대로 따르며 어기지 않았다. 어머니가 병이 들자 형 정세익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바치니 효험이 있었다. 연달아 부모상을 당해 3년 동안 흙더미를 베고 자며 죽만 먹었다. 몸이 야위도록 슬퍼했으니 예의범절에 지나칠 정도였다. 사람들이 그의 효성에 감동하여 연명으로 감영에 글을 올리니 감사가 보고하였고 뒤에 또 고을에서도 천거했다.”

□ 대홍현감 안민학

안민학(安敏學, 1542~1601)은 한성(서울)에서 태어났다.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경·사·백 가를 널리 섭렵하고는 25세에 이이·정철·이지함·성훈·고경명 등과 교유하였다. 1580년(선조 13) 이이의 추천으로 희릉참봉이 되었다. 이후 사헌부감찰이 되고 대홍과 아산, 현풍과 태인 등에서 현감을 했다. 1601년 홍주 신평에서 60세로 사망했다.

안민학이 대홍현감 시절 그의 불효의 허물을 따졌다니 사실은 흥미롭다. 당시는 불효자는 물론이고 형제간 우애가 없으면 손가락질 대상이 되어 관직에서 물러나기도 했고, 임금과 신하가 논의하여 관직을 임명하거나 파직하는 근거로 삼았다. 1583년(선조 16) 8월 3일 자의 『선조실록』에는 ‘사헌부가 대홍현감 안민학의 불효를 논핵하고 합당 여부를 임금이 결정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안민학은 현감으로서 부모를 잘 섬기지 아니하며, 형이나 연장자에게 공손하지 못하여 파직을 요구했다. 이에 선조는 안민학의 파직 대신 대홍현 현감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 했다.

‘안민학은 불효 부제한 사람입니다. 파직을 명하소서’라는 기록으로 보아 불효는 벼슬아치에게도 엄격했다. 불효 사실이 발각되면 여지없이 시정하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국가 시책이었음을 보여 준다.

그 후 안민학의 불효에 관한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선조실록(수정실록)』에서는 1586년(선조 19) 제도관 조현이 안민학이 붕당의 시비가 있으니 다른 현감으로 바꾸어 달라는 상소를 올린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대홍현감 안민학은 불효·부제한 사람으로서 감히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일을 이룩할 생각을 가져 내심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여 과거에 응할 재주도 없는 주제에 과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말재주로 상서로운 지조를 지키며 권세를 쫓아다니면서 시정을 평론하는 등 그의 평소의 마음 씀씀이와 행한 짓들이 극히 무상합니다. 그가 처음에는 재행으로 벼슬을 취득하였고 나중에는 주선을 부지런히 하여 초승까지 하였으므로 물정이 통분해하고 있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였다. 이에 답하기를, “천천히 안민학 사안에 대하여 판결하겠다.” 하였다. … 그 후 대신에게 물었는데 대신이 모른다고 대답하자 안민학의 임기가 차거나 부적당할 때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 명하였다.

부모님과 형제, 연장자에게 잘못한 대홍현감 안민학은 충청도 홍주목 덕산현 회암

서원(봉산면 봉립리)에 배향했다. 예산인도 아닌 안민학을 배향한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다.

안민학은 분당 등 여러 계파에 휘말려 논쟁의 대상이 되었는데, ‘효도하고 부모를 잘 보필했다.’라는 일부 사학자의 평가도 있다. 안민학의 연구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하여 누가 올바르다고 성급히 주장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그가 불효한 대홍현 현감으로 예산 사람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 효자 조익

조익(趙翼, 1579~1655)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임진왜란이 끝난 뒤 문과 별시에 급제, 관직의 길에 오른 사람이다. 웅천현감을 지내다 광해군 때 인목대비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깊숙이 가둔 사건이 일어나자 관직을 버렸다. 그 후 10여 년간 고향 광주에 은거하다가 충남 신창에 거주하며 학문에 열중했다. 35세 때 인조반정이 발발하고 이후 벼슬길에 나가 53세 때 판서 등을 거쳐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냈다. 신양면 신양리에 그



〈조익의 묘〉

의 묘지와 신도비가 있다.

그는 병자호란 때 실종된 부친을 찾으러 다녀 인조 임금을 호종하지 못했다. 그 결과 사임을 당했지만, 벼슬을 뒤로 하고 전쟁 중 실종된 부친을 찾아다니는 효성은 남달랐다. 이후 조정에서는 1646년(인조 24) 이조판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벼슬을 고사하고 고향에 내려와 치매에 걸린 고령의 아버지를 돌보았다.

부친이 변비로 고생하자 60이 넘은 고령의 몸으로 손가락에 꿀을 발라 아버지의 변을 직접 긁어냈다. 병중에 계신 아버지와 늘 한방을 사용했다. 부모의 상을 당하자 3년 동안 눈물을 흘려 베개와 자리가 썩었다. 그러한 그의 효행은 『조야집요』에 기록되어 있다. 고관을 지냈으나 평생 청렴하고 집 한 칸 놓지 한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그는 1655년(효종 6) 77세가 되던 해 고향 광주에서 사망했고 예산 신양에 묻혔다.



〈신양면 신양리 도산서원〉

□ 예산현감 김연근

김연근金延根은 1866년(고종 3) 예산현감을 지냈다. 부모가 병이 있어 현감직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부모의 병이 위중하나 벼슬길에 있어 고향 부모님 곁으로 갈 수가 없었다. 부모가 병이 들어도 강제로 임지를 변경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조와 고종 임금이 상의하고 예산현감 김연근의 관직을 교체하였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이조 황종현이 아뢰기를, … 예산현감 김연근은 부모의 병이 매우 위중하여 내려갈 수 없다 하고, 여주 목사 이용직, 임피 현령 김재중, 금구 현령 홍순영, … 덕천군수 김병완은 신병이 갑자기 중해져서 내려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모의 병과 신병이 이미 이와 같다면 억지로 임지로 내려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 예산현감 김연근은 다른 곳으로 바꾸게 하고 목사 이용식, 평창군수 김철순, 덕천군수 김병완, 임피 현령 김재중, 금구 현령 홍순영, 은산현감 윤경진은 잘못이 있으니 자격을 박탈하고 그만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 효렴한 민회현

민회현(閔懷賢, 1472~1540)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다. 품행이 효성스럽고 청렴하여 주군에서 관리 선발 응시자로 추천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등용되어 관직에 나아간 인물이다. 그의 2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16세 때는 모친상을 당했다. 그는 3년간 시묘하면서 죽만 먹었고 친히 곡하며 조석으로 전을 올렸다.

『중종실록』에는 1517년(중종 12) 충청 감사 김근사가 민회현의 행실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이 실려 있다. 보고문의 내용은 민회현을 관리로 천거하는 것으로 생원 민회현의 기도가 침착하고 의연하며 마음가짐이 가상하다고 하였다. 이에 민회현은 벼슬길로 나아갔다.

그러나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출신자 방목이 혁파되었다. 그는 조정에서 내린 임명 사령서와 과거 합격자에게 주던 증서를 몰수당한 채 고향 예산군 신암면으로 돌아와야 했다.

1년 뒤 그는 1518년 군자감(종6품)이 되었다. 조정에서는 효행이 있고 청렴한 사람을 찾아 벼슬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후 사헌부감찰(정6품)이 되었고, 47세 때인 1519년에 조광조 등이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추진한 현량과에서 병과로 급제하여 정언(정6품)이 되었다. 이후 사임이 되었다가 1538년, 이조판서 윤인경의 건의에 따라 직첩을 환급받고 좌랑에 복직되었다.

민회현이 과거가 무효가 되고 고향에 내려와 한가롭게 지낼 적에 홍성현감 조우는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수차에 청하였으나 그는 응하지 않았고, 음식물 등의 선물이 이어졌으나 그를 찾아가 만난 적이 없었다. 이러한 민회현에 대한 문헌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민회현은 바른 것을 굳게 지켜 동요됨이 없었으며, 겉으로는 온화하거나 속은 강하여 1만 명의 군사로도 속으로도 움직이지 못하였다. 어떤 일을 당하였을 때 정연하게 모가 나지 않은 듯했으나 정도를 고집하여 돌이키지 않는 것이 태산보다 무거웠다.”

□ 효자 조극선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다. 예산군 예산군청에 같이 오랫동안 근무했던 친구 조성수를 봉산면 봉림저수지에서 만나기로 했다. 2일 전 모임에서 만나 부탁했더니 추운 날임에도 흔쾌히 수락했다.

오전 11시, 봉림저수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 늦게 올 사람이 아닌데, 시간관념이 확실한 공직자였는데 하면서 기다리는 데 전화가 왔다.

“봉산면 봉림리 서원제(서원 저수지)에 도착했다.”

나는 그동안 회암서원 터와 유허비가 봉림저수지 주변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 주변을 여러 번 찾았다. 그런데 그와 만나 알아보니 봉림저수지가 아니라 조그마

한 서원제 제방이었다. 오늘 그를 만나길 참 잘했다.

친구 조성수는 봉산면 시동리에 있는 조선시대 효자 정려각의 주인공 조극선·조정교의 12대손이다. 그리고 1991년 독립운동가로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조인원의 증손이다.

1979년 서원지에 저수지 시설이 생기면서 회암서원 유허지 마저 매몰되었다. 서원 저수지에 회암서원 터도 물에 잠겨 주춧돌조차 흔적이 없었다. 가끔 가뭄이 심하여 저수지 물이 많이 빠지면 운 좋게 회암서원 유허지의 흔적을 조금 볼 수도 있다.

그곳을 찾아가니 1896년에 세워진 ‘서원유허비’만 제방 아래 남아 있었다. 유허비는 세로 67cm, 가로 51cm의 크기의 자연석이다. 안내 표지석을 읽어보며 회암서원에 대하여 조금 알 수 있었다.

비에는 ‘서원유허비書院遺墟碑’라는 글자가 앞면에 있었다. 오른쪽으로는 ‘취암 이선생 정존재 이선생 회암 주부자 야곡 조선생 풍애 안선생 조종호 이충규 醉庵李先生靜存齋

회암서원 터와 유허비 | 晦庵書院址, 遺墟碑

회암서원 晦庵書院은 1709년 숙종 35에 창건되어 주자 朱子 · 이담 李湛 · 조극선 趙克善 · 이흡 李治 · 안민학 安敏學을 제향했던 서원이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역할을 담당해 오던 중 1868년 서원훼철령으로 철폐되었고, 현재는 저수지(서원제)의 건설로 유허지 마저 수몰되었다.

회암서원이 건립되었던 곳은 ‘회암동’이라고 부르던 곳으로, ‘회암’은 중국 송나라의 유학자 주자의 호이다. 또한 마을 주변에도 주자가 살았던 지역의 지명이 여러 곳 있었는데 이곳으로 귀양왔던 김진규가 이 사실을 알고 서원 건립을 발의하였다. 이때 충청도의 유생들도 함께 뜻을 모아 1709년에 서원이 창건되었던 것이다.

회암서원이 처음 건립되었을 때는 주자만을 제향하다가, 1727년 영조 3에 이담과 조극선을 추향하였다. 이후 1800년 정조 27에 이흡을, 1830년 순조 30에는 안민학을 추향하였다.

1896년에 제향 인물의 후손들이 ‘서원유허비 書院遺墟碑’를 세웠다. 자연석을 다듬어 만든 이 유허비의 옆면에는 서원에 제향된 인물의 호와 이름, 글을 새긴 이의 이름이 있다.

〈봉산 회암서원 터와 유허비 안내문〉

李先生晦庵朱夫子治谷趙先生楓崖安先生趙鐘灝李忠珪'라고 새겨져 있었으나 색이 바래서 알아보기 힘들었다.

회암서원은 1709년(숙종 35) 김진규(金鎮圭, 1658~1716)의 주도로 건립되었으나 미 사액 서원이었다. 창건 당시에는 주자를 독향으로 하였고, 봉안 축문은 한원진이 지었고 춘추 봉안문은 윤봉구가 지었다. 창건 18년 후인 1727년(영조 3) 이담을 동무에 배향하고 조극선을 서무에 배향했던 곳이다. 그 후 이흡, 안민학이 배행되었다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71년(고종 8) 훼철되었다.

조극선(趙克善, 1595~1658)은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사람이다. 이명준, 박지계, 조익 등에게서 수학하고, 1623년(인조 1) 학행이 뛰어난 사람으로 추천되어 동몽교관이 되었다. 종부시주부·공조좌랑을 역임하였고 한때는 은거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나던 1636년 이조정랑으로 재직할 때 그 당시 폐단과 시폐와 자강지책을 간곡히 진언하였다. 병자호란 후 순창군수, 형조정랑 등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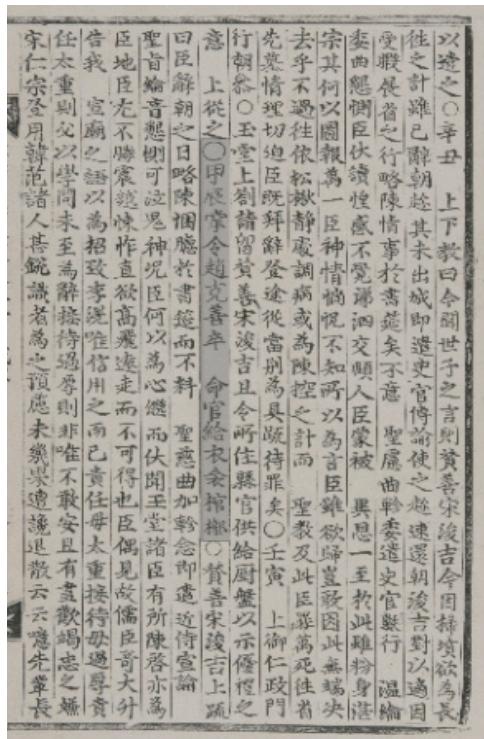
<2008년도 서원저수지 물이 빠졌을 때 바닥에 주춧돌 확인 사진, 제공: 조성수>

1648년 온양 군수로 부임하였다. 효종이 즉위하면서 당시 좌의정이던 조익의 강력한 추천으로 성균사업成均司業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였다. 선공감첨정을 거쳐 이듬해 다시 장령으로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망하였다.

1658년(효종 9) 1월 7일『효종실록』에는 조극선의 사망에 “장령 조극선趙克善이 죽으니, 관원에게 명하여 염습할 옷과 관곽을 내렸다. (甲辰 掌令 趙克善 卒 命官給衾棺槨)”

또한 <효종 대왕 행장>에는 조극선에게 극진하게 대접해준 기록이 있다.

조극선이 병들었을 적에 텔웃을 하사하여 덮어주고 내의를 보내어 구료했으며, 그가 죽었을 때는 호조의 낭관으로 하여금 상사를 다스리게 하는 한편 날마다 중사를 보내어 보살피게 하였다. 그리고 의금·관염을 예를 갖추어 극진히 하였으며 관곽과 분묘에 드는 비용도 모두 관에서 갖추어 주게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조극선의 후손 조성수(前, 신양면 부면장)>



〈효자 조국선의 묘〉

조국선이 온양군수로 있을 때 인조가 승하하자 죽만 먹고 짚으로 베개를 쓰며 친상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효종의 행장에도 기록될 만큼 효행과 학문이 높았다. 부친이 돌아가자 벼슬을 버리고 예산군 봉산면에서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한 까닭에 동네 이름이 ‘시묘동(시동리)’이라 불린다.

조국선의 묘소는 예산군 봉산면 시동리 산16에 있으며 봉산면 시동리 산2-1에 조국선 신도비가 있다.

□ 효자 최사홍

최사홍(崔士興, 1413~1493)은 태종 때의 청백리로 알려진 효자 최유경의 아들이다. 최사홍도 아버지와 함께 효성이 지극했다. 그는 충청도 대흥현 감무로 있을 때 부친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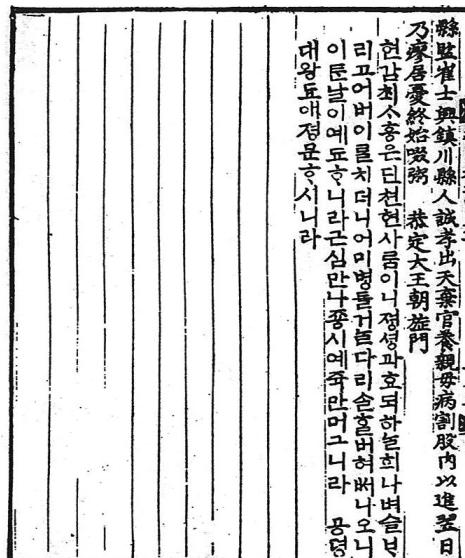
당했다. 그는 곧바로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3년 동안 시묘를 살면서 어머니를 지성으로 봉양하였다. 어머니가 병으로 누워있을 때는 허벅지의 살을 베어 죽을 꿰여 먹여 효험을 보았고, 모친상을 당하자 3년 동안 시묘를 살았다.

1617년(광해군 9)『삼강행실도』효자도에는 최사홍의 ‘사홍할고(士興割股 - 최사홍이 다리 살을 베다)’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현감 최사홍은 진천현 사람이다. 정성과 효성이 하늘이 낸바, 벼슬을 버리고 어버이를 모셨다. 어미가 병이 들어 다리의 살을 베어 드리니 이튿날 이어 좋아졌다. 병간호하는 동안 시종 죽만 먹었다. 정종 때 정문을 세웠다 세종 때 왕명으로 최유경·최사홍 부자를 기리는 효자문이 세워졌다.”(士興割股-縣監崔士興鎮川縣人 誠孝出天棄官養親母病割股肉以進翌日乃瘳居憂終始啜粥 恭定大王朝旌門)



〈신속효자도〉



〈신속효자도〉

현재 그의 효자문은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외구마을에 있다. 현재 최사홍 후손들이 외구마을에 살고 있다.

□ 효자 김구

김구(金綵, 1488~1534)는 조선 전기 4대 명필가의 한 사람으로, 서울 동부 연희방(서울시 종로구 연건동)에서 출생했다. 1513년(중종 8) 문과에 급제 승문원부정자가 되었다. 조광조와 더불어 왕도 정치의 쇄신을 꾀하다가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전북 군산시 옥구읍 개령, 남해, 임피(전북 군산시 옥구읍) 등으로 14년간 유배되어 1533년 46세 때 풀려났다. 남해 유배 중 부모가 사망하자 유배지에서 예산으로 돌아와 여막을 짓고 부모님 산소에서 시묘를 지내며 살았다. 뒤늦게 복을 입고 눈물을 흘려 묘소 근처에 풀이 마를 정도였다. 유배 생활 중에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 부모 묘소를 바라보다가 기절하여 말에서 떨어졌다고 전해진다.

1534년(중종 29) 11월, 47세의 나이로 예산군 신암면 화순옹주 묘 아래쪽에 있던 연못의 별장에서 사망했다. 그가 남긴 『자암집』에는 남해 찬가로 일컬어지는 경기체가 ‘화전별곡’과 함께 남해에서 유배 생활의 시름을 잊고자 지은 60여 수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예산의 덕암서원과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의 봉암서원 등에 배향되었다. 묘소는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부인 김해김씨의 묘와 함께 있다. 김구의 묘소 아래 손자 김갑의 효행의 상징인 정려각이 있다.

□ 대홍현 이진은

이진은(李震殷, 1646~1707)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에서 태어났다. 1666년(현종 7) 생원시에 합격했고, 1678년(숙종 4)에는 증광문과에 장원급제했다. 관직에 나아가 성균관 전적을 지내고, 공조좌랑 겸 춘추사극에 임명되어 실록 편찬에 참여한 뒤 여러 지방의 수령을 지냈다.

1680년(숙종 6) 사헌부 지평을 거쳐 함경도사를 제수받았으나 신병을 이유로 사직하였다. 다시 관직에 복귀하여 병조정랑을 지낸 후 1682년 대홍군수에 제수되었지만, 신병과 부모 봉양을 들어 사직하였다. 1862년(숙종 8) 1월, ‘대홍현’은 현종의 태를 안장한 태봉이 근거가 되어 ‘대홍군’으로 승격되었다.

그동안 필자는 백방으로 이진은 대홍현감의 행적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다행스럽게도 『대홍면지』에 이진은이 1681~1682년 근무한 행적이 남아 있었다. 다만 그가 대홍현에서 어떤 직에 어떻게 임명된 지 몰랐다. 그러던 2024년 4월 27일 새벽녘에 『승정원일기』를 검색하다가 1682년(숙종 8) 1월 27일 ‘이진은 정기승급에 대한 논의와 언급’에 대한 글을 만났다. 숙종이 허락하여 ‘대홍현’이 ‘대홍군’으로 승격되고, 이진은이 대홍군수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다만 네이버 등에 나오는 이진은에 관한 글들은 대개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그의 칭찬만 나열하였으니 정확한 진위를 알기 어려웠다.

조선 시대의 현감과 군수는 벼슬의 급이 달랐다. 현감은 6급직이었지만 군수는 5급직이었다. 이때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대홍현에 결원이 생긴 고을은 지켜야 할 규칙과 정해진 관례대로 승호하도록 이미 승전을 받들었으니 지금 승호해야 하는데, 시임 현감 이진은은 일찍이 시종 5품을 거쳤으므로 그대로 군수로 승진시키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뢸니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이진은은 대홍현에 와 자신을 단속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온 경내가 칭송하였다며 전해진다. 아래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간행한 『국역 국조인물고』(1999)에 실린 내용이다.

… 함경도 도사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고 다시 병조로 들어와서 정랑에 올랐다가 부모의 봉양을 위해 외직을 구해서 대홍현에 보임되었는데, 자신을 단속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할 일로 삼으니 온 경내가 칭송하였다. 선왕의 태를 간직하는 산을 대홍현에 정했으므로 해서 호칭을 고쳐 군으로 삼았는데, 공이 그대로 군수가 되었다. 얼마 있다가 병으로 인하여 벼슬을 그만두었다. 여러 해 동안 병이 낫지 않아서 침과 뜰을 시험해 보았으나 거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또 변비가 있으면서 겪하여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하고 답답하며 숨이

차고 현기증이 나타났다. 비록 원기는 실로 병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병들어 못쓰게 된 사람으로 여겼고 공도 세상의 벼슬길에 뜻을 끊고서 시를 읊으며 스스로 세월을 보냈다. 1688년 성균관 음악을 가르치던 정4품이 되고 1691년 고성군수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사도, 종부시정, 사간원 정언 등을 지냈다. 1695년(숙종 21)에는 김제군수로 부임하여 깊주린 백성들에게 물품을 주어 구제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 덕산 현감 김수민

김수민(金壽民, 1623~1672)은 어릴 적부터 교서관·홍문관·성균관·승문원에 두었던 정7품 관직에서 업을 닦고, 전주를 익혔다. 1652년(효종 3)에는 덕산현감이 되었다. 평생 남과 교유하기를 즐기지 않았고, 물욕이 없어서 고향에 백 평의 땅도 증식시키지 않았고, 서울에 집 한 채도 없었다.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가 병들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였고, 모친상을 당하여 너무 슬퍼함에 진물이 들어 있는 작은 부스럼이 나는 피부병에 걸린 그의 도리에 맞는 올바른 행실이 알려져 1674년(현종 15)에 효자의 정문을 세워주도록 했다.

김수민 조부 김상용은 병자호란 당시 순절한 충신이다. 부친 김광현은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에서 은거하던 중 조정에서 호종의 공을 수록하고 대사간을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청주 목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모든 문서에 청나라 연호 쓰기를 거부하고 간지만을 사용하다가 파직당했다.

김수민의 장남 부부인 김성달(金盛達, 1642~1696) · 이옥재(李玉齋, 1643~1690)는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에서 안동세고 安東世稿 한시 집에 248편(김성달 177, 이옥재 71)을 남겼다. 또한 그들의 아홉 자녀와 서모 울산 이씨가 함께 지은 시가집 『연주록』도 전해진다. 신안동 김씨 문정공파와 문충공파 후손은 현재 홍성과 예산에 거주하고 있다

필자는 3년 전 예산군에서 공직을 마쳤다. 공직 생활을 할 때는 팀장이나 직원이 부모님 병으로 휴직서를 내는 까닭을 이해하지 못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일하기가

힘드니 도피하여 쉬려는 것으로 생각했다. 올해 부모님이 결혼 생활 70년이 지나 구순이 되었다. 돌아보면 그 당시의 내 모습이 부끄럽다.

필자는 그동안의 불효를 다소 만회하고 싶었다. 이에 2023년 2월 19일, 부모님의 결혼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두 분을 위한 시집『어머니의 우주선』을 출간하여 헌정하였다.



〈김칠봉·권영예 결혼 70주년 기념〉



〈부모님께 드리는 헌정 시집〉

9 삽교 월산리 갑부 장윤식에게 정려문 내리다

삽교읍 월산리에 있는 정려각을 탐방할 때 주변 논들은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농로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었고 필자는 쉽게 정려각을 찾았다.

예산군청 건설교통과에 재직할 때는 월산리 회화나무를 살리기 위해 토지소유주 경계측량을 한 적이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에서 했고 예산군에서 그 비용을 댔다. 이러한 노력으로 회화나무 주변 땅이 콘크리트 포장되었고, 고사 직전의 회화나무를 살려냈다.

회화나무를 문 앞에 심어두면 잡귀신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회화나무는 ‘학자수學者樹’로 궁궐과 서원, 문묘, 이름난 양반 마을의 지킴이 나무로 여겼다. 월산리의 회화나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을주민과 함께한 회화나무를 보게 되어 기쁘다. 그동안은 나무 밑동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수십년간 회화나무의 뿌리 숨구멍을 막고 있었다.

마을주민인 ‘최성춘’의 공적비는 회화나무 밑에 세워져 있었다. 이에 필자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1988년 삽교읍 월산리 마을 분담직원을 하여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혹시 가족이 그것을 세웠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런데 나중에 귀동냥으로 들어보니 예산군 동학 관련 단체에서 세웠다고 한다.

월산리 구역말에 장씨가 입향한 것은 장씨의 중시조인 장백의 11세손 장의현이다. 장의현은 조선조 숙종 때 반란에 연루되어 보령으로 피신하였고, 이후 그의 손자인 장준소가 구역말(월산리)에 정착했다.

본래 장씨 가문은 양반이었으나 소금장수나 젓갈 장수, 등짐장수들이 쓰는 작은 쪽지개와 천인 계급이나 상제가



〈패랭이〉

쓰던 패랭이를 만들어 팔았다. 패랭이 장사는 천한 것이었지만 이를 통해 많은 돈을 벌었다. 국상이라도 나면 단숨에 폐돈을 벌었다. 이에 당시 사람들은 삽교읍 구억말 장씨 가문을 부러워했다.

장윤식의 본관은 인동이다. 1852년(철종 3) 식년시 『사마방목』에는 야산(의산시 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1867년 5월 20일 『고종실록』에는, ‘예산현의 진사 장윤식이 군수에게 백미 500석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다. 그는 1867년 이후의 예산에 살았고, 여러 가지 공을 인정받아 조경묘 참봉으로 임명되었다. 1868년 예산현감, 1872년 청하현감으로 부임하여 여러 폐단을 시정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1882년 가례 시 돈령부도정에 올랐고, 1885년 가선대부 동지돈녕부사에 오르는 등 여러 관직을 역임했다.

장윤식의 정려는 1905년 월산리 과수시험농장 맞은편 435번지 민가 앞에 있다. 정문의 내부 중앙 상단에 ‘효자 가선대부 동지돈령부사 증종이품 가선대부 내부협판 장윤식 지문 광무 구년 을사 삼월 일 명정’이라고 쓴 현판이 있다. 손자 장기일이 정려각을 건립하면서 조부 장윤식의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 현판에 먼지가 가득 덮여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효자 장윤식의 정려각〉

삽교읍 월산리 435번지에는 입향하여 400여 년 살아왔다는 인동장씨의 99칸 기와집이 있었다. 15만여 평의 농지를 소유한 갑부였다. 홍선대원군이 아버지 남연군의 묘터를 살피기 위해 가야사의 금탑 자리로 가기 전 이곳 장 예산집(장씨 16세손 장진급)에 방문하여 식사를 대접받았다는 이야기가 야사로 전해오고 있다.

그 후 홍선대원군으로부터 궁궐로 초청받아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가족이 연이어 벼슬길에 오르면서 장씨 집안은 신분이 상승했다.

장윤식은 1868년(고종 5) 예산현감으로 부임하여 여러 폐단을 시정하는 선정을 베풀었다. 이에 1870년 영세불망비가 세워졌고, 6년 전까지는 지금의 예산 버스터미널 앞에 있다가 2018년 4월 예산군 청사가 신축하면서 19개 비석 군에 포함되어 현 예산군 청 앞으로 옮겨졌다. 1891년 세워진 또 하나의 영세불망비는 대홍중·고등학교 비석 군 앞 사이에 세워졌다가 현재는 대홍면사무소 입구 의좋은 형제공원 길에 33개 비석과 같이 옮겨졌다.

장윤식의 부친 장진급과 장형식 부자도 효행이 지극하여 1868년(고종 5) 세워진 정려문이 광시면 신흥리 입구에 그들의 묘소와 함께 서 있다.

거대한 부를 축적한 장씨 부자의 선정비와 정려는 예산, 삽교, 광시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장씨 가문의 재력은 8대에 걸쳐 이어졌다.

삽교읍 월산리에 있는 장윤식 정려문은 마모가 심하고 퇴색하여 정려문의 건립기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한눈에 보아도 후손들이 관리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부자는 삼대 못 가고 가난도 삼대 안 간다는 말이 있다. 삶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번 효자 장윤식 정려각 탐방을 하면서 ‘부불삼



〈대홍효공원 앞, 장윤식의 영세불망비〉



〈장윤식의 정려문 공사 원기 현판〉

대’란 말이 떠올렸다. 인동장씨 후손과 종친회에서 힘을 모아 광시면과 삽교읍에 있는 정려각을 잘 정비해 주었으면 좋겠다.

1905년에 정려문을 신축하면서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의 이름을 목판에 기록했다. 위 사진이 ‘장윤식의 공사 원기 현판’이다. 목수들의 지휘하는 도료장은 신정모, 이기홍, 이돈석, 석재를 다듬은 사람은 김용삼, 이정술, 간판에 글자를 새긴 사람은 석사 최도원, 기와를 구운 총감독은 이종영, 그림을 그린 사람은 승려 금호상인이다. 이들은 모두 경복궁 중전에 참여한 이름난 장인들이었다. 현재 삽교읍 월산리 갑부 장윤식의 정려각은 색깔이 퇴색하여 전립기 내용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또한 광시면 신흥리 장진급·장윤식 부자 효자 정려각도 마찬가지다. 이곳 예산군 삽교읍 월산리 마을은 그동안 예산군으로부터 경지정리와 기계화 경작로의 사업을 받아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삽교읍 월산리 회화나무〉



〈장윤식의 집터〉

있는데, 월산리 마을에 대대로 수호 나무인 회화나무는 작년 이후 죽어가다가 주민들의 노력으로 살아났다.

2025년 현재, 구억말 장씨 일가의 집은 사라져 버렸다. 99칸 집이 있던 자리엔 잡풀이 자라나 있다. 잡부였던 장씨 일가의 화려했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1905년 서울에서 경복궁 짓던 장인들이 삽교읍 월산리로 내려온 정려각을 건축한 이름이 적힌 ‘공사 원기’가 훼손되거나 매각되지 않기를 바라며, 후손들이 이 정려각을 잘 정돈하여 문화재 자료로 남겨지길 고대한다.

참고문헌(자료)

- 『문화유적분포지도』, 예산군(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2001
- 예산군의 효행과 우애, 예산군(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 역사 문화연구), 2002
- 『삽교읍지』, 2008
-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 『삽교 이야기』, 예산군(예산군 행복마을 지원센터), 2023

10 이각의 처가 남긴 한시 「송부출새 送夫出塞」

역사서에 기록된 예산의 무신으로는 병자호란 때 활약한 봉산의 이의배(李義培, 1576~1637), 임진왜란 때 활약한 고덕의 한순(韓樞, 1555~1592), 숙종 때 활약한 봉산의 이억(李億, 1615~1636) 장군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보다 뛰어나면서도 덜 알려진 무장이 있다. 그가 조선 전기의 인물 이각(李恪) 장군이다. 이각은 여진족 정벌에 참여하여 큰 공을 세우고 무장으로는 최고위직인 병조참판을 역임한 인물인데, 그의 부인은 걸출한 한시 「송부출새 送夫出塞」를 남겼다. 이 한시는 조선시대 여성 문인 중 최고라 할 만한 작품이다. 이에 조선 전기의 이각 부부는 자랑스러운 예산의 인물이다.

이각(李恪, 1374~1446)은 본관이 덕산이다. 판도판서 이영(李英)의 넷째아들로 태어났다. 19세 되던 1392년(고려 공양왕 4) 생원시에 합격했다. 1402년(태종 2) 무과에 급제한 후 경기도 수군첨절제사, 경상우도 병마도절제사, 병조참판, 전라도절제사 등을 지냈다. 1429년 천추사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59세인 1432년 강계절제사에 제수되어 최윤덕을 따라 두만강과 압록강 북쪽의 여진족을 정벌하였다.

1433년(세종 15) 5월 7일, 평안도 절제사 최윤덕이 박호문을 보내어 급히 보고를 올린 『세종실록』에 이각의 행적이 들어 있다.

평안도 절제사 최윤덕이 박호문을 보내어 보고를 올리기를, “선덕 8년 3월 17일에 공경히 부교를 받들고 장차 파저강의 도둑을 토벌하려고 하였으며, 좌부를 보냄에 이르러 병부를 맞추어 보고 군사를 선발하였나이다. 이에 본도의 마병·보병의 정군 1만을 선발하고, 겹하여 황해도 군마 5천을 거느리고 4월 10일에 일제히 강계부에 모여 군사를 나누었는데, 중군 절제사 이순몽은 군사 2,515명을 거느리고 적과 이만주의 채리로 향하고, 좌군 절제사 최해산은 2,070명을 거느리고 거여 등지로 향하고, 우군 절제사 이각은 1,770명을 거느리고 마천 등지로 향하고, … 우군 절제사 이각은 생포 남녀 14명, 죽인 도적이 43명, 노획한 것으로 말 11필, 소 17마리며 ….”

이러한 공로로 이각은 1434년 평안도 도절제사로 전임되었지만, 1436년 여진의 침입을 당하여 충청도 결성으로 내려왔다. 65세인 1438년 다시 등용되어 경상좌도 쳐치사·전라도 쳐치사를 역임하고 1443년 동지중추원사에 이르렀다.

이각이 73세에 사망하자, 1446년 12월 8일 『세종실록』에 ‘이각 졸기’를 기록하니 다음과 같다.

동지중추원사 이각 졸기

동지중추원사 이각이 졸하였다. 이각은 덕산현 사람으로 임신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임오년의 무과에 뽑혀 여러 번 천직되어 상호군에 이르렀다. … 계축년에 최윤덕崔潤德을 따라 파저강婆猪江 야인野人을 토벌하는 공이 있어 중추원사로 승진하고, 이내 평안도 도절제사에 임명되었다. 병진년에 야인이 국경을 침범한 이유로써 결성으로 펌직되었다가, 무오년에 불려 와서 경상좌도 쳐치사에 임명되었고, 신유년에 전라도 쳐치사로 옮겼다. 계해년에 동지중추원사로 소환되어 이때 이르러 졸하였으니, 나이 73세이다. 조시를 정지하고 조문과 치전하였으며, 부의를 내리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양정襄靖이란 시호를 내렸으니, 전쟁에 공로가 있음을 양襄이라 하고, 너그러워 수를 다하고 돌아간 것을 정靖이라 한다. 아들이 없었다.

위 기록에 의하면 이각에겐 자녀가 없었다. 그렇다 보니 그의 행적이 뚜렷하게 전하지 못하매 마음이 아프다.

외적이 침입하면 무관은 병사를 거느리고 적과 맞서야 했다. 그리고 무관은 변방에 나가 근무해야 했으므로 가족과 떨어져야 했다. 그런 삶 뒤편에는 전쟁의 애환이 담긴 사연이 기록으로 전하며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한다.

무관의 부인들은 남편과의 오랜 세월 이별하면서 시부모를 모시고 집안을 꾸려가야 했다. 그러한 어려운 심정이 담은 시가 이각 부인의 「송부출새送夫出塞」라는 한시다. 이 시는 ‘한국 여성 문인 사전’에 기록되어 국문학사에 두드러진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 사대부가 여성 중 가장 앞선 시기, 이각 부인이 지은 한시 「송부출새(送夫出塞 - 변방으로

님을 보내며)」를 소개한다.

送夫出塞(송부출새) 변방으로 님을 보내며 - 이각의 부인

何處沙場駐翠旗(하처사장주취기) 전쟁터 어느 곳에 푸른 깃발 세우고 계실까?

戍歌羌笛夢中悲(수강적몽중비) 오랑캐가 부르는 피리 소리 꿈속에 구슬프네.

陌頭楊柳吾何怨(맥두양류오하원) 길 가운데 버드나무 내 어찌 원망하리,

只待歸鞍繫月枝(지대귀안계월지) 물리치고 돌아오는 날 저 벼들가지에 님의 말을

맬래요.

위 한시 「송부출새」를 읽어보면 전쟁터에 남편 이각을 보낸 부인의 회한과 근심이 물씬 묻어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전장에 나간 남편이 어느 곳에 진을 치고 있는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다. 그녀는 길가 버드나무 아래서 남편을 전장에 떠나보내던 때를 생각한다. 그때 불잡지 못한 것이, 아니 불잡을 수 없었던 것이 못내 한스럽다. 결국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여진족을 물리치고 무사히 돌아온 남편을 그저 기다릴 뿐이다. 사대부에 가려 성과 이름을 전하지 못하고 그저 ‘이각의 부인’으로 전해지는 것이 안타깝다. 남성들에 가려져 몇몇이 드러내지 못하는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겪던 억압의 세상이 슬프다.

‘동지 중추원사 이각의 출기’을 보면 이각이 도절제사 최윤덕을 따라 파저강의 야인(여진)을 정벌하러 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파저강은 두만강과 압록강의 지류로 여진족의 침략이 잦았던 곳이다. 세종 때 최윤덕을 총사령관으로 이순몽, 최해산, 이각 등이 진군하여 여진족과 크게 물리쳤다. 이에 조선은 4군 6진을 개척하여 넓은 영토를 얻을 수 있었고, 외적의 침입을 제압하는 강한 힘을 유지할 수 있었다.

조선 시대 덕산현 출신 무신 이각의 행적은 다시 돌아볼 만하며, 이각 부인이 쓴 「송부출새」는 중등 교과서에 실릴 만한 문학적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한다. 부부가 함께 예산의 자랑스러운 보배로 기릴 만한 인물이다. 무관 이각의 본관은 ‘덕산德山’이라 전해

하는데 묘소 위치나 생가, 후손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음이 그저 아쉽다.

참고문헌(자료)

1. 『고덕면지』, 2006
2. 『조선왕조실록 속의 예산』, 예산문화원, 2022
3. 『한국고전여성시사』, 조연숙, 국학자료원, 2011
4. 『한국 민족문화백과사전』, 『한국중앙연구원』
5. 『태종실록』, 『세종실록』
6. 『한국고전종합 DB』, ‘고전해석’
7. 『한국 한시에서의 여성적 욕망의 발현과 징치』, 이택동,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전공 교수의 논문집>

11 여성 시인 남정일현 南貞一軒

남정일현(南貞一軒, 1840~1922)은 17세에 예산의 성대호(成大鎬, 1839~1859)와 혼인했다. 혼인한 지 4년 만인 20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에서 82세에 사망했다.

남정일현은 조선의 문신이자 소론의 거두였던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의 7대손이다.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남구만의 11대손인 개그맨 남희석은 ‘KBS 전국노래자랑’ 사회를 보고 있다. 남구만은 ‘동창이 밝았느냐? 종달새 우지진다. 소 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라는 시조를 지은 문신이다. 이 시조를 차치하고라도 남구만은 수많은 책문과 반교문, 묘지명 등을 남긴 문필가다. 그는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에 살았다. 아산현으로 유배되어 낙향한 적도 있지만 우의

정 좌의정 영의정의 삼정승을 모두 거친 고관이다. 의령남씨 가문은 정쟁과 당파, 사화를 피해 충남지역(홍성, 예산, 아산)에 낙향하여 배산임수의 터전을 마련하고 집성촌인 씨족 마을을 형성하여 수백 년 세거지를 이룬 집안이다.

남정일현의 남편 성대호는 창녕성씨 상곡공파 桑谷公波 가문으로 아산시 도고에 입향한 16세 성지민(成至敏, 1643~1717)의 후손이다. 성지민이 조익(趙翼, 1579~1655)의 손자 조지강 趙持綱의 사위가 되어 도고에 터를 잡고 정착한 것 같다. 성지민의 묘는 아산시 도고면 농은리에 있으며, 조익의 묘는 신양면 신양리에 있다. 후손 대부분이 예산 인근에 묘가 있다. 도고면과 예산군에 연고를 둔 창녕성씨 상곡공파 후손들은 여럿이 과거에 급제하여 행적을 남겼다.

필자는 2024년 12월 15일 오후 2시경, 창녕성씨 시조 묘가 있는 아산시 도고면 농은리를 찾아갔다. 아쉽게도 묘소 단지가 조성된 위쪽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성대호와 남정일현 묘소만 찾아보았다. 그날은 비가 내렸는데 우산을 준비하지 못해 비를 맞으며 산등성이 비탈길을 오르기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더 큰 이유는 아내 때문이



〈예산읍 간양리 225-1번지, 남정일현 유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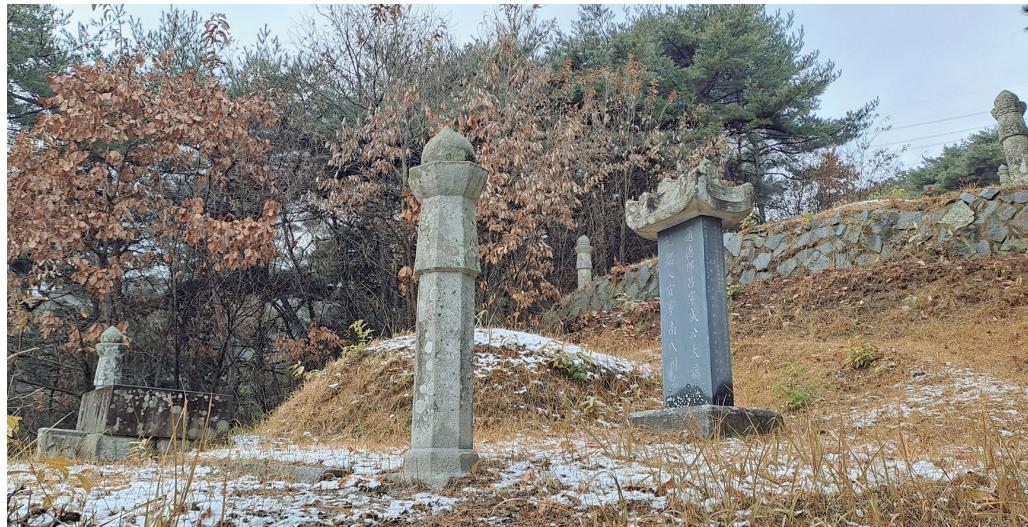
었다. 그날은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면회하고 오는 길이라, 오랫동안 비를 맞으며 기다려야 할 아내를 생각하니 묘소 단지의 끝까지 살필 수가 없었다.

필자의 아내 고향은 예산군 예산읍 간양2리다. 현재 예산읍 간양4리에는 남정일현과 성대호가 살았던 유허가 있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남정일현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런데 어제는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리고, 오늘은 비가 내려 몹시 춥고 산길은 미끄러웠다.

“나도 한번 가고 싶어.”

아내의 말에 힘이 되어 우리 둘은 남정일현의 묘를 찾아가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필자는 근래에 인근의 서산, 청양, 아산에서 행사가 있으면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조선시대의 예산인과 관련된 비석과 고택의 사진 등을 촬영하곤 했다. 이번도 천안에 다녀오는 길에 아내와 함께 눈비를 맞고 있는 남정일현의 묘를 찾은 것이다.

창녕성씨 상곡공파 22세손인 성대호는 남정일현의 남편으로 21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그의 묘소는 도고면 농은리 344번지에 있었다. 그곳으로 내려오다가 좌측 위에 비석이 세워져 있어 올라가 살폈으나 판독이 어려웠지만, 여주에서 도고면으로 이



〈아산시 도고면 농은리 344, 성대호와 남정일현의 합장묘〉

장해온 성재기(成載琦, 1821~1860, 상곡공파 21세손)의 묘소로 보였다.

남정일현은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에서 평생을 살았다. 남편은 죽고 자식도 없는 쓸쓸한 삶을 살던 그녀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정일현 시집』은 그녀가 죽고 난 뒤 입적한 양자 성태영이 편집하고 출간하였다. 이 시집에 실린 한시 65수는 태극의 유가 철학, 양자를 들임, 모정, 예산읍 간양리의 계절과 풍경, 친정 부모에 대한 그리움, 평탄지 않았던 인생살이, 성리학과 주역의 태극 사상 등 심오한 철학사상을 펼쳐내었다. 그녀는 고되고 쓸쓸한 삶 속에서 한시와 가사 작품을 썼다. 자신의 삶을 위로하며 품위 있는 삶을 가꾸기 위해 애쓰다가 충남 예산읍 간양리 구두물 마을에서 세상을 떴다.

2015년 예산문화원에서 지방문화원 향토 민속발굴 사업으로 역주 『정일현 시집』을 발간했다. 대전의 문희순 교수가 집필한 번역시집이다. 필자는 남정일현 묘소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의 험난한 세상살이를 토로한 『정일현 시집』에 실린 <행로 난行路難>이란 시를 떠올렸다.



(오가면 원천리 746-10, 남정일현의 시아버지 성재선의 묘)

行路難행로난 - 인생길의 어려움

半世冥行走一遭(반세명행주일조) 반평생 어두운 한 길로 달려왔느니

夏畦齊郭撫滔滔(하휴제곽총도도) 힘든 인생살이 모두가 세차고 세찼구다.

傾危到處蜀山路(경위도처촉산로) 이르는 곳마다 기울고 위태로운 촉산의 길
이요

翻覆常時巫峽濤(변복상시무협도) 언제나 거꾸러지고 뒤집히는 무협의 파도
였다지.

見害方知胸裏棘(견해방지흉리극) 해를 당하고야 비로소 가슴 속의 가시를 아
나니

結歡誰測笑中刀(결환수축소중도) 그 누가 웃음 속의 칼 생각이나 하리오?

杜門鏟跡猶侵苦(두문산적유침고) 문 닫고 자취 감추어도 오히려 침노하는
고통

思入仙源學種桃(사입선원학종도) 무릉도원 찾아가 복숭아 심는 법이나 배웠
으면.

-『정일현 시집』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문희순 역주.

남정일현의 시아버지 성재선(成載璣, 1811~1882)은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현감을 지냈
다. 그의 묘소와 아들 성경호, 손자 성태영의 묘는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746-10에 조
성되어 있다.

창녕성씨 상곡공파 후손 중에는 입신하여 높은 관직과 덕망으로 세상에 이름을 날린
인물이 많다. 특히 도고면과 예산군 지역에 연고를 둔 성씨 인물이 많다.

1930년 예산에서 태어나 많은 작품을 남긴 성찬경成贊慶 시인은 2013년 2월에 사망
했다. 그는 창녕성씨 성대호의 후손이며, 남정일현의 증손자다. 서울대학교 영문과 재
학 중 <문학예술> 지를 통해 등단했다. 성균관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월

탄문학상>, <한국시인협회상>, <한국 예술상>, <보관문화훈장> 등을 받았다. 연재 예산지역 문인들은 ‘성찬경 문학관’을 건립하고자 노력 중이다.

참고문헌(자료)

『정일현 시집』, 남정일현, 문희순 역주, 2015

3

정문 旌門 으로 알아본 효행 사례

3.

정문 旌門으로 알아본 효행 사례



1 충신 忠臣

○ 이억 李億

예산군 봉산면 금치길 131-35

○ 한순 韓樞

예산군 고덕면 당진영덕고속도로 14

○ 이의배 李義培

예산군 봉산면 봉명산로 99-3

□ 이억 李億

충은 다수의 사람에 대하여 성실을 다하는 것이다. 국가나 군주를 우선하는 법가의 사상에서 충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국가나 군주를 위하여 자기 능력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충은 신하나 백성이 임금이나 나라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 도리이다.

예산의 인물로 조선시대에 충을 실천한 이가 적지 않다. 특히 장군의 묘와 말의 무덤

에 관한 이야기는 설화나 기록물 등에 의해 여럿 전해지고 있다. 예산군 대술면에 있는 고려 강민첨 장군의 묘에는 강 장군 마부의 묘와 말 무덤이 있다. 봉산면 이억 장군 정려각 옆에는 이억 장군이 사랑하고 아끼던 말의 무덤이 있고, 봉산면 봉림리 우봉이 씨 정려에도 옥전리 말 무덤이 있다. 이억 장군이 병자호란 때 쌍령전투에서 전사한 설화와 함께 전해지는 동산리의 마실리고개, 관음리 대홍산(봉수산) 중턱에 있는 박수사묘, 백제 시대 예산읍 발연리 원탱이의 말 무덤, 덕산현(고덕 한내장) 의마장, 광시 마사리 박홍 장군 묘 옆의 말 무덤 등이다.

봉산면사무소에 북쪽 도로를 따라 1.5km쯤 가다 보면 금치교란 다리가 나온다. 이 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서쪽으로 난 길을 따라 1km 정도 들어가면 금치리 입구가 나온다. 이곳 도로에서 200m 정도 남쪽에 이억 장군의 정려각이 있다.

이억(李億, 1615~1636)의 본관은 경주이며 아버지는 현감 벼슬을 지낸 이석립(李碩立)이다. 어려서부터 힘이 장사로 승마와 활쏘기에 능하였고 병법에 밝았다. 그는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22세의 나이로 충청도 병마절도사 이의배 지휘하에 전투에 참여하였다. 쌍령(경기도 광주시 쌍령동)에서 적을 만나 힘을 다해 싸우다 순절하였다.

1702년(숙종 28) 6월 8일 『숙종실록』 <승정원일기>에는 이억 장군의 전사와 정려, 관직 추증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전 참봉 이경창이 상언하여 그의 아비 이억이 병자년(인조 14)의 난을 당하여 병사 이의배와 함께 적에게 죽었다. 이후 나라에서 포상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청하였는데, 예조에서 공문을 검토하고 심리하여 임금께 정려와 관직의 추증을 청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허락하였다.”

이억 장군의 정려각 내부에 걸린 비각에 의하면, 정려각은 후손에 의해 수선된 후 1860년(철종 11) 비석이 세워졌으나 현재 비석은 없다. 정려각의 내부 중앙 상단에는 1702년에 내려진 ‘충신 등 통정대부 병조참의여서 지문’이란 명정 현판이 있고, 뒤편에



<이억 장군의 정려각>

는 비각기와 정려각 중수기가 있다. 뒤쪽에는 장군의 유서를 묻은 가묘와 그의 말 무덤이 함께 있다. 정려각은 1986년 11월 9일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282호로 지정되었다.

병자호란의 싸움터에서 이억 장군이 순절했다. 이억 장군의 말은 며칠 밤낮을 달려 고향에 돌아왔다. 말은 주인을 태우지 못하고 옷과 유서를 입에 물고 왔다. 이에 유품과 옷으로 묘를 쓰고 옆에 말 무덤을 만들었다. 이억 장군의 처 죽산박씨는 여막을 짓고 6년간 시묘살이를 했는데, 기일을 맞아 제사를 지내려고 목욕을 한 뒤 혼절하여 사망했다.

병자호란에서 패전 후 이억 장군은 순절하였기 때문에 직접 포상할 수 없었다. 예산 지역 유림과 후손과 덕산현감을 지낸 이근행 등 백여 명이 연서하여 충청도 관찰사에 진정하였다. 이에 이억 장군의 의절이 조정에 보고되었고, 순절한 지 65년 후인 1702년 충신의 정려를 내리고 부인에게는 열녀의 정려를 내렸다.

몇 년 전 이억 장군의 정려각을 찾아가니 주변이 제초 작업하여 깔끔했는데 그의 애마가 묻힌 말 무덤은 잡초로 뒤덮여 형태를 알아볼 수 없어 아쉬웠다.

참고문헌(자료)

1. 『봉산면지』, 2002
2. 『디지털예산문화대전』
3. 『문화유적분포지도』, 예산군(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2001
4.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한순 韓循

예산은 문항의 고장이며 선비의 고장이며, 양반의 고장으로 불린다. 그런 만큼 충신과 열사, 문장가, 학자, 예술가를 많이 배출하였다. 또한 효자와 효녀, 열녀를 많이 배출하였다. 오랜 세월 동안 유교의 효 문화가 생생하게 전해져 온다. ‘나라와 임금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신하는 충신이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동양의 정신이나, ‘A loyal subject will not serve a second lord. (충신은 두 군주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서양의 정신은 서로 통한다.

예산에는 충을 실천한 훌륭한 장수나 장군과 인연이 많다. 백제 말의 흑치상지, 신라의 김유신, 고려의 강민첨, 조선의 이각, 이억, 정현룡, 인초선, 정치방 등이 그들이다. 예산의 한산이씨 집안에서는 고위급 장수를 연달아 셋 배출했으니 이의배, 이목, 이여발이다.

한순 장군은 임진왜란을 당하여 적과 싸우다 순직했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의 전투에 참여하였다가 패한 장수는 그 책임을 지고 순절한 이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런

장수를 나라가 인정하고 정려문을 내린 일은 흔하지 않았다. 충신으로 상신을 하여도 관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 마찰이 일어나곤 했다.

예산의 인물로 전쟁이나 군란 때 나가 싸우다 전사한 후 충신의 정려문을 받는 사람으로 이억, 한순, 이의배가 있다. 그중 한순의 정려각은 예산군 고덕면 대천2리 입구에 있는 야산의 남서향 사면 하단부에 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고덕나들목 요금소에서 가깝고, 주변에 은성농원이 있다. 정려각 옆 소나무는 연륜을 보여 주는 크고 웅장하다.

한순(韓恂, 1555~1592)은 덕산현 사람이다. 1583년(선조 16) 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과 평양판관 등을 거쳐 1590년에는 남평현감으로 나아갔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경명 의병장은 그해 7월 전라도 의병 7,000여 명을 이끌고 적을 토벌하여 갔다가 금산에서 전사했다. 이때 남평현감으로 있던 한순은 전 남평군수 윤열과 창평현감 등과 합세하여 용담과 금산의 경계인 송현으로 진군하여 적과 맞서다 500여 명과 함께 1592년 8월 9일 전사했다.

이러한 사실을 순찰사가 조정에 상소하였으나 상소를 가지고 가던 사람이 중도에서 적군을 만나 전사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오랫동안 포상을 받지 못하다가 효종 대에 이르러 병조참의에 추증되었다. 포상은 손자인 한흡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흡은 1656년(효종 7) 조부인 한순의 표창에 힘써 달라고 덕산의 조극선에게 요청하였다. 조극선은 김육에게 편지를 보내고, 김육은 조정에 한순의 순절에 대한 포상을 건의하고 조정에서 이를 승인했다.

『한포재집』‘권 9 서문’을 번역한 전주대학교 발간 ‘한씨충열록서 서문’에는 한순의 행적이 이렇게 기록되었다.

한씨충열록서 韓氏忠烈錄序

한후주가 어느 날 그의 증조할아버지인 현감 공 한순이 의롭게 순절한 사적과 그의 아버지 첨추공 한흡의 장소를 모은 책 한 권을 소매에서 꺼내 보여 주었다. 내가 다 읽고 나서 한숨을 쉬고 감탄하며 말하기를 ‘아, 이 한 권의 책에 한씨 조 손의 충과 효가 갖추어져 있으니 공경할 만한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임진왜란을 당해서 열 군이 와해하고 종사가 파천하여 적이 온 나라에 가득하였다. 이때 대소 장치가 모두 도망하여 숨느라 감히 그 예봉을 건드리는 자가 없었다. 현감 공은 이미 남평 현감을 맡았는데, 겨우 5백 명의 의병을 앞장서 거느리고 주변 군의 적들을 무찔렀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싸우다가 금산에 이르렀는데 금산은 적의 소굴이 되어 있었고 고충렬 고경명은 벌써 전사하였다. 현감 공이 적과 대치하여 종일토록 맞붙어 싸웠으나 힘에 부쳐 죽었는데 인끈을 풀지 않고 있었다. 한순이 사망한 후 열흘이 지나서 조현이 7백 명의 의사와 함께 섬멸당했으니, 이해 8월이다. 그 후에 호남 사람들이 공과 고공·조공 이하 의롭게 순절한 약간 명을 한 사당에 함께 배향했으니, 이는 사림의 공의였다. 그런데 공의 후사가 영락하여 향리를 떠돌고, 고을을 맡은 수령 또한 이 사실을 조정에 아뢰지 않아 포증과 정려의 은전이 공에게만 미치지 못한 채 공이 죽은 지 또 60여 년이 흘렀다.

첨추공이 비록 할아버지의 사적에 대해 들었지만, 향사의 일은 미처 알지도 못하고 선조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음을 애통해하여 위로 임금께 호소하면서 여러 정승을 두루 찾았다. 또 남평읍의 수령 안과 사실을 기록한 글을 찾아내고, 순절했을 당시 관리를 지낸 자의 자손으로 생존해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물어 더욱 상세하게 알아냈다. 그러나 유사有司는 번번이 이를 어려워하였고 여러 번 호소했으나 번번이 일이 성사되지 않자, 공은 이에 애통함과 한스러움을 품고 고심하며 바쁘게 뛰어다녔다.

정유년부터 병진년에 이르는 20년 동안 세 조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윤허를 받아 먼저 작호를 올리고 또 그 마을에 정려를 내려 주었다. 이에 현감 공의 진실한 충정과 큰 절개가 사람들의 이목을 찬란하게 다시 비추니 공의 영명하고 굳센 혼백도 저승에서 유감이 없게 되었다.

아, 예로부터 충성스러운 신하와 의로운 선비가 강개하게 자신을 희생하여 국가를 위해 순절하는 것은 후세에 이름을 드러내려는 마음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다만 자신의 한인 인仁을 이루어 스스로 마음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일이 멀어지면 잊히고 이름이 사라지면 일컬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에서 조차 풍성을 세우고 절의를 송상하려고 마음먹지 않으니 풍속이 날로 안 좋아지고 다스림이 옛날만 못한 것은 당연하다.

현감 공의 성취가 저처럼 뛰어나더라도 첨추공 같은 손자를 얻어 조정에 호소하고 주변을 찾아다니며 거의 없는 사적을 찾아내어 밝히지 않았다면, 금사의 배향이 폐해지지 않았을지라도 성조가 표창하는 아름다운 뜻은 반드시 사라져 거론되지 않았을 것이다. 첨추공은 효자라 이를 만하도록.

옛적 견제가 죽어도 일어나 가지 않을 것을 고집하여 끝내 안녹산의 난리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고, 그 뒤 견제의 아들인 견봉이 또 쳐신을 잘하여 주군의 대신에게 신임받아 부친의 일을 밝게 드러내어 천자에게 상달하여 부친에게 4품의 관직이 추증되게 하였다.

한유는 견봉이 그의 부친과 함께 마땅히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장고를 담당하는 사람은 과연 한씨 조손의 사적을 한문 공이 했던 것처럼 쓸 수 있겠는가 아닌가. 내가 이에 우선 권말에 감홍을 느낀 바를 써서 돌려보낸다. 현감의 이름은 순이고, 첨추의 이름은 흡입이다.



〈충신 한순의 정려각〉

한순은 1713년(숙종 39) 자현대부 병조판서 겸 정2품 관직에 추증되고 서성군에 봉해졌다. 그 후 한순 정려는 건립 이후 몇 차례의 중수와 개수가 이루어졌다.

충신 한순의 정려문은 임진왜란 당시 전을 치고 적과 싸우다 순직한 장수로 조정에서 인정하여 내려 준 귀중한 문화재 자료다. 금산군은 임진왜란 당시 금산 전투에 의 병과 관군이 참여했다가 그곳에서 사망자에 대하여 칠백의총 무덤을 만들어 받들고 있다. 칠백의총 내 종용사에 한순의 위패가 안치된 것은 애국의 충절의 큰 뜻도 담겨 있다.

참고문헌(자료)

- 『고덕 면지』, 2006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한포재집』, <권 9 서문>, 채현경(전주대학교에서 번역한 ‘한씨충열록서’ 서문)

□ 이의배 李義培

이의배는(李義培, 1576~1637) 조선의 무신이다. 예산군 봉산면 사석리 사람으로 병자호란 때 쌍령전투에서 아들 이목과 함께 순절한 충신이다.

1599년(선조 32) 무과에 급제해 선전관이 되고 감찰로 전임되었다가 보령현감으로 발령받았으나 임란 왜란이 갓 끝난 때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교체되었다. 33세 때 (1608년)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복제를 마쳤다. 이괄의 난 후 전라 좌수사로 승진하고 충청도 병마절도사 등을 거쳤다.

1636년(인조 14) 청 태종이 군사를 몰아오자 고군孤軍을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달려갔다. 광주 부근의 죽산에 당도한 다음 날 남한산성으로 향하던 이차형·이근영이 적의 습

격을 받아 전사하자 영남 근왕병의 합류를 기다려 다시 진격했다. 좌절도사 허완과 우 절도사 민영의 군과 함께 광주 쌍령의 정족산성에 진을 쳤는데, 공격해오는 적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많은 사상자를 내고 무너지자 막료의 피신 권유를 물리친 채 노비 축생과 함께 싸우다가 힘을 다해 전사했다.

이 쌍령전투에 허완·민영 등 두 절도사도 함께 전사하였다. 1701년(숙종 27), 이의배가 죽은 지 65년 뒤 그의 충의로운 죽음에 보답하는 포상이 주어졌다. 최석정이 순조 임금에게 이의배 부자와 허완·민영 등 두 절도사, 노비 축생의 충의를 알렸고, 이에 모두 정려문이 하사되었고, 이의배는 이후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이의배의 신도비〉

정려각 안에는 비문이 적힌 신도비가 있다. 그의 부친 이흡도 무관으로 예산의 한산 이씨는 3대에 걸쳐 무관을 배출한 가문이 되었다.

참고문헌

- 『인조실록』
- 『국조인물』
- 『봉산면지』 20014
- 『문화유적 분포지도』, 예산군(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2001
- 『한국학중앙연구원』

2 효부 孝婦

- 이상빈 李尙賓의 부인 평산신씨 平山申氏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로 181-8
- 신암면 효부 유순자
25년간 시부모 봉양으로 ‘가족화목상’ 수상

□ 이상빈 李尙賓의 부인 평산신씨 平山申氏

오늘은 필자의 아버지 생신이다. 여느 때 같으면 전 가족이 식당 모여 오손도손 점심하고 있을 시간이다. 우리 가족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고자 생신 축하 모임을 취소했다. 최근 부모님은 치아가 불편하여 치과에서 뽑아버렸다. 며칠간 죽을 드신다. 부모님이 예산에 있는 치과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식사를 편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대술면 상항리로 향했다.

예산군 대술면은 성리학자와 문인을 많이 배출한 고장이다. 이산해, 이남규, 이광임, 이경전, 이승유, 신계영, 이해문, 장문환, 우제봉, 이명재, 곽호제 등이 대술 사람으로 대술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을 많이 배출한 고장이다.

조선 시대 효는 유교 덕목 가운데 제일로 여겼다. 자식은 부모에 대한 최선의 공경과 경애를 표시해야 했다. 예산과 대술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도의와 예를 중시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목숨을 바친다’라는 올곧은 충의 정신을 발휘하며 자신을 희생했다. 대대로 유교문화와 선비정신의 전통을 계승한 충효의 고장이다.

예산군 대술면에는 정려문이 여러 개 있다. 마전리에는 청주한씨 한경침의 부인 공신옹주 열녀가 있고, 효자 한직묵, 한재건의 처 경주김씨 효부녀, 세 사람의 삼정려, 상항리 이상빈의 처 신씨 정려, 방산리 효자 이승휴 정려, 이티리 장홍고씨 효열비, 화천리 박영준 효자 현행비 등이다.

대술면 상항리에는 이상빈의 처 평산신씨의 효부 정려각이 있다. 상항리에서 방산저수지로 가는 길에 샘터마을이 나온다. 수당 고택(이남규선생고택)이 있는 상항방산로 181-7번지 앞 도로변에 있다.

진사 이상빈(1606~1637)의 부인 평산신씨(?~1666)는 시어머니보다 일찍 사망하였는데 사망 8년 만인 1674년(현종 15) 효부 정려를 하사받았다.

판윤 신후재(1636~1699)의 딸인 평산신씨는 이상빈과 혼인하였다. 대술면 상항리에 있는 이남규 고택을 지은 이효숙(1588~1668)과 이구(1586~1609)의 며느리이다. 이상빈의 증조부는 아계 이산해(1539~1609)이며, 조부는 유학자였던 이경전(1567~1644)이다.

그녀의 남편 이상빈은 생원과 진사시에 합격한 인물인데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다. 그녀는 훌로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였다. 남편의 장례를 치를 때부터 죽음을 다짐했지만 늙은 시어머니가 있어 차마 목숨을 끊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여막을 짓고 추우나 더우나 남편의 무덤을 지켰다. 여막에 거적을 깔고 흙더미를 베고 잤는데 여름에

는 습기가 차서 여막 안에 풀이 자랐다고 한다.

겨울에는 서리가 얼음이 되니 병에 걸리기도 했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병환 중에 머리에 이가 생기자 시어머니 머리에 자기 머리를 접촉하여 이가 옮겨 오도록 하는 등 지극한 봉양을 했다. 아침저녁으로 안부를 묻고, 부름이나 대답에 성의를 다하고 집안일이나 음식이나 의복 등의 일에도 정성을 다하였다.

결국 신씨는 여막살이로 얻은 병이 깊어져 세상을 떠났고, 주변 사람들이 탄식했다고 전한다. 일을 당하여 목숨을 끊기는 쉽지만 죽을 때까지 모시며 효도하는 일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녀의 효행·열행이 특별하였다고 전해진다.

정려각의 내부 중앙에 걸린 현판에는 ‘효부 성균진사 이상빈 부인 신씨 지문’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필자는 대술면 상항리는 인연이 있다. 수년 전 군청에 근무할 당시 천안 어느 기업에서 대술면 상항리 일원의 산을 매입하고는 대형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예산군에 제출했던 적이 있다. 도시재생과 복합민원팀장을 맡고 있던 필자는 여



〈이상빈의 부인 평산신씨의 효부각〉

러 가지 사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사업주는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민사인 손해배상소송을 신청했다. 소송판결 결과 예산군이 3건 모두 승소했다. 그 후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하여 대형 태양광 발전시설은 대술면 상황리에 들어서지 못했다.

예산군에는 문화재가 많이 산재하고 있다. 군은 고장에 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신청할 때 거리의 제한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이젠 공직에서 물러났지만, 필자는 예산군의 문화재 경관을 해치거나 무분별한 난개발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술면에 있는 수당 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제281호)이고, 상항리 석불은 충남도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69호)이며, 이광임 선생 고택은 충남도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83호)이다. 필자는 이들과 효부 평산신씨 정려각, 효자 이승유 정려각 등을 찾았다.

이렇게 문화재를 만날 때 대전지방법원, 충남도청에서 열린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으로 법정의 변론 참석과 법리 싸움에 몰두했던 일들을 생각했다. 충남도청 행정심판이 열리던 날 필자는 피고석에 앉아 십여 명의 행정심판위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출석하면 충청남도 부지사, 법원판사 앞에 원고와 피고가 나란히 앉아야 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원고는 천안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시에 합격한 변호사이다. 그 변호사는 내 옆에서 답변하지 않았다. 같이 온 회사 사업주만이 답변했다. 이날 행정심판에서 법리 내용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았다. 이남규 고택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일부 사업 부지가 500m 이내라 행위 제한인 국가문화재 거리 제한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소송에 이겨서 문화재를 지킬 수 있었다.

필자의 노력이 어느 정도는 대술면 상항리 유적지와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한 듯싶어 대술면 정려 탐방 오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참고문헌(자료)

1. 『대술면지』, 2009

□ 신암면 효부 유순자

- 27년간 시부모 봉양하여 ‘가족화목상’ 수상

2013년 예산군 신암면 유순자 주부가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주관하는 ‘삼성행복대상’ 효부 수상자로 선정되어 예산군의 경사스러운 한 해가 되었다.

‘삼성행복대상’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 공익에 이바지한 여성, 학술, 예술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여성과 효행 실천과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인물을 발굴하여 칭찬하기 위해 제정 제정한 상이다. 기존의 ‘비추미여성대상’과 ‘삼성 효행상’을 통합한 것으로 그 첫해에 예산의 유순자 씨가 ‘가족화목상’을 수상한 것이다.



〈2013년 효부상 수상자 유순자 주부〉



〈가족화목상 상패〉

‘가족화목상’의 영예를 안은 유순자 주부는 시아버지가 작고할 때까지 효심을 다해 봉양해 주위의 본보기가 되어 왔다. 뇌출혈로 쓰러진 시어머니를 27년간 지극히 봉양하면서 남편과 아들이 낙농업으로 어려운 가정을 일으켜 행복한 가정을 가꾸었다. 2013년 11월 27일, 삼성생명 본관 콘퍼런스홀에서 가족화목상 상패와 함께 상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신암면은 필자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6급 행정직으로 두 차례나 신암면사무소에 근무하여 지역주민을 많이 접하다 보니 친한 이들이 많다.

축산업을 하면서 젖소를 키우고 있는 이병환, 유순자 부부와 막역한 사이는 아니지만, 수년간 만나 잘 아는 이들이다. 이들 부부는 시어머니를 27년간 집에서 모시고 있었다. 처음에는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이들 부부 효행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부자父子

- 김방언 金邦彦·김치화 金致和
예산군 광시면 장신신흥길 283-1
- 장진급 張真汲·장형식 張亨植
예산군 광시면 장신 신흥길 247

□ 김방언 金邦彦·김치화 金致和 부자

예산군 광시면 소재지에서 북서쪽으로 4.5km 떨어진 곳에 김방언·김치화의 정려각이 있는데 김한종 의사 생가지 안내표지판에 가려 잘 보이지 않고 초라하다. 정려문은

귀중한 문화재다. ‘이를 생각했다면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때 정려각이 가리지 않도록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김방언(金邦彦, 1693~1756)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없었다. 정성으로 편안히 보셨다. 아버지가 병이 들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중을 들었고, 병이 악화하자 허벅다리 살을 빼어서 약에 넣어 달여 드렸다.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수혈하여 부모님 생명을 연장하는 등의 효행을 하였다.

김치화는 아버지 김방언이 기이한 병을 앓자 손가락을 베어 피를 먹이고 극진히 보살폈다. 부친상을 당하여서는 3년 동안 산소를 떠나지 않고 묘소를 지켰다.

이러한 효행을 알아차린 후손들은 20여 차례에 소장을 관청에 보냈다. 순행하던 암행어사가 이 사실을 듣고는 임금에게 보고했다. 정조 임금은 “두 부자를 표창하여 정려하는 일은 김치화의 부인 신씨의 효성에 감동한 소치이다. 해당 고을은 그들의 효행을 한문과 언문으로 등사하여 길거리에 게시하여도 전체의 선비와 백성들에게 본보기의 자료로 삼게 하라.” 하였다. 이에 1783년 조정으로부터 김방언과 김치화 부자에게



〈효자 김방언·김치화의 정려각〉

‘명정’이 내려졌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예산군(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2001)의 내용에는 “예조에서 효행 제단 자를 모은 『효행등재등록』에는 정려질旌閭秩에 김치하가 올라 있지만 그의 아비 김방언의 이름으로 올리지 않았다.” 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김방언과 김치하 부자의 정려문은 광시면 신흥리 버스 정류장에 있었는데 60여 년 전에 광시면 소재지로 옮겼다.

정려 내부에 있는 2개의 명정 현판에는 각각 ‘효자학생김방언지문 상지칠년계묘오월 일 명정’, ‘효자 학생 김치화지문 상지 칠년 계묘 정월 일 명정’이란 글귀가 쓰여 있다.

조선 시대엔 생전에 벼슬 없이 죽으면 명정이나 지방, 신주 등에 ‘학생’이란 존칭을 썼다. 제사를 지낼 때 지방에 ‘현 고학생부군 신위’라 쓰는데 이는 ‘배우는 학생으로 인생을 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이시어 나타나 자리에 임하소서.’라는 뜻이 된다.

조선 시대 정려의 명정을 받는다는 것은 지역 사회의 지지가 필요했다. 이 두 사람이 정려을 받는 까닭도 김치화의 아들 김민형이 올린 상소와 김치화의 부인 신씨의 도움이 컸고, 지역 유생들의 도움이 있었다.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 삼베마을 김방언 부자는 비록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신분이었지만 ‘두 효자에 한 열부’라 하여 학계에서 평가되는 등 예산의 효 정신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참고문현(자료)

1. 『광시면지』, 2010
2. 『디지털예산문화대전』
3. 『문화유적분포지도』, 예산군(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2001

□ 장진급·장형식

張真汲·張亨植

예산군에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대를 이어 효자 정려문을 받은 일은 드물다. 400여 년 전 삽교읍 월산리에 입향한 인동장씨의 후손 장윤식은 99칸의 기와집과 15만 평의 토지를 소유한 갑부였다.

장진급은 장윤식의 부친이다. 홍선대원군이 아버지 남연군의 묘소 터를 보기 위해 가야사의 금탑 자리로 가기 전 들러 대접받을 정도로 그의 부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 지역의 재력가로 손 큰 선행을 많이 했으니 ‘1867년 5월 군수에게 500석을 바쳤다거나, 군수 작전에 큰돈을 쾌척했다거나, 1877년 7월에는 예산 전 현감 장윤식 등의 진휼을 도왔다.’ 등의 기록이 전한다.

장진급과 그의 아들 장윤식·장형식의 정려각과 선정비는 예산군청 앞 영세불망비, 예산향교 앞 영세불망비, 삽교읍 월산리 정려각, 광시면 신흥리 정려각, 대홍면 의좋은 형제공원 거리 영세불망비 등 여럿이다.



〈효자 장진급과 그의 아들 장형식의 정려각〉

장진급은 부모가 병을 얻었을 때 완쾌하기를 하늘에 빌었다. 죽은 뒤에는 3년간 상례 치르면서 피눈물을 흘렸다. 이러한 효성이 알려져 조정에서는 1806년 동몽교관을 추증하고 명정하였다.

장형식은 관직이 현감에 이르렀다. 그는 천성이 효성스러워 부모를 극진하게 모셨고 평생을 시묘하여 그의 공적이 인정되어 가선대부에 증직되고 1862년(철종 13) 명정을 받았다.

장윤식은 부친 장진급이 병에 들자 수년간 병간호와 입으로 고름을 뺏아 치료하였다. 온갖 약을 구해 부친에게 먹이고 하늘에 치성을 드리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부친이 세상을 떠나서도 예를 다해 장사를 지냈다.

장형식과 부친 장진급의 양세효자 정려각은 광시면 신흥리에 있으며, 장윤식의 효자 정려문은 삽교읍 월산리에 있다.

정려각의 내부 중앙 상단에는 2개의 현판이 나란히 걸려 있다.

광시면에 있는 장진급과 장형식 양세 정려각은 후손들이 관리하지 않아 안타깝다. 삽교읍 월산리 장윤식의 정려각도 비슷하게 퇴색되어 있다.

이를 보면 필자는 효행의 가치가 떨어져 가는 현대의 모습을 보는 듯하여 안타까웠다. 정려문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동안 과연 효는 무엇이고 부자란 무엇일까? 장진급 집안을 돌아보면 ‘부불삼대’라는 말이 생각난다. 부가 3대를 잇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재력을 이용하여 현감직을 사고, 대원군을 만나 도움을 주고받은 사실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장씨 집안은 본래 양반 집안이었으나 장사를 통해 부를 축적했다. 특히 패랭이를 통해 돈을 벌었는데, 나라에 상을 당하면 패랭이는 수없이 팔려나갔다. 그들의 땅은 삽교 월산리와 광시면에까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살던 대궐 같은 집은 무너져 지나는 이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흉물이 되었다.

참고문헌(자료)

- 『문화유적분포지도』, 예산군(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2001
- 『광시면지』
- 『디지털예산문화대전』
- 『승정원일기』

4

부부夫婦

- 인영원印榮源·성주배씨星州裴氏
예산군 덕산면 흥덕서로 500-5
- 신효申壘·밀양박씨密陽朴氏
예산군 봉산면 대지한곡길 39
- 김의재金義載·창원황씨昌原黃氏
예산군 봉산면 고도길 4-7

□ 인영원印榮源·성주배씨星州裴氏

4월 초순이다. 이번 주에는 예산군 정려문 5차 탐방을 아내와 동행했다. 해가 질 무렵이라 급히 서둘러 덕산면으로 향했다. 덕산면 대동리 한국고건축박물관을 지나니 효자웨딩홀 아래쪽에 '낙상리 쌍효각'이란 이정표가 있다. '효자골 오일뱅크' 맞은편 도로 옆에 선 정려각이 소담스럽다.

그동안 삽교와 대술과 신암, 오가에 있는 정려각을 돌아보았다. 보아 온 것 중에 이 쌍효각 정려는 특별한 정성이 깃들었다. 운치 있고 멋있다.

숙맥은 숙맥불면_{菽麥不辨}의 준말이다. 이는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사리 분별을 못하는 못난 이를 이르는 말인데, 옛날에는 효를 다하지 않는 이를 이르기도 했다. 그리하여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숙맥이라 손가락질했다.

낙상리 쌍효각 주변에는 쑥이 파랗게 돋아나 있었다. 아내가 쑥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올해도 부모님에게 쑥떡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다. 정려각 주변을 빙 두른 쑥들, 아내는 아마 효도를 뜯는 것이리라.

덕산면은 효자와 효부, 열녀가 많지만, 자세한 내용이 담긴 기록물이 부족하다. 그중 잘 알려진 덕산 낙상리에 전하는 인영원 부부의 효행을 살펴본다.

인영원(印榮源, 1850~1906)의 본관은 교동_{喬桐}이다. 어렸을 때부터 효행이 남달라 아침 저녁으로 부모에게 문안드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고 전한다. 인영원은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 그는 기절하였고, 어린애였음에도 장례 와 3년 상을 예에 따라 치렀다. 아버지의 상을 마치자 남은 재산이 없었다. 스무 살에 성주배씨를 아내로 맞으니 아내도 가난한 가운데 시어머니 모시기를 극진하여 효부로 이름이 났다.

1877년(고종 14)의 겨울, 어머니의 병환이 위중해졌다. 인영원은 겨울 산을 헤매며 약재를 채취했고 아내는 정성껏 달였다. 부부는 정결한 제단을 쌓고 겨울바람 속에 어머니의 쾌유를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아들 부부의 효성을 칭찬했다. 그 이후로 빠르게 회복하였다.

인영원 부부는 그 뒤로도 매년 정초가 되면 제단에 제물을 차리고 치성을 드렸다. 병에서 회복한 어머니는 17년이나 더 살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자 부부는 깊이 애통해 했다. 이로 쇠약해진 부인이 다음 해에 세상을 떴다. 인영원은 아내의 상과 함께 어머니의 삼년상을 치렀다.

훗날 인영원이 죽자 그의 아들 인희배가 아비가 한 것처럼 삼년상을 치렀다. 인영원의 빛자리는 풍수지리로 유명한 노병용이 잡아 주었다. 그곳은 인영원이 살아생전 어머니를 위해 치성을 드리던 제당 자리였다.

인영원의 효성은 조정에 전해져 그는 종1품 숭정대부_{崇政大夫}, 판중추부사_{判中樞府事}에 추증되고, 그의 부인 배씨는 정1품 정경부인에 증직_{贈職}되었다.

효자 인영원 부부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지역이 나섰다. 1927년 유림이 공론을 모아 통문을 돌리고 추천서를 올려 경성모성존도원_{京城慕聖尊道院}에서 명정을 받고 쌍효각을 건립하였다. 쌍효각은 담장에 토담을 두르고 정면에 팔작지붕을 한 문이 있다. 그 정면 상단에는 쌍효각_{雙孝閣}이라는 현판이 붙고, 내부 정면에는 인영원과 성주배씨의 효성을 기리는 문장이 수려하다. 1983년 쌍효각 정려 앞에는 인영원의 아들 인희배_{印熙培}의 선행비가 세워졌고, 2005년에는 예산군에서 쌍효각을 보수하였다.

덕산면 낙상리는 일찍이 교동인씨가 집성촌을 이룬 곳이다. 조선 초기의 문신 인삼석이 입향한 아래 번창하였다. 이곳의 세워진 쌍효각은 교동인씨의 위상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 정려각의 건립 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쌍효각’ 주위를 돌며 사진 촬영을 하는 동안 아내는 몇 줄 쑥을 뜯었다. 탐방을 마치



〈인영원·성주배씨 부부의 쌍효각〉

고 귀가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봄날이면 아내 최금비는 쑥을 뜯어 부모님에게 쑥떡을 해 드리곤 하는데, 아내가 만든 쑥떡을 입에 넣으며 환히 웃음 지으실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내 어린 날에는 어머니가 쑥을 뜯어다 쑥떡을 해주셨다. 지금은 몸이 노쇠하여 쑥을 뜯는 것조차 힘에 부친다. 앞으로 정려문 탐방 때에는 가벼운 차림으로 비닐봉지를 준비해야겠다. 차 안에 쑥 향기가 그윽하다.

참고문헌(자료)

1. 『문화유적분포지도』, 예산군(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2001
2. 『덕산향토지』
3. 『디지털예산문화대전』

□ 신효 申鼎·밀양박씨 密陽朴氏

신효와 그의 아내 밀양박씨 정려문은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에 있다. 대지리 효자 신효의 정문이 서 있는 마을이라 ‘정문골’이라 부른다.

신효(申鼎, 1584~1660)의 본관은 평산이다.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에 살면서 아내 밀양박씨와 함께 어머니를 극진히 모셔 효행이 널리 알려졌다.

그는 사육신 사건에 연루되어 면천으로 유배되었던 신숙서의 5대손이다. 그는 10살 때 새벽에 사당에 재배하고 부모님의 처소로 가 안부를 물었다. 천성적으로 효성이 지극해 어머니가 병이 들자 아내 밀양박씨와 함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여 소생시켰다. 밀양박씨는 8살 때 할아버지 상을 당했다. 아버지가 시묘 생활 중 매일 찾아가 아버지에게 불편함이 없는지 물었다. 이들 부부가 결혼으로 만나 정성껏 부모를 봉양했다.

부모님이 병으로 고생하자 병세를 알아보고자 대변을 맛보기도 하였다. 병석에 오래 누워있어 등창이 생기자 입으로 고름을 빨아냈다. 한겨울에 잉어를 잡고 오이와 애호

박을 구하여 부모님을 대접하였다. 이러한 정성으로 부모의 병은 일시 차도를 보였으나 천수를 다하고 돌아갔다. 이에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이러한 효행이 고을에 널리 알려졌다. 1629년(인조 7) 부부에게 명정을 내려졌으니 신효의 나이 46세 때였다. 부부는 76세에 같이 죽고 한 무덤에 누웠다. 효행으로 살아생전 정려 명정이 내려지는 일은 역사에 드문 일이었다.

『여지도서(1757~65)』의 ‘덕산현’ 편에는 신효와 그의 아내 밀양박씨의 효행이 기록되어 있다.

학생 신효의 성품이 지극하여 어미의 병에 걸렸는데, 그의 처 박씨와 함께 단단하게 지목하여 혈성을 쓰더니 병이 곧 회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현고현^{北古縣} 북쪽 고현^{古縣} 안에 정려^{旌閭}를 들었다.

學生申晶。夫妻性至孝。母患急病，與其妻朴氏俱斷指用血，病卽回蘇。事聞旌閭于縣北古縣內。



〈신효와 부인 밀양박씨 효부·열부 정려각〉

신흐·밀양박씨의 정려각은 1743년(영조 19) 7대손 신흥신에 의해 중수되었다. 그리고 2013년 후손들은 봉산면 대지리 527-2번지에서 현 위치인 봉산면 대지한곡길 39(대지리)로 정려각을 이전했다.

정려각 내부 상단에는 1743년 이동윤이 쓴 ‘효자신공 효부박씨 정려기’라 쓴 현판과 1885년(고종 22) 6월에 쓴 ‘효자 증 통훈대부 사헌부감찰 평산 신공 휘 효 지려, 효부 증 숙부인 밀양박씨 지려’라는 명정 현판이 걸려 있다.

효자 신흐와 밀양박씨 효행·열행 정려각이 위치한 봉산면 대지리에는 신씨 사당이 지어져 관리되고 있는데 깔끔하고 정갈하다. 지역 평산신씨의 종친회가 잘 보살피는 모습이 보기 좋다.

참고문헌(자료)

- 『봉산면지』
- 『디지털예산문화대전』
- 『문화유적분포지도』, 예산군(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2001

□ 김의재 金義載·창원황씨 昌原黃氏

예산군 봉산면엔 9개의 정려문이 있다. 그중 고도리에 2개가 자리하고 있다. 고도리 산193-2번지에는 효자 김의재와 부인 창원황씨 정려가 있고, 고도리 179번지에는 박희적, 박기택 부자의 밀양박씨 양세 정려가 있다.

아내와 함께 봉산면에 간다. 목적지는 봉산면 고도리 ‘김의재(金義載, 1804~1859), 창원 황씨昌原黃氏 부부 정려’다. 정려는 고도리의 야산 아래 구릉지에 있다.

정려각을 찾아가는 길, 마을 어느 집 마당에 개 한 마리 누워 있다. 우리가 지나가도 짖지 않는다. 아니 쳐다보지도 않는다. 개 주인은 사람을 보고 지나가도 짖지도 못한다고 뭐라 한다. 개는 더위 속에 엎드려 미동도 하지 않는다. 잘 먹지 못한 탓일까? 눈에 비친 개가 꽉 말라 보인다.

정려문 구릉지를 오르는 작은 길옆에 익모초가 가득 돋았다. 무더기로 자라난 군락지이다. 아내는 산언덕에 멈춰 섰다. 날씨가 무덥고 힘에 부치는가. 돌아보니 연신 허리를 굽히고 익모초를 뜯고 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삼복더위가 찾아오면 일이 힘들었다. 오전 일을 마치고 점심을 잡수러 오면 옷이 등도 땀에 쭈그러졌다. 70년대 농촌 밥상이 푸짐할 리 없다. 아버지는 가끔 반찬 투정을 하셨다.

“마늘 좀 까서 가져오라.”

“풋고추 좀 떠오라.”

찬이 성에 차지 않을 때면 아버지는 햇마늘과 풋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드셨다. 아버지는 부모님을 모셨다. 우리 6남매를 키워주셨다. 평생 농사를 일구며 살다 늙으신 아버지와 지극한 효를 실천한 김의재와 그의 아내를 생각하며 시 한 수를 쓴다.

익모초 益母草

정려 탐방길에

아내가 익모초를 뜯는다.

삼복더위 지친 아버지를 위한

어머니 지극정성

쓰디쓴 익모초를 달인 즙을

장독 위에 밤새워 이슬 맞추고

새벽 잠결에 아버지 한 모금

어머니도 한 모금

한여름 아내가 익모초를 안고 온다.
영약이 따로 있나 탈 없으면 보약이지.

탐방길, 돌아오는 발걸음이
참 가볍다.

김의재(金義載, 1804~1859)의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성필이다. 그는 아버지는 김노환이고 어머니는 전주최씨로, 1804년 5월 4일 홍주 합덕리(당진 합덕읍)에서 태어났다. 그는 11세 때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성인들도 지쳐 쓰러진다는 3년 시묘를 했다. 그는 홀로 되신 어머니 봉양에 극진하였다. 한때는 어머니가 병환으로 누워 참외와 물고기 먹고 싶다고 했다. 그는 40여 리가 넘는 곳까지 찾아다니며 참외와 물고기를 구해 왔다. 어머니의 병세가 심해졌을 땐 부인 황씨와 그는 자신들의 넓적다리와 손가락을 베고 그 피를 어머니 입에 흘려 넣었다고 한다.



〈김의재·창원황씨 부부의 정려각〉

김의재가 죽고 30년 뒤인 1890년, 김의재 부부의 효행은 조정에 알려졌다. 충남도의 선비들이 김의재 부부의 효행을 기록하여 관아에 알렸고 관은 임금께 보고하였다. 이에 관하여 조정에서는 김의재 부부의 효행을 인정하여 김의재에게 ‘통훈대부사헌부감찰’, 그의 아내 황씨에겐 ‘숙인淑人을’ 추증하고 정려를 내렸다.

정려각의 내부에는 중앙 앞쪽 상단에 현판이 걸려 있다. ‘효자 증 통훈대부사헌부감찰 김의재지문’, 뒤쪽 상단에는 황씨 부인의 현판이 걸려 있으니 ‘효열부 증 통훈대부사헌부감찰 김의재 처 증숙인 창원황씨 지문’이라 쓰여 있다. 현판에 쓰인 내용은 ‘효자 김의재에게 정6품 관직인 통훈대부사헌부감찰의 벼슬을 내리고 정려를 세워 그 효를 기리노라. 그리고 효부이며 열부인 통훈대부사헌부감찰 김의재의 부인 황씨에게는 정3품계와 종3품계의 부인에 해당하는 숙인 칭호를 내리고 정려를 세워 그 효행을 기리노라.’ 정도로 풀이된다.

날씨는 무덥고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봉산면 고도리 정려각 탐방은 힘들었다. 아내는 나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 불평을 내색하지 않는다. 아내의 동행이 고맙다. 더구나 아내의 비닐봉지에 담긴 익모초가 특별해 보인다. 200년 전 김의재의 처 창원황씨도 이 곳에서 익모초를 뜯었을 것만 같다. 익모초를 뜯어 다듬고 맑은 물로 달이는 황씨 부인, 장독대 밤이슬에 식혀 새벽에 전하는 손길이 눈앞에 그려진다.

참고문헌(자료)

- 『문화유적분포지도』, 예산군(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2001
- 『예산군의 효행과 우애』, 예산군(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 역사 문화연구소), 2002
- 『봉산면지』, 2002
- 『디지털예산문화대전』
- 김창배 시집 『어머니의 우주선』, 뉴매헌출판, 2023

5 형제兄弟

○ 강만채 廉萬采·강만구 康萬龜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70

○ 차명징 車命徵·차경징 車敬徵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두련길 78

□ 강만채 廉萬采, 강만구 康萬龜

일요일이다. 홀가분하다. 딸기와 음료수를 가방에 넣고 동 저고릿바람으로 집을 나왔다. 완연한 봄은 아니다. 차 안에는 딸기 냄새가 향긋한데, 밖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쌀쌀하다.

삽교 읍내에서 십여 분 페달을 밟아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추사고택에 도착했다. 추사고택 주차장에 주차를 마치고 나오니, 금방 주차한 차량 하나가 앞으로 미끄러져 내린다. ‘차가 가고 있어요!’ 소리치니 차주가 돌아보고 달려온다. 주차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은 탓이다. 차량 뒷좌석에 ‘초보운전’이 선명하게 붙어 있다.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은 예산의 맥이고 정신일 것이다. 그런데 첨단 문명화되는 오늘날의 세태에 묻혀간다. 나는 옛 선인들의 효도의 발자취를 찾아다니는 사람이다. 예산의 효 정려에 대해 정리하는 것은 처음이니 이리 따지면 나도 초보 수준의 기록자다. 그러나 초보 운전사도, 나도 시간이 지날수록 요령이 생기고 시야가 넓어질 것이다.

효는 부모의 뜻을 받아들이 그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는 일이다. 효를 실천하는 일은 쉬우면서 어려운 일이다. 충남 예산군은 효행자를 많이 배출했으니 『여지도서』,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동국신속삼강행실도』 등에 기록되어 전한다.

손가락을 잘라 피를 어머니에게 바친 사람, 3년간 시묘살이를 한 사람, 형제가 연이

어 분묘를 지키고 상복을 입은 사람 등의 다섯 단계의 절차를 거쳐 나라에서는 효 정려를 내렸다. 예산군에는 이러한 정려문이나 정문, 효자비, 비석이 많다. 대문에 명정의 기록을 현판으로 만들어 정문이라 하거나 마을 입구에 정려문, 정려각, 또는 비를 세워 권장했다

예산군 신암면에 정려문이 4개소에 세워져 있다. 1783년 신암면 용궁리 ‘화순옹주홍문’, 1816년 종경리 ‘김갑 효자 정려’, 1883년 용궁리 ‘강만채·강만구 형제 효자 정려각’, 1887년 별리 안뜸 ‘현진목 효자 정려각’이 그것이다. 이중 영조의 둘째 딸이며 추사 김정희의 증조모인 화순옹주는 조선 왕실에서 나온 유일한 열녀로 알려져 있다. 이에 추사고택 내 ‘화순옹주 열녀문’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5호로 지정되었다.

이 장에서는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에 있는 ‘강만채·강만구 형제 효자정려’를 소개한다. 이 형제 효자 정려각은 추사고택에서 동쪽으로 100m 떨어진 들판에 서 있다.

신암면 용궁리는 달리 ‘구렁목 마을’이라 불린다. 삼태기를 업어놓은 듯한 분지형 마



〈강만채·강만구 형제의 정려각〉

을로 주산은 추사고택 뒤편의 용산이다. 용산은 낮은 산과 들이 어우러진 마을인데, 이 곳에 강만채, 강민구 형제의 농가가 있었다.

강만채·강민구 형제 본관은 신천이다. 농촌에 태어나 가난한 소작농으로 겨우겨우 연명해 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서당 공부를 하고 농사일했다. 두 형제는 병석에 누운 어머니의 몸에 난 종기의 고름을 입으로 뺏고 대변을 맛보았다. 약을 달여 드리기 위한 처방이었다. 그런 두 아들의 병간으로 어머니의 목숨은 3년간 연장되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자 형제는 3년간 시묘살이를 했다.

이들 형제의 효행은 지역 유생들의 상소로 이어져, 1883년(고종 20) 나라에서 두 형제에게 효 정려를 내렸다. 이에 형제의 효행은 정려에 깃들어 많은 이의 본보기가 되었다.

현재 신암면 용궁리 두 형제의 정려각 내부에 각서로 된 현판이 걸려 있다. 정려각 내부의 왼쪽 칸에는 ‘효자 증동몽교관 조봉대부 강만구지려 상지 이십 년 계 미 구월 일 명정’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고, 오른쪽 칸에는 ‘효자 증동몽교관 조봉대부 강만채지려 상지 이십 년 계 미 구월 일 명정’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그리고 정려각 앞에는 두 형제의 공적을 기린 ‘효자정려’라는 안내문이 있다. 2001년 세운 것이다.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강만채의 묘가 있다.

참고문현(자료)

- 『신암면지』, 2008
- 『디지털예산문화대전』

□ 차명징 車命徵·차경징 車敬徵

예산군 신양면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지방도 616호선을 따라 1km 정도 지나면 북쪽으로 난 도로가 보인다. 우회전하여 500m 정도 들어가면 서계양1리가 있다. 서계양1

리는 예산군에서 지정한 효도 시범 마을이다. 차명징·차경징 형제의 효 정려각은 서계 양리 마을회관 옆에 있다.

서계양리는 본래 대홍군 원동면에 속한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리, 격양리, 신흥리, 성주리, 군약리를 병합하여 서계양리로 예산군 신양면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서계양리 안에는 여러 자연 마을이 있고, 이 가운데 중심이 되는 마을이 ‘두련이’다. 연꽃이 물에 뜯 형국이란 이름이란다. 차명징·차경징 형제의 효 정려각 이곳에 있다. 본래 정려문은 신양면 가지리 거변마을에 있었는데 후손들이 두련리 마을로 옮겨온 것이란다.

차명징(車命徵, 1644~1714)과 차경징(車敬徵, 1662~1735)은 형제다. 부모 병환에 4차례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입에 넣어드리니 부모가 6년을 더 사셨고, 돌아간 이후엔 6년간 시묘하였다. 나중에 그들이 앉았던 곳에 샘이 솟으니, 임금(명종)이 듣고 ‘효자 샘’이라 일렀다고 한다.



〈차명징·차경징 형제의 정려각〉

두 형제가 죽고, 1746년(영조 22) 예산군 신양면 가지리 거변마을에 차명징의 정려문 세워졌고, 동생 차경진의 정려각은 5년 뒤인 1751년에 세워졌다. 1806년, 후손들은 서계양리 마을로 정려를 옮기면서 두 정려를 합치니 지금의 쌍효각이 되었다.

명정 현판은 각각 ‘효자 처사차경징지문 숭정기원후재병인영묘조 명정 삼병인오월 일립’, ‘효자 처사차명징지문 숭정기원후삼신미 십월 일립’이라고 쓰여 있고, 정려각 앞에는 두 형제에 효행을 설명한 비석이 세워져 있다.

참고문헌(자료)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적총람』
- 『디지털예산문화대전』
- 『신양면지』, 2015

6 후손後孫

- 최필현崔弼賢·최순홍崔舜虹 (조카)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배약길 87
- 박희적朴熙績·박기택朴基宅 (조손)
예산군 봉산면 고도길 30-10
- 조극선趙克善·조정교趙鼎敎 (7대손)
예산군 봉산면 시동길 31-20
- 정치방鄭治邦과 정해열鄭海悅 (8대손)
예산군 고덕면 몽곡상봉길 253-18

□ 최필현 崔弼賢·최순홍 崔舜紅

조선 후기 최필현과 최순홍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려각이 신양면 서계양리 배약동마을 입구에 있다.

최필현(崔弼賢, 1712~1775)은 경주 최씨다. 어려서부터 흘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다. 지극한 효성으로 모시던 어머니가 병으로 숨을 거두려고 하자 자신 손가락 잘라 피를 어머니 입안에 넣어 주었다. 어머니가 죽은 뒤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묘소를 지키며 곡하는 소리가 저녁 11시 때까지 들렸다. 그의 슬픔에 찬 눈물이 떨어진 곳에 기이한 풀 두 줄기가 자라 당시 사람들이 ‘효자초’라 불렀다. 1875년 효자 명정을 받고 동지중추부사에 추증되었다.

최순홍(崔舜紅, 1767~?)은 최필현의 조카이며 최필세의 양아들로 입적했다. 어머니를 봉양할 때 한 치의 어긋남이 없었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여 흘어머니가 병이 들었을 때는 어머니의 뜻을 맛보고,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이며 정성을 다해 병간호하였다. 어머니가 죽은 뒤 3년간 시묘살이를 하다가 자신도 병에 걸렸다. 효행으로 숙부 최필현과 함께 1875년, 효자 명정과 약을 하사받고 가선대부에 추증되었다.



〈효자 최필현·최순홍의 정려각〉

양 정려각 내부 중앙 상단에는 ‘효자 학생 최필현지문’, ‘효자 학생 최순홍지문’이라 쓴 두 개의 명정 현판이 나란히 있다. 뒷면 벽 왼쪽의 상단에는 1875년 임현희가 지은 정려기, 1919년 지은 포장 완의문이 있다. 왼쪽에는 ‘자현대부칠세손 영환효정’이라 적힌 최영환의 현판, 의금부도사 김정기가 찬한 정려문의 내용을 적은 ‘서문’이 있다.

참고문헌(자료)

- 『신양면지』
- 『디지털예산문화대전』

□ 박희적 朴熙積·박기택 朴基宅

조선 후기 효자 박희적과 그의 조손 박기택의 효행을 기리고자 건립된 정려각은 봉산면 고도리 179에 있다.

박희적(朴熙積, 1686~1762)의 본관은 밀양이다. 천성이 효성스러웠다. 아버지상을 당하자 3년간 시묘하였다. 어머니 병이 깊어지자 뚱을 맛보아 병세를 가늠했다. 자기 허벅지 살을 떼어 약으로 달여 먹였다. 어머니가 끝내 죽자 역시 3년간 시묘를 살았다. 국상 때에는 단을 만들어 곡을 하고 3년간 묘막에서 살았다.

사후 100년이 지난 후인 1862년, 효자 명정이 내려지고 통훈대부 사복시정(정3품)으로 증직되었다.

박희적의 조손 박기택(朴基宅, 1765~1827)의 자는 여원이다. 박건환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모에게 효성을 다해 행적이 널리 알려졌다. 조부 박희적과 함께 1862년 효자 명정을 받았다.

봉산면 고도리는 밀양박씨 공간공파 자손들이 다수 거주하는 마을이다. 밀양 박씨의

시조 박혁거세로부터 공간공파 9대조 박효성은 1680년 경기도 양주에서 이곳 봉산면 고도리로 입항하였다.

박효성의 묘는 마을 뒤쪽의 봉명산 고개를 경계로 고도리와 접하고 있는 서산시 운산면 와우리에 있다. 박희적은 손자 박기택과 함께 효행으로 유림의 칭송을 받았다.

박기택은 죽은 지 35년 만인 1862년 효자 명정을 받았다. 이러한 효행 사실은 『효행 등재등록』과 『조선환여승람』에 기록되어 있다.

정려각 안에는 1862년 내려진 ‘효자 학생 밀양 박기택 지려’라는 명정 현판과 1878년 중수한 ‘효자 증통훈대부 사복사정 밀양박희적지려’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박희적의 명정 현판 뒤에는 진사 이돈이 쓴 ‘박씨양세정려기’가 있다.

박기택의 아들 박만진(1795~1856)이 쓴 박희적의 행장에 따르면 박희적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다. 박희적은 덕산향교 중수를 위해 자기 재산을 내는 등 지역의 재력가로 정려 건립을 주도하였다.

정려각 주변에는 철재로 된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정려문 앞에 비닐을 치는 등 정려각 보존하려고 흔적이 보였다. 주변은 깨끗하다.



〈효자 박희적·박기택의 정려각〉

참고문헌(자료)

1. 『봉산면지』, 2002
2. 『디지털예산문화대전』

□ 조극선 趙克善·조정교 趙鼎教

2020년 필자는 『조선시대의 예산 문인과 예산인의 삶』 발간을 준비하면서 신양면 부면장 조성수와 전화했다. 함께 근무할 적에 ‘예산군 재직 공무원 중 친구의 집안 선조 분들이 제일 훌륭하다.’라고 칭찬하곤 했다. 전화로 조극선의 글이나 발표되지 않은 자료가 있으면 보내 달라고 청했다. 그는 ‘외지에 사는 큰형님이 보관하고 있다. 자료를 보내주지 못하여 미안하다’라고 했다.

충남도나 예산군에서 조극선 가문에 대한 조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계에서 는 조극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숨겨진 자료가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 후손들이 선조의 자료를 잘못 보관하여 없어지기라도 한다면 큰 손실이다. 후손들도 발 벗고 나서 보관 중인 자료를 한글로 번역되도록 애써주길 생각한다.

수년 전에 예산군 대홍면 저수지 내에 있는 정려각을 탐방하여 <김진오의 처 한양조씨 열녀> 글을 예산 문인협회 카페에 올린 적이 있다. 며칠 후 천안에 거주하는 후손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올려주었으면 하는 댓글이 달렸다.

“한양조씨 한풍군파 18세 유덕의 딸(1815~1867)은 김진오(1806~1846)와 혼인하였다. 충남 예산군 대홍면 노동리 82-6. (前 한양조씨 대종희 홈페이지 관리자)”

필자는 카페에 올린 글을 수정했다. 그분은 카페에

“감사합니다!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찍으신 사진들 수정 편집한 것입니다! 오히려 정려각 관리가 부족한 점 송구합니다. 카톡으로 사진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다시 맷글을 올렸다.

이처럼 한양조씨 후손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극선 가문의 선양사업을 한다면 조씨 가문 선조들의 업적을 발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야곡 조극선 관련 자료를 문화재로 지정되고 유적과 유물이 ‘도지정문화재’ 등으로 상향 조정되길 바란다.

조극선(趙克善, 1595~1658)은 1657년 사헌부 지평으로 관직에 복귀한 후 곧 장령이 되었다. 선공감침정을 거쳐 이듬해 다시 장령으로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망하였다. 조극선이 일기를 남겼으니 『인재일록』과 『야곡일록』이다.

『인재일록』은 조극선이 15세부터 29세까지 쓴 일기로 성장기 조극선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야곡일록』은 30세부터 41세까지 쓴 일기로 12가지의 규례에 따라 기록 체계가 정연하다. 이 두 자료는 조선시대 일기문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다. 표제를 달아 내용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독창적인 기록성과 진솔성이 두드러진다.

그는 사후 신창의 도산서원과 덕산의 회암서원에 제향되었다.

조극선은 효성이 깊어 항상 부모 모시기를 하늘같이 했다. 아버지가 외출하여 집에 올 시간이 되면 항상 다리 앞까지 마중하여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갔다. 어느 날 조극



〈봉산면 효교교의 현재 모습〉

선의 아버지가 덕산현감 이담(李湛, 1510~1575)의 집에 놀러 갔다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비가 몇기를 기다리다 너무 늦게서야 이담의 집을 나섰다. 이담은 자고 가라 붙들었으나 조극선의 아버지는 자식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나섰다. 이담이 뒤따라 가보니 조극선이 냇가 다리에서 비를 맞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이담은 그것을 보고 크게 감동하였다. 이에 조극선이 밤비를 맞으면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다리에 ‘효교교孝橋橋’라 이름 짓고 비석을 세워 주었다고 전한다. 지금도 조극선이 아버지를 기다리던 곳에는 효교교가 있다.

조정교는 조극선의 7세손이다. 그는 집안이 매우 가난하였지만 달게 여기는 여유가 있었다. 평생 비단을 가까이하지 않고, 항상 부모의 기일이 되면 슬퍼하기를 돌아가실 때와 같이하였다. 효행이 깊어 죽은 이듬해인 1875년 충청도 유학 이인성이 효행을 상소하니 1876년 조정이 명정을 내려 정려각을 세웠다.

1664년 명정을 받은 조극선의 정려각은 본래 시동리와 이웃한 당곡리에 세워졌지만, 훗날 조정교가 명정을 받자 조극선 정려각을 시동리로 옮기고, 두 사람의 정려를 하나의 정려각에 모셨다.



〈효자 조극선·조정교의 정려각〉

내부 중앙 상단에는 ‘효자 야곡선생 증자현대부 이조판서 겸지의금부사 성균관관제 주 오위도총부도총관 행통훈대부 사헌부장령 증의문목공 조극선 지려’라는 명정 현판이 걸렸다. 그리고 그 옆에는 ‘효자 야곡선생 칠세손 학생 조정교 지려’라고 쓰인 명정 현판이 걸려 있다.

참고문헌(자료)

1. 『봉산면지』
2. 『디지털예산문화대전』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 국가보훈처, 1997

□ 정치방 鄭治邦·정해열 鄭海悅

유교 사회에서 충·효·열의 행적을 지닌 이가 국가로부터 포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물에 대한 행적과 실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했다. 당대 인물이거나 생존하였을 때는 지역의 소문이나 칭송이 근거로 활용되었고, 사후에는 수 세대가 지나면 묻혀 있거나 숨겨져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야 했다. 그런 행적이 후손에 의해 되살려져 포장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지역 유림의 지도력과 사회적 지위가 크게 작용하였다.

조선 이후 일제의 지배하에서는 나라에서 충·효·열 행적에 대한 정려를 내리지 않았다. 만약 정려를 받을 만한 행적을 보인 이가 있으면 조선시대와 같은 전통적 포장 절차 대신 후손들에 의해 건립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예조에서 행해졌던 정려 포장과 명정을 경학원 등에서 대신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정려각으로는 조선 후기의 무신 정치방의 충훈을 기리는 정려각과 일제 강점기의 효자 정해열을 기리는 정려각이 있다. 이 둘은 예산군 고덕면 몽

곡상몽길 253-18(상몽리 324)에 있다.

고덕면 상몽리는 공산 정씨가 대대로 거주해온 세거지다. 입향조는 호조 참판에 증직된 정치방의 아버지 충정공 정빈이다.

정치방(鄭治邦,?-?)은 어려서부터 자질이 특이했다. 스승에게서 글을 배울 때 충충 자가 들어 있는 글을 보면 반드시 여러 번 읽고 실천하기를 다짐했다. 또한 병서 읽기를 좋아했다. 옳은 일을 보면 목숨을 바쳐 실천할 뜻을 다졌다. 그는 선전관을 지냈는데 1623년(광해군 15) 김류, 이귀 등이 일으킨 인조반정에 참여했다. 이 공으로 녹훈을 받고 참판에 증직됐다.

1927년 정치방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유림과 공산 정씨 문종이 노력하여 304년 만에 충·훈 정려각을 건립하게 되었다.

정해열(鄭海悅,?-1928)은 참봉을 지낸 이로 정치방의 8대손이며, 입향조로 알려진 정빈의 9대손이다. 그는 일곱 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병이 있어 지성으로 간호하며 잠시



〈정치방·정해열의 정려각〉

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잉어와 미나리를 먹고 싶어 하였다. 겨울이라 들에 나가 얼음을 깨고 미나리를 캐는데 갑자기 잉어 서너 마리가 근처 연못에서 튀어나왔다. 잉어로 봉양하니 어머니 병이 나았다. 이후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의 위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울고 읍하니 슬퍼하는 것이 법도에 맞았다.

빈소와 분묘를 집안 예법에 따라 지키고 삼년상을 치른 후에도 상복을 벗지 않아 혈색이 검어지고 몸이 쇠약해졌다. 정해열의 모습을 본 주위 유림이 포상을 거론하여 1927년 경성(서울)에서 효자로 표창받았다. 이때 정치방의 충신 정려문도 논의되어 함께 포상되었는데, 정해열은 정려문을 받은 이듬해인 1928년 건강이 나빠져 사망하였다.

정려각 내부에는 1927년 ‘충훈 증 병조참판 충의공 공산 정치방 지문 경성성묘건 2478년 정묘 경성성묘건’이라고 적힌 현판과, ‘효자 참판 공산 정해열 지문 공부자탄강 2478년 정묘 경성성묘건’이라 새겨진 현판이 걸려 있다. 현판 아래에는 경성성묘건 1927년 이윤종이 지은 ‘충신정려 정충의공 전’이 있고, 정려 바로 옆에는 공산 정씨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곳에 정해열의 묘가 있다.

정치방·정해열의 충훈 효자 정려문은 일제 강점기 유생들의 건의로 세워졌는데, 정해열의 효행에 선조인 선조 정치방의 충훈 정려문까지 이끌어냈다. 정해열은 생전에 정려문을 세웠지만, 정치방의 충훈 공적은 304년이 지나서 세워진 것이다. 이처럼 후대의 효자 덕에 8대 조부가 충훈 정렬을 함께 받는 일은 예로부터 드문 일이었다.

참고문헌(자료)

- 『고덕면지』
- 『디지털예산문화대전』
- 『문화유적분포지도』, 예산군(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 김재양 부인 철원임씨 金載讓 婦人 鐵原林氏
예산군 삽교읍 상하남길 11
- 김진호 부인 한양조씨 金振五 婦人 漢陽趙氏
예산군 대흥면 예당궁모로 368
- 한홍조 부인 단양우씨 韓弘祚 婦人 丹陽禹氏
예산군 봉산면 봉산로 523-6
- 정현룡 부인 우봉이씨 鄭見龍 婦人 牛峰李氏
예산군 봉산면 봉운로 401-31
- 박윤호 朴允浩의 정려각과 진흘 기념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61번길 16

□ 철원임씨 鐵原林氏

조선 시대의 유교문화는 여성에겐 족쇄였다. 남편이 죽으면 정절을 지켜야 했고 재혼도 금지된 채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했다. 재혼하려면 양반의 지위를 버려야 했고, 사회의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정절이었고 그것이 성리학의 주요 덕목이었다. 대신 여성이 가족과 가문을 위해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 나라에서는 ‘열녀’라는 호칭을 주고 ‘열녀문’을 내렸다.

예산군 삽교읍에 널리 알려진 정려문은 2개소다. 상하1리에 있는 ‘열녀 철원임씨 정려’와 대한제국 1905년에 건립된 월산리의 ‘효자 장윤수 정려’가 그것이다. 예산군 삽교읍은 예산의 다른 면에 비해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데, 그에 비해 열녀 정려는 적

은 편이다. 이는 현재의 관점에 보았을 경우고 조선시대로 올라가면 그런 것이 아니다.

예산군 삽교읍 상하1리 입구 도로변 남쪽에는 ‘예산 열녀 철원임씨’ 정려비가 있다. 철원임씨는 연안김씨 도관찰사공파의 후손 김재양과 혼인했다. 철원임씨와 남편 김재양의 출생 연도는 전해지지 않고, 이들 부부의 사망 연도는 전해지니 1794년(정조 18)이다.

철원임씨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남편 김재양이 병에 걸리자 탕약을 직접 맛보며 달였다. 5년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서 극진히 병간호하였다. 그런 정성에도 남편은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임씨도 따라 목숨을 버렸다.

이에 유학자인 이언복 등이 철원임씨의 열행을 드러내고 정문을 내려 주는 임금의 은혜를 청하였다. 그녀의 애절한 열행 기록은 『일성록』에 실려 있으니, 아래 인용 글은 1795년(정조 19) 윤2월 19일 자의 기록이다.

“덕산의 유학 이언복 등이 상언하여, 덕산현 김재양의 처 임씨의 열행이 뛰어나니 정문을 세우는 은전을 베풀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임씨의 열행이 이처럼 뛰어나다면, 당연히 충청도 도신이 이런 사실을 채집하여 임금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선 들어주지 말고, 본조에서 충청도에 관문을 보내어 신칙하고 만일 실제 자취가 있다면 연초를 기다려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 윤허하였다.

1796년(정조 20) 1월 28일의 『일성록』 의하면, 충청감사 이정운이 효행·열행 인의 실적에 대해 급히 파견된 관원에게 글을 써 보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

작년 본도 유생들이 효행이 있는 사람을 표창하여 선양하는 일로 상언한 것에, 예조에서 임금의 재가를 받은 관문에 ‘보고될 만한 자는 연초에 거행하라. 하였습니다. 홍주의 고학생 … 덕산의 고사인 김재양의 처 임씨, … 등의 효·열 실적을 각 해당 읍에 관문으로 물은 뒤 읍보에 의거해서 열거하여 보고했다.

그해인 1796년(정조 20) 겨울, 예조에서 충신과 효자, 열녀의 실적을 조사해 임금에게 보고한 내용은 이러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효자와 열녀의 별단을 다시 대신에게 나아가 의논한 뒤에 조정하고 구별해서 아뢰라고 명하셨습니다. 성상의 하교대로 대신에게 나아가 의논하고 별단에 부표해서 들입니다.

(이하 별단의 내용)

… 덕산의 고사인 김재양의 처 임씨이다. 신혼 초에 남편이 병에 걸리자 임씨가 탕약을 반드시 직접 맛을 보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는데 5년을 이처럼 하였다. 남편이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죽자 시댁에서는 그가 세상에 뜻이 없음을 눈치채고 혼을 부르고 상제가 웃을 갈아입고 머리를 풀고 슬피 울어서 초상난 것을 알리던 초기에 사람을 시켜 그의 몸을 뒤져서 차고 있던 칼을 찾아내고서 매우 철저하게 지켰다. 임씨가 이때부터 여행과 잠자는 일과 먹는 것은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게 하였는데 갑자기 체기가 있어 밥이 한 알도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리를 쳐마의 동쪽으로 옮기더니 대뜸 담배를 피우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누웠다. 그런데 안색이 피곤한 모양이어서 집안사람이 약물을 입으로 흘려 넣었으나 끝내 삼키려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피웠던 담배의 남은 재를 가져다 보니, 그 안에 거미 같은 형상의 물체가 있었는데 여러 날 먹지 않던 차에 이것으로 자해하여 죽은 것이다.

김재양의 부인 철원임씨 정려각은 열녀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1797년(정조 21) 명정을 받아 건립되었다.

1980년 지방 유림과 선현 유적보존회, 김씨 문중의 주선으로 정려각을 중건했다. 김재양 부인 철원임씨 정려각은 처음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정문들에 있었으나, 지금은 옮겨져 삽교읍 상하리에 있다.

정려각 앞에는 1992년 예산지역 유림과 선현 유적보존회에서 세운 ‘열녀철원임씨증

수기적비’가 있다. 내부 중앙 상단에는 ‘열녀학생연안김씨재양처 유인철원임씨지문 상지이십일년 정묘정월 일 명정烈女學生延安金載讓妻孺人鐵原林氏之門 上之二十一年丁巳正月 日 銘旌’이라 쓰인 각서 현액이 있다.

삽교읍 상하1리는 농촌 건강 장수마을이다. 2016년 「해 뜨는 초막골 상하1리 마을일지」를 만들었다. 삽교읍 상하1리가 고향인 신익선 시인이 집필 위원장을 맡았다. 신익선 시인은 상하리에 ‘익선재’를 짓고 후배 문인을 지도하며 후학들의 시집을 발간한다.

신익선 시인의 어머님이 승천하신 지 10년이 지났다. 아직도 사무치는 어머니의 그리움에 몸부림치고 눈물로 쓴 사모곡『그리운 저 맹기』에 실린 <보고 지움>이란 시에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무친 보고 지움을 ‘하늘 뜻배에 매달아 승천하는 영혼을 따라 당신 속으로 빨려들어 갑니다.’라고 적고 있다. 이곳을 지나다 보면 이 시가 떠오르곤 한다.



<열녀 철원임씨 정려각>

제 삶의 새벽 시간은 언제나 당신으로 꽉 찬 혈관, 을 만납니다. 내 사무친 보고 지움, 을 하늘 뜻배에 매달아 승천하는 영혼 따라 당신 속으로 빨려들어 갑니다. 제 삶의 밤에 시간도 언제나 당신으로 꽉 찬 울음, 을 만납니다. 내 사무친 보고 지움에는 그러나 끝끝내 재회할 당신으로 향기롭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 신익선의 시 ‘보고 지움’ 전문

2018년 상하1리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해 뜨는 초막골 박물관’ 개관했다. 마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마을 상조회 물품, 옛 농기구, 마을 주민 소장 유물 등 자료를 전시해 놓았다. 상하1리 주민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마을 행사, 봉사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마을에 조선 시대 열녀문이 보존되고 있음은 축복이다.

완연한 봄이 오면 삽교읍 상하 1리 양 도로변에 벚꽃이 만개한다. 장관이다. 사람들은 돈가스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가게를 들르거나, 지나는 길에 차안에서 내려 사진 촬영을 한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예산에 숨겨져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의 숨결을 발굴하러 돌아 다닌다. 소중한 것들을 찾아 기록하고 정리하여 후대에 전해주고 싶다.

참고문헌(자료)

1. 『문화유적 분포지도』, 예산군, 2001
2. 『삽교읍지』, 2008
3. 『내포의 뿌리 예산학』, 예산문화원, 2016
4. 『예산의 고지도와 지리지』, 권선정·한기범, 2017
5. 「디지털예산문화대전」
6. 『예산의 성씨 Ⅰ』, 예산문화원, 2024
7. 신익선 시집 「그리운 저 댕기」, 문화의 힘, 2014

□ 한양조씨 漢陽趙氏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단비가 내렸다.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해충이 많아졌다. 작물은 무럭무럭 자라고, 이제는 풀과의 전쟁이다.

필자의 가족은 예당저수지와 인연이 있다. 부모님 고향은 예산군 대홍면 신속리다. 예당저수지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떠나게 해야 했다. 예당저수지에 수몰되는 신속리 주민들은 영농보상금과 이사 비용을 받고 고향을 떠나야 했다. 필자의 가족은 고향 대홍을 떠나 예산군 고덕면 용리 985번지로 이사했다. 필자가 어머니 배 속에 있던 1961년의 일이다.



〈열녀 한양조씨 정려각〉

예당호는 유구한 역사를 지녔다. 농업용수 보급으로 예산지역의 농업의 발전에 많이 이바지했다. 이 저수지를 맞대고 있는 마을이 노동리다. 노동리는 갈대가 흐드러진 동네란 뜻이다. 조선 후기의 열녀 한양조씨의 정려각은 대홍면 노동리 82-6번지 마을회관 앞쪽에 있다.

한양조씨 한풍군과 18세 유덕의 딸 (漢陽趙氏, 1815~1867)은 김진오(金振五, 1806~ 1846)와 혼인하였다. 아들 셋을 낳았고 시부모를 공양하였다. 남편이 병에 걸려 잉어를 먹고 싶어 하였다. 계절은 찬바람이 일렁이는 겨울이었다. 그녀는 개울의 얼음을 깨고 고기를 잡았다. 자신의 다리 살을 베어 달여 남편에게 먹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죽었다. 그녀는 목숨을 끊으려 하였으나 어린 자식이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여 년이 지나 자녀들이 장성하자, 1867년(고종 4) 남편의 묘소에 통곡하고는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홍현 선비들이 그녀의 절개를 지킨 행실을 널리 알리고자 감영에 글을 올렸고, 조정에서 1871년 명정을 내렸다.

정려각 내부에 1871년에 받은 ‘열녀 고학생 김진오처 유인한양조씨 지려 성상구년신미십월 일 명정’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아래 인용 글은 명성황후의 조카 예안 이씨 (1868~1950)가 지은 효열비로 『대홍면지』에 국역 <비문>이 실려 있다. 다른 읍·면보다 대홍면의 정려의 비문 국역이 잘되어 있다.

“아아, 이 한양조씨 열효비의 유인은 일찍부터 효심이 지극하여 출가 전에는 부친의 병에 다리의 살을 베어 끊어지려는 목숨을 연장해 대 향리에서 효녀로 일컬어져 왔으며, 출가한 후에는 충·효·예를 으뜸의 생활철학으로 삼는 광산김씨 가풍의 영향을 받아 시부모를 낳은 부모같이 섬기되, 온화한 얼굴 부드러운 빛으로 성실하게 공경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돋독하였으며, 병환이 있으면 하늘에 빌고 산에 제사하여 몸으로 대신하기를 원하니 시집 집안에 효부로서 일컬어졌다. 남편이 병중에 물고기를 생각하자 유인이 손수 두꺼운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아드리고, 병이 위급하여 보이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였다. 급기야 고종 병오년(1846)에 남편의 상을 당하자 곧 따라 죽으려 했으나 차

마 못 하는 것은 늙은 시부모가 있고, 아래로는 의탁 없는 청상과부 며느리가 있고, 낳은 지 며칠 되지 않은 어린 자식이 울고 있으니, 아픔을 참고 슬픔을 먹으며 억지로 위인하고 보호하는 한편 염습 제철을 몸소 두루 살펴 검사하여 조금도 예에 어김이 없이 하고, 예법을 쫓아 집 뒤에 안장한 다음 조석으로 뽕나무 묘목을 하여 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곡하는 소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모두 눈물을 흘리었다.

이 뒤로부터 시래기죽과 때 묻은 옷으로 슬픈 생각이 가슴속에 둉치어 몸이 자연 파리해져 빠만 앙상하게 드러낸 지 자못 20여 년이 되었다. 어느 날 낮에 남편의 산소에 올라가서 종일토록 피눈물을 뿌리며 통곡하자 주위에 초목이 마를 지경이었다 한다. 그리고 산소 곁에서 목숨을 끊으니 비로소 1867년 2월 13일이다. 원근에서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에 온 고을 선비들이 한목소리로 감영에 글로써 보내어 조정의 명으로부터 1871년에 정려를 받았다.

유인은 한양조씨로 한명원의 따님이요, 김세하, 김세은, 김세한은 그가 낳은 아들이니, 김씨는 곧 문경공 예동의 후손인 바, 대대로 행동거지가 떳떳하고 학문이 높은 학문이 있어 장차 비를 세우고자 유인의 실적을 들어 나에게 글을 청한 자는 김세은의 손자 김준홍이다. 내가 이르기를 효와 열은 백행의 우두머리로 온 우주 질서의 근간이 여기에서 비롯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그 대대로 가르침에 관계됨이 어찌 중대하지 않으랴.

아아, 숙제 말세 아래로 오륜 삼강이 땅에 떨어진 지가 오래인데 온 세상을 통하여 한가지의 효와 열도 들어 보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한 집안 한 부인의 몸으로서 효와 열을 겸하였음은 일러 무엇하랴.

이곳 한양조씨의 정려각 탐방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에 아버님이 고향 대홍을 등지고 삽교를 지나 고덕으로 소를 몰고 이사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올해로 아버님이 대홍을 떠난 지 64년이 되는 해다. 예전에는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을 빌급하려면 버스를 여러 번 갈아 타며 대홍을 오가야 했다. 지금은 본적을 고덕면으로 옮겨 불편함이 없지만, 입하인 오늘은 비가 내린다. 그래서인지 자꾸만 대홍이 먼 길처럼 느껴진다.

참고문헌(자료)

- 『대홍면지』, 2017
- 『디지털예산문화대전』

□ 단양우씨 丹陽禹氏

예산군 봉산면에는 정려각과 정려문, 비문 등이 많다. 고도리의 효자 밀양박씨 박희적·박기택, 고도리 김의재의 부인 열녀 창원황씨, 궁평리 열녀 단양우씨, 금치리의 충신 이억 장군, 당곡리 김상준 김현하 부자, 대지리 효자 신효와 효부 밀양박씨, 봉림리 효자 이후직, 봉림리 열녀 우봉이씨, 시동리 효자 조극선과 조정교의 정려문 등이다.

이번엔 예산군 봉산면 궁평리에 있는 한홍조의 아내 ‘단양우씨 정려각’을 찾아 나섰다. 봉산면사무소에서 북쪽으로 난 도로를 따라 1km 정도 들어가니 궁평리가 나왔다. 단양우씨 정려문은 금치교를 건너기 전에 봉산면 궁평리 서남쪽에 길게 형성된 구릉 왼쪽에 있었다.

단양우씨는 시어머니가 병들어 눕게 되자 살을 베어내 소고기라 속여 들게 했다. 이런 성의 때문인지 시어머니의 병세가 사라지고 수명이 연장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지극한 봉양에도 불구하고 해 뒤 시어머니가 돌아갔다. 이에 머느리임에도 여막을 짓고 3년간 시어머니 묘소를 지켰다.

그녀는 남편 한홍조는 이른 나이에 죽었다. 이에 자결을 결심하고 집 뒤에 있는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그러나 다리와 얼굴만 다치고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후 음식을 끊고 굶어 사망했다. 그녀의 이런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고, 1743년 조정에서는 정려를 세워 널리 알리고 본보기가 되는 일로 삼으라 명정을 내렸다.

예조에서 작성한 『효행등재등록』과 지리서인 『여지도서』에는 ‘우씨정문재암하리한 홍조처야’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단양우씨 정려각은 처음에 예산읍 산성리의 암하리

마을에 세워졌다'라는 말인데, 정려각은 1940년경 봉산면 궁평리 마을의 중심지로 옮겨졌고, 1970년경 후손들에 의하여 궁평리의 현 위치로 옮겨졌다.

그녀의 남편 한홍조(韓弘祚, 1681~1712)는 예산현 봉암(예산읍 산성리)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청주이며, 어려서부터 총명했다. 단양우씨와 결혼하였고, 32세에 지병으로 태계했다. 그는 짊어서 기호학파인 권상하의 문인으로 입문하였다. 송시열의 제자였던 권상하는 충청도 청풍의 황강 옆 한수재에서 살았다. 그래서 권상하의 문하생들을 '강문제자'라고 하였고, 그중에서 특히 뛰어난 여덟 명의 제자를 일러 '강문팔학사'라고 하였다. 한홍조는 그중 한 사람이다. 학문이 높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저서로는『강상문답』,『동유록』,『구봉선생래파변』등이 있다.



〈열녀 단양우씨 정려각〉

한홍조는 부친 한윤원의 권유에 따라 권상하의 문하가 되고 문재를 인정받았는데,
권상하의 『한수재집』에는 한홍조를 칭찬하는 시가 실려 있다.

高在政路自超群(고재정로자초군) 높은 재주 바른길에 스스로 출중한데

遠訪窮山意太勤(원방궁산의태근) 외길 산 멀리 찾아 뜻이 너무 근면하다.

我受先師一直字(아수선사일직자) 나는 선사에서 직자 하나 받았으니

臨分以持贈吾君(임분이지증오군) 작별함에 이걸을 그대에게 주노라.

* 출처 : 봉산면지

정려각 내부 중앙 상단에는 1743년(영조 19) 내려진 '열부처사 한홍조처 유인단양우씨
지문 명정'이라고 쓴 명정 현판이 있다. 뒤편에는 그녀와 남편 한홍조의 합장묘가 있다.

그녀는 효부이며 열녀다. 필자는 봉산면 궁평리 단양우씨 정려문을 쓰면서 망설였
다. 단양우씨를 열부로 써야 할까, 열녀로 써야 할까? 오래 고민하다가 힘들게 열녀
로 썼다.

2021년 예산군은 7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예산읍 산성리 암하리 방죽 주변(산성리
122)에 '암하리 생태공원'을 조성했다. 관찰·보행용 갑판, 연꽃 습지, 정수식물로 주민들
의 휴식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우봉이씨 정려각 탐방을 마치고 귀갓길에 예산읍 산성리 '암하리 방죽 열녀 바위'의
신라 시대부터 전해지는 전설을 떠올렸다. 오랜 옛날 신동지란 사람의 외동아들이 공
부하다가 호반을 거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쓰고 있던 잣이 호반에 떨어져 그것을
건지려다 발을 헛디뎌서 죽게 되고, 어린 아내가 애통하다가 호수에 몸을 던져 죽었다
는 설화다.

이 설화의 주인공 어린 아내는 이곳에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우봉이씨와 닮았
다. 이런 설화의 내용이 담긴 안내판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고문헌(자료)

- 1.『봉산면지』
- 2.『디지털예산문화대전』
- 3.『예산읍지』
- 4.『예산의 설화』, 예산문화원, 1999

□ 우봉이씨 牛峯李氏

우봉이씨는 충남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성지동의 정현룡(鄭見龍, 1547~1600)과 혼인했다. 정현룡은 혼인 후 3개월 뒤에 함경도 경계 판관의 벼슬길에 올랐다. 1592년 회령부사, 1593년 종성부사로 벼슬살이하면서 길주에 머물고 있던 왜적을 토벌하였다.

1594년(선조 27) 10월 11일 자의 『선조실록』에는 정현룡이 오랑캐를 진압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그해 정현룡은 함경도의 육진을 침범하는 오랑캐들을 진압하는 공을 세워 조정으로부터 큰 상을 받는다. 아래에 『선조실록』의 기록 일부를 인용한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육진의 변방 오랑캐들이 국가가 일이 많았을 때를 이용하여 사나운 세력을 믿고 서로 연계하여 침범하니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정현룡은 적절한 시기에 계략을 시행하여 전멸한 병졸을 수습하여 일거에 죄를 다스려 전후하여 베어 온 수급이 470여 급에 이르러 국가의 위엄을 멀쳤고 아울러 역적의 징을 막았으니, 그 공이 실로 가상합니다. 이제 승리를 거둔 뒤에는 사졸들이 적을 가볍게 여겨 방비 등의 일에 조금은 해이해질 것이므로 장래의 환란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잔여 번호로서 같은 종류인 자들이 이번 일로 인하여 의구심을 품고 선동할 때도 없지 않을 것이니, 다시 역수 등의 여러 마을이 나라의 큰 은혜를 저버리고 지은 죄악이 컷으므로 출병하여 죄를 물어 풍속이 상

스러운 시골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나머지 무고한 번호로서 우리나라에 붙쫓는 자는 은혜를 더하여 줄 것이니 의구하지 말라는 뜻으로 명백하고 알 아듣게 타이르고, 지난날 변장이나 수령들이 학대하고 업신여기던 비리의 일은 모두 없애어 인자한 은혜와 위령을 아울러 행하여 치우침이 없게 함으로써 영구히 안정되도록 하는 방도로 삼도록 순찰사와 함께 관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왕이 따랐다.

우봉이씨의 남편 정현룡은 변방에 나아간 지 12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변방의 벼슬아치다 보니 여진족을 막아내야 했고, 임진왜란 중이라 휴가를 얻어 다녀갈 수도 없었다. 따라서 정현룡이 함경도에 나가 있는 동안 우봉이씨는 자녀를 가질 수 없었다. 이에 시댁 집안은 대를 잇는 일이 걱정되었다.

우봉이씨는 용기를 내어 임금에게 남편을 찾아가고자 하는 뜻을 담은 상소문을 올렸다.

“무변 정현룡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외직으로 나간 지 십 개 성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나이 50을 바라보니 아내로서 삼종지의를 쫓아야 합니다. 이에 남편이 있는 곳에 다녀와야 하겠으니 이러한 정상을 살피시어 받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엎드려 상소하옵니다.”

선조는 우봉이씨의 뜻을 가상히 여겨 윤허하였다. 우봉이씨는 계집종과 함께 남편을 찾아 머나먼 함경도를 향했고, 변방의 관문인 마천령에 당도하여 남편 정현룡을 만났다. 그러나 정현룡은 여자가 전쟁터에 찾아오는 것은 상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쫓듯이 돌려보냈다.

우봉이씨는 어쩔 수 없는 발걸음을 예산으로 돌려야 했다. 그녀는 마천령에서 아래 한시를 써 남편에게 전하고는 발길을 돌렸다.

行行旦至磨天嶺(행행단지마천령) 걷고 또 걸어 겨우 이른 마천령
東海無邊鏡面平(동해무변경면평) 끝없는 동해 물결은 거울처럼 잔잔한데
千里婦人何事到(천리부인하사도) 부인의 몸이로 천 리 면 길 무엇 하러 왔는가?
三從義重一身輕(삼종의중일신경) 삼종지도는 무겁고 이 한 몸 가볍기만 하구나.

남편 정현룡은 애절한 아내의 시를 읽고는 10여 리를 쫓아 부인을 만났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병영 생활을 하면서 2남 1녀의 자녀를 두었다. 그 뒤로 우봉이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예산군 봉산면 고향으로 돌아왔다.

위의 칠언절구 한시는 부녀자인 우봉이씨가 마천령 고갯마루에서 동해를 바라보며 속치마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시의 마지막 구절 ‘삼종지도는 무겁고 이 한 몸 가볍기만 하구나’를 보면 남편이 보고 싶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대를 이을 자녀를 갖기 위해 찾아간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속마음이겠지만, 삼종지도를 따라야 하는 명분이 중요한 시대였다. 우봉이씨는 이러한 명분을 통해 자녀를 낳고 또 남편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봉이씨는 열녀이기도 하지만 용기와 지혜와 문필력을 겸비한 여인이었다.

그런데 필자는 최근 예산군 정려문을 탐방하는 글을 쓰며 우봉이씨가 쓴 시를 살피다가 문제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이 한시가 우봉이씨의 창작이 아니라 다른 이의 글을 빌리거나 표절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아래의 한시는 조선시대 미암 유희준의 부인인 송덕봉宋德峰이 전남 담양에서 함경도 종성까지 수만 리 길을 걸어 남편을 찾아가며 쓴 시다.

摩天嶺上吟(마천령상음) 마천령에 올라 읊는다

行行遂至摩天領(행행수지마천령) 걷고 또 걸어 마침내 마천령에 오르니
東海無邊鏡面平(동해무변경면평) 끝없는 동해 바다 거울처럼 잔잔하다.
萬里婦人何事到(만리부인하사도) 만 리 길 여자의 몸으로 무엇 하러 왔는가?
三從義重一身輕(삼종의중일신경) 삼종지도는 무겁고 이 한 몸 가볍기만 하구나.

미암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이 을사사화로 윤원형에게 무고당하여 함경도 종성에 유배되고, 부인 송덕봉(宋德峰, 1521~1578)은 19년이란 긴 세월을 홀로 보냈다. 그녀는 해남과 담양을 오가며 살림을 도맡았고, 시어머니를 21년간 모시다가 돌아가시자 삼년 상을 치렀다. 그리고 전남 담양에서 함경도 종성 유배지로 남편을 찾아 수만 리를 걸어 드디어 마천령 고갯마루에 올라 쓴 한시라 전해진다.

두 사람의 시를 읽어보면 첫 행의 글자 하나와 셋째 행 글자 하나를 빼면 똑같다. 둘 중 하나는 표절이란 뜻이다. 그런데 쓴 시기를 살펴보면 우봉이씨가 송덕봉 부인의 한시를 표절한 것이 드러난다.

전남 담양에 살았던 송씨의 남편 유희춘은 1513년 출생하여 1577년에 사망했다. 우봉이씨 남편 정현룡은 31세인 1577년 알성시 무과에 급제하여 출사하였는데, 이는 송씨 부인의 남편 유희춘이 사망한 해이다. 따라서 송씨 부인의 시가 명백하게 앞선 시기에 있었고, 뒤에 예산의 우봉이씨가 이를 차용한 것이 된다.

과거의 표절 시비는 작가의 생몰 시기를 비교하면 대개 밝혀진다. 후대의 인물이 전대의 글을 표절할 순 있어도 전대의 인물이 후대의 인물이 쓴 글을 표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봉이씨가 치마폭에 쓴 시는 그녀의 작품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그녀가 쓴 시가 아니라, 앞선 송씨 부인의 시를 차용하여 제 뜻을 남편에게 전한 것이다.

이러한 예는 종종 있다. 세간에는 윤봉길 의사가 『농민독본』을 저술하였다고 알려졌는데, 이를 그대로 믿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는 엉뚱한 오해가 낳은 오류다. 윤 의사는 보부상의 왕래가 빈번한 목바리 마을에서 예산보부상을 통해 서적을 구해 읽었다. 그때 이성환이 쓴 『농민독본』을 읽고 이를 활용하여 농민계몽 운동을 펼쳤다. 1920~30년대 천도교인들이 중심이 된 농민운동단체 조선농민사의 초대 이사장인 이성환은 『농민독본』을 저술하였고, 이 책은 전국 야학교의 한글 강습 교본으로 사용되었다. 윤 의사는 이 내용을 베껴 계몽운동에 이용했는데, 이 필사본이 남아 윤 의사의 저작물로 오인된 것이다.

우봉이씨의 남편 정현룡은 뛰어난 무신으로 임진왜란 때 여러 번 공을 세운 장군이다. 1600년(선조 33) 북병사의 호적 토멸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으나 전사하고 말았다.

그때 전사한 정현룡의 머리를 그의 말이 입에 물고 예산에 돌아왔다. 우봉이 씨는 봉산 면 옥전리에 남편의 머리를 모시고 장례를 치렀다. 그 후 소복하고는 문밖을 나가지 않고, 이어 남편을 따라 죽었다.

정현룡의 전사 사실은 당시 함경도 관찰사가 조정에 보고하지 않아 조정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죽은 지 5년이 지난 1605년(선조 38)에서야 함경도 관찰사 민정중과 북병 사 이단하의 조사로 그의 죽음이 밝혀져 선무일등공신에 책봉되었다.

조정에서는 함경도 경성의 어랑리에 정현룡을 모신 사당을 세우고 ‘창열사’라 사액 하였으며, 함경도 길주군에 ‘북관대첩비’를 세워 정현룡의 전승 기록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열녀 우봉이씨 정려각〉

우봉이씨의 정려문 현판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판각되어 있다.

“열녀 선무 일등 공신 증승정대부 의정부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행정현대부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겸 경성도호부사 정현룡의 처 정경부인 이씨 지문 상지 즉위 2년 임술 11 월 일 중수”

위 현판 글에 따르면, 종2품 함경도 병마절도사였던 정현룡은 전사한 뒤 종1품 승정 대부 등의 벼슬에 추증되고, 아내 우봉이씨도 여인으로서는 최고 품계인 정경부인에 추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려각이 있는 정대영 고택의 건물은 충청남도에서 1987년에 제385호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였다.

1999년 예산문화원에서 발간한 『예산의 설화』에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우봉이씨와 정현룡의 이야기가 채록되어 있다. 이 설화를 바탕으로 정현룡과 부인의 이야기를 꾸미면 아래와 같다.

정현룡 장군과 의로운 말 무덤

정현룡은 충청도 덕산현 대야면 성지동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457년경 이곳 봉림리에 동래정씨 가문이 터를 잡고 수 대가 이어 살았습니다.

정현룡은 어릴 때부터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그의 비범한 기상은 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 어른들은 앞으로 ‘뛰어난 무관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도망치는 호랑이의 꼬리도 잡을 정도로 용감한 장사로, 31세의 늙은 나이에 무과 시험에 급제합니다. 2년 후 첫 부인이 죽었고, 몇 년 지나서 다시 재혼하니 이가 우봉이씨입니다. 그는 벼슬길에 올라 두만강 국경에서 무관직을 수행하며 함경도 방어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무관으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왜군이 침입하자 좁대 없는 자들이 나라와 임금을 배반했습니다. 이들의 행패는 극심해지고, 왜군은 함경도의 관문인 마천령까지 침범했습니다. 그 기세가 강하고 벌성하여 나라를 배반한 이들이 조선의

지방관을 왜군에 넘겼습니다. 젖대 없이 동조하는 이들도 생겨나 왜적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이들은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써서 양민들의 물건을 빼앗아 갔습니다.

함경도의 북방 국경지대에는 왜구와의 싸움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12년이 지났습니다. 덕산현 대야면 성지동에서 살고 있던 우봉이씨는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천 리 멀리 떨어져 함께하지 못하니 자녀를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시댁 집안은 동래정씨의 대를 이을 혈육이 없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십여 년 이상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던 우봉이씨는 용기를 내어 임금에게 ‘남편을 찾아가고자 원한다’라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무변 정현룡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지방관직에 나간 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나이 50을 바라봅니다. 아내로서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을 가면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면 남편이 있는 곳에 다녀와야 하겠사오니 이러한 정상을 두루 살피시어 임금님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금은 상소문을 읽어보고는 가상하게 여겨 우봉이씨의 청을 허락합니다. 우봉이씨는 곧바로 충청도 덕산현에서 함경북도 두만강으로 천 리 길을 찾아갔습니다. 여자로서 험하고 먼 천 리도 넘는 길을 갖은 고행을 하면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함경도 마천령에 해가 저물어 남의 집에 묵었습니다. 새벽녘 밖에서 말굽의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리고 우봉이씨는 계집종을 불러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병졸들과 행군 중이었습니다. 계집종이 ‘부인께서 이곳을 찾아왔노라.’ 전하자 정현룡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전쟁터에 찾아왔느냐? 바로 되돌아가라!” 호통을 치며 계집종을 돌려보냈습니다. 남편은 법도에 따라 만나주지 않아 우봉이씨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부인은 치마 폭에 시를 지어 계집종에게 줍니다.

가고 가고 해서 쉬지 않고 당도한 것이 마천령이구나!
끝없이 바라보이는 동해 바다 수면은 거울과 같은데
부인의 몸으로 이천 리 길을 그 무엇 때문에 왔던 말인가?
중한 것은 삼종지의이고 이 한 몸은 가벼워서인가 하노라.”

천 리 길을 찾아온 부인을 돌려보낸 정현룡은 속치마 폭에 쓴 아내의 시를 받아보고는 마음이 흔들었습니다. 임금의 허락을 받고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정현룡은 병사를 다시 보내 부인을 불렀습니다. 다시 발길을 돌려 10여 리 갔을 때 병사를 시켜 다시 돌아왔고 부부의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애절한 사연으로 만난 두 사람은 변방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정현룡은 북병사로 왜군을 공격하고 무찔러 가선대부에 오릅니다. 이 해 부부는 딸을 얻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정현룡은 여진을 전멸시키는 등의 공을 세워 정2품의 자헌대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우봉이씨는 바라던 아들을 얻었습니다. 정현룡은 승진하여 정헌대부에 오르고, 또다시 아들을 얻습니다. 이때 정현룡의 나이 52세입니다.

그 후에도 정현룡은 여러 차례 왜적을 무찌르는 공을 세웠습니다. 1595년 함경북도병마절도사로 재임하던 시기 중풍에 걸리자 선조 임금은 의원을 보내어 돌보라 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1600년 정현룡은 두만강 일대의 여진족을 공격하여 무찌르는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정현룡은 그만 전사합니다. 그때 그의 말이 정현룡의 머리를 물고 천 리 먼 예산으로 돌아옵니다. 대문 앞에서 말은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우봉이씨는 남편의 머리를 확인했습니다. 부인은 방에다가 남편의 머리를 참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남편의 몸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천 리 길을 달려온 말은 기진맥진한 채 울부짖었습니다. 부인은 쌀뜨물을 내어 소래기에 걸고 검불의 부스러기 불로 지피고 데운 물을 말에게 먹여 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물을 먹은 말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말이 죽자 정씨 집안과 동네 사람들은 관례에 따라 봉산면 옷밭골 명당을 찾고 충성스러운 예를 다하여 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무덤이 말 무덤입니다. 지금도 봉산면 마을에서는 말 무덤의 풀을 깎아주고 시향을 지낸 후 술잔을 부어줍니다.

현재 봉산면 옥천리에는 정현룡의 묘가 있습니다. 묘소 옆에는 주인의 머리를 물고 와 죽은 의로운 말 무덤이 있어, 지금도 주인 정현룡을 지키고 있습니다.

참고문헌(자료)

1. 『봉산 면지』, 2002
2. 『북병사 정현룡』
3.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 문화전자 대전
4.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 <수원 교양강좌 자료>
5. 『예산의 설화』, 예산문화원, 1999

□ 박윤호(정려문과 진휼 기념비)

예산읍은 예산군의 중심 지역으로 충효를 행한 인물이 문헌상에 여럿 존재한다. 그런데 열녀를 기리는 정려는 예산읍 향천리에 있는 ‘방맹 정려’가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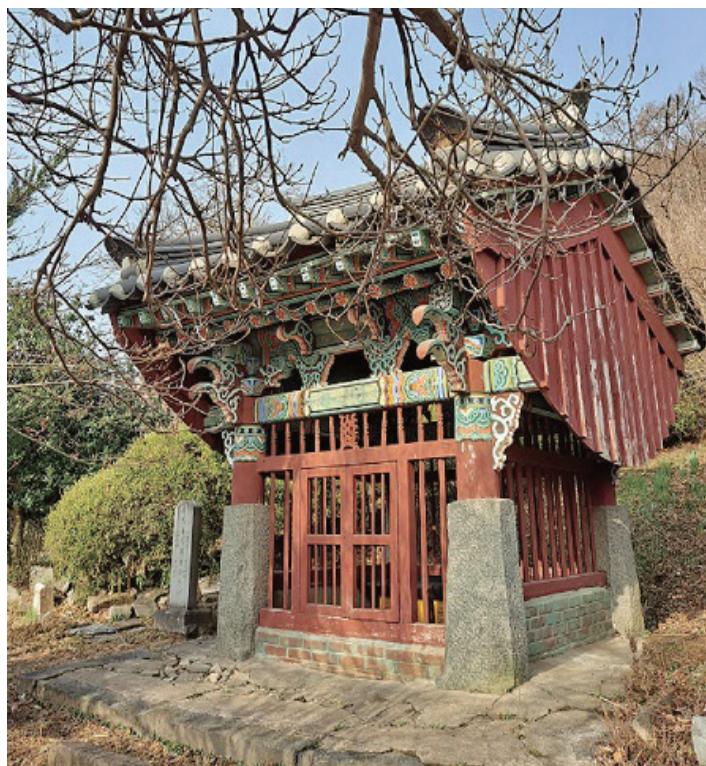
필자는 최근 인터넷 검색하다가 『한국효문화 자료보감』‘충청남도편’에 수록된 효열녀 박윤호를 알게 되었다. 예산읍 예산로 161번길 16에 ‘예산읍 효를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돌본 평산박씨 효열정려’였다. 그곳은 예산군청과 가까운 곳이었다. 예산군청 옆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예산성당’이 있고, 성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왕석종 부인 평산박씨 정려’가 보였다.

아침 일찍 계단을 올라갔다. 정려각 위에는 오래된 가옥이 있고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 집을 들러 정문에 관한 사항을 듣고 싶었지만 망설이다 지나쳤다. 이른 아침이다. 코로나 환자가 예산을 휘덮고 있는 시기여서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효·열녀각’과 ‘진휼기념비’의 주인공은 박윤호(朴允浩, 1889~1958)이다. 1889년 삽교읍 하포리 박선정의 딸로, 남편은 왕석종이다. 예산에서 알아주는 상당한 집안이었지만 1905년 결혼한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1923년, 남편이 병으로 고생하여 13년을 수발했지만 31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자녀가 없어 5촌 조카를 양자로 입적했다. 홀로 된 그녀는 힘써 일하여 큰돈을 모았다. 그 돈을 어려움에 부닥친 이웃을 위해 썼다.

이러한 공적이 인정되어 정려문이 세워졌다. 정려각 현판에는 “효 열부 학생 왕석종 처 유인평산 박씨 지문 공부자 탄강 2481년 경오 삼 월 십 일(1929년 3월 10일) 경성 대성학원” 이란 글귀가 새겨졌다.



〈열녀 박윤호의 정려각〉

평산 박씨 박윤호의 정려문은 낡아 있었다. 현판은 정려각 안에 있었는데, 위에서 떨어져 사과 상자 위에 올려져 있었다. 안쪽에 새겨진 ‘평산박씨 정효행록平山朴氏 貞孝行錄’은 해독하지 못했다.

정려문의 주인공 박윤호는 충청지역의 교육 발전에 공헌했다. 1937년, 대전 인동에 설립된 ‘대동공립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500원의 기금을 냈다. 이 밖에 충남과 예산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돈을 기부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재물을 희사하였다.

그런 선행과 진휼에 대한 공적은 1937년 11월 16일 자 <동아일보>에 게재되었다.

위 기사 내용과 비문에 적힌 글을 종합해보면 박윤호는 일찍이 사회사업에 눈을 떠 가난한 농민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많은 재산을 어려운 이웃에게 희사하였다. 이런 공적에 따라 예산군수는 ‘박윤호’에게 표창장을 내렸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데 행적을 남긴 시기와 내용에 문제 될 만한 것이다. 정려각을 세운 시기가 1930년이다. 그리고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 박윤호는 일제의 ‘애국기 1군 1기 헌납 운동’에 참여한다. 이는 중·일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일제가 군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모금 운동이다.

朴允浩女史(박윤호여사)의 義舉(의거)를 表彰(표창)

동아일보 | 1937.11.16 기사(뉴스)

朴允浩女史(박윤호여사)의

義舉(의거)를 表彰(표창)

【禮山(예산)】 지난十一(십일)월十二(십이)일 예산군청에서는 절부표창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는바 그는 예산군예산면 예산리 오리정(禮山里五里亭(예산리 오리정))에 거주하는 박윤호여사(朴允浩女史(박윤호여사))로 절어서 남편을 여의고 가난한 살림에 자식도 없이 그날 그날을 살어오다가 당질되는 왕준(王俊(왕준))을 양자로 다려다가 그의 장성하기만 바라고 불면불휴 근노하였든바 오늘에는 남에 지지안을 만치 돈을 모었다 이에 그는 자진하여 사회사업에 눈을 떠서 빈민들에게 농양을 논아주기를 수회나 하였으며 금년에는 대전고녀(大田高女(대전 고녀)) 설립비로五百(오백)원을 내었고 충남호비행기 헌납자금으로百(백)원을 내었다 앞으로는 자녀교육 사회사업을 위하여 전재산을 봉치겠다고 한다.(사진은 박윤호여사)

<동아일보 1937년 11월 16일 기사>

박윤호는 이에 참여하여 충남 호 군용비행기 헌납 운동자금으로 100원을 냈다. 당시 봉급생활자 연봉이 8~900원이었고, 군용비행기는 당시 기종에 따라 6~20만 원 정도였다고 한다. 그때 100원이라면 지금으로 치면 천만 원쯤 될 것이니 당시로서는 매우 큰 돈이다. 박윤호가 군용기 헌납 운동에 참여한 것이 일제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는지 자발적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의 행적에 오점이 됨은 분명하다.

박윤호는 여러 가지 선행이 인정되어, 1940년 4월 7일 예산읍 오리장벌에 '박윤호씨 진휼기념비'가 세워졌고 그 내용은 이러하다.

朴允浩氏 賑恤紀念碑(박윤호씨 진휼기념비)

值歲大荒 糊口頗饑(치세대황 호구파함) 때마침 큰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입에 풀
칠하고



〈박윤호의 진휼기념비〉

哀我民人 仰室吟呻(애아민인 앙실음신) 우리 백성들은 슬퍼하고 집을 우러러 신음을 토한다.

代納戶稅 頌比惠施(대납호세 송비혜시) 대신 세금을 내어 베푼 은혜를 사모하며 공덕을 일컬어 기리네.

一區安堵 歲心銘肚(일구안도 세심명두) 지역이 편안해지고 선행의 마음을 이 비석에 새기노라.

박윤호의 정문은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에 등록되지 않았다. 예산군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정문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다. 건립 시기의 사회상과 연관된 친일이나 부역의 여지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려운 지역 사람을 구휼한 공적은 기억할 만하다.

이번 예산읍 오리동 정려문을 조사하며 일제가 전쟁물자 조달을 위해 수탈한 국방헌납 운동 ‘1군郡 1기機 헌납 운동’에 예산지역에서 여러 사람이 동참한 사실을 알았다. 마음이 무겁다. 그래도 왕석종 후손과 평산 박씨 종친회에서는 선조의 효행을 기리며 정려각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2025년 2월 25일 무한정보신문에는 ‘주저하다 또 잊는다. 박윤호 열녀각, 문중도 손놓을 듯, 지정문화재 아니라지만, 방치할 일 아냐’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우리 역사 속의 일제 강점기는 감당하기 버거운 짐이다.

참고문헌(자료)

- 『예산읍지』
-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 문화전자 대전
- 무한정보신문사의 기사(2025. 2. 25)

8

효자孝子

○ 이승유 李承瑜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로 28

○ 정학수 鄭鶴秀

예산군 신양면 불원시왕길 298-18

○ 박도한 朴道漢

예산군 신양면 황계길 51

○ 최승립 崔承立

예산군 광시면 충절로 2454-6

○ 박승휴 朴承休

예산군 광시면 예당로 413

○ 이후직 李厚植

예산군 봉산면 봉운로 488-13

○ 이규 李奎

예산군 고덕면 사리용리길 153

○ 이우영 李禹榮

예산군 고덕면 상장1길 40-28

○ 김창조 金昌祖

예산군 고덕면 동곡양금길 141-10

○ 김갑 金範

예산군 신암면 신암남로 312-42

○ 현진묵 玄進默

예산군 신암면 안뜸 송정길 30-1

□ 이승유 李承瑜

이승유(李承瑜, 1824~1890)의 정려각은 대술면 방산리에 있다. 1904년(고종 41) 건립된 것

이다. 정려각 오른쪽에 있는 이광임 고택은 19세기 중엽의 양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특히 고택 마당이 넓다. 고택 안을 보니 대청, 사랑채, 뒷마루, 다락, 제실 등이 있었다. 과거의 고풍스러운 흔적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고택에서 나와 뒤쪽에 있는 구릉지를 올라가면 한산이씨의 가족묘가 있고, 고택 앞 도로변을 지나다 보면 이승유 정려각 현판이 한눈에 보인다.

이남규의 문집인 『수당유집修堂遺集』 5책 행장行狀에 의하면 이승유의 행적을 살필 수 있다.

이승유 행장

효성이 지극하여 그 감응하는 바가 매우 특이한 것에 대해서는 군자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법이다. 그러므로 주자도 저 왕상의 ‘얼음에서 나온 잉어와 장막 안으로 들어온 참새’에 관한 일을 채택해서 이를 《소학》에 실었다.

우리 집안 선조인 공으로 말하면 그 효성에 대한 감응이 역시 매우 기이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치로 보아 응당 그러할 수 있었던 것이니, 후세에 만약 어떤 유현이 주자를 이어 사람들의 선행에 관한 일들을 수집하고 이를 다시 보충하는 경우가 있다면, 공이 필시 여기에 채택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또한 거기에 조금도 부끄러운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공에게 굳이 무슨 행장이 필요하겠는가. 그런데 공의 손자 이필규가 말하기를, ‘만약 먼저 이에 관한 기록을 남겨 두지 않는다면, 후대의 현인들이 장차 무엇에 근거해서 이를 계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며 간절하게 청하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여 공을 위한 행장을 짓는다.

공은 자가 공근인데 한산인이다. 원래 문효공 이곡과 문정공 이색이 고려 때에 현달하였으며, 여러 대를 전하여 휘 이산해에 이르러서 영의정을 지냈는데 이 어른이 휘 이경전을 낳았다. 휘 이경전은 좌참찬을 지냈으며 휘 이구를 낳았고, 휘 구는 검열을 역임했는데 공에게는 8대조가 된다. 고조는 휘가 이환인데 성균관 생원을 지냈고, 증조는 휘가 이수홍이며, 조부는 휘가 이옹명이고, 아버

지는 휘가 이광임이다.

어머니 전주 이씨는 이광술의 딸인데 양녕대군의 후손이고, 담양 전씨 현의 딸이다. 공은 이씨의 소생이다.

공은 갑신년(1824, 순조 24) 5월 7일에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줄을 알았으며, 차츰 자라면서는 어버이의 뜻을 잘 받아들여 언제나 공경하고 조심하면서 조금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으니, 아침저녁의 문안과 나갈 때 인사드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일등의 예절을 혹시라도 어긴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학질에 걸려서 오래도록 앓으셨는데, 공은 이때 겨우 약관의 나이를 넘었다. 공은 아버지의 변을 맛보아 병세를 판단하고 밤이면 하늘에 기도를 올리는 등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밤마다 옷을 입은 채로 침실 곁에 엎드려서 아버지의 숨소리가 어떤지를 살피면서 여러 달 동안 눈을 붙이지 못하였고, 병이 위독해지자 손가락의 피를 내어 입 안으로 흘려 넣어 다시 소생시켰다.



〈효자 이승후의 정려각〉

언젠가 의원이 말하기를 ‘굴뚝새로 학질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이 새는 까막까치의 일종으로 그 색깔이 마치 방고래의 빛깔처럼 검으므로 우리말로 붙인 이름인데, 작고 날쌔어서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 갑자기 이 새가 방안으로 날아 들어와서 자리를 짜는 틀 위에 앉았으므로, 이를 붙잡아 약으로 써 보았더니 과연 효험이 있었다.

그 뒤 3년 만에 학질이 재발해서 더욱 위독하였다. 그래서 공이 다시 손가락을 베어 피를 올렸는데, 마침내 병이 다 나아서 9년의 세월이 지났다. 어느 날 공의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빗질하기를 평상시와 다름없이 하였으므로 가족들은 별달리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만은 유독 심장이 두근거려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이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상을 당하자 공은 너무나 슬퍼하여 그 몸이 상하고 수척해져서 거의 부지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 뒤 아침저녁으로 산소를 배알하였는데, 절하느라 무릎이 닿은 자리에는 풀이 돋아나지 않았다. 그리고 제사를 올릴 때 곡성이 울려 퍼지면, 길을 가던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효자의 여막이로구나.’ 하였다.

그 뒤에 고을 사람들이 다들 입을 모아서 말하기를 ‘이와 같은 효자를 그냥 묻어 두고 세상에 알리지 않는다면 이는 이 고을 선비들의 수치다.’ 하고는, 여러 번 글을 올려서 어사와 관찰사에게 정포를 내릴 것을 간절히 청하여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끝내 어떤 조처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

공은 기일을 만나면 그 통절한 사모가 마치 초상 때와 같았다. 그리고 해마다 설날이 되면 새벽에 일어나서 자제들을 데리고 산소를 찾았는데, 설령 매운바람이 몰아치고 눈발이 휘날려도 중단하는 일이 없었으며 늙도록 그만두지 않았다.

… (중략)

봄과 가을로 좋은 절기를 만나면 집안사람을 시켜서 술을 빚고 반찬을 마련한 다음 일가 집안의 노인분들을 청해다가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한껏 즐겼는데, 유연히 자득의 정취가 있었다. 1890년(고종 27) 2월 9일 세상을 떠나니, 태어난 지 67년이 되는 해이었다. 해미의 고색총 경좌 언덕에 안장하였다. … (하략)

이승유 효행이 널리 알려지자 충청도 유생 홍대주 등이 상소를 올려 효자 정려 포장 을 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1904년(고종 41) 이승유에게 중학교 교관 을 추증하고 효자 정려를 내렸다. 이승유의 정려각 중앙 상단에는 1904년 8월 내려진 ‘효자증종사랑중학교교관이승유지문’이란 명정 현판이 있다.

참고문헌(자료)

- 『대술면지』
- 『수당유집』책 5. 이남규

□ 정학수 鄭鶴秀

필자는 예산군 삽교읍,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사무소에서 공직 수행했다. 그런데 대 술면이나 신양면, 광시면 지역에서는 근무한 경험이 없다 보니 효 정려문 탐방을 하는 동안 애를 먹었다. 이번 탐방은 휴대전화로 검색을 통하여 신양면 시왕리 181-3에 있 는 정학수 정려각을 쉽게 찾았다.

정학수 정문이 있는 신양면 시왕리는 조선 시대 대홍군 원동면에 속했던 마을로 주 민들은 ‘시왕이’, ‘시왕’, ‘삼왕’이라 부른다. 1914년 예산군 행정구역 개편 때 상불운리와 하불원리를 통합하여 ‘시왕리’라 하고 신양면에 편입했다.

정학수(鄭鶴秀, 1802~1872)의 본관은 온양이며, 아버지는 정동조, 어머니는 김녕 김씨 다. 그는 효성이 지극했다. 아버지가 병이 나자 손가락을 깨물어 입에 그의 피를 넣어 주었다. 그의 지극한 보살핌으로 아버지가 7일을 더 연장하였으며. 부친이 사망한 후 엔 죽만 먹으며 3년간을 시묘살이했다. 이후에도 매일 아버지 무덤을 살피기를 늙어서 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정학수의 아들 정면교도 효자로 이름났다고 한다.



〈효자 정학수 정려각〉

정학수의 그런 효행은 충청도 관찰사를 통해 보고되어 1870년 효자 명정을 받았으며, 『승정원일기』 1871년(고종 8) 3월 10일 자 기록에는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정학수 鄭學洙에게 동봉 교관을 추증하였는데, 이상은 효행이 특별하여 추증하라는 전지를 받든 것이다.”

정려각의 내부 중앙 상단에 내려진 ‘효자 등 조봉대부 동봉 교관 정학수 지려’ 명정 현판이 있다. 뒷벽에 두 개의 정려기가 있다.

정려각 안 왼쪽에 있는 정려기는 글씨가 흐릿하여 판독이 어려웠다. 정문 오른쪽의 정려기는 상태가 좋은 편으로 ‘승정 기원후 5 신미년’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승정 기원’은 1628년이다. ‘후 5 신미년’은 ‘승정 기원후 5번째 돌아온 신미년’이란 뜻으로 1871년이다. 명나라 의종이 멸망하고 무려 244여 년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명의 연호를 썼다. 이것은 조선이 맹목적인 숭명사상 崇明思想에 의존했던 흔적이다.

이곳을 방문했을 때 정학수 정려각 주변과 뒤에는 깔끔하게 정비된 ‘추모사’가 있었



〈효자 정학수 추모각〉

다. 추모사 앞에는 1998년 세운 ‘추모사 건립기념비’가 있다. 정려각 뒤쪽 산 경사면에 온양정씨 집안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참고문헌(자료)

1. 『문화유적분포지도』, 예산군(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2001
2. 『예산군의 효행과 우애』, 예산군(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 역사 문화연구소), 2002
3. 『신양면지』, 2015

□ 박도한 朴道漢

조선 후기의 효자 박도한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려는 충남 예산군 신양면 황계리 산 25-4에 있다.

신양면 소재지에서 지방도 616호선을 따라 서쪽으로 4km쯤 가면 ‘예산군노인요양원’이 있고, 요양원의 동쪽 텃밭 한가운데에 정려각이 있다. 풀이 자라나 도로변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주변을 빙빙 돌다가 다음 날 다시 방문하여 겨우 찾았다. 소중한 정려각의 관리가 되지 않고 안내판이나 표지도 없다. 예산군이나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폈으면 한다. 후손이나 종친들도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

‘예조 입안문서’ 형태로 예조의 실사와 포장이 결정된 박도한 효행 내용은 자세히 남아 있지 않다. 1892년(고종 29) 5월 족보에 그 내용이 실렸다고 알려져 있으나, 필자는 아직 족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신양면지』에 의하면 ‘박도한의 본관은 울산이며, 천성이 효성스러워 부친 병환으로 고생하자 부친의 변을 맛보아 병환이 회복하였으며, 그의 부친이 사망하자 매일 성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승정원의 정삼품 동부승지 송병학(宋秉學, 1853~1928)이 조정에 보고하여 1892년(고종 29) 5월 6일 명정을 받아 정려각을 건축하게 되었다.

정문 내부의 중앙 상단에 명정 현판에는 ‘효자 증동몽교관 조봉대부 박도한지문 성상즉조이십구년임진 사월 칠일 명정’이라고 쓰여 있다.



〈효자 박도한의 정려각〉

참고문헌(자료)

1. 『문화유적분포지도』, 예산군, 2001
2. 『예산군의 효행과 우애』, 예산군(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 역사 문화연구소), 2002
3. 『신양면지』, 2015

□ 최승립 崔承立

1664년(현종 10) 효자 최승립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려각은 광시면 충절로 2454-6(노전리 302)에 있다. 최승립은 가난하여 봄마다 보릿고개를 당하여 곡식을 얻기 위해 품앗 이를 다녔다. 어머니가 병이 들자 어렵게 약을 구해 드렸으나 차도가 없었다.

어느 날 의원이 ‘당신 모친의 병은 뱀이 특효약이니 한번 구해서 써 보시구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으니 산신령이 도울 것이다.’ 하니, 최승립이 뱀을 찾아 나섰는데 엄동설한이라 뱀을 찾지 못하고 해매다가 어느 돌무덤에 쓰러졌다.

‘천지신명이시여! 천지신명이시여! 저에게 뱀을 내려 주시고 어머니 병환을 낫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니 갑자기 뱀이 나타났고 이를 잡아 달여 드리자 어머니 병이 나았다. 또 아버지가 병이 들자 잉어가 명약이란 말을 듣고 한겨울의 연못에 무릎을 끊고 기도를 올렸다. 기도를 마치자 얼음이 녹고 잉어가 튀어 올랐고, 잉어를 잡아 약으로 써 아버지의 병이 나았다. 최승립에 대한 효행 행적 소문이 널리 퍼져 조정에서 효자 명정을 내렸다.

1655년(효종 6)부터 1788년(정조 12)까지 예조에서 효행 등에 단자를 모아 엮은 『효행 등재등록』을 편찬하였는데, 기록에 따르면 1659년 윤3월 효자 정문 질의 가운데 ‘대홍군 고학생 최승립’이란 기록이 있다.

명정 현판에는 ‘효자 통덕랑 탐진 최승립 지려’라고 쓰여 있다. ‘정려기’는 후손 최동원이 지었으며, 여기에는 최승립의 행적과 남루해진 정려각을 중건하여 다시 세운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효자 최승립 정려각〉

정려각의 내부 바닥 중앙에는 1966년에 세운 효자비가 있다. 거기엔 ‘효자 통덕랑 탐진 최승립 지려’라고 쓰여 있다. 정려각 우측에는 탐진 최씨 종친회에서 세운 묘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묘를 단정하게 조성하고 최승립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참고문헌(자료)

- 『예산군의 효행과 우애』, 예산군(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 역사 문화연구소), 2001
- 『문화유적분포지도』, 예산군(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2001)
- 『광시면인지』, 2010

□ 박승휴 朴承休

매주 주말 충남 예산군의 정려 이야기를 쓰기 위해 아내와 정려각이 있는 예산군 12개 읍·면을 찾아다녔다. 신암면 용궁리 『강민채·강남구 형제 정려각』를 시작으로 오늘 『효자 박승휴 정려각』를 탐방하여 탐방 일정을 마쳤다.

처제 환갑은 7월 20일이다. 어제 저녁 아내는 ‘예산군추모공원 안에 있는 ‘추모의 집’에 내려온다.’라는 동생의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대홍면 ‘의좋은 형제공원’ 주변 식당에 점심 식사를 예약해 놓았다. 삽교읍에 있는 예산 일반산업단지 회전교차로를 돌아 응봉면 주령리를 지나는데 도로변 언덕 아래 신도비가 보인다. 정려문을 찾고자 수 없이 다닌 길이다.

최근에는 묘갈명이나 비석 등에도 관심을 생겼다. 정려문을 찾아다니다 보니 생긴 관심이다. 응봉면 주령리 도로변의 언덕에 올라 비문을 살펴보니 송시열이 쓴 비문이라고 적혀 있다. 살펴보니 오늘 점심을 마치고 찾아보려던 ‘박승휴 신도비’다.

『응봉면지』 제2장 <묘갈명·비석>에 게재된 박승휴 신도비가 기억났다. 그곳 비문을 보니 비문 앞 부문에 ‘박승휴가 부친 박안행을 여읜 후 건강이 나쁘게 보이더니 1659년 사망했다.’라고 쓰여 있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환갑을 맞이하는 처제 부부나 우리 부부는 부모님이 없었다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다.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처제 부부를 ‘예산군추모공원’에서 만났다. 처제는 환갑이 되자 넣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님을 찾아온 것이다. 처제 내외는 추모의 집에서 기도를 드렸다. 우리 부부는 가지고 간 음식과 술을 마련하여 제를 올렸다. 저녁에 많은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지만, 형제들이 모이니 즐거웠다.

점심 예약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다. 처제 내외와 우리 부부는 의좋은 형제 공원을 둘러 보고는 박승휴 장려각이 있는 광시면 신대리로 향했다. 효자 박승휴 정려각은 광시면 예당로 413-2(신대리 5)에 있었다.

실은 지난주에도 박승휴 정려각을 찾으려고 왔었다. 그런데 ‘예당로 413-2번지’를 ‘미곡리 413-2번지’로 내비게이션에 입력하여 엉뚱한 곳을 떠돌다 그냥 돌아왔다.

박승휴(朴承休, 1606~1659)는 본관이 밀양이며, 부친은 석곡 박안행이다. 어릴 때부터 효성이 뛰어났다. 병에 걸려 위험하여도 동생 박승건이 부모에게 알리려 하자 제지했다. 부모님이 놀라실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1659년(효종 1)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 병조정랑, 사간 등을 역임한 뒤 홍주목사를 지냈다.

아래 인용 글은 박승휴의 어릴 적 효행 행적으로,『여지도서』<덕산현>에 수록된 내용이다.

“박승휴. 효종 때 과거에 합격해 벼슬이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들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던 사헌부 소속 종3품의 직제에 이르렀다. 효성과 우애는 하늘이 낸 것이었다. 어머니의 병이 위독해졌을 때 제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내어 바쳐 어머니를 구했다. 남한산성으로 임금을 따라 모시던 날에는 몸을 떨쳐 일어나 의병을 일으켰다. 부모가 죽었을 때 몸이 상할 정도로 슬퍼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줬다. 마을 사람인 진원이 마침내 감화받아 효자가 되었다. 이런 효행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대홍현 동쪽 장촌면 석곡리에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



<효자 박승휴 정려각의 현판>

박승휴는 어버이가 거처하는 방을 등져 앉거나 누워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홍주목 사로 재임하던 중 아버지의 병이 위독해지자 한겨울에 죽순을 구하고 잉어를 잡아 드 시도록 했다.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여 아버지의 수명을 3일간 연장하는 효행을 보였고, 아버지의 상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숨을 거두었다.

사망 후 효행을 인정하여 1689년(숙종 15) 조정에서는 효자 명정을 내렸다. 정려각은 1990년 5월 예산군의 지원으로 받아 재건축한 것이다. 박승휴의 묘는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에 있다가 1989년 3월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로 이장되었다.

우암 송시열이 박승휴의 애절한 효도와 그동안 행적을 쓴 신도비는 응봉면 주령리 도로변에 있다. 한양에서 임금이 공주로 피난 왔을 때 그는 매일 이백리 길을 왕래했다. 아버지나 임금의 안위를 보살피는 것을 알아차린 그의 효심과 충성심을 높이 사서 조정에서는 효자상을 내리고 정려각을 건립했다.

정려각의 내부 중앙 상단 현판에는 ‘효자 증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 의금부 춘추관 성균관 사오위도총부 부총관 행통훈대부 사헌부 집의 겸 춘추관 편수관 박승 휴 지문’이라고 쓰여 있다. 이후 8차례 걸쳐서 중수했다. 박승휴 정려각은 후손들이 잘 보존 관리하고 있다.

박승휴 큰아들 박신주(朴新胄, 1624-1692)는 전라우도 수군절도사 재임시 해남에 이순신 명량대첩비를 1688년 건립하였다.

참고문현(자료)

- 『응봉면지』, 제2장, 묘갈명·비석
- 『여지도서』
- 『디지털예산문화대전』

□ 이후직 李厚植

충남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저수지로 가는 길 오른쪽엔 봉림교회가 있고, 그 옆 조금 떨어진 곳에 이후직 효자문이 있다.

이후직(李厚植, 1824~?)의 본관은 한산이다.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효심이 지극하였다.

『봉산면지』에는 ‘이후직은 9세 때에 부친상을 당했는데 여막에서 벗짚 자리를 깔고 벗짚 베개를 베고 거상 하며 3년 동안 방에서 자본 적이 없어 어린 나이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몹시 여위었지만 3년 상을 마쳐 일찍이 효행이 알려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모친이 병환으로 눕자 용한 의원을 찾아갔다. 의원은 변의 맛을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거리낌 없이 어머니의 대변을 맛보았다. 의원께 상태를 이야기하자 가물치와 더덕이 좋다고 했다. 엄동설한에 가물치를 잡으려 넷가로 가 보았으나 얼어붙은 넷 가를 보고는 통곡하였다. 이때 얼음이 깨어지며 가물치가 올라와 집으로 가져가 어머



〈효자 이후직의 정려각〉

니에게 국을 만들어 드렸다.

더덕을 구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눈에 덮인 땅을 헤치며 더덕을 찾아보았으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더덕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늘을 향해 통곡했다. 갑자기 발밑으로 더덕이 튀어나왔다. 그는 하늘이 내게 하사한 것이라 여기면서 정성껏 고아 드렸다. 그 후 어머니는 전과 다름없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런 효행을 들은 유생들은 하늘이 내린 효자라고 이후직을 칭송했고, 지역 주민들과 공론하여 조정에 상소를 올렸다. 조정에서는 1905년(대한제국 광무 9) 효자문을 내려 그의 효심을 기렸다.

참고문헌(자료)

- 『내포의 뿌리 예산학』, 예산문화원, 2016
- 『봉산면지』, 2002
- 『예산의 고지도와 지리지』, 권선정. 한기범 편, 예산문화원(충청남도문화원 연합회), 2017
- 『문화유적분포지도』, 예산군(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2001

□ 이규 李奎

예산군 고덕면에는 정려각이 여러 곳에 있다. 대천2리 ‘한순 충신 정려’, 상몽2리 ‘정치방과 정해열 충훈 효자 정려’, 상장2리 ‘이우영 효자 정려’, 사1리 ‘효자 이규 정려’, 사2리 ‘효자 박진창 정려’, 몽곡1리 ‘효자 김창조 정려’ 등이다.

조선 후기의 효자 이규 정려는 고덕면 사리 잣말에 있다.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사리 방앗간을 종종 따라갔다. 방앗간 가기 전의 언덕길 오른편에는 빨간빛의 정문이 있었다. 어릴 적에는 그것이 무섭게 느껴졌다. 이규 정려는 멀지 않았는데, 우리 집과 인접한 용2리였기 때문이다.



〈효자 이규의 정려각〉

지난 주말에는 봉산면의 정려각을 탐방하면서 봉림리 저수지 주변에서 쑥을 채취하였다. 소다를 소량 넣고 삶은 쑥과 쌀 두 말을 가져다 예산 방앗간에서 짹왔다. 아내는 올해 첫 쑥떡을 부모님에게 가져다드렸다. 나는 늘 고맙다.

이규의 정려각이 있는 고덕면 사리 산323번지는 예전에는 산이었으나 현재는 과수원이 되었다. 지금의 정려각은 1937년 중수된 것이다.

이규李奎의 본관은 청해다. 청해백 양령공 이지란의 9대손이다. 충청 병사를 지낸 이옥의 현손이다. 의주 목사를 지낸 고조 휘 이효신은 인근의 땅을 임금이 내려 준 논밭으로 받았다. 그의 집안은 임진왜란 중 낙향하여 고덕면 사리에 입향하였다.

이규는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했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하여 약효가 없자, 하늘에 기도하고 자기 손가락을 잘라 피를 어머니 입에 떨구었다. 아버지마저 병석에 눕게 되고 약을 써 보았으나 별다른 차도가 없자 자기 다리와 왼쪽 팔의 살을 떼어 먹여 아버지가 소생하였다. 다리와 팔에 난 깊은 상처로 인하여 이규는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았다.

이러한 효행을 인정받아 이규는 1751년 조정으로부터 명정을 받았다. 그 후 1890년 (고종 27) 재차 포상받게 되었다.

정려각의 중앙 상단부에는 ‘효자성균진사증통훈대부사현부감찰이규지려 성상 이십칠 년 이월 일 명정’이라고 적힌 현판이 걸려 있다. 현판 뒤에는 정려기는 1901년(광무 5년) 김병창이 지었는데, 그 기록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정려기

고 효자 진사 증감찰 청해 이공 휘 이규는 탁행이 어렸을 때부터 현저하였다. 그러나 가세가 방락하였고 부모님의 연세가 노쇠한 중 끼니조차 잊기가 어려웠지만 양지의 효행이 더욱 돋독하였다. 그가 어머니를 시병할 때에 모든 간호와 부축을 몸소 하면서 여러 해 동안을 하루같이 하였고 틈틈이 하늘에 기도하고 단지주혈하여 차도가 있어 병을 낫게도 하였으며 또 부친께서 병에 걸려 위독하시자 다시 지혈을 흘려 나아 온존한 손가락이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다리 살을 베어 계속 병구완하니 효험의 반등이 신기하였다. … 풍성을 심어 후인에 모범을 부어주어서 노력 앞을 지나가다가 수레를 멈추고 머리를 든 사람에게 감발하고 성찰하며 마음속으로 묵계하게 되고 세세 자손 모두 흥모하고 식첨하는 즈음에 주상전하의 은택이 여기에 참의한 것을 앙감하여 이에 공경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집에 있어서는 효도요 나라에 있어서는 충성이 되어 장차 집과 나라에 영광이 되어 더욱 영원할 것이요, 집안의 경사는 무궁하리라. 그렇다면 성은 예과 이제 가없이 마음은 본래 선하다는 것을 가히 경험할 것이다. 이에 그 설을 기록하여 힘써 응하게 하고 따라서 구구하게 기대하던 뜻을 이루게 할 뿐이로다.

청해이씨 시조는 이지란이다. 이지란은 본래 통지란으로 여진족의 장수였다. 고려 공민왕 때 부하를 이끌고 귀화했고, 이성계와 결의형제를 맺어 조선 건국을 도왔다. 조

선 개국 일등 공신으로 태조 이성계로부터 이씨를 하사받았다. 이름 있는 후손으로는 이화상, 이화영, 이인기, 이수민, 이유민 등이 있다.

참고문헌(자료)

- 1.『효행등제등록』
- 2.『조선환여승람』
- 3.『문화유적분포지도』, 예산군(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2001
- 4.『예산군의 효행과 우애』, 예산군(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 역사 문화연구소), 2002
- 5.『고덕 면지』, 2006
- 6.『디지털 예산문화 대전』

□ 이우영 李禹榮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에 효자 이우영의 정려각이 있다.

이우영의 본관은 경주로, 충청 5현으로 조선 중기 대표적인 경제사상가 송시열, 송길준, 윤선거, 유계, 이유태를 꼽는데. 그중 초려 문헌공 이유태의 후손이다.

그는 경주이씨 집성촌인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에서 태어났다. 중추원 의관직을 수행한 인물로 부친이 병이 들어 사경을 헤매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에 흘려 넣어 생명을 연장케 했다.

1894년 2월 15일, 고덕지역 동학 농민군 주도로 덕산봉기가 일어났다. 10월 11일, 홍주목사 이승우가 ‘예포대도소’를 습격하여 농민군이 패배하여 물러났다. 10월 24일에는 당진 면천 승전곡 전투에서 일본군이 동학군에게 패배했다. 10월 25일에는 남산 문봉리를 지나니 덕산현 장전리에는 수많은 동학군이 모였다. 장전리(고덕면 상장리)에서 군량미를 확보한 동학군은 10월 25일과 26일에 고덕 구만리를 지나 신례원 관작리에

3만여 명이 집결하였다. 그 당시 3만이면 엄청난 군세다. 이렇게 많은 농민군이 모였다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생겼다. 10월 28일는 홍주로 진격하여 홍주성 전투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그 많은 군량을 확보하고 잠은 어디에서 어떻게 잤을까?

박성묵 예산지역사연구소장이 2007년도에 발간한『예산동학혁명사』를 보면 동학군의 신례원 관작리 전투(10월 27일)를 성암 문병식 씨의 증언을 토대로 이렇게 기록했다.

“면천 승전곡 전투를 이끈 농민군은 곧바로 면천성을 점령하고 유숙했다. 다음날 10월 25일 남산 문봉리를 거치며 많은 동학군이 합세했고 정천리(고덕 상장리, 장사래)에서 군량미를 확보하고 구만리(아래뜸)로 이동하여 군사들을 머무르게 했다가 오가 역탑리 일대에 유숙했다. 이 지역 농민군 지도자 오가 원천리 김명배, 신원리 최한수, 내량리 김성배, 대홍 손지리 장승환, 윤선영 등의 활동으로 이 일대를 비롯하여 신암면 종경리까지 농민들 밥을 제공하는 데 바지게로 지고 날랐다.”



〈효자 이우영의 정려각〉

이우영은 음식을 장만하여 동학군을 후하게 대접하는 등 슬기롭게 대처하였고, 동학군은 이에 큰 감동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이런 일은 부모에 대한 그의 효성과 함께 고을 사람을 감동하게 했다. 이우영은 1888년 종2품인 문무관의 관직을 받았고, 정4품 무관직에 올랐다. 1901년에는 안릉종구품 벼슬을 받고 중추원 관원이 되었다.

1905년, 조정으로부터 효행을 인정받아 정려각이 세워졌다. 정려각 현판에는 ‘효자 증통정대부비서원승 행통훈대부 중추원 의관 경주 이우영 지려 대한 광무 9년 3월 1일 명정’이라고 쓰여 있고, 그곳에는 1929년에 전우가 짓고, 황기연이 쓴 정려기가 있다. 그리고 정려기의 뒷면에는 고덕면의 죽당 전용국 선생이 번역한 한글 정려기가 있으니 아래와 같다.

정려기

효자 의관 이공 이우영은 초려 문현공의 후손이다.

태어나서부터 천성이 특이하여 어려서부터 마음이 가는 곳에 봉양하는 봉향하는 효를 극진히 하였다. 모친께서 병환이 있어 오래도록 치유되지 않아 의술을 정밀하게 연구하여 병을 쾌차하게 하였다. 그 후 상을 당하여서는 예대로 하였으며 탈상 후에도 항상 소식을 하였고 모친의 성품이 검소하였기 때문에 술과 고기를 즐겨 먹지 않았고 혹 맛있는 음식을 만나면 차마 수저를 대지 못하였다. 부친께서 억지로 조금이라도 먹어 보라 하여도 역시 달게 먹지 못하였다. 부친께서 큰 병환 중에 있을 때 약과 음식에 삼가 열심히 부지하는 중 여러 달 동안 눈을 붙여 잠을 이루지 않았다. 그리고 하늘에 빌어 명을 청하였고 단지주혈하여 수일을 회생하게 하였다. 부친 상사를 당하여서는 예제에 정성과 삼감을 다 하였고 애통하고 호곡하면서 상복을 잠시도 풀지 않았다.

공의 평생 행복한 우애와 돈목 신의가 아님이 없었으며 갑오년 동학란을 당하여서는 기지를 발휘하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불시로 음식을 마련하여 풍성하게

예우하였더니 동학군이 이에 감동하여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

그 후 군수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입안하여 호세와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공이 죽은 후 여러 고을의 선비들이 조정에 장계를 올려 비서원승 벼슬을 증직하고 아울러 효자 정려의 은전을 받게 하였다. 공의 족손 이종록이 나의 문하에 수학하였는데 종록이 집이 가난함을 궁휼히 여겨 학비를 전담하여 여러 해를 보내주었다. 나도 매번 그의 행동은 아무나 미칠 수 없다고 감탄하였다. 공의 아들 이규승이 나를 찾아와 정려문의 기문을 청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원나라 때 주진형이란 사람은 어머니의 병환에 의술을 익히기 위하여 명성 있는 의사를 찾아 10여 번을 오가며 비바람을 피하지 않고 문전에서 떠나지 않는 정성을 보여 드디어 비방을 얻어 갖고 와서 어머님 병환을 치료하였고 한나라 때 강시란 사람은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님을 섬겼는데 그때 천하의 난을 만났었다. 적들도 강시의 효성에 감복하여 효자의 집에는 절대 침범하지 말라고 하여 무사하였다.

공의 아름다운 행실과 실제적인 덕은 비록 옛사람이 이 세상에서 다시 일어난다 해도 이보다 더하지는 못할 것이니 마땅히 국사에 올려야 할 것이며 한 군내에 큰 별이 될 것이다.

이후 영효 정려각은 2006년 8월 중·개수되었다. 고덕면 장사리(상장리) 197번지에 있었는데 2007년 상장리 산43-4번지로 이전하였다.



<이우영의 후손 이건희 축하 플래카드>

필자는 평일 7시면 고덕면 용리에 사시는 아버지를 고덕면 내의 한 영철외과의원 앞으로 모신다. 그러고는 주차장에서 1시간 40분을 기다렸다가 9시경 다시 집으로 모신다.

내가 아버지를 기다리는 곳은 고덕 농업협동조합 주차장이다. 그런데 옆 상가 도로변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고덕농협 조합장과 예산군의회 의장을 지낸 이만우 손자 이건희의 스텐퍼드대학 로스쿨 합격을 축하한다는 플래카드다. 이만우와 이건희는 이 우영의 후손이다. 그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보낸다.

참고문헌(자료)

- 1.『고덕면지』, 2006
- 2.『예산의 맥』, 재단법인 오성장학회, 1991
- 3.『디지털예산문화대전』
- 4.『예산동학혁명사』, 박성묵 예산지역사연구소장, 도서출판 화담, 2007

□ 김창조 金昌祚

사람은 태어나면 고유한 성과 이름을 가진다. 성姓이란 한 조상에서 태어난 자손들의 칭호로 같은 혈통을 잇는 격례붙이를 나타낸다.

고대국가에서는 일반백성은 성이 없었다. 성과 본관이 보편화되어 사용한 시기는 고려 시대 이후이며, 성씨는 천자나 왕이 공신에게 내려 주었다. 이런 까닭에 그 옛날의 성은 귀족 신분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김해김씨는 가락국의 수로왕이 시조다. 수로왕은 서기 42년 김해 구지봉에서 탄생하여 가락국을 세우고 김해김씨, 김해허씨, 양천이씨의 비조가 되었다.

효자 김창조의 정려각이 있는 고덕면 몽곡1리에 도착했다. 필자의 아버지는 고덕면과 봉산면 김해김씨 종친회장을 수십 년째 하고 있다. 몽곡1리 마을회관을 지나다 보니 김현봉 어르신이 마을주민 2명과 정자에 앉아 있었다. 그분에게 찾아온 까닭을 설명하니 선뜻 정려각으로 안내했다. 김현봉 어르신은 예산에서 정미소도 운영한 분이고 충남도의회 의원 선거에도 출마했던 분이다.

김창조의 정려각은 필자의 아버지가 고덕면 김해김씨 종친회장을 하실 때 총무로 도와준 김성배 어르신의 집 위쪽에 있었다. 김현봉 어르신과 김성배 어르신은 이웃 간이다. 이곳 몽곡리 일대는 김해김씨 집성촌으로 매우 큰 동네였지만 현재는 친인척이 많이 떠나고 일부만 남았다.



〈효자 김창조의 정려각〉

몽곡리의 효자 김창조도 본관이 김해金海다. 초명은 제명, 자는 덕우이다. 부모가 병이 나자 뜻을 맛보아 차도를 살피고,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고기를 잡아 봉양했다. 이에 부모의 병이 완쾌되었다. 이후 부모에게 또 병이 나자 약을 구하기 위해 한밤중에도 험한 산길을 넘을 때가 많았다. 부모가 등창이 났을 때는 입으로 등창을 빨아내고, 등창이 났자 황달에 좋다는 짐승의 간을 구해 먹였다. 병이 심해졌을 때는 손가락을 베어 그 피를 입에 흘려 넣었다. 부모가 돌아간 후에는 3년 동안 무덤 옆에서 시묘하였다. 조정에서는 그의 효행을 인정하고 1881년 효자 정려문을 하사하여 그 뜻을 널리 알렸다.『조선환여승람』효자조에 김창조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의 정려각은 일제 강점기인 1927년에 건립되었다. 정려의 외부 중앙 상단에는 1947년 쓴 행적기가 있다. 내부 중앙 상단에는 ‘효자 통훈대부 승문원참교 김창조 지문 공부자탄강 이천사백칠십팔 년 정묘 사월 일 립’, ‘효자 통훈대부 승문원참교 김창조의 정려문(공자탄생 2478년 정묘년 4월에 건립한다)’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조선 시대 효행을 중시하던 모습은 일제 강점기에도 이어졌음을 그곳에서 엿볼 수 있었다. 2009년에는 예산군에서 김창조의 정려각을 보수하였으며, 주변 입구에는 나무가 소담스럽게 자라고 있다. 오늘 아침엔 홍성군 홍북면 산수리에서 딸기를 따왔다. 그 딸기를 김현봉 부부에게 나누어 드리고는 곧바로 일어섰다. 다른 곳에 있는 정려각을 탐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주유 불이 깜박거렸다. 서둘러 발길을 돌리는 필자의 부부 사이로 끝물 딸기의 향기가 더 진하게 차 안을 진동시켰다.

참고문헌(자료)

- 1.『조선환여승람』
- 2.『예산군의 효행과 우애』, 예산군(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 역사 문화연구소), 2002
- 3.『고덕면지』, 2006

□ 김갑 金韜

신암면은 인연이 깊은 곳이다. 2005년 7월, 6급으로 승진하여 발령받은 면이다. 2011년 또다시 신암면에서 산업팀장으로 근무했다. 같은 면에서 두 번이나 팀장으로 발령 나고 근무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두 번째 신암면에 오니 어느 이장이 ‘또 신암면에 왔나?’라고 했다. 필자와 친했기 때문에 편하게 던진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좋지 않았다.

지난 일요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김구의 손자 김갑의 정문을 탐방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아내와 정문을 찾아다닌다. 흔쾌히 동행하는 아내가 늘 고맙다.

정려각을 탐방할 때 여유가 있으면 정려문의 주인공의 후손과 마을주민을 만나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으며 도움을 받는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실망한다. 대부분 주민은 효자문에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한다. 조선 시대 마을에 정문이 세워지면 친족은 물론 마을의 경사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효 사상이 점점 쇠락해 가고 있다. 효는 인본의 근본인데 효에 대한 인식은 점차 식어가고 있다. 그중 다행스러운 일은 ‘예산군 광산김씨 종친회’가 자암 김구 선생의 선양사업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5년 5월엔 제13회 조선 전기 4대 명필 자암 김구의 ‘전국서예대전’이 열린다. 예산군 예술문화원 주관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명필 김구의 인수체와 그의 손자 김갑의 효행은 전국에 알려져 있다.

자암 김구(金鍾, 1488~1534)는 중종 2년에 생원과와 진사과에 장원급제하고 대과에 나아가 벼슬길에 올랐지만,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남해로 귀양을 갔다. 그는 15년 귀양살 이를 하다가 예산 신암면으로 돌아왔을 때는 부모가 돌아가신 뒤였다. 그는 부모 산소에 가서 통곡하며 머물렀다. 그의 눈물에 무덤 풀이 말라 죽었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 그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병에 걸려 죽었다.

김갑 金韜의 본관은 광산이고, 자는 군언이다. 중종 때 이조 좌랑, 동부승지, 좌승지 등

을 지낸 자암 김구의 손자다. 김갑은 1550년경 태어난 인물로 임진왜란 당시 어머니 진주 이씨를 모시고 피난을 가던 중 양주 지역에 이르러 왜적을 만났다. 김갑은 어머니를 감싸며 자신을 대신 죽이라고 하였는데 왜적은 모자를 모두 살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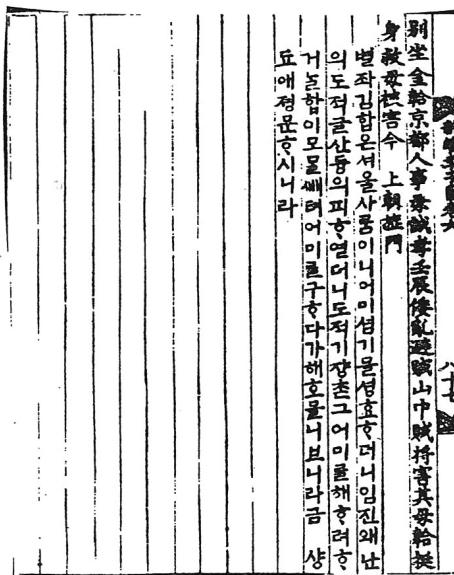
그의 행적은 ‘어머니를 구하다.’라고 하여 『신속효자도』에 실렸다. ‘신속효자도’에는 성명이 ‘김합’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김갑’으로 쓴다. 정려 명정을 받은 연도는 가경 21년 병자 10월로 되어 있다. 가경 원년은 몽골의 제7대 황제의 원년인 1796년이다. 이를 지금 연호로 환산하면 1816년(순조 16)이다. 『신속효자도』의 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합(김갑)이 어머니를 구하다. 별좌 김합은 서울 사람이다. 어미 섬김을 정성과 효도로 하더니, 임진왜란에 왜적을 산중으로 피하였더라. 왜적이 장차 그 어미를 해치고자 하거늘 김합이 몸을 던져 어미를 구하다가 해함을 당하였더라.

금상 때 정문을 내렸다. (金鈴救母. 別坐金鈴京都人 事母誠孝 壬辰倭亂避賊山中 賊將害其母 鈴挺身 救母被害 今上朝 旌門)



〈신속효자도 - 김합(김갑)〉



〈신속효자도 - 김합(김갑)〉

김갑은 이러한 효행으로 사헌부 정5품 관직에 추증되었고, 1816년(순조 16) 명정을 받아 정려각이 건립되었다. 정문의 내부 중앙 상단부에는 홍살문 형식의 판에 글자를 새긴 현판이 걸려 있고, ‘효자 행통선랑예빈사별제 증통덕랑사헌부지평 김공갑지려 가경 이십일년병자십월 일’이라 적혀 있으니, 그가 죽은 뒤 250년이 지나 정려각이 건립된 것이다.

김갑의 효 정려각은 상태는 양호했다. 비닐하우스에 가려 도로에서는 정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어렵게 도착하여 주변을 살펴보니 큰 철탑이 세워져 고압선이 위로 흐른다. 무형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곳을 찾는 사람은 드물다. 정려각 뒤편에 김구의 묘역과 유적비가 잘 조성되어 있었고, 정려각 주변에는 큰 소나무가 있었다.

그의 조부 자암 김구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덕암골 덕암서원에 배향되었다. 이곳에서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가 귀향하여 사망한 자암 김구의 신주



〈효자 김갑의 정려각〉

를 모신 것이다. 임금이 손수 지어 편액을 내렸으니 예산군의 유일한 사액서원이다. 1871년 서원이 당파의 뿌리라는 이유로 홍선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려 덕암서원은 헐리고 지금은 터만 남았다. 덕암서원의 현판은 김구의 후손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덕암서원이 복원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자료)

1. 『신암면지』, 2008
2. 『디지털예산문화대전』
3. 『예산의 성씨 1』, 곽호제, 예산문화원, 2023

□ 현진목 玄眞默

예산군 신암면 별2리 축산업을 하는 이병환 씨에게 전화하여 조선 시대 효행으로 명정을 받는 현진목의 후손이 살고 있는 집을 물었다. 그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 현씨 성을 가진 이 하나가 신암면 별리 안뜸 마을에 살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그곳은 별리 마을회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다.

필자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같은 반 짹꿍이던 친구 최동선과 신암면으로 향했다. 신암면은 내가 신암면사무소에서 팀장으로 2번 근무하여 대략 지리를 파악하고 있다.

마을회관에서 우회전하여 고영도 전 신암농협 조합장 댁으로 갔다. 고영도 님은 필자의 고등학교 친구 고영규의 형이다. 찾아가니 주인이 없었다. 다시 이동하여 옆집 아주머니에게 ‘혹시 현진목 정려문을 보관하는 집을 알고 있나요?’ 하고 물으니, ‘우리 집인데요.’라고 답했다.

이리하여 현진목의 효자 후손인 현종무·박영애 부부 만났고, 그동안의 정려문과 현판 보관 등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려문 교지는 서울에 거주하는 후손



〈현진목 후손의 살고 있는 주택과 정려문 현판〉

현종의(종우)이 보관 중이라는 말만 들었고 실제 보지는 못했고, 현진목의 자세한 행적을 알 수 없었다. 필자는 방문 이유를 설명한 뒤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판을 밖으로 내어 사진을 찍었다.

현판에는 ‘孝子學生玄鎮默之門 上之二十四年丁亥四月 日 銘旌(효자학생현진목지문. 상지 이십사년정해사월 일 명정)’이라고 각서 되어 있었다.

충남 예산군 신암면 별리에 살았던 현진목玄真默은 1887년(고종 24) 효행으로 명정을 받았다. 그의 명정 현판은 그동안 안채의 방에 걸려 있었는데, 후손 현쾌성(창재)이 현판을 관리해 오다가 집을 신축한 후에는 현재 현종무·박영애 부부가 관리하고 있다.

참고문헌(자료)

『신암면지』, 2008

4

『조선왕조실록』 등에 수록된 효행인

4.

『조선왕조실록』 등에 수록된 효행인



1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수록된 효자

조선은 통치이념으로 유교를 택하고 충·효 사상을 근간으로 백성을 교화시키려 노력했다. 1434년(세종 16) 집현전에서는 충효 사상 고취와 전파를 목적으로 『삼강행실도』, 『속삼강행실도』, 『이륜행실도』를 편찬했다.

1617년(광해군 9)에 광해군의 주도로 편찬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는 목판본으로 총 18권 18책의 방대하게 문헌이다. 수록된 효자와 충신, 열녀의 인원은 1,586명이며, 그 가운데 충신은 7백 건 정도이다. 효자는 742건이며 충청도 79건, 예산군은 효자 8명, 열녀 3명이 수록되었다. 수록된 예산인은 대홍현 고려인 이성만(成萬守墳), 예산현 유학자 박충(朴忠廬墓), 예산현 향리 방맹(方萌廬墓), 예산 현 봉사 이문경(文卿居廬), 대홍현 유학자 박원충(元忠孝友), 덕산현 사노 윤희, 풍이 이자효성(二子誠孝), 덕산현 서인 백춘복(春福斷指)이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편찬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서문, 전문, 본문에 효자, 충신, 열녀의 사례를 수록하였다. 효자편 8권(제1권~제8권) 8책, 충신편 1권(제9권) 1책, 열녀편 8권(제10권~제17권) 8책, 부록 1권(제18권) 1책이다. 부록 1권은 이전의 『삼강행실도』와 『속삼강행실도』에 나온 인물을 뽑아 편집했다. 이전 것을 다시 실은 것은 행실도의 편찬 전통을 계승하려 한 것으로, 내용과 그림을 함께 배치했다. 판화

에는 여러 장면이 함께 그려지기도 했다.

『삼강행실도』에는 중국 고대 이래의 충신, 효자, 열녀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는 임진왜란 무렵 단기간에 모아 편찬된 것으로 각 인물의 이야기가 단선적이다.

효자도에는 산수 배경이 많이 등장한다. 대부분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여묘살이를 하는 장면이 나오면 묘소가 있는 산이 표현되어 있다. 예산군의 일례로 ‘방맹여묘’에서 는 산에 여막을 짓고 절을 하는 모습이 있고, 그 앞에서 정려문을 그림으로 나타냈다. 이를 통해 당대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여성들의 정절에 대해 지나치리만큼 강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세종한글고전 역주 신속 삼강행실도’는 효자, 열녀, 형제간의 우애를 담은 귀중한 고문서다. 수록된 예산의 효자는 8명으로 방맹, 이성만·이순 형제, 윤희·풍이, 이문경, 박충, 박원충, 김갑, 백춘복이다. 이 가운데 다섯의 행적은 나타나지 않고, 셋의 행적만 효자도로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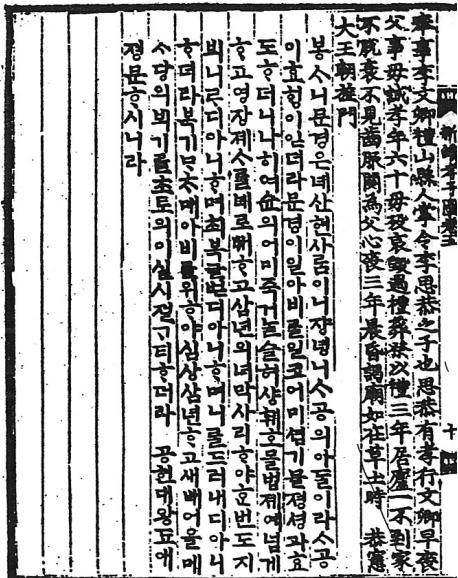
□ 이문경이 여막에서 살다(文卿居廬)

봉사 이문경은 예산현 사람으로 장령 이사공의 아들이다. 이사공이 효행이 있었다. 이문경이 일찍이 아비를 잃고 어미 섭김을 정성과 효도로 하더니, 나이 예순의 어미가 돌아가거늘 슬퍼 애통함을 범도에 넘치게 하고, 장례와 제사를 예로써 치렀더라. 삼년 동안 여막살이하여 한 번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상복을 벗지 않으며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 삼년상을 마쳤으되 아비를 위하여 마음으로 근신하는 심상을 삼년 동안 하고, 새벽과 저녁에 사당에 들어가 뵙기를 상중^{喪中} 때처럼 하였더라. 공현 대왕 명종 때 정문을 내렸다.

文卿居廬。奉事李文卿禮山縣人。掌令李思恭之子也。思恭有孝行。文卿早喪父。事母誠孝。年六十。母歿哀毀過禮。葬祭以禮三年。居廬一不到家。不脫衰不見齒服。闋爲父心喪。三年晨昏謁廟。如在草土時。恭憲大王朝旋門。



〈신속효자도〉



〈신속효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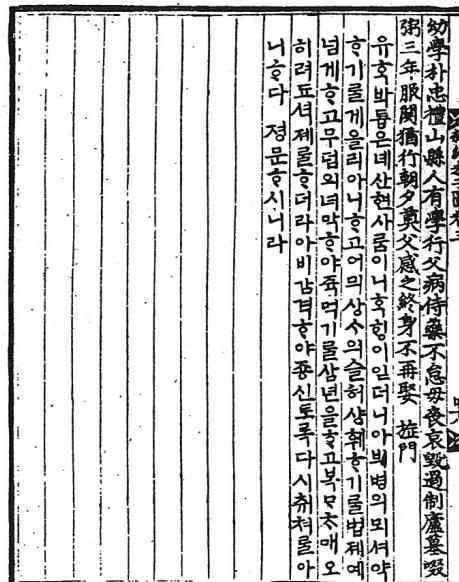
□ 박충이 여묘를 지키다(朴忠廬墓)

유학 박충은 예산현 사람이다. 학문과 행실이 반듯하더니 아비 병을 돌보매 약 마련하기에 게을리하지 않았고, 어미 상을 당하여 슬퍼함이 지나쳐 몸을 상할 정도로 법제에 넘치게 하고, 무덤에 시묘하여 죽 먹기를 삼 년 동안 하고, 복을 마치매 오히려 조석 제사를 하였다. 아비 감격하여 종신하도록 다시 아내를 들이지 않았다. 정문을 세웠다.

朴忠廬墓. 幼學朴忠禮山縣人有學行父病侍藥不怠母喪哀毀過制廬墓啜粥三年服闋猶行朝夕奠父感之終身不再娶 旌門



〈신속효자도〉



〈신속효자도〉

□ 박원충이 효성스럽고 우애하다(元忠孝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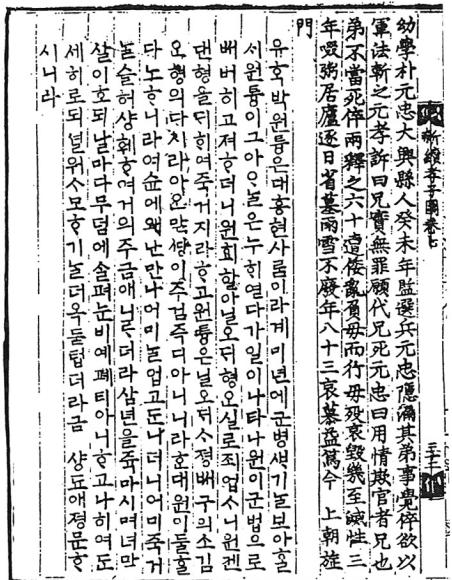
유학 박원충은 대홍현 사람이다. 계미년에 군병 뽑기를 감독할 때 원충이 그 아우를 은근히 빼서 숨겼다가 일이 드러나 관원이 군법으로써 베고자 하였다. 박원효가 하소연하기를, 형은 사실상 죄가 없으니, 원하건대 형을 대신하여 죽고 싶습니다. 하였다. 원충이 말하기를, 사사로운 정으로 관원을 속임은 형의 탓이라 아우는 마땅히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원이 둘을 다 놓아주었다. 예순에 왜란을 맞아 어미를 업고 다니더니 어미 돌아가매 너무 슬퍼 애통하여 죽음에 이르렀다. 삼 년 동안 죽을 마시며 시묘 되 날마다 무덤에 살피기를 눈비가 와도 하였다. 나이 여든셋이 되어서 서러워 슬퍼하기를 더욱 두텁게 하였다. 금상 때 정문을 내렸다.

元忠孝友。幼學朴元忠大興縣人癸未年監選兵元忠隱漏其弟事覺倅欲以軍法斬之元孝訴曰兄實無罪願代兄死元忠曰用情欺官者兄也弟不當死倅兩釋之六十遭

倭亂負母而行母歿哀毀幾至滅性三年啜粥居廬逐日省墓雨雪不廢年八十三哀慕
益篤今上朝旌門



〈신속효자도〉



〈신속효자도〉

위 ‘신속효자도’ 셋을 살펴보면 모두 여막을 설치하고 절하는 모습이다. 이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속의 효자도는 부모를 위해서 형제, 가족들이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람을 본보기로 하여 유교의 덕목을 전파하는 데 있었다. 예산군에서는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수록된 예산 효자도를 동판에 부조하여 제작하면 어떨까? 예산군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나눠주면 색다르고 귀한 기념품이 되지 않을까 싶다.

2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수록된 열녀

충·효·열을 중시한 유교문화의 조선 시대에 여성들은 남편이 죽으면 평생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흔히 ‘열녀’로 일컬어지는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오랜 세월 걸쳐 고난을 짚어지고 살았다.

1477년(성종 8) 7월부터 실시한 ‘과부재가 금지법’은 여성을 구속하는 죄였다. 귀하고 천하고 상·하의 계급을 막론하고 남편을 따라 목숨을 끊거나 수절하면 정려문을 내려 주었지만, 여성들에게 그것은 수절과 삼종지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의미였다.

재혼은 금지, 남편이 사망하면 조선의 여성은 내리막길 인생이다. 여필종부는 공평한 도리가 아니었지만 재혼은 용납되지 않았고, 죽은 남편을 따르거나 오래도록 시부모를 봉양하며 살아야 했다. 재혼은 손가락질의 대상이며, 목숨보다 정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하여 조선의 여성들은 자신이 아닌 가족과 가문을 위해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오랜 세월 힘든 고초의 나날의 보내며 정조를 지킨 여성들에게는 나라에서는 ‘열녀’라는 호칭을 주고 ‘열녀문’을 내렸다. 예산의 열녀 정려각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 삽교읍 상하남길의 ‘김재양의 부인 철원임씨’ 정려각을 비롯하여 총 일곱이다. 그중 영조의 차녀이자 조선 왕실 내 유일한 열녀로 꼽히는 ‘화순옹주 열려문 홍문’은 신암면 추사고택에서 관리하고 있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실린 ‘열녀도’는 과부가 된 여성의 수절하고, 목숨을 바쳐 정조를 지키며 부녀자의 도리를 다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수록된 예산의 열녀는 3명으로, 예산현 조선 호장 장중연 자녀 매읍덕(每邑德斷髮), 대홍현 고려 박근의 부인 꽈씨(郭氏廬墓), 대홍현 조선 내노 인홍 부인의 사비 춘덕(春德守節)이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아픈 사연을 지닌 여성이다.

□ 꽈씨가 여묘살이를 하다(郭氏廬墓)

고려시대는 조선시대보다 정려문의 수는 극소수다. 고려 시대는 불교를 숭상하던 시대였고, 조선 초기 유교를 국시로 삼아 선대의 효열자를 일부 찾아 정문을 내린 까닭이다. 고려 시대 정려문이 세워진 예산의 인물은 대홍의 이성만 형제와 현풍곽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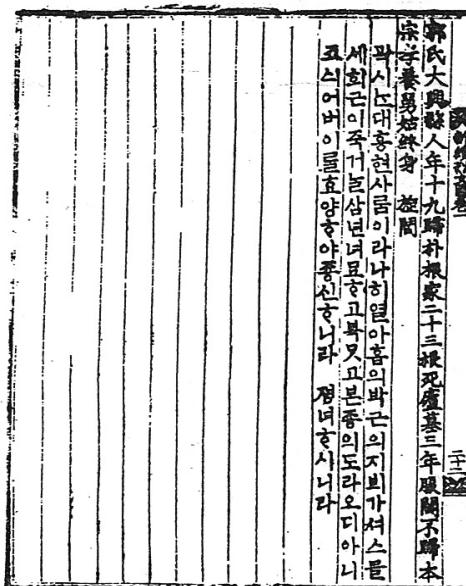
현풍곽씨는 고려 시대 열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색다르다. 광시면 은사길 24에는 ‘열녀 현풍곽씨 지려’라 새겨져 있는 현풍곽씨의 비가 그의 정려각 안에 있다. 아래는 절개를 지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수록된 현풍 곽씨에 관한 내용이다.

“곽씨는 대홍현 사람이다. 나이 열아홉에 박근의 집에 시집가서 스물셋에 남편이 죽거늘, 3년여 여묘살이하고 상복을 마치고도 본종(친정)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효도하고 봉양하여 종신하더라. 이에 정려를 내렸다.”

“郭氏廬墓. 郭氏大興縣人 年十九歸朴根家二十三根死 廬墓三年服闋不歸本宗
孝養舅姑終身 旌閭。”



〈신속열녀도〉



〈신속열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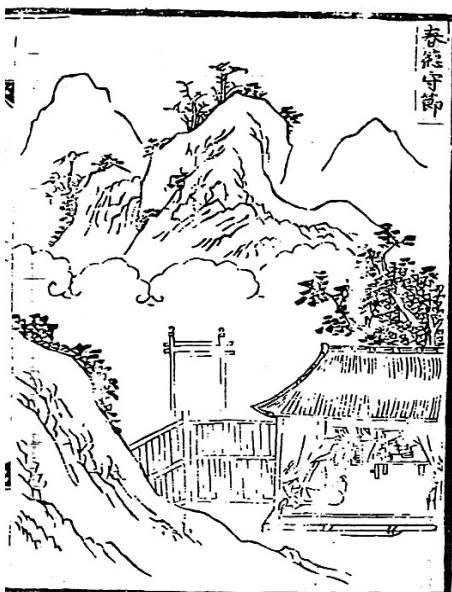
□ 춘덕이 절개를 지키다(春德守節)

우리나라의 전통적 신분사회에서 개인에게 예속되어 대대로 전하여 내려오면서 사역했던 최하층 신분인 춘덕은 대홍현 여성이다. 그녀는 남편이 30세에 사망하자 15년 동안 상복을 입고 제사를 지극히 모셔 정문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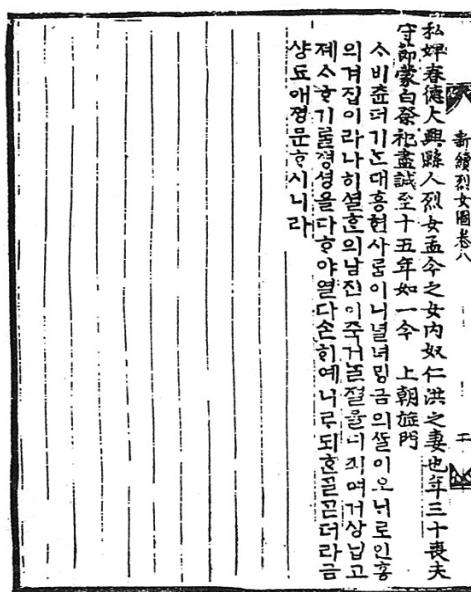
양반과 비교하여 사비였으므로 정려문을 세우는 일과 보존하기에는 벅찬 신분 계층이었다. 이에 정려문이 소실되어 현존하지 않는다. 사비인 춘덕이 절개를 드높이는 열려문이 남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비 춘덕은 대홍현 사람이니, 열녀 맹금의 딸이요, 집안의 종인 인홍의 아내다. 나이 서른에 남편이 죽거늘 정절을 지키어 상복을 입고 제사 지내기를 정성 을 다하여, 열다섯 해에 이르되 한결같았다. 지금의 조정에서 정문을 세웠다.”

德守節. 私婢春德大興縣人 烈女孟今之女 內奴仁洪之妻也 年三十喪夫守節 蒙
白祭祀盡誠 至十五年入一 今上朝旌門.



〈신속열녀도〉



〈신속열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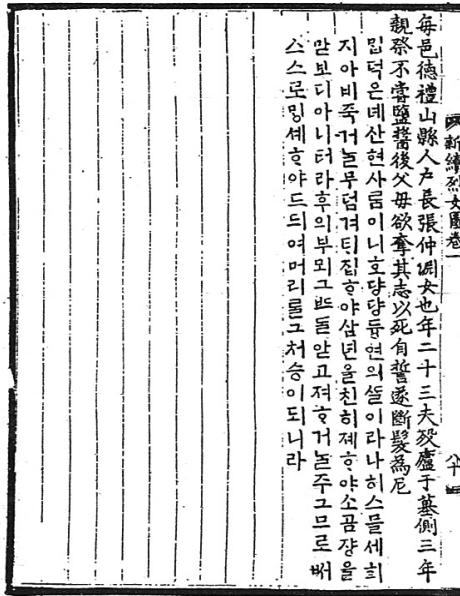
□ 매읍덕이 머리카락을 자르다(每邑德斷髮)

“매읍덕은 예산현 사람이니, 호장 장중연의 딸이라. 나이 스물셋에 지아비가 죽거늘 무덤 곁에 집을 만들어, 삼 년을 친히 제사하여 소금과장을 맛보지 아니 하더라. 후에 부모가 그 뜻을 빼앗고자 하거늘 죽음으로써 스스로 맹세하여, 드디어 머리를 끊어 중이 되었다.”

每邑德斷髮。每邑德禮山縣人。戶長張仲淵女也。年二十三夫歿。廬于墓側三年。親祭不嘗監醬。後父母欲奪其止。以死自誓。遂斷髮爲尼。



〈신속열녀도〉



〈신속열녀도〉

고려 시대 여성 한 분과 조선 시대 절개를 지킨 두 분 여성의 사연을 살펴보았다. 세 분 모두 남편이 죽어 힘들게 살았던 여인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출가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며, 늙어서는 자식을 따르는 삼종지도는 조선 시대 여인에게 지워진 엄중한 도덕률이었다. 과거든 현대든 이런 법도는 비인간적이다.

3 「조선왕조실록」에 등재된 효행자

『조선왕조실록』은 1392년 태조 때부터 1863년 철종까지 25대에 걸친 472년간 조선 왕조의 정치, 사화, 문학, 천재지변, 효 등 다양하게 수록한 역사서이다. 그날 날씨와 같은 사소한 것까지 기록했다. 임금이 승하하면 실록편찬을 위한 임시관청인 ‘실록청’을 만들었다. 이곳에서 사초, 승정원일기, 시정기, 상소문, 개인 문집 등과 같은 여러 자료를 모았다. 그것은 임금조차 볼 수 없는 비밀사항으로 특별히 관리되었다. 총 2,077책으로 이루어진 엄청남 양으로 역사의 기록물이며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일반적인 나라의 경우 왕실에 일어난 일이나 정치적 내용만 기록한 것에 비해, 『조선왕조실록』은 국민의 다양한 삶까지 반영하고 기록하였다. 더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왕조 시기의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어, 1997년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되었다.

2022년 예산문화원에서는 『조선왕조실록 속에 예산』이란 책을 발간하였는데, 이를 통해 예산의 역사와 인물, 사건, 효 관련 등의 기록을 살필 수 있다. 그 내용에 있는 몇몇 예산의 효행 인물을 여기에 소개한다.

□ 1428년(세종 10) 10월 28일, 예조에서 대홍 김순을 찾아내어 아름

… 충청도 대홍사람 학생 김순은 전 사정 김가외의 형제입니다. 부모의 상사를 당하자, 그해에 마침 큰 기근이 들었는데, 순은 모친의 분묘를 지키고 가와는 부친의 분묘를 지키면서, 신을 삼아 조를 바꾸어서 몸소 불을 때어 조석을 받들면서 3년을 마쳤사옵니다. … 하니, 이를 명하여 이조에 내리게 하였다.

□ 1547년(명종 2년) 12월 30일, 충청도 덕산 교생 김응신의 정문을 세움

충청도 덕산에 사는 교생 김응신은 어려서부터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였다. 갑진년

봄에 여역이 크게 돌았다. 김응신 모자가 먼저 그 병에 걸렸는데 김응신은 병을 무릅쓰고 어미의 병을 간호하면서 온갖 약 처방을 두루 갖추어 쓰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다가 어미가 죽자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 슬퍼하는 것이 예에 지나칠 정도였다. 빈소를 산에다 옮기고 그 옆에 엎드려 아침저녁으로 의식을 갖춘 제사와 의식을 갖추지 아니한 제사를 올리고 몸소 끓여 먹었는데, 항상 물길이 멀어 왕래하기가 어려운 것을 걱정하였다. 하루는 꿈에 머리가 센 늙은이가 나타나 여막 옆을 가리키면서 ‘이곳을 몇 자만 파면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하였다. 이튿날 이웃 사람들에게 말하니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곳을 파보았더니 물이 갑자기 솟아올라 우물에 가득 찼는데 죽은 지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를 지낸 후에는 말랐다. 그의 아비가 병이 들어 위독하게 되자 김응신은 밤낮으로 곁을 뜨지 않았고 향불을 피우고 하늘에 고하여 자기가 대신 죽기를 원했는데 얼마 후에 아비의 병이 나으니, 사람들이 효성에 감동한 것이라 하였다. 명하여 정문을 세우고 요역과 전세 이외 잡부금을 면제하였다.

□ 1454년(단종 2년) 8월 17일, 예산현 이개우의 효행을 기록함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따라 아뢰기를, … 예산현의 이개우와 … 김해부의 송윤화 등은 그 어버이가 못된 병에 걸리니 모두 손가락을 잘라 약을 지어 먹여서, 병이 모두 나았습니다.

□ 1514년(중종 9) 5월 5일, 충청도 관찰사가 장계하여 진사 이사겸의 효행을 아름

“예산 사는 진사 이사겸은 효성이 천성에서 나왔고, 몸가짐 또한 삼가며 산업을 일삼지 않아서 한 고을이 착한 선비라고 일컬으며, … 고을 사람들이 추앙하고 심복합니다.”

□ 1529년(중종 24) 6월 19일, 충청도 덕산의 보덕 등을 복호함

“… 덕산에 사는 보덕 등은 남편이 죽은 뒤에 상례는 정성을 다해 극진히 했고, 오래 되어도 변함이 없었다. 이들에게는 복호 시키고 상품을 내리게 하였다.”

□ 1535년(중종 30년) 3월 24일, 관찰사가 효행이 뛰어난 대홍의 김영수의 처 신씨의 포상을 건의함

“대홍에 사는 김영수의 처 신씨는 남편이 죽은 뒤 상장과 제사를 지성으로 받들어 시종 한결같이 하였고 예산 향리 방맹은 효행이 특이하니, 마땅히 포상하여 야박한 풍속을 격려해야 합니다. 즉시 본읍에 명하여 각각 쌀과 포목을 내리고 복호하게 하소서.”

□ 1665년(현종 6) 5월 5일, 효자 박충의 손자인 박효일의 신역을 면제함

“예산의 기보 박효일의 신역을 면제하였다. 효일은 효자 박충의 손자이다. 충은 아우인 박양과 함께 효성과 우애로 고을에 알려져 선조조에 정려문을 내려 주었으며 그의 자손에 대해서는 군역에 충당하지 말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때 효일이 군부에 편입되자, 감사 김시진이 그 실상을 아뢰고 수교에 따라 그의 신역을 면제해 줄 것을 청하니, 따를 것이다.”

□ 1739년(영조 15) 3월 18일, 김정윤이 대홍의 열녀 우씨 선행을 상소함

“공홍도(충청도) 대홍군에 열녀 우씨禹氏가 있었는데, 곧 박가의 며느리입니다. 지아비를 잃고 과부로 사는데, 그 지아비의 종손이 짐승 짓을 하려고 협박까지 하였으나 끝내 굳이 거절하니 때려죽여 주검을 감추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아홉 달이 지난 뒤에 우씨의 친족이 비로써 주검을 찾고 관가에 고하였으나 원범은 달아나 버려 마침내 옥사를 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대홍이 오래 가물어서 군수 이도선이 글을 지어 그 무

덤에 제사하였더니 그날로 큰비가 내렸으므로, 호서 사람들이 일컬으니, 마땅히 도신을 시켜 살펴서 원범을 잡게 하여 그 죄를 쾌히 바루고 우씨 선행을 칭찬하고 세상에 드러내어 널리 알려야 하겠습니다.”

□ 1795년(정조 19) 1월 7일, 예산현 이명준의 효행을 위유사 홍대협이 올린 서계와 별단

“신이 작년 11월 4일에 호서 44개 읍과 1개 진을 위유하라는 명을 삼가 받들고 연석에서 물러나 바로 그날 길에 올랐습니다. 먼저 천안, 직산 등의 고을부터 위유하고, 이어 우도 연읍에서 좌도 산읍으로 가서 위유하였는데 신이 지나간 고을은 3개 등급의 읍을 통틀어 계산하면 모두 31개 읍입니다.

… 그중 충신, 효자, 열녀를 포장하여 정려하기에 합당한 경우는 가장 드러나는 경우를 뽑아서, 상께서 재결하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예산현의 고사인 이명준은 고 응교 이도원의 아들로 그의 품행과 경학은 예전부터 사람의 칭송을 받았고, 또 가학인 경학으로 암행어사의 추천을 받은 적이 있으니 여기서 그가 평소 마음에 뜻한 바를 알 수 있습니다. 34년 전 왕세자의 상이 났을 때 7일간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곡을 하였고 심상을 다하여 초하루에는 사당을 참배하고 기신에는 망곡례를 행하였으며, 매번 이날이 되면 잔치에 가지 않고 술과 고기를 일절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벼려진 사람으로 자처하였습니다. 1770년에 질병으로 죽었는데 지금 20여 년이 흘러 세상 사람들에게 잊히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도내 10여 개 고을을 들렀는데 선비들이 이구동성으로 정장하였고 본현의 논보도 자세하였습니다. 실제 행적이 이처럼 탁월하고 여론도 이렇게 의견이 일치하니 칭찬하고 장려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 1796년(정조 20), 덕산의 효자 오명흡

“… 온양의 열녀 김막금은 모두 정려하고, … 덕산의 효자 오명흡은 음식물을 지급하

라고 명하였다. 온양의 임득대의 처 무녀 김막금은 아픈 남편을 위해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서 먹여 병세가 호전하여 조세·부역을 제하는 은전을 베풀었다. … 작년에 충청도 암행어사 정만석이 아뢴 내용에 … 덕산의 오명흡은 아비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이 오소리가 병에 이롭다고 알려 주는 꿈을 꾸고 퍼뜩 정신을 차리고 문을 나갔는데 정말 오소리를 얻고서 아비의 병이 나았습니다.”

□ 1831년(순조 31) 6월 21일, 덕산현 오명희의 효행

“… 덕산의 유학 안호원 등의 이 상언을 보니, 본 현의 고사인 오명희의 효행에 대해 정문을 내려 포상하는 은전을 청하는 일로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오명희와 그의 형 오명흡은 일찍부터 효성스럽고 우애하는 행실이 있어 오랫동안 태어나 사는 덕산현에서 칭송받았고 누차 많은 선비가 일제히 호소하여 포상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또 도신이 사실에 근거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였는데 형은 중직되고 아우는 여전히 포상이 없으니 공의가 똑같이 억울해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일체 중직해 표창하여 교육의 힘으로 풍습을 잘 교화하는 일을 세우는 것이 사의에 부합할 듯하나 은전에 관계된 일이니, 본조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임금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1867년(고종 4) 9월 5일, 덕산 조경희와 대홍 박진태 효행에 포양을 청하는 계

“이번에 받아들인 상언을 해조가 해당 도의 감사에게 관문으로 물어서 상세히 조사한 후에 보고하게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상언을 조사해 보니 … 공충도(충청도) 유학 김학균 등은 덕산의 고 쳇사 조경희나 그 증손 고 학생 최수의 효행을 포양하기를 청하였고, … 감히 아뢸니다.”

□ 1871년(고종 8) 3월 3일, 대홍 이병주, 예산 양씨 열행과 관련한 계

“이번 임금 행차 때에 상언한 것을 해조에서 해당 각도의 도신에게 관문을 보내 상세히 조사하여 아뢰도록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에 각 사람이 상언한 것을 가져다 보니, …

충청도 유학 이운명 등이 대홍의 고 학생 이병주의 효행에 대해 올린 것 … 충청도 유학 신성조 등이 예산의 고 오위장 장향식의 처 양씨의 열행에 대해 올린 것 … 모두 포장하는 은전을 내려 달라고 청한 것들입니다. 삼가 하교대로 팔도와 개성부에 관문을 보내어 실적을 상세히 조사하여 하나하나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도록 한 다음 임금의 명령을 받아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감히 아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4

불효자로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광해군 치족

□ 흉년이 심한 덕산에서 장모 잔치를 연 감사 경죄

조선 15대 임금 광해군의 왕비는 문성군 부인 유씨이다. 유씨의 부친은 자신이다. 유희분의 딸과 결혼한 경죄가 충청도 관찰사로 재임하던 중 ‘흉년에 장모 잔치를 베푸는 죄를 지었으니 무거운 형벌을 주기 위해 문초를 하게 한다.’라는 1678년 『숙종실록』의 기사는 필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나는 여러 경로로 경죄의 집안과 외척을 알아보았다.

유자신의 아들은 희분, 희발, 희량이다. 경죄의 장인은 유희분이다. 경죄는 장모인 성씨(성질의 딸)를 위해서 1년 중에 두 번이나 장수를 축하는 생일잔치와 환갑잔치를 열었다. 그런데 하필 덕산에 가뭄이 심할 때여서 고을 사람에게 폐가 된 모양이다. 아래는 흉년에 장모 잔치를 연 감사 경죄를 추구하는 기록이다.

사간원에서 논하기를, 호서는 흉년이 특히 심하여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도, 감사 경죄慶倅는 그의 장모를 위하여 1년 안에 두 번이나 수연을 덕산 땅에서 베풀어 열 읍에 폐를 끼쳤으니, 청컨대 중률로 추고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명조실록』 - 한국고전번역원

□ 유희분의 비리를 기록한『명조실록』

유희분은 임진왜란 때 광해군을 호종했다. 이후 이이첨과 함께 소북파의 유연경을 탄핵하여 숙청했다. 대북의 거두 정인홍과 함께 요직에서 정권을 좌우한 인물이다. 인목대비 폐모론에도 앞장서서 그녀를 서궁으로 유폐시켰다. 이에 반대하는 유생을 대거 체포하여 투옥 유배시켰다. 하지만 그는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 참형에 처해졌다.

광해군의 외척 유씨 집안 사람들은 임금과 누이인 왕비를 믿고 비리를 저질렀다. 왕비 유씨의 동생 유희분은 천인 출신 김충배에게서 뇌물을 받고 벼슬을 제수할 정도로 정도를 벗어났다. 김충보가 각 관아에 들어가는 공물을 뺏은 후 얼마씩 김충보와 유희분이 나누었다. 이들은 왕실의 외척으로 상당한 비리와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비행에 대한 기록이 1553년(명종 8)『명조실록』에 실려 있다.

정원이 아뢰기를, ‘김충보(환관으로서 내수사의 공문을 가지고 경상도로 내려가서 민간에 폐단을 일으켰으므로 대간이 아뢰어 옥에 갇혀 있었음)에게 형문하지 말고 조율할 일로 전교 하셨습니다. 그러나 김충보는 민간에 폐단을 일으켜 절에 소속되어 있는 논과 밭을 경작하는 백성이라는 핑계로 민간의 전답과 우마를 빼앗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공사가 현재 형조에 있으니 추고가 끝난 뒤에 조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김충보가 제 마음대로 가서 폐단을 일으킨 것은 아니나 백성의 재물을 빼앗은 것은 충보가 스스로 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추고하게 하였으니, 그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충보는 형문하지 말고 조율하라.’ 하였다.

광해군 시기는 다른 시기보다 이어진 풍년으로 궁궐의 생활이 호화로웠는데, 손위 처남인 유희분의 비리가 매우 심했다.

1621년 9월 초순, 덕산에 사는 무남과 복기가 서울 부근의 한강 마포나루 일대에서 내수사의 제주 외 공물을 겁탈한 일은 외척 유희분 일가의 소행이거나 배후 세력인 것으로 보인다.

1621년(광해군 13) 9월 3일, 『광해군일기』의 기록은 이러하다.

“내수사의 제주 외공이 올라와 경장에 정박하였는데, 덕산에 사는 무남武男 · 복지福只 등이 겁탈해 갔다고 하니, 매우 놀랍다. 포도청이 단단하게 가두고 엄하게 국문하여 형법에 따라 죄를 정하도록 하는 한편, 겁탈해 간 공물들을 일일이 거둬들이라고 포도청에 전하라. 범죄인이 기미를 알고 도망가면 잡지 못할 것이니, 비록 재개하는 날이라 하더라도 종사관을 급히 폐초하여 보내도록 하라.”

경강에 도착한 내수사의 제주 외공선을 겁탈할 정도의 도적이라면 보통의 해적이 아니다. 세도가 강한 외척이나 정권 탈취를 도모하려는 세력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벌이지 못한다.

‘… 범죄인이 기미를 알고 도망가면 잡지 못할 것이니, 비록 재개하는 날이라 하더라도 종사관을 급히 폐초하여 보내도록 하라.’라고 왕이 포도청에 지시하였는데 ‘덕산에 살았던 무남과 복지를 잡았다’라는 기록은 없다. 아마도 못 잡은 것 같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하려면 큰 배후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광해군의 왕비 유씨의 외척인 유희분이 배후가 있었을 거란 의심이 든다.

선조 때부터 인조 때까지의 사실을 주로 세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따라 기록한 책인, 저자 미상인 『일사기문逸史記問』 내용을 소개하면 이러하다.

“광해군 역시 관직을 제수할 때 바치는 은이 많고 적음을 봐서 그 품계를 높이고 낮추었다. 또 인경궁 · 경덕궁을 짓기 위해 민가를 철거하여 담장을 넓히었고, 산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 거대한 뗏목이 강에 잇따랐다. 세금을 한정이 없이 징수하여 민력이 고갈되었고, 장정을 자주 징발하는 바람에 중들이 성안에 가득했다. 이때 터를 바치거나 돌을 바치거나 은을 바치거나 목재를 바치거나 혹 냇물을 막아 물을 가두거나 혹 솟을 태워 쇠를 불리거나 한 자들은 다 이마에 옥관자를 붙이는 반열에 서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이들을 가리켜 ‘오행당상’이라 불렀다. 이충은 여러 가지 채소를 헌납하여 호조 판서에 오르고, 한효순은 산 삼을 바치고 갑자기 정승이 되었다.

… 김충보는 초명이 김유영인데, 그는 최희남의 배반한 종으로 성병사의 계집 종 은정의 남편이다. 그는 유희분을 만나 각 집의 공물을 봉납하여 그 이익을 유희분과 나눠 먹었다. 유희분은 그 사람됨을 좋게 보고 그를 옥포만호의 벼슬에 천거하였는데, 일자무식이라 하여 순검사 권반에게 내침을 당하였다. 유희분은 은을 상납하게 하여 통정대부로 승진하고, 임금이 직접 천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장기현감 자리에 그를 임명했다. 몇 해 지나지 않아 다시 양산군수로 옮겨 조도사를 겸한 그는, 여러 읍을 순력하면서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아 궁궐 건축비로 보조하는 한편, 그 나머지는 유희분에게 바쳤다. 광해군은 뽑시기 빼하여 가선대부로 포상하였다.”

1623년 광해군은 재위 15년 1개월 만에 폐위된 후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태안으로 이배되었다. 그 후 다시 제주도에서 죽은 유씨를 그리워하다가 유배 18여 년 만인 67세가 되던 1641년 사망했다.

왕비 유씨는 명나라와 후금 사이의 중립 정책을 벗어나 대명 사대 정책을 광해군에게 추천하기도 했는데, 인조반정 이후 유배되었다가 1623년 51세로 생을 마감했다.

광해군의 장인인 유자신과 그의 아들 셋도 광해군 재위 시 인목대비 폐모론을 주도하는 대북파의 핵심 세력으로 정적 제거에 집착했다. 유자신과 그 일족은 조정을 이용하여 각종 비리로 부를 축적하던 중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참형당하거나 유배되었다.

외척 유씨 가문은 외척의 권세를 이용하여 악행과 비리로 부를 축적하다가 생을 처참하게 마감했다.

5 불효하고 부제한 자 엄히 다스린다고 보낸 전령

- 예산현감이 작성한 《오산문첩》

1758년 10월 18일, 한경은 예산현감에 제수됐다. 이후 4년 7개월 동안 예산현감직을 맡았다. 대개 현감의 재임 기간이 1~2년인 것이 비하여 한경은 오랜 기간을 예산현감으로 재임했는데, 재임 중 각종 공문서를 꼼꼼히 기록하여 남겼다.

《오산문첩》은 그가 기록한 문서집이다. 1758년(영조 34) 11월부터 1763년(영조 39) 5월 27일까지 한경이 필사하거나 작성한 기록인 이 문서집은 총 4종 6책이 전해진다. 원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다.

오산烏山은 예산의 옛 지명이다. 백제 때는 오산현이었다가 신라 때에는 고산孤山으로 고쳐져 임성군의 관할에 속한 고을이었다. 고려 태조 2년(918년)에 예산현이 되었고, 현종 9년(1018년)에는 천안부에 속하게 되어 감무가 파견되었다.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전국적인 지방 행정 개편이 있었던 1413년(태종 13)에 고려의 예대로 예산현으로 편성되어 현감이 파견되었다.

《오산문첩》 1책 서두에는 ‘예산현의 임지에 도착한 뒤 각 감영에 올리던 보고서를 베껴 쓴 것. 도임 초2일’이라 쓰여 있다. 한경이 예산에 부임한 날이 1758년 11월 2일이니, 한경이 부임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이 문서를 살피고 작성하는 일이었다.

한경은 예산현감으로 있으면서 여러 업무를 겸임했다. 인접 고을로는 대홍군과 평택현 등이 있었다. 한경은 대홍군을 겸임하면서 발생한 산송에 대해서 순영에게 논보하여 결정하고 조치했다. 한경이 수행했던 대홍군의 겸관 업무를 통해 보면, 그가 대홍군수를 겸하고 있을 때, 관찰사는 한경의 파직을 시도했다. 이때 한경은 신임 대홍군수가 부임할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관찰사에게 요청했다.

한경이 예산현감으로 부임한 후 백성에게 내린 첫 영은 금주에 관한 것이었다. 한경은 각 면에 전령을 내려 임금의 금주령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했다. 현감의 전령은 대개 환곡과 진휼, 조세 등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기우제, 농정, 금주령, 효행, 산림단속

등 백성 순화와 안정을 위한 것들이다.

이 책에는 왕자의 배우자를 고르기 위해 예산현 내를 조사하게 한 것, 읍지의 수정 과정과 지도를 감영의 화가에게 모사하게 한 것, 고을의 인장 자국을 바꾸는 과정, 미혼자에게 결혼할 자금을 도와준 것 등의 기록이 실려 있다. 그리고 예산현의 지역적 특징이 담긴 첨경으로 화순옹주의 제청전에 대한 것이 여러 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필자가 화순옹주 제청전을 조사하는 동안 많은 도움이 되었다.

1759년 1월 27일, <화순옹주 제청의 역사를 각 읍에 나누어 정하는 일>에 관하여 한 경 현감이 순영에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보면 제청 역사의 규모와 상황이 상세하게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인용하면 이러하다.

“예산에서 … 중앙 충계를 쌓을 진흙과 천장 등의 안쪽에 바르는 흙과 모래와 흙을 섞어서 바른 벽에 바를 진흙과 온돌을 까는 일의 조역과 외를 엮는데 쓰는 나뭇가지를 엮어 만드는 일과 기와를 덮을 때 진흙을 바르는 등의 일. 신창에서 … 중앙 충계를 쌓는 흙을 짊어져 나르는 일과 벽을 바를 때의 진흙과 경기도와 강원도에 있는 재목 42주를 산소로 끌어다 운반해 오는 일. 온양에서 … 기와 만드는 일과 방 사이에 흙을 보충하는 등의 일. 아산에서 … 온돌석 2백 80개를 돌을 떠내는 곳으로부터 배 만들었던 곳이나 매어뒀던 곳으로 끌어내리어 예산의 합산포까지 갖고 와서 산소에 운반해 오는 일. 천안에서 … 합산포에 있는 대석 1백 19개를 산소까지 끌어오는 일. 덕산에서 … 중앙 충계를 쌓는 돌을 산소까지 짊어져 나르는 일. 면천에서 … 사벽에 바를 가는 모래를 산소까지 짊어져 나르는 일. 홍주에서 … 합산포에 있는 재목 72개를 산소까지 끌어오는 일. 대홍에서 … 벽에 바를 흙을 산소까지 짊어져 나르는 일.”

중요한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되는 차사 원 중의 우두머리 예산 현감이 첨보하는 일입니다. 현감이 도 차사 원 임무에 대해 체직을 허락받지 못하였으니 속히 서둘러 거행하여 여름이 되기 전에 역사를 끝내야 할 형세인데, 물력의 현준하는 수효가 매우 엉성하여 가지고 있는 것은 적고 들어갈 곳은 많아서 기한에

맞춰 일을 끝낼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역사에 들어갈 물력을 마련하여 다시 첨보할 생각이거니와, 그중에 흙을 쟈 나르는 일과 모래를 쟈 나르는 일 및 나무와 돌을 실어와 들이는 일이 몹시 크고 많은데, 사방의 10리 이내에 주먹만 한 돌조차 한 개도 없고 또 한 줌의 흙조차도 가져올 곳이 없으며 갖가지 역정들의 수효도 대략 2천 7백여 명이나 됩니다. 비록 예산현의 백성을 모조리 동원하여 1년간 통기 장치라도 실로 일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현감이 몸소 역소에 가서 그 형세를 살펴보니, 아득히 보이는 곳에 사람 사는 집들이 서로 잇닿아 있어서 그곳이 어딘지 물어보니 홍주와 면천이고 혹은 덕산·신창·천안이었으며, 그 외에 온양과 대홍 등의 읍도 또한 수십 리 안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장할 때 그곳의 백성들이 모두 이미 부역하였고 아산은 온돌석이 있는 고을이고 거리도 매우 서로 가까우니 역소에 운반하여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국가의 공사이며 또한 하나의 국가적인 역사이므로 한 도민이 누구나 공통으로 부담해야 할 일이고 한 읍의 백성들만 홀로 감당하게 할 수 없으므로, 위의 각 읍에 이렇게 균등하게 나누어 배정하여 제때 물건을 나라에 바칠 수 있도록 하되, 역사에 들어갈 흙과 나무의 수효는 실로 일에 앞서 미리 가늠하기 어려운데 지금 만약 모래흙은 몇 섬(石), 축토는 몇 짐(負)이라고 정하면, 반드시 장차 몇 말(牛)의 흙과 몇 개의 돌로 구차하게 수효를 채우고는 몇 섬, 몇 짐이라고 말할 터이니, 명색만 있고 실상은 없어서 한갓 분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하므로 뒤에 기록하여 첨보하오니, 사또께서 참작하고 상의하신 뒤에 각 읍에서 별도로 정한 감관과 색리들에게 관문서를 보내 분부하여 나누어 정한 물력을 들어가는 대로 물건을 나라에 바치되, 역사를 마칠 때까지 지속함으로써 막중한 대역사를 제때 끝낼 수 있게 하고 대단한 일이 생기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소서. 하행.

위 기록으로 보아 화순옹주 제청전을 건립하는 것은 필요 인력이 2천 7백여 명에 이르는 국가적 역사이므로 어느 한 군이나 현에서 감당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에 충청

도의 모든 곳에서 부역을 공동부담해야 제때 역사를 마칠 수 있음을 호소한 것이다.

□ 불효 부제不孝不悌한 자를 엄히 다스리라는 전령

1760년(영조 36) 예산현감 한경이 작성한『오산문첩』에는 ‘불효不孝하고 부제不悌한 자를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려 한 전령은 이러하다.

옛날에 사람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효와 제를 근본으로 삼았고 중국의 대명률에 의하여 죄인을 처벌하던 다섯 가지 형벌로, 태형·장형·도형·유형·사형을 집행하는 제도에도 불효와 부제를 우선으로 여겼다. 대체로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은혜와 어른과 어린 사람 간의 의리가 있는 까닭인데, 그 중에 간혹 불효하거나 부제한 사람이 있으면 이는 천지에 용납되지 못하는 바이고 사람들이 모두 벌을 줄 수가 있다.

태수의 덕이 백성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가르침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여 3년 동안 정사를 해왔으나 백성들이 영을 따르지 아니하여, 마을 사이에 어리석고 고약한 사람은 간혹 자식으로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아우로서 그 형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있고 젊은 사람이 노인을 능멸하거나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침범하는 일이 종종 있어서 왔으며, 시골 원님에게 침을 욕하는 지경까지 이르러 혹은 염탐하는 소식에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공문서와 소장에 호소하는 글에 오르기도 하였다.

습관이 된 풍속이 이로 말미암아 나쁘게 변하고 명분이 이런 까닭에 무너지고 있으니, 이것이 누구의 허물인가? 옛날에 한나라 진원이 모친을 위하여 별장이 있는 곳의 이정장을 소송하니 구사가 친히 그 집에 가서 인륜에 대하여 설명해 주자 진원이 마침내 효자가 되었고, 수나라 을보명 형제가 전토를 두고 소송을 하자 태수인 소경이 ‘얻기 어려운 것은 형제이고 얻기 쉬운 것은 전토이다. 라고 말해 주자, 을보명 등이 마침내 머리를 조아리고 느껴 깨닫게 하여 처음처럼 한 집에서 사이좋게 살았다.

아! 지금 백성들도 삼대의 유민이니 어찌 한나라와 수나라의 습속보다 못하겠는가? 그러나 오늘날 백성의 관장이 된 자는 구사와 소경의 덕에 미치지 못하므로 때로 한 번씩 성찰하노라면 부끄러워 흘리는 땀이 등을 적신다. 이미 교화가 사람을 감화시킬 만한 것이 없어 오직 형벌로 정사를 잘 다스리는 것을 도와서 바르게 이끌어야 하겠으니 지금 바야흐로 백성 중에 가장 불량한 자를 골라 일이 잡아 와서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릴 생각이거니와, 이제부터 만약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교화를 벗어난 백성은 면에서 호적과 공공사무를 맡아보던 직원이 낱낱이 보고하여 엄히 다스리어 풍속과 교화를 가다듬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산의 효행 정신

— 김창배 지음

旌門으로 알아본



맺음말

맺음말



예산군 정려각을 탐방하여 예산군의 성씨 태동을 알았다. 본관이 확인된 경우는 탐진최씨(효자 최승립), 연안차씨(효자 차명정·차경진 형제), 김녕김씨(효자 김방언·김치화 부자), 전주이씨(효자 이홍감), 온양정씨(효자 정학수), 경주최씨(효자 최순홍과 최필현 숙질), 울산박씨(효자 박도한), 김해김씨(효자 김창조, 김상준·김현아), 나주정씨(효자 전근금), 온양방씨(효자 방맹), 교동인씨(효자 인영원), 인동장씨(장윤식, 장진급·장형식 부자), 청해이씨(효자 이규), 예산을 본관으로 하는 예산장씨 등이다.

예산군의 하충민에게 정려를 내린 문헌의 기록은 있지만 현재 남아 있지 않다. 그 예로 광시면 미곡리 전근금의 정려각이 있다. 초기의 초가로 지어진 정려각은 화재로 소실되어 현재 도로변에 전근금의 효자비만 남아 있다.

‘왕족의 자녀(딸)의 열녀 정려문’으로는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추사고택에 화순옹주의 홍문이 있다. 화순옹주는 영조의 둘째 딸이다. 대술면 마전리의 삼 정려문에는 한경침의 부인 공신옹주가 포함되어 있다. 공신옹주는 성종의 셋째 딸이다.

이번 책 발간을 준비하면서 애석하게 생각한 것은 봉산면 봉림리에 정려문의 주인공 ‘우봉이씨’가 앞선 시대의 여류 문인의 한시를 표절했다는 것이다.

우봉이씨와 관련한 한시는 상식선에서 사실을 이야기했다. 예전에 있던 가치, 내용이 없는 상태라 이론적으로 표절 시비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조심스럽다. 잘못하다간 후손에게 누 끼칠 것 같아 조용히 끝낸다. 필자의 얄팍한 상식은 고증되지 않

은 소견에 불과하다. 우봉이씨의 정려문 이야기의 개략은 이 책 본문에서 소개했다.

조선 연산군 3년(1497)에 이성만, 이순 형제의 효심과 우애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효제비는 현재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에 있다.

심청전 근원 설화와 원홍장 이야기는 학계에서 정확하게 검증이 되지 않았다. 심청전 근원 설화인 백제시대 <원홍장 이야기>는 『관음사사적기』에 기록되어 있다.

2002년 예산군 효행 사례 학술 세미나에서 언급한 심청전 근원 설화 <원홍장 이야기>는 심청전의 근원 설화이다. 소설 심청전과 유사하다.

이성만, 이순 형제의 의와 심청전의 원전이라는 원홍장의 효녀 설화 속의 인물 눈이 먼 원랑元黃을 캐릭터 개발 상품화하여 예당호 출렁다리처럼 예산홍보에 이용했으면 한다.

전남 곡성군은 효녀 심청 모티브가 된 ‘관음사연기’ 설화를 1999년 만들더니, 이제는



<대흥면 교촌리 원홍장 동상>

효녀 심청을 활용한 ‘심청 한옥마을’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 발전의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예산군은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체제에서 선점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충·효·열 사례를 모아 편찬한 『신속동국삼강행실도』에는 예산인이 13명(여성 5, 남성 8)이 실려 있다. 이는 효 관련 시설을 조성할 때 다양한 효의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자원이다.

어렵게 관직에 올라서도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병환 중이면 관직을 내던졌다. 3년간 시묘 생활은 힘든 일이다. 조선시대 예산, 덕산, 대홍 현감 중에도 효를 실천한 사람이 있다.

성수종(1495~1533)은 기묘사화로 스승 조광조와 연루된 문인으로 지목되어 별시 문과에 급제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예산에 낙향 후 초시에 합격하여 예산 현감에 임명되었으나 근무하지 않았다. 그는 효성이 지극했다. 19세에 부친상을 당했다. 3년간 시묘하고 죽을 먹으며 매일 세 번의 음식을 올렸다. 선조 대에 기묘 명인으로 추대되었다.

민희현(1472~?)의 부친 만질은 민희현이 두 살 때 사망했다. 민희현은 16세 때 모친상을 당했다. 민희현은 3년간 시묘하면서 죽만 먹었다. 곡하며 조석으로 전을 올리며 자신의 도리를 하였다. 품행이 효성스럽고 청렴하여 주군에서 관리 선발 응시자로 추천한 효렴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1518년 군자감 종6품 관직을 거쳐 사헌부 관직 정6품 관직에 등용되고 승진한 예산 인물이다. 그는 기묘사화로 현량과 합격자 명부가 취소되어 첨과 홍패를 몰수당했다. 그 후 신암면으로 돌아와 한거했다.

대홍현감 안민학(1542~1601)은 1583년 불효하여 사헌부의 논핵을 받아 대홍 현감에서 쫓겨났다. 그의 강직한 심장은 죄로 인하여 관 위를 내리고 외진 곳으로 쫓겨난 사람에게 미움을 샀다. 정인홍 등이 여러 선비를 무고하고 탄핵한 결과이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있다. 그런 일들은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긍정의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다. 안민학 부인인 괜 씨가 23세로 별세하자 어려운 살림에서 챙겨주지 못한 남편으로서 자책하고 부인의 그리움은 평생 살아도 끝이 없다는 애도문이 2018년 충남 당진시에서 발견되었다.

이진은이 1681~1682년에 많은 선정을 베풀어 조정에서 대홍 현감에 제수하였다. 부

모의 봉양을 위해 외직인 대홍현감을 맡도록 하였다. 자신을 단속하고 백성을 사랑했다. 온 경내에서 칭송하였다. 그는 선왕의 태를 간직할 산을 대홍현에 정하여 ‘대홍현’에서 ‘대홍군’으로 승격하도록 하여 대홍군수 생활을 했다.

예산현감 장윤식(1817~?)은 99칸의 기와집과 15만여 평의 토지를 보유한 조선시대 상류 갑부이다. 그는 근면한 정신으로 젓 장수나 등짐장수가 사용하는 작은 지게와 상민이 쓰던 패랭이를 만들어 팔아서 돈을 많이 벤 갑부이다. 1870년 세워진 장윤식 현감 영세불망비는 예산 버스터미널에서 있었던 것을 2018년 예산군청서 신축하면서 군청 앞으로 옮겨왔다.

또 다른 장윤식의 영세불망비는 1891년 대홍중·고등학교 앞에 있다가 대홍면 복지센터 입구 의좋은 형제공원 왼쪽으로 33기 비석과 함께 옮겨졌다.

강문팔학사 중 한 사람인 ‘한홍조의 부인 단양우씨가 예산읍 산성리 봉두암 절벽에서 자살하였다.’라는 글을 여러 곳에서 읽어보았다. 봉두암 위치를 찾으려고 지명유래, 면지 등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런 것은 나의 한계점이다.

예산군에서 발굴되지 않은 효자, 열녀, 충신은 많다. 그중 일부 예산인만 소개하니 아쉽다.

이처럼 예산군은 한국을 대표하는 충·효의 인물을 많이 배출하였다. 선비의 학문이 발달한 고장이다. 유교문화와 선비정신을 계승하였다.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에 태극기 유교 단체 모성존도원 등에서 성균관 문묘의 제사를 지냈다. 공자를 따르는 효행자 등에게 정려를 내렸다. 일제 강점기 예산군에 세워진 정려문은 신창표씨(1919), 효자 김창조(1927), 평산박씨 박윤호(1930년), 인형원 부부 쌍효각(1927년), 충훈 공적 정치방과 정해열(1927)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보아 국권 피탈로 성균관이 폐쇄되자 ‘경성모성존도원’ 유교 단체에서 문묘 제사를 지내는 전통적인 유교 사회 명맥을 유지했다.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시대의 예조에서 행하던 포장과 명정을 세우도록 하는 일은 성균관에서 경학원으로 변경하여 이루어졌다. 전통적인 포장의 절차도 후손들에 의해 꾸준히 정문을 건립했다.

예산읍 예산리 ‘천주교 대전교구 예산성당’ 뒤편에 박윤호의 정려문(1930년)과 진휼 기

념비(1940)는 보존이 부실하다. 평산 박씨 종친회에서는 족보를 만들고 박윤호 여사가 생전에 예산지방과 대전지방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후손들이 노력은 조금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덕면 상몽리 정해열은 생전에 정문을 받았다. 정치방은 충훈의 공적이 304년 지나서 8대 후손과 같이 포장을 받았다. 드문 일이다. 후대에 이어서 그런 포장이 이루어진 것은 유생들의 힘과 종친의 힘이 원동력이었다고 생각된다.

충·효·열에 관련 정문, 문서, 시설물 등은 윤리 지침서이며 문화재이다. 대부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 과거 정문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마을 동구 밖에 있었다. 현재 대부분 이런 시설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있다. 관리가 어려운 정려각과 지역 개발로 철거와 이전하는 정려각을 한곳으로 모았으면 한다.

예산에 정려각 공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만의 욕심일까?

필자처럼 효의 문화를 계승하는 문화자원에 애정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늘어났으면 한다. 군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침이나 조례를 개정하여 정문 거리 제한을 했으면 한다. 자연을 훼손하고 지역상 불균형을 유발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우후죽순의 난개발은 막아야 한다.

유교문화는 서양의 문물에 밀려 퇴색해져 간다.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가치의 평가 받는 날을 기대한다. 21세기에도 수준 높은 전통사상 미래가치를 지향하는 재평가 받기를 희망한다.

몇 년 전부터 조선시대에 관한 역사, 인물,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020년 『조선시대의 예산 문인과 예산인의 삶』이란 책을 발간했다. 전국에 알려진 예산 문인을 언급하면서 문학작품을 일부 소개했다.

충남 예산군은 지형학적으로 온화한 지역으로 성호 이익 제자들이 은거하면서 성리학을 발전시킨 곳이다. 덕산지역을 중심으로 시와 문장을 발표하고 활동한 지역이 예산이다.

예산군은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의 학문을 이어받았다. 덕산현德山縣 고산면高山面 장천리(長川里; 현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에 세거한 여주이씨 가문은 조선 후기 실학을 발전하도록 디딤돌이 되었다. 이철환, 이병휴, 이용휴, 이삼환, 이기환 등의 인물을 배출했다.

시간의 여력이 된다면 가칭 ‘예산성호학연구회’를 발족하여 뜻있는 사람과 의기투합하여 연구하려고 한다. 이런 것은 방대한 몇 년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다.

예산문화원 ‘예산학’ 강좌에서 유교문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써 주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예산인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졌으면 한다.

예산군은 유배문화가 이루어진 곳이다. 사학 당쟁으로 예산으로 유배해 온 사람과 예산인이 다른 지역으로 유배를 간 사람, 그리고 천주교와 관련이 있는 예산인이 많다.

이각, 김진규, 이가환, 이담, 이형익, 조정, 천주교와 관련된 이승훈, 이존창, 이기양, 예산으로 유배를 오다 죽은 권일신, 유배를 거부한 강완숙 등이 있으며, 예산군에 묘소가 있는 김구, 김려, 김정희, 신숙서, 이약수, 이흡, 조사석, 최익현 등이다.

멀리 떨어진 유배지에서 예산인은 힘든 삶을 영위했다. 또한 예산으로 유배와 살면서 남긴 이들의 인간적인 삶과 역사적 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배문화 콘텐츠 상품 개발도 하였으면 좋겠다.

예산지역은 주야로 예술 활동에 전념하여 활동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에게 예산군은 개인에게 작품집 발간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아예 창작기금을 기대하기란 힘든 일이다.

인접 시·군에서는 예술인에게 창작기금을 지원해주어 예산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부러워하고 있다.

예산군에 8개 예술단체가 있다. 분연히 일어나 단합된 힘을 발휘하여 예산문화재단 설립하는 날을 고대한다.

이 책을 다 읽어보면 대동소이하게 부모나 웃어른에게 아래 6가지를 실천한 사례들이다.

부모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 자기 신체 일부를 상해하던 일, 부모가 돌아가신 후 주자가례에 의한 3~6년간의 지극한 시묘 생활했던 일. 부모 생전에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고 효도 한일. 부모가 돌아가신 후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 식음을 전폐했던 일. 남편 사후에 3년 이상 시묘살이하고 수년간 정성들여 제사를 지낸 일. 손가락을 깨어 피를 흘려 넣는 일.

이런 것을 지금 시대에 실천한다면 웃음거리가 될 듯 싶다. 사람마다 가능할까? 이 유행을 현재 세대와 앞으로 돌아오는 세대들은 주자와 같은 성현처럼 과연 실천할까?

이런 것을 실천한 일은 웃음거리로 넘기기는 어려운 실감이 나는 신화·전설 등을 줄거리로 사실처럼 꾸민 옛이야기이다.

효행 실천은 쉬우면서 힘든 일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인간의 존재가치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 보람이 있는 일을 하였을 때 나타난다. 보람 있는 일, 인간다운 인이란 무엇인가? 또다시 나는 고민을 해본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조상들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이어받아 갈고 닦으며 매사 실천하여 현재에 일들이 빛내야 하는 것이다.

예산에 석유판매업, 농장, 교회, 아파트, 예식장 등에서 효의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어 흥미롭다. 어려운 사업주의 결정이다. 이곳이 매출이 많이 발생 부자 되기를 바란다.

수년 전 효도마을 현판식을 마치고 어느 면장이 그날 사망했다. 군수로부터 질책받아 스트레스 풀려다가 밤에 쓰러졌다. 예산군의 효도 시범 마을사업은 공주에서 하던 일을 벤치마킹하여 이루어지다가 중단되었다.

겨울철 각 읍·면에 경로당에 가 보면 노인 어르신이 많이 모여 있다. 자주 방문하여 말동무 등 대화를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韓詩外傳 第9》 편에 나오는 고사 한 토막을 써 본다. 중국 춘추 시대 고어 魯魚가 모친상을 당하여 슬프게 울고 있을 때 고어에게 다가가 공자가 물어보았다.

‘왜 그리 슬퍼 우느냐?’ 하니

“나무가 조용해지려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녀가 어버이를 봉양하려 하나 어버이는 이미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는군요。(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也)” 고어가 통곡하면서 대답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

효의 실천은 평생 같이하는 일이다. 우리 모두의 일이다. 지구가 멸망하기 전 우리들이 한 일이다.

<서평>

정문_{旌門}, 새로운 예산의 인문학 이야기

신익선(문학평론가·문학박사)

<서평>

정문旌門, 새로운 예산의 인문학 이야기

신익선(문학평론가·문학박사)



평정 김창배의 『정문으로 알아본 예산의 효행 이야기』는 한국에서 유일한 예향禮鄉의 고장, 충청남도 예산군 지역, 정문에 대하여 일괄 정리된 예산의 효행 이야기다. 효행과 정절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예산 정문의 정신사적 고찰이 이 책의 전모다. 서문序文대로 저자는 이 글을 쓰기 위하여, “나는 예산군에 산재한 40여 곳의 정려각을 탐방했다.” 밝힌다. 예산지역에 분포된 정려문을 찾아서 직접 답사하고 세밀히 살펴보고 쓴 일종의 정려문에 대한 정신문화 사료인 셈이다. 두툼한 분량의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효와 정절을 실천하느라 지극정성으로 일생을 살아가신 예산 지역 선인들의 효행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과 그에의 자긍심을 갖게 된다.

이 책을 떠내는 평정은 년 전에 이미 출간 발표한 『평정이 바라본 조선시대 예산문인과 예산인의 삶』을 통하여 조선 시대 우리 예산지역의 괄목할 만한 인물들을 집대성하여 책으로 떠냈다. 그 이외에도 다수의 수필집과 시집을 출간한 필력을 바탕으로 저자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예산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고집스럽게 연구하고 문헌과 사실을 궁구하여 집필하되 절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글만 쓴다.

시인이자 수필가이기도 한 평정은 충남 문인들이 인정하는 향토사학자이면서도 향토사학자라는 명칭을 쓰지 않은 채 그저 조용하고 고요히 공들여 옛 문헌 읽길 그치지 않는다. 예산과 충남 전역의 향토지리 및 역사 공부와 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 책을 쓰기 위하여 읽은 관련 문헌도 『조선왕조실록』, 『여지도서』, 『충청도읍

지』, 『호서읍지』, 『효행제등록』, 『동국신속행실도』, 『삼강행실도』, 『조선환여승람』 등 다양하다. 하나같이 도저한 지역의 역사, 문화, 풍습, 습속에 대한 제 고찰을 담고 있는 저서들이다. 조선 시대 정려문의 탄생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조선 사회에서는 충·효·열의 활동이 뛰어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충신, 충노忠奴, 효녀, 효부, 열녀, 절부 따위로 일컬었다. 수시로 충·효·열을 강조하며 권장했고, 이를 실천한 사람은 포장하였다. 『경국대전』에는 예법인 유교적 윤리 가치 실천 행위 대상 조항과 규정이 있다. ‘효도·우애·절의 등 착하고 어진 행실을 실천한 자는 연말마다 예조에서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왕에게 아뢰어 당사자가 살아 있을 때는 관직을 주고, 죽은 뒤에는 생전보다 높은 관직과 관계를 내린다. 충·효·열의 행적이 뛰어난 사람을 기리기 위해 그 동네에 정문을 세워 표창 주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부역과 거두어들이는 금전을 면제한다’라는 등의 내용이다.

- 「정려문의 포상 절차와 과정」 중에서

조선은 성리학의 사회였다. 불교를 우대하였던 전조前朝에 비하여 억불승유抑佛崇儒정책을 펼치며 경국대전經國大典이라는 명시된 법문이 존재하면서도 성리학의 내부 규율을 중시한 사회상을 이루어 왔다. 성리학은 송나라 시기 외래사상인 불교에 대응하고, 형식화, 획일화된 훈고학에 대한 비판 의식에서 탄생한 유교의 한 갈래이다. 다시 이를 ‘도학道學’, ‘송학宋學’, ‘송명이학宋明理學’, ‘주자학’, ‘정주학’ 등으로도 불리지만 오늘날에는 통상 송명대에 출현한 신유학의 한 갈래로 구분한다. 성리학에 치중하여 조선 사회에서 국가가 ‘정려문’을 내리는 포상 절차와 과정은 유교적 윤리 가치가 중심이었다.

각 고을에서 특별하게 ‘효도·우애·절의 등 착하고 어진 행실을 실천한 자는 연말마다 예조禮曹에서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왕에게 아뢰어’ 그를 정하였다고 한다. 일단 정하여 진 사람에게는 국가적 은전이 뒤따랐다. “당사자가 살아 있을 때는 관직을 주고, 죽은 뒤에는 생전보다 높은 관직과 관계를 내린다. 충·효·열의 행적이 뛰어난 사람을 기리기 위해 그 동네에 정문을 세워 표창 주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부역과 거두어들이는 금전을 면제”하였다고 한다. 정려문은 즉, 충·효·열 행적이 뛰어난 인물

을 배출한 동네에 세운 조선의 사회학적 가치의 표상이자 정신문화의 산실이었다. 국가는 정문 당사자에게 부역과 세금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 은전도 베풀었다.

예산지역에 건립된 정문 당사자들 신분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선 사회에서는 충·효·열의 활동이 뛰어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충신, 충노忠奴, 효녀, 효부, 열녀, 철부’라고 한다. 노비에서부터 왕의 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책에 의하면 왕의 딸은 성종의 공신옹주와 영조의 화순옹주를 일컫는다.

화순옹주는 숙종을 이은 왕, 경종이 붕어하자 연잉군, 이금李吟이 왕좌(영조)에 오른 후에 붙여진 명칭이다. 화순옹주는 영조가 즉위하고 난 이듬해인 1725년 다섯 살에 옹주로 책봉되어 13세에 예산군 신암을 향리로 둔 당대의 영의정인 김홍경의 아들이자 동갑나기인 월성위 김한신과 혼인하였다. 이후 조선 한성부 월성위궁에서 살다가 39세 겨울에 김한신이 별세하자 통곡하면서 곡기를 끊었다. 평정은 이 책에서 당시의 상황기록을 자신의 문체로 다음과 같이 풀어서 쓴다.

김한신이 죽자 화순옹주는 곡기를 끊고 슬퍼하다가 14일째 되던 날 남편의 뒤를 따라갔다. 돌아보면 화순옹주의 핏줄들은 다 요절하였다. 영조의 첫째 아들이며 왕세자였던 친오빠 효장세자는 10살에 죽었다. 영조의 첫째 딸인 언니 화억옹주는 1살에 죽었고, 모친 정빈이씨는 화순옹주를 냉고 27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갔다. 하나 남은 화순옹주가 남편을 따라가니 그녀의 나이 39세였다. 1758년 1월 17일, 예조판서 이익정이 영조를 청대하여 ‘화순옹주의 상은 만고에 없던 일이니 마땅히 정려문을 내리는 은전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보고하였으나 영조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 「열녀 화순옹주和順翁主」 중에서

한성부 월성위궁에서 신암 용궁리로 출발한 김한신의 상여에 뒤이어 보름여를 시차로 아내인 화순옹주의 상여도 신암 용궁리 월성위 묘역에 도착, 두 분이 합장한다. 왕에게 화순옹주는 차녀지만 큰딸 역할을 하였다. 아끼던 화순옹주가 식음을 전폐한다는 소식을 들은 영조는 직접 기밀 상궁과 시종들을 거느리고 조선 한성부 서구 적선동 월성위궁(현재의 종로구 적선동)으로 행차한다. 왕은 딸에게 음식 들기를 권유하였다. 옹

주는 물 한 모금을 넘기더니 즉시 토하였다. 영조는 딸의 단호한 결심을 읽고는 한숨을 내쉬고 환궁하였다. 조선 왕가에서 지아비가 죽자 뒤따라 식음을 전폐하고 굶어 죽은 이는 화순옹주가 유일하다. 이후 영조는 친히 붓을 들어 월성위 내외의 비석에 비문을 썼다. 이 비석은 현재에도 신암 용궁리 백송 아래 잡든 김한신 묘역에서 있다. 옹주를 위하여 영조는 또 신암 추사고택 옆에 화순옹주의 제사를 받들 제청祭廳 건립을 명하였다. 제청은 제사를 지내려고 무덤 옆에 짓는 건물이다. 영조의 명을 받든 이는 당시 예산현감인 한경韓警이었다. 이에 대하여 평정은 이를 문헌에서 찾아낸 사료를 다음과 옮긴다.

예산현감 한경은 1758년 11월 부임하여 화순옹주 제청에 관한 일을 보고했다. 1759년 정월 27일, 화순옹주 제청의 역사를 각 읍에 나누어 정하였다. 1759년에는 많은 장정과 기와, 재목, 모래, 온돌석 2백 80개, 예산과 신창, 온양, 아산, 합산포에서 119개의 받침돌을 묘소로 운반하고, 덕산과 합산포에 있는 재목을 운반하였다. 국가에서 동원령을 내려 군현의 지원으로 화순옹주 제정의 묘막터를 신축하였다.

- 「열녀 화순옹주和順翁主」중에서

윗글을 옮기면서 평정은 국왕의 어명으로 예산 신암에 신축된 화순옹주 불타 없어진 화순옹주 묘막터를 지금이라도 중수하여야 한다는 지론을 펼친다. 이는 한국에서 전국 최유의 옹주 묘막터다. 묘막터 재건은 추사고택과 더불어 예산 문화재의 쌍벽을 이를 것이란 예감이다. 몇 년 전에 충남 보령시에서 조선 고종 조에 불타 없어진 보령시 오천면 소재, 절경의 경치를 자랑하는 충청수영성 내, 영보정(享子)을 중수한 것처럼 화순옹주 묘막터 건립 제의를 숙고해 볼만 하다.

현재, 신암면 용궁리 추사고택에는 그때의 묘막터 주춧돌이 남아있다. 극심한 노론 소론 당쟁의 와중에서 친아들이자 왕세자인 사도세자까지 생으로 죽인 영조 사후에 비로소 영조의 손자 정조는 친아버지 장현세자(사도세자)의 친누이 동생 되는 친고모 화순옹주를 정려旌閭하여 내린 홍문이 추사고택 홍문이라 한다. 이 책은 내밀한 조선 역사 를 간직한 비밀스러운 정문이 바로 추사고택 입구의 홍문임을 말하고 있다. 이보다 훨

씬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연산군 조에 세워진 대홍의 이성만·효제비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로 한국민 모두의 서사이다. 평정은 대홍·효제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쓴다.

이성만·이순 형제의 효와 우애를 기리기 위한 효제비는 1497년(연산군 3) 예산군 대홍면 동서리에 세워졌다. 이성만과 그의 동생 이순에 대한 효행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되어 있다.

“대홍 효자, 고려 이성만: 성만이 그 아우 순과 더불어 모두 지극한 효성이어서 부모가 죽으매, 성만은 아버지의 묘를 지키고 순은 어머니의 묘를 지키면서 서로 애통과 정성을 다하였다. 3년의 복제를 마치고는 아침에는 아우가 형의 집으로 가고 저녁에는 형이 아우의 집을 찾았으며, 한 가지의 음식이 생겨도 서로 모여 만나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 이 사실이 임금에게 보고되어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효제비의 주인공 형제는 고려 말의 인물이다. 조선 건국 초기인 1418년(태종 18) 지신사 하연이 왕에게 예산군 대홍현의 호장 이성만·이순 형제의 효행과 우애를 알렸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연산군 때 효제비가 세워진 것이다. 이에 두 형제의 효제비 비문에 자세하게 효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예산의 이성만 형제 효제비는 예산군 대홍면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북쪽을 바라보고 서 있다

- 「이성만·이순 효제비」중에서

평정에 의하면 대홍·효제비의 유래는 그러니까 고려조의 서사라고 한다. “한 가지의 음식이 생겨도 서로 모여 만나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 이 사실이 임금에게 보고되어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에서의 왕은 연산군이다. 고려의 대홍·형제 이야기가 구전에 구전을 거쳐 조선 시대 연산군 조에 이르러 석비로 세워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저자 평정은, ‘예산은 충절의 고장으로 이름나 있다. 그 근거로 대홍면 이성만·이순 형제의 효행과 우애 이야기가 많이 인용된다. 1960~7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널리 알려진 예산

의 실존 인물이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실존 인물, 이성만·이순 형제는 고려조에 현재의 예산군 전신인 대홍 임존군에 살던 실존 인물임을 강조한다. 고려 시대에 현재 예산읍 지역은 후백제 견훤 휘하, 임존군에 속한, 옛 행정구역의 하나인 현縣이었다. 이성만 형제는 임존군, 즉 고려조의 대홍현 大興縣에 살던 의義 좋은 형제였다.

서사의 힘은 산중의 고을, 조선 시대에 이르러 대홍을 행정문화의 중심지역, 대홍군으로 승격시켜 이곳에는 현재에도 대홍향교, 대홍 동헌, 대원군 척화비, 옹주의 태실 등이 현존한다. 고려 때부터다. 의 좋은 형제의 서사가 사그라지지 않고 회자 되어 조선조에까지 구전되다가 마침내 20세기에 한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 평정은 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를, “두 형제의 효제비는 본래 가방역에서 광시면 장전리로 가는 내천 건너에 있었다. 1968년 예당저수지 건설로 수몰될 위기에 직면하자 대홍면사무소 앞으로 옮겼다. 1983년 9월 29일, 두 형제의 효제비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02호로 지정되었다.”고 하면서 이 효제비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산 대홍에 전해져 내려오고 비로 세워진 의 좋은 형제의 서사는 왜 중요한가. 정각에 넣어 보존 중인, 의 좋은 비의 가치는 그럼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 좋은 형제의 서사야말로 고금의 모든 종교에 버금가는 가치를 지녔다 하여 과언이 아니다. 유가의 인人, 불가의 자비慈悲,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등은 의 좋은 형제의 본질과 상통한다. 사람에게 있어 참 기도는 내가 먼저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내 옆자리에게 “애통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주위 사람을 모시는 일, 솔선하여 내가 먼저 모시고 섬겨드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산군 대홍에 현존하는 의 좋은 형제의 가르침은 고대와 근대, 현대와 미래를 아우르는 지고지선至高至善의 가치라는 것을 평정은 책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 단순히 예산지역에만 국한된 기억할만한 가치가 아닌 인류공동체에 소용되는 서사라 보는 것이다. “의 좋은 형제의 고장”이 우리 예산지역이라는 이러한 고찰은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종교의 근원, 섬김의 본분이라 할 것이다. 저자는 이 외에도 이성만 형제비가 예당호 출렁다리와 연계되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성장하기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예산군의 자랑인 이성만·이순 형제는 의좋은 형제로 교과서에 실려 널리 알려졌다. 나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오랜 기간 실렸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진다.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예산군의 상징물과 예당호 등과 연계되어 전국에 자랑할 만한 문화콘텐츠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예당호에는 출렁다리가 있고 우애의 볏단을 나르는 형제의 모습은 예산군의 충효 정서와 맞아떨어진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성이 있는 콘텐츠다. 시대를 초월한 효와 우애를 실천한 교훈적이고 인간미가 넘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이성만·이순 형제의 우애」 중에서

정문 서사 중에서 특히 왕의 딸과 고려 호장 출신인 이성만 형제비 이외에도 조선왕조에서 내린 정문이 천민인 노비에게도 내려진 사실은 흥미롭다. 사노비와 공노비에게 내려진 정문은 그러나 문서상으로만 존속하고 현물은 존재치 않는다. 평정은 이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 정각을 보존해줄 후손이나 여력이 없었다고 한다. 이 책은 현존하는 정각들의 영상을 그대로 책 페이지에 남겼으나 부 존재하는 정각들은 고전의 책명을 밝히며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료에 근거하여 이를 밝히고 있다. 그중에서 천민인 사비寺婢 재개와 사노비 윤희와 풍이 형제의 효행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사비 재개의 효행에 대하여 『여지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사비는 재개는 지극한 효성으로 편모偏母를 봉양하고, 그 집의 훌어머니를 모시느라 제 시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병을 고치기 위하여 허벅지 살을 베어 먹이고, 대소변을 맛보며 병세를 살피는 등 지극히 병간호하였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는 노비 신분임에도 삼년상을 치렀다. 이 일이 알려져 현 남쪽 대덕산 면에 정문을 세우고 표창했다.”

사노 윤희와 풍이 형제의 효행에 대하여 『신속삼강행실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사노 윤희와 풍이 형제는 덕산현 사람이다. 아버지가 돌아가고 그 어미 모시기에 효

성을 극진히 하였다. 덥고 추운지 아침과 저녁으로 뵙거늘 언제나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초하루 보름에 반드시 술과 고기를 갖추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렸다. 그 어미가 돌아가매 피가 나올 듯이 울기를 세 해 동안 하였다. 지금 임금 대에 정문을 내렸다.”

- 「사노비에게 정려문 내리다」 중에서

『여지도서』는 조선 고을의 여지도 地圖와 서書의 결합이라는 의미로 《여지도서》라는 서명을 붙일 정도로 지도가 중시된 책이다. 각 읍지마다 거리와 방위 등이 정확한 대축척지도가 첨부되어 지도와 읍지가 밀접하게 결부된다. 읍지의 내용을 지도로 도식화함에 따라 읍지의 내용에 정확성이 증가한다, 지도의 이용으로 당시 사람들 의 공간적 인식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전국에 걸쳐 동일한 시기에 작성된 읍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8세기 중엽(1757-1765) 무렵의 지방 사회를 전국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책에 덕산현 사비 寺婢, 즉 나라에서 사찰에 내린 여종인 「재개」의 효행이 실려 있다.

『신속삼강행실도』는 임진왜란을 통하여 체득한 귀중한 자아의식 및 도의 정신의 토대 위에서 출발한 것으로 임진왜란 발발 아래의 효자·충신·열녀 등의 사실을 수록, 반포하여 민심을 격려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제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소재나 내용이 동국 東國, 즉 조선에 국한되면서 그 권질 卷帙이 방대하다는 특징을 가질 뿐 아니라, 계급과 성별의 차별 없이 천인 계급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행실이 뛰어난 자는 모두 망라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삼강행실도에 나오는 윤희와 풍이는 형제이며 출신은 지금의 덕산 고을, 덕산현이라는 사실과 지극한 효성을 알고는 지금 임금 대에서 정려문을 내렸다는 사료를 적고 있다. 여기서 지금 임금대는 광해군조(1608-1623) 때를 일컫는다.

고대의 사료를 찾아 읽어가면서 조선 시대에 예산지역에 있었던 일들을 이처럼 알아낸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효 중심의 문화적 전통을 찾아내어 그 가치를 고양하는 일 이야기 말로 부박한 세대를 황급히 살아가는 현대인이 알아야 할 필수 교양 이자 역사 공부라 할 것이다. 평소에 진지하고 부지런한 글쓰기를 병행하는 저자, 평정의 무수한 삶을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는 이런 귀한 글이 나올 수 없다, 단순히 효와

정절의 서사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곁들어서 지역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사료들을 적시 한다. 이 점은 이 책이 지니는 매우 흥분되는 서사이기도 하다. 가령, 이성만 효제비를 거론하면서 풀어놓는 원홍장 설화는 흥미진진함 그 자체다. 그를 보자.

예산은 심청전의 배경이 되는 고장임이 드러났다. 심청전 근원 설화는 예산을 배경으로 한 원홍장 설화다. 아직 학계에서 검증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심청전 설화의 배경이 예산군 대홍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옛날 충청도 대홍 땅에 장님 원량元良이 살았다. 그에게 ‘홍장洪莊’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용모가 수려하고 효성이 지극하였다.’로 시작되는『원홍장설화』는『관음사 사적기』에 있는 기록되어 있다.

관음사는 전남 곡성의 사찰인데 20년 전쯤 사찰을 중수하다가 ‘원홍장 설화’가 기록된 문서를 발견하였다. 이때부터 전남 곡성을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청전과의 관련성을 내세우며 지역 문화 발전의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원홍장 설화에서 곡성의 관음사 건립 시의 상량문에 대한 햇수를 따지며 이설異說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평정은 이 책에서 “예산은 심청전의 배경이 되는 고장임이 드러났다. 심청전 근원 설화는 예산을 배경으로 한 원홍장 설화다. 아직 학계에서 검증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심청전 설화의 배경이 예산군 대홍이 분명하다.” 단정한다. 평정의 확신은 그러니까 예산 심청전의 유래가 되는 원조격 지역이라 주장한다. 이는 관음사의 중량감, 불가의 역사적인 절이는 관점에서 팩트에 가장 근접해 있는 진단이다.

관음사 창건 시의 상량문上梁文에 이르길 “옛날 충청도 대홍 땅에 장님 원량元良이 살았다. 그에게 ‘홍장洪莊’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용모가 수려하고 효성이 지극하였다.”로 시작되는『원홍장설화』는『관음사 사적기』에 있는 기록 되어” 있음은 예삿일이 아니다. 애초,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마지막 숨을 거둔 자리에 최초의 탑이 건축되었다. 부처의 가르침과 죽음에 영감을 받아 법法, 곧 진리眞理를 찾아 수행 정진하는 제자들이 불가의 공동체를 이루어 사찰을 짓고 도량으로 삼은 일은 불문가지의 역사다. 참 깨달음, 진리의 산실인 관음사 상량문에 어찌 거짓을 쓸 수 있겠는가.

굳이 상량문을 쓴 필자가 불가佛家의 역사에 정통할 이유는 없다. 헛수로 보면 관음사는 백제 시대 건립된 고찰이므로 공식적으로 공인된 백제의 불교 전래 시기를 앞당겨 세워졌고, 더구나 당대에 충청도라는 지명이 존재치 않음을 이유로 설왕설래 이설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소한 거짓이 대들보의 상량문에 기록되는 일은 없다. 대홍의 홍장 설화는 그러므로 해당 지역인 예산의 문화유산이라는 평정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는 핵심이다. 이에 따른 추가적인 문화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뒷전이다.”라는 지적 역시 획기적인 문화예술 행정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대개 정문이 한 사람에게 내려졌지만 한 가문에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인물에게 내린, 2정려문, 혹은 3정려문 사례도 있다. 덕산에서 출생한 성리학자, 문목공 조극선은 현종 5년에 정려문을 받고, 다시 그의 7세손 조정교가 정려각을 받는다. 평정은 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조정교는 조극선의 7세손이다. 그는 집안이 매우 가난하였지만 달게 여기는 여유가 있었다. 평생 비단을 가까이하지 않고, 항상 부모의 기일이 되면 슬퍼하기를 돌아가실 때와 같이하였다. 효행이 깊어 죽은 이듬해인 1875년 충청도 유학 이인성이 효행을 상소하니 1876년 조정이 명정을 내려 정려각을 세웠다.

1664년 명정을 받은 조극선의 정려각은 본래 시동리와 이웃한 당곡리에 세워졌지만, 훗날 조정교가 명정을 받자 조극선 정려각을 시동리로 옮기고, 두 사람의 정려를 하나의 정려각에 모셨다. 내부 중앙 상단에는 ‘효자 야곡선생 증자현대부 이조판서 겸지의금부사 성균관관제 주 오위도총부도총관 행통훈대부 사헌부장령 증익문 목공 조극선 지려’라는 명정 현판이 걸렸다. 그리고 그 옆에는 ‘효자 야곡선생 칠세 손 학생 조정교 지려’라고 쓰인 명정 현판이 걸려 있다.

- 「정문으로 알아본 효행사례, 조극선·조정교」중에서

야곡 조극선은 그의 일상생활을 일기 日記로 남겼다. 농사짓고 누에 치는 일은 물론 제수상 보기 등 사소한 일상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밀히 일기문을 써서 이를 야곡 문집으

로 남겨놓았다. 왕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길 반복하다가 1657년 사헌부지평 司憲府持平으로 나가 곧 장령掌令이 되었다가 선공감첨정 繕工監僉正이 되고, 이듬해 다시 장령으로 임명되었으나 곧 병들어 죽었다. 비 오는 날 아버지를 기다리던 자리에 다리를 세워 효교교라 명명할 정도로 효행과 학행으로 이름이 났다.

효종 행장에도 효종이 조극선의 학행을 흡모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저서로 『야곡집』 10권과 『야곡삼관기 治谷三官記』 등이 있다. 성리학과 예설에 밝은 학자로 뒤에 이조 참의에 추증되었으며, 신창 新昌의 도산서원 道山書院과 덕산 德山의 회암서원 晦庵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목 文穆이다. 회암서원은 현재의 충남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에 있던 서원으로 1709년(숙종 35) 지방 유림의 공의로 주희 朱熹·이담 李湛·이흡 李洽·조극선 趙克善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창건하여 위폐를 모셨던 사원이다. 훗날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71년(고종 8) 훼철된 뒤 서원지의 축조에 물에 묻혀 복원하지 못하고 표지석만 서 있다. 한편, 삼 정려문은 대술면 마전리에 있다.

대술면 마전리 646번지에 있는 마을 보호수 느티나무가 비를 맞아 더 푸르게 보였다. 조금 더 가니 마전리 중삼마을에 이른다. 봄이 이만큼 다가온 기분이고, 정려는 도로변 들판 왼쪽에 접해 있었다.

대술면 마전리 한씨 효자·효부·열녀 삼정려다. 조선 전기 한경침(1482~1504)의 처 공신옹주(1481~1549)와 조선 후기 효자 한신묵(1785~1838), 한재건(1817~1871)의 처 경주김씨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정려각이다.

- 「효부 경주김씨·효자 한신묵·열녀 공신옹주」 중에서

저자인 평정은 『삼강행실도』에서 3정려각을 찾아내어 자세히 썼다. 『삼강행실도』는 조선과 중국의 서적에서 군신, 부자, 부부 등 삼강 三綱, 즉, 유교의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강령에 있어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를 뽑아 그 행적을 그림과 글로 칭송한 책이다. 성리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조선 사회에서 일종의 도덕책이다. 대술 마전리에 현존하는 삼정려의 최상위는 세조의 일등공신 한명희의 아들인 청녕위 한경침의 아내, 공신옹주의 정려다. 옹신옹주는 연산군에 의하여 유배 생활이 시작되었

음에도 유배지에서 남편의 신위를 조석으로 모셨다 하여 훗날 정문을 내려졌다. 여기에다 조선 후기의 효자 한신목, 한재건의 처 경주 김씨의 열녀, 정려와 더불어 조선에서 유일하게 한씨 3정려문韓氏 三旌閨門을 건립한 주인공의 한 사람이 된다.

평정은 문헌에 수록된 예산군의 효행 정려를 이 책 뒤에 상세히 묶어 설명하였다. 효자, 효부, 열녀의 대상 인물이 이희정과 장張씨 부부까지 합산하면 무려 96명에 이른다. 예향의 본고장이 예산이 효의 본고장을 알게 해주는 객관적인 사료들이다.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설의 주인공이 될 만한 엄청난 문화콘텐츠를 내재하고 있음을 물론이다. 이를 존귀하게 받들고 깊이 새겨 실생활에 실천하는 일은 예산의 가치이자 자랑이다. 이 많은 인물 중에서 필자가 유년 시절부터 익히 보아온 정려문은 현재, 상하리 1구 말무덤 입구에서 있는 철원임씨 정문이다. 평정은 이 정문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김재양의 부인 철원임씨 정려각은 열녀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1797년(정조 21) 명정을 받아 건립되었다. 1980년 지방 유림과 선현 유적보존회, 김씨 문중의 주선으로 정려각을 중건했다. 김재양 부인 철원임씨 정려각은 처음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정문들에 있었으나, 지금은 옮겨져 삽교읍 상하리에 있다. 정려각 앞에는 1992년 예산 지역 유림과 선현 유적보존회에서 세운 '열녀철원임씨중수기적비'가 있다. 내부 중앙 상단에는 '열녀학생연안김씨재양처 유인철원임씨지문 상지이십일년 정묘정월 일 명정烈女學生延安金載讓妻孺人鐵原林氏之門 上之二十一年丁巳正月 日銘旌'이라 쓰인 각서 현액이 있다.

- 「철원임씨」 중에서

평정의 글에 의하면 철원임씨 정려문은 애초, 삽교읍 평촌리에 세워졌다고 한다. 이 정문은 시기 미상 일에 일명 잣들이라 불리는 삽교 상하리 1구 산78-4번지 산 중턱으로 옮겨져 세워졌다. 1960년대 초, 필자가 초등학교 등·하교 시에 꼭 이 정문을 만나곤 하였다. 순전히 나무로만 세워졌던 정문이 온통 시멘트를 입은 채 현재의 말무덤, 산 82-7번지로 옮겨와 서 있는데 이번에 평정이 영상 자료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엮어 펴내니 새삼 유년의 그 철모르던 시절이 추억되어 감회가 새롭다.

더구나 상하리 1구 출생의 필자가 계사년(2013년) 3월 25일, 97세에 이를 노모를 여의

고 불효를 한탄하면서 쓴 시편, “제 삶의 새벽 시간은 언제나 당신으로 꽉 찬 혈관, 을 만납니다. 내 사무친 보고 지움, 을 하늘 뜻배에 매달아 승천하는 영혼 따라 당신 속으로 빨려들어 갑니다. 제 삶의 밤에 시간도 언제나 당신으로 꽉 찬 울음, 을 만납니다. 내 사무친 보고 지움에는 그러나 끝끝내 재회할 당신으로 향기롭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보고 지움’ 전문)를 만나는 일은 감개무량하다.

평정 김창배의 이번 책, 『정문으로 알아본 예산의 효행 정신』은 그러므로 예산의 효행 역사, 곧 예산의 정신에 관한 이야기이다. 저자 역시 서문에서 밝히길, “정려각, 혹은 정문은 그 자체로 예산의 정신精神이다.”라고 쓴다. 그렇다. 인간의 모든 행실은 정신의 산물이다. 정신은 우주 만물을 관통하고 천둥벼락을 페뚫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신대륙에 닿는 신령한 힘이다. 이 정신을 가다듬어 다시 효행의 길로 나아가는 일이야 말로 땅에 떨어진 효행을 부활시키는 유일한 첨경인 것이다.

오랜 기간, 오래 궁구하여 평정 김창배가 예산의 정려문을 답사하고 무수한 고전古典을 탐독하여 정리한 것은 물질문명에 도취 되어 인간 본연의 효행의 가치를 상실한 현대를 다시 옛날의 효행에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 하겠다. 저자가 서문에서 쓴 대로, “정문은 그 자체로 정신이 만들어낸 문화다. 문화의 자양분은 정신이다. 문화는 정신을 호흡하면서 산다. 정문의 문화는 그래서 살아 움직이고 변화하며 진화하는 생명체다. 정문이야말로 예산 문화재의 으뜸이요 주요한 유기적 생명체의 현현顯現인 것이다. 사람은 오직 문화 속에서만 살아있는 정신을 가진 참된 사람이 된다. 이것이 이 책을 쓰고 발간하는 연유”가 확실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리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부모를 섬기는 효행이야말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최상의 가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섬기고 위로하며 가문과 지역사회를 빛내는 무상의 기쁨이자 미래를 살아가는 원동력이라 할 것이다. 이 책 원고를 받아든 첫 소감은 그저 놀라웠다. 각고의 노력 끝에 무수히 밤을 새우며 무수한 분량의 원고를 쓴, 부지런하고 진실한 글쟁이를 다시 만난 것이다. 을사년(25), 유월 새벽에 고요히 평정 김창배의 정문으로 알아본 예산의 효행 서사들을 만나면서 감동의 눈물 흘리며 무딘 필을 놓는다.

부록

현존하는 예산군 정려각
문헌에 수록된 예산군 효행 정려
참고문헌

현존하는 예산군 정려각



연번	유형	정려	건립시기	소재지	비고
1	효자	방맹 정려	1775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320-18	
2	효자	최망회 정려	1741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 737-2	
3	효자	박신흥 정려	1747	예산군 오가면 오신로 249	
4	효자	이성만·이순 형제 효자비	1497	예산군 대흥면 형제길 33 (의좋은 형제공원 내)	
5	열녀	신창표씨 정려	1919	예산군 응봉면 계정길 88	김찬희 부인
6	열녀	현풍곽씨 정려	1670	예산군 광시면 은사길 24	박근 부인
7	열녀	양주조씨·진주강씨 열녀비	1811	예산군 신양면 귀곡텃골길 6	
8	효자	전근금 효자비	1741	예산군 광시면 광시동로 251	개명: 전태운
9	효자	이홍갑 효자비	1729~ 1736	예산군 신양면 차동대촌길 11 (경로회관 입구)	
10	삼정려	한씨 효자·효부·열녀 삼정려	1507, 1884	예산군 대술면 마전하삼길 171	열녀 공신옹주 효자 한신숙 효부 경주김씨

11	열녀	화순옹주 흥문	1783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797	묘막터
12	효자	박진창 정려	1893	예산군 고덕면 사리서길 51-29	
13	효자	김상준·김현하 부자 정려	1892	예산군 봉산면 당곡길 120	
14	효자	장윤식 정려	1905	예산군 삽교읍 월산길 30	
15	충신	이억 정려	1860	예산군 봉산면 금치길 131-35	
16	충신	한순 정려	1713	예산군 고덕면 당진영덕고속도로 14	
17	충신	이의배 정려	1701	예산군 봉산면 봉명산로 99-3	
18	효부	이상빈 부인 평산 신씨 정려	1674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로 181-8	
19	효자	김방언·김치화 부자 정려	1783	예산군 광시면 장신신흥길 283-1	
20	효자	장진급·장형식 부자 정려	1862, 1868	예산군 광시면 장신 신흥길 247	
21	효자 효부	인영원과 성주배씨 정려	1927	예산군 덕산면 흥덕서로 500-5	
22	효자 효부	신효와 효부 밀양 박씨 정려	1669	예산군 봉산면 대지한곡길 39	
23	효자 열녀	김의재와 열녀 창원황씨 정려	1891	예산군 봉산면 고도길 4-7	
24	효자	강민구·강민채 형제 정려	1883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70	
25	효자	차명징·차경진 형제 정려	1746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두련길 78	
26	효자	최필현·최순홍 정려	1875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배약길 87	조카
27	효자	박희적·박기택 정려	1862	예산군 봉산면 고도길 30-10	조손
28	효자	조극선·조정교 정려	1664, 1876	예산군 봉산면 시동길 31-20	7대손

29	충훈 효자	정치방·정해열 충효정려	1927	예산군 고덕면 몽곡상몽길 253-18	8대손
30	열녀	철원김씨 정려 (김재양 부인)	1797	예산군 삽교읍 상하남길 11	
31	열녀	한양조씨 정려 (김진호 부인)	1871	예산군 대흥면 예당궁모로 368	
32	열녀	단양우씨 정려 (한홍조 부인)	1743	예산군 봉산면 봉산로 523-6	
33	열녀	우봉이씨 정려 (정현룡 부인)	1802	예산군 봉산면 봉운로 401-31	
34	열녀	박윤호 정려	1929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61번길 16	진휼기념비
35	효자	이승유 정려	1904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로 28	
36	효자	정학수 정려	1870	예산군 신양면 불원시왕길 298-18	
37	효자	박도한 정려	1892	예산군 신양면 황계길 51	
38	효자	최승립 정려	1659	예산군 광시면 총절로 2454-6	
39	효자	박승휴 정려	1689	예산군 광시면 예산로 413	
40	효자	이후직 정려	1905	예산군 봉산면 봉운로 488-13 (봉림교회 뒤편)	
41	효자	이 규 정려	1890	예산군 고덕면 사리용리길 153	
42	효자	이우영 정려	1905	예산군 고덕면 상장1길 40-28	
43	효자	김창조 정려	1927	예산군 고덕면 몽곡양금길 141-10	
44	효자	김갑(김합)정려	1816	예산군 신암면 신암남로 312-42	
45	효자	현진숙 정려	1887	예산군 신암면 안뜸 송정길 30-1	정려 현판 후손이 보관 중

문헌에 수록된 예산군 효행 정려



연 번	유형	명정 대상	신분	명정 시기	관련문헌						
					조선 왕조 실록	여지 도서	충청 도읍지	호서 읍지	효행제 등록	동국신속 행실도와 삼강행실도	조선환 여승람
1	효자	백춘복	서인	광해군		○				○	
2	효녀	재개	사비			○	○	○		○	○
3	효자	윤이·풍이	사노	광해군		○				○	
4	효자	이문경	봉사	명조		○	○	○		○	
5	효부	이복룡 아내유덕	시비	인조						○	
6	효자	박충		1573 (선조 6)						○	
7	효자	박원충		광해군		○		○		○	○
8	열녀	춘덕	사비							○	○
9	열녀	장중연의 딸매읍덕		1503 (연산군 9)	○					○	
10	효자	김순과 김가외 형제	사정	1428 (세종 10)	○						

28	효부	이도영 모친 권씨		1783 (정조 7)					○		○
29	효자	이갑준	사과			○	○	○			○
30	효자	양만영	좌랑	1706 (숙종 32)		○	○	○	○		○
31	효자	박승건	현감	1703 (숙종 29)		○	○	○	○		
32	효자	이석남	사노	1655 (효종 6)					○		
33	효자	전현	감역	1669 (현종 10)					○		
34	효자	홍계성	학생	1703 (숙종 29)					○		
35	효부	이준찬 부인 강씨		1729~ 1736					○		
36	효자	김근				○	○	○			○
37	효자	이덕채	사인	1807 (순조 7)	○						
38	효자	김맹						○	○		○
39	효녀	신중영 여아 2인		1713 (숙종 39)					○		
40	효자	박상주	학생			○					
41	효자	성한익	학생			○					
42	열녀	김태벽 부인 강씨		1729~ 1736					○		
43	효자	이상		세종					○		
44	효자 효부	이희정과 장씨 부부		1893 (고종)					○		
45	효자	정세익	군수			○					

46	열녀	홍덕록 부인이조사		1756 (영조 32)	○						
47	효자	최준발·최준천· 최준극 삼형제	충의		○						
48	열녀	이시배 부인 송씨			○						
49	열녀	원두표의 증손녀 원씨		1756 (영조 32)	○						
50	효부	강효민 아내 장씨			○						
51	열녀	박성망 아내 황씨			○						

참고문헌



□ 참고문헌(자료)

-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도 제7권, 8권의 주해》, (세종 한글 고전)
- 『여지도서』
- 『예산군지(국역본)』, 예산군 교육회, 1937.3.
- 『예산군지』, 2001
-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고전종합 DB』, 한국고전번역원
- 『한국 효 문화자료 보감』, 충청남도 편(한국 효문화진흥원)
- 『한포재집 권 9 서문』, 채현경, ‘전주대학교에서 번역한 ‘한씨총열록서 서문’
- 『12개 읍·면지』, (예산읍, 삽교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대홍면,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
-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 국가보훈처, 1997
-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국역연수원』, ‘수원 교양강좌 자료’

□ 참고문헌(저서)

- 김창배 수필집, 『어머니 사랑해요』, 원광 프린팅, 2013
- 김창배 수필집, 『평정이 바라본 조선시대 예산의 삶』, 뉴매헌출판, 2024
- 김창배 시집, 『어머니의 우주선』, 뉴매헌출판, 2023
- 『문화유적분포지도』, 예산군(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2001
- 박성묵 예산지역사연구소장, 『예산동학혁명사』, 도서출판 화담, 2007
- 『삽교 이야기』 예산군, 예산군 행복마을 지원센터, 2023
-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2016
- 신익선 시집 『그리운 저 땅기』, 문화의 힘, 2014
- 『시로 쓴 조선의 레전드 추사 김정희 1』, 추사의 삶과 죽음 (한영시집), 신익선·정미선
- 『예산군의 효행과 우애』, 예산군(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 역사 문화연구소), 2002
- 『예산의 맥』, 재단법인 오성장학회, 1991
- 『예산의 고지도와 지리지』, 권선정·한기범, 예산문화원, 2018
- 『예산의 금석문』, 예산문화원, 2024
- 『예산의 설화』, 예산문화원, 1999
- 『예산의 성씨 I』, 예산문화원, 2024
- 『인물로 본 예산의 정신』, 예산문화원, 2022
- 『정일현 시집』, 남정일현, 문희순(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역주, 2015
- 『조선왕조실록 속의 예산』, 예산문화원, 2022
- 『조선의 왕으로 살아가기』, 한국학중앙연구원, 돌베개, 2011
- 『충남의 충·효·열에 관한 기초문헌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1999
-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 문화전자 대전』

□ 참고문헌(논문)

- 『공주의 혼인, 열녀가 된 화순옹주』, 이순구(서울시 문화재 위원) 2021
- 『영조의 딸 열녀 화순옹주의 삶과 죽음』, 박주(대구가톨릭대 역사교육과 교수)
- 『월성위 김한신 가문의 공간이 갖는 역사적 의미』, 김인경(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국 한시에서의 여성적 욕망의 발현과 징치』, 이택동(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의 논문집)

2025년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 문학발굴 육성 지원사업

旌門으로 알아본 예산의 효행 정신

김창배 지음

2025년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 문학발굴 육성 지원사업

旌門으로 알아본 예산의 효행 정신

김창배 지음

2025년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 문화발굴 육성 지원사업

旌門으로 알아본
예산의 효행 정신
김창배 지음

발행일 2025. 06. 20.

발행인 김태영

기획인 박세진 / 행정인 이다연, 정아란

발행처 예산문화원

인쇄처 뉴매현출판(T. 070-4188-0220)

ISBN 979-11-968858-9-2(03090)

- 본 서적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에는 예산문화원과 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본 서적을 무단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본 서적은  충청남도와 예산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나는 예산군에 산재한 40여 곳의 정려각을 탐방했다. 정문을 받은 이들은 정문을 받을 만한 정절과 효를 실천했다. 정려에 기록된 사연들은 모두 애절하다. 문헌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힘들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이제 이들이 실천한 충·효·열을 되새기고 문헌 자료를 정비하고 정려각을 보존하는 일은 시급하고 중요하다. 후손이 없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정려각의 관리가 소홀하며 일부는 흉물이 되어 있었다. 이를 살펴 예산 선조들의 효행 실천의 지표인 정려각을 정비하는 일은 예산 지역의 문화재를 되살리는 일인 한편 지역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일이다.

- 「서문」 중에서

